

한국 국가와 개인의 경제활동

韓國의 家計와 個人의

經濟活動실태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자료 분석-

패널팀

(고용보험연구센터)

序 言

고도성장과 완전고용을 구가하던 한국경제는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시작된 소위 'IMF경제'라 불리는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다. 1998년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상실하고 급상승하는 실업률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시기였다. 하나 당시 노동시장의 문제를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할 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으며, 산발적으로 실시된 실태조사만으로는 실업대책의 방향과 효과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시기였다.

실업대책을 포함한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미시자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함을 인식한 본원은 1998년 부설 고용보험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의 가계와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코자 한국노동패널의 제1차 조사를 시작하였다. 패널조사란 한 시점에서 모집단을 대표하는 일정 표본을 설정하고 이들을 장기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조사함으로써 횡단면자료가 갖는 장점과 시계열자료가 갖는 장점을 동시에 제공해 주는 자료이다.

본 연구는 총 11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한국 노동패널의 조사목적 및 표본추출방법이 제시되어 있고, 제2장부터 11장까지는 실사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며, 부록에서는 실사에 사용된 설문지와 실사 및 분석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를 수록하였다. 자료분석은 크게 가계경제분석, 개별가구원의 경제활동상태의 심층적인 분석, 그리고 만족도와 최근 경제위기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제2장의 가계경제 분석은 가구의 일반적 특성, 자녀교육, 주거생활, 소득 및 생활비, 저축과 부채,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의 변화

등을 보여준다. 제2장부터 제10장까지의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분석은 개인의 특성 및 인구이동,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특성, 고용형태, 근로시간, 근로소득, 실업자의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제11장은 생활 및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최근의 경제위기가 근로자에게 미친 영향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점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기초자료인 한국노동패널 1차 조사는 본원의 금재호 연구위원의 주도로 실시되었으며 원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이 설문지 작성에 도움을 주었다. 실사를 담당한 한국리서치의 노익상 소장과 김용섭 부장, 80여 명의 조사요원들, 그리고 설문에 응해 준 5,000가구의 애정으로 중요한 자료가 탄생하게 된 점을 강조한다. 패널자료의 수집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필요성을 인식한 노동부가 선뜻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

본 연구는 본원의 방하남, 안주엽, 장지연 연구위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연구수행과정에서 원내외의 많은 분들이 보내준 깊은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저자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 자료정리와 전산분석, 그리고 초고작성을 책임진 본원 고용보험연구센터 노동패널팀의 박은경, 호정화, 정혜원 연구원들의 노고에 대한 치하도 빠뜨릴 수 없다. 그리고 출판을 담당한 박찬영 전문위원을 비롯한 출판팀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

한국노동패널 1차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노동시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연구들이 1999년 12월 제1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를 통하여 발표되며, 2차 자료의 실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보다 풍부한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국내외 학계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모두 필자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둔다.

1999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
원 장 박 회 구

目 次

第1章 序 論	1
第 1 節 韓國勞動패널 調查 目的	1
第 2 節 標本抽出 方法	3
1. 표본의 크기	3
2. 표본틀 및 추출방법	5
3. 표본과 관련된 기준	7
第 3 節 實查 進行過程	9
1. 조사방법	9
2. 한국노동패널 실사 총괄	9
3. 원표본 성공률과 표본 대체율	10
第 2 章 家 口	17
第 1 節 調查對象 家口의 一般的 特性	17
1. 세대 및 가구구성	17
2. 가구주의 특성	19
第 2 節 子女保育(初等學校 3學年 以下)	20
1. 보육시설·교육기관과 탁아모 이용 여부	20
2. 보육시설·교육기관	22
3. 탁아모	24
第 3 節 住居生活	26

1. 입주형태와 주택의 종류	26
2. 주택 규모	28
3. 입주비용	28
4. 평균 거주기간	32
第 4 節 家計經濟	33
1. 소 득	33
2. 저 축	38
3. 부 채	38
4. 생활비	39
5.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의 소득 및 소비 변화	41
6. 경제적 어려움	42
第 5 節 社會保險	44
第 3 章 個人 特性 및 人口移動分析	47
第 1 節 個人應答者의 人口學的 特性	47
1. 연령, 거주구와의 관계, 혼인상태 및 교육수준	47
2. 종 교	49
第 2 節 出生地, 成長地, 居住地 및 人口移動	50
1. 거주지	50
2. 출생지와 성장지	53
3. 인구이동	54
第 3 節 婚姻狀態와 子女	56
1. 혼인상태	56
2. 자 녀	59
第 4 節 家計의 背景	60
1. 아버지의 교육수준	60

2. 14세 무렵 아버지의 경제활동상태	60
第 4 章 經濟活動狀態	64
第 1 節 人口學的 特性和 經濟活動狀態	64
第 2 節 家口主와의 關係別 經濟活動 狀態	65
第 3 節 居住地別 經濟活動狀態	67
第 5 章 就業者 特性	69
第 1 節 就業者 分布	69
1.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69
2. 산업과 직업	70
3. 기업체 종류와 사업체 규모	70
第 2 節 人口特性別 就業形態	74
1. 산 업	74
2. 직 업	75
3. 기업체 종류	75
4. 사업체 규모	79
5. 노동조합	79
第 3 節 副 業	82
1. 부업 여부 및 부업 이유	82
2. 부업의 주당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일수 및 월평균 수입	82
第 6 章 賃金勤勞者の 雇傭形態	85
第 1 節 勤勞契約과 從事上地位	85

1. 근로계약	85
2. 종사상지위	89
第 2 節 勤勞時間 形態	93
1. 인구학적 특성	93
2. 기업체 특성	95
第 3 節 正規職과 非正規職	95
1. 인구학적 특성	97
2. 기업체 특성	97
第 4 節 雇傭形態間의 關係	100
第 7 章 勤勞時間	103
第 1 節 勤勞時間의 規則性	103
1. 근로시간 및 정기휴무	103
2. 기업체 특성	104
第 2 節 正規勤勞	106
1. 정규근로시간	106
2. 인구학적 특성	107
3. 기업체 특성	108
第 3 節 超過勤勞	111
1. 초과근로와 초과급여	111
2. 기업체 특성	113
第 4 節 勤勞交代制	115
第 8 章 勤勞所得	116
第 1 節 賃 金	116

1. 임금지급 및 결정방식	116
2. 성과급제	117
3. 임금수준	118
第 2 節 非賃金勤勞者の 勤勞所得	123
1. 인구학적 특성	124
2. 기업체 특성	124
第 9 章 求職活動	129
第 1 節 未就業者	129
1.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활동 여부 및 비구직 사유	129
2. 미취업자들의 구직사유	133
3. 희망하는 일자리의 산업 및 직업	140
4. 희망하는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	150
5. 희망하는 직업의 희망소득 및 구직활동	163
6. 구직시 어려움	173
7. 구직기간, 구직 시간 및 구직횟수	177
第 2 節 就業者	181
1. 현직장 취업 정보 및 경로	181
2. 임금근로자의 취업시 어려움 및 현 일자리 선택 사유	185
3. 비임금근로자의 창업시 어려움 및 현 일자리 선택 사유	191
4. 앞으로의 계획	193
5. 희망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 및 희망 근로시간	196
6. 희망 직업	203
7. 구직활동 여부 및 구직방법	204
8. 구직시 어려움	209
9. 구직기간	213

第 10 章 職業訓練	216
第 1 節 職業訓練 經驗 與否 및 職業訓練 種類	216
第 2 節 職業訓練 場所 및 費用負擔	220
第 3 節 職業訓練 期間 및 週當 教育時間	224
第 4 節 職業訓練 希望 및 希望 職業訓練 種類	226
第 11 章 滿足度와 最近의 經濟危機	230
第 1 節 生活滿足度	230
第 2 節 職業滿足度	233
第 3 節 家計의 生活費 負擔	238
1. 취업자의 생활비 부담 정도	238
2. 미취업자의 생계유지방법	240
第 4 節 1997年 末 經濟危機 以後의 變化	241
1. 임금 근로자	241
2. 비임금근로자	243
3.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점	244
附錄: 說問紙의 構成 및 內容	247
1. 설문지 기본 목적	247
2. 설문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	247
3. 설문지	262

表 目 次

<표 1-1> 설문대상자의 연령별 분포 : 예상치	4
<표 1-2> 필요 최대표본수	5
<표 1-3> 시·도별 모집단 및 표본규모현황	7
<표 2-1> 가구원수	18
<표 2-2> 거주지별 세대구성	18
<표 2-3> 핵가족 형태별 구성	19
<표 2-4> 가구주와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비교	20
<표 2-5>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	21
<표 2-6> 초등학교 3학년이하 자녀수	22
<표 2-7> 보육시설·교육기관과 탁아모 이용 여부	23
<표 2-8> 보육시설·교육기관	25
<표 2-9> 탁아모	26
<표 2-10> 탁아모별 탁아비용 지불 여부	27
<표 2-11> 자녀 1명당 탁아 비용	27
<표 2-12> 거주지별 입주형태	28
<표 2-13> 거주지별·입주형태별 주택의 종류	29
<표 2-14> 단독주택의 거주지별 대지면적	30
<표 2-15> 단독주택의 거주지별 연건평	30
<표 2-16>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거주지별 평수	30
<표 2-17> 자가 주택의 평당 시가	31
<표 2-18> 자가가 아닐 경우 월평균 주거비	31
<표 2-19> 평당 월평균 주거비	32
<표 2-20> 거주지별 평균 거주기간	33

<표 2-21> 월평균 가구 총소득	34
<표 2-22> 월평균 근로소득	35
<표 2-23> 연평균 금융소득	36
<표 2-24> 연평균 부동산소득	36
<표 2-25> 월평균 이전소득	37
<표 2-26> 월평균 기타소득	38
<표 2-27> 월평균 저축액	39
<표 2-28> 부채 여부 및 부채 총액	40
<표 2-29> 월평균 부채 원금 및 이자상환금	40
<표 2-30> 월평균 생활비	41
<표 2-31> 월평균 가구 총소득별 경제위기 이후 소득의 변화	42
<표 2-32> 월평균 가구 총소득별 경제위기 이후 소비의 변화	43
<표 2-33> 월평균 가구 총소득별 경제적 어려움 여부	43
<표 2-34> 월평균 가구 총소득별 경제적 어려움의 내용	44
<표 2-35> 사회보험 수급자 유무와 수급자 수	45
<표 2-36> 사회보험의 종류	46
<표 3-1> 개인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48
<표 3-2> 개인 응답자의 연령별 교육수준	49
<표 3-3> 인구학적 특성별 종교 유무와 종류	50
<표 3-4> 현재 거주지의 성별 분포	51
<표 3-5> 거주지별 연령, 교육수준 분포	52
<표 3-6> 출생지와 14세 무렵 성장지	53
<표 3-7> 출생지, 성장지, 거주지간의 이동	54
<표 3-8> 연령별 성장지-거주지간의 이동률	55
<표 3-9> 혼인 여부별 성별 성장지-거주지간의 이동률	55
<표 3-10> 성별·연령별 혼인상태	57
<표 3-11> 인구학적 특성별 초혼 연령	58
<표 3-12> 처음 배우자와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재혼 여부	59
<표 3-13> 연령별 출산경험 유무와 초산연령, 자녀수	59

<표 3-14> 아버지의 교육수준	61
<표 3-15> 아버지와 자녀의 교육수준 비교	61
<표 3-16> 14세 무렵 아버지(어머니)의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62
<표 3-17> 부모와 자녀의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일치 여부	63
<표 4-1> 인구학적 특성별 경제활동상태	66
<표 4-2> 가구주와의 관계별 경제활동상태	67
<표 4-3> 현 거주지별 경제활동상태	68
<표 5-1> 인구학적 특성별 취업자 분포	71
<표 5-2> 산업과 직업별 취업자 분포	72
<표 5-3> 기업체 종류와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분포	73
<표 5-4>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	76
<표 5-5>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 분포	77
<표 5-6>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기업체 종류	78
<표 5-7>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사업체 규모	80
<표 5-8>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노동조합 유무 및 가입 여부 ·	81
<표 5-9> 취업자의 부업 여부와 부업 이유	83
<표 5-10> 남녀 취업자의 혼인상태별 부업	84
<표 6-1>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근로 계약	87
<표 6-2> 임금근로자의 기업체 특성별 근로 계약	88
<표 6-3>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종사상 지위 분포	91
<표 6-4> 임금근로자의 기업체 특성별 종사상지위 분포	92
<표 6-5>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근로시간 형태	94
<표 6-6> 임금근로자의 기업체 특성별 근로시간 형태	96
<표 6-7>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정규·비정규직 분포	98
<표 6-8> 임금근로자의 기업체 특성별 정규·비정규직 분포	99
<표 6-9> 임금근로자의 근로 시간 형태와 그 외 고용	100
형태간의 관계	
<표 6-10> 임금근로자의 정규·비정규와 종사상지위간의 관계	101
<표 6-11> 임금근로자의 근로 계약의 유무와 고용 형태간의 관계 ·	102

<표 7-1> 취업자의 경제활동상태별 근로시간과 정기휴무	104
<표 7-2> 취업자의 기업체 특성별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	105
및 근로일수	
<표 7-3> 취업자의 경제활동상태별 정규근로시간의 유무와	107
근로시간의 분포	
<표 7-4>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109
<표 7-5> 취업자의 기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110
<표 7-6> 임금근로자의 초과 근로	111
<표 7-7> 임금근로자의 초과급여	112
<표 7-8> 임금근로자의 기업체 특성별 초과 근로시간	114
<표 7-9> 임금근로자의 근로 교대제	115
<표 8-1> 임금근로자의 임금 지급 주기와 임금결정방식	117
<표 8-2> 임금근로자의 성과급제	118
<표 8-3>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임금	119
<표 8-4> 임금근로자의 기업체 특성별 월평균 임금	120
<표 8-5>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시간당 임금	121
<표 8-6> 임금근로자의 기업체 특성별 시간당 임금	122
<표 8-7>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소득	125
<표 8-8> 비임금근로자의 기업체 특성별 월평균 소득	126
<표 8-9>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시간당 소득	127
<표 8-10>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기업체 특성별 시간당 소득	128
<표 9-1>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	130
<표 9-2>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	131
<표 9-3> 비경제활동인구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이유	132
<표 9-4> 실업자들의 구직사유	136
<표 9-5>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사유	139
<표 9-6> 실업자가 희망하는 일자리의 산업	142
<표 9-7> 비경제활동인구가 희망하는 일자리의 산업	143
<표 9-8> 미취업자의 산업 변화 희망 비중	145

<표 9-9> 실업자가 희망하는 일자리의 직업	147
<표 9-10> 비경제활동인구가 희망하는 일자리의 직업	148
<표 9-11> 미취업자의 직업 변화 희망 비중	149
<표 9-12> 실업자가 희망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	151
<표 9-13> 비경제활동인구가 희망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	153
<표 9-14> 실업자 중 이전직장이 있었던 경우, 희망하는 일자리 의 고용형태	154
<표 9-15> 비경제활동인구 중 이전 직장이 있었던 경우, 희망하는 .. 일자리 의 고용형태	155
<표 9-16> 미취업자의 희망 근로시간 형태	157
<표 9-17> 미취업자의 이전직장 고용형태에 따른 희망하는 .. 일자리 의 근로시간	159
<표 9-18> 실업자의 시간제 근로 희망사유	160
<표 9-19> 비경제활동인구의 시간제 근로 희망사유	162
<표 9-20> 미취업자의 희망최저소득	165
<표 9-21> 비경제활동인구의 지난 1년간 구직활동 여부	166
<표 9-22> 미취업자의 사용하는 구직방법 갯수	167
<표 9-23> 실업자의 구직방법	168
<표 9-24>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방법	171
<표 9-25> 실업자의 구직시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별 비중	174
<표 9-26>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시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별 비중 ..	176
<표 9-27> 미취업자의 평균 구직기간	178
<표 9-28> 미취업자의 평균 주당 구직시간	179
<표 9-29> 미취업자의 평균 구직횟수	180
<표 9-30> 임금근로자의 현직장 취업정보	183
<표 9-31> 임금근로자의 구직경로	184
<표 9-32> 임금근로자의 취업시 어려움	187
<표 9-33> 임금근로자의 현 일자리 선택 사유	189
<표 9-34> 임금근로자의 직장 선택 이유	190

<표 9-35> 비임금근로자의 창업시 어려움	194
<표 9-36>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선택 사유	195
<표 9-37> 취업자의 계획	198
<표 9-38> 취업자가 희망하는 고용형태	199
<표 9-39> 취업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	200
<표 9-40> 취업자의 시간제 희망 사유	202
<표 9-41> 취업자가 희망하는 직업	205
<표 9-42> 취업자의 구직활동 여부	207
<표 9-43> 취업자의 구직방법	208
<표 9-44> 취업자의 구직시 어려움	211
<표 9-45> 취업자의 구직 기간 분포	213
<표 9-46> 취업자의 평균 구직기간	214
<표 10-1> 직업훈련 경험 여부	218
<표 10-2> 직업훈련 종류	219
<표 10-3> 직업훈련의 장소	222
<표 10-4> 직업훈련 비용 부담자	223
<표 10-5> 직업훈련 기간 및 주당 교육시간	225
<표 10-6> 직업훈련 희망 비중	227
<표 10-7> 직업훈련 희망 계열	228
<표 11-1> 생활만족도	231
<표 11-2> 인구학적 특성별 생활만족도	232
<표 11-3> 경제활동상태와 개인소득수준별 생활만족도	233
<표 11-4> 취업자의 직업만족도	235
<표 11-5>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만족도	236
<표 11-6> 임금근로자의 직업만족도	237
<표 11-7>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생활비 부담정도	239
<표 11-8> 미취업자의 생계유지방법	240
<표 11-9> 경제위기 이후 임금근로자의 임금 변화	241
<표 11-10> 경제위기 이후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변화	242

<표 11-11> 경제위기 이후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의 변화 ..	243
<표 11-12> 경제위기 이후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매출액 변화	245
<표 11-13> 인구학적 특성별 실업문제 해결 정책	246

◆ 執筆陣

- 房 河 男
 - 美國 위스콘신大學校 社會學 博士
 - 現 韓國勞動研究院 研究調整室長
- 安 周 燁
 - 美國 오하이오州立大學校 經濟學 博士
 - 現 韓國勞動研究院 副研究委員
- 張 芝 延
 - 美國 위스콘신大學校 社會學 博士
 - 現 韓國勞動研究院 招聘研究委員
- 朴 恩 瓊
 - 梨花女子大學校 社會學 碩士
 - 現 韓國勞動研究院 研究員
- 扈 楨 禾
 - 梨花女子大學校 社會學 碩士
 - 現 韓國勞動研究院 研究員
- 鄭 惠 媛
 - 梨花女子大學校 經濟學 碩士
 - 現 韓國勞動研究院 研究員

韓國 家口와 個人的 經濟活動

1999년 12월 15일 인쇄
1999년 12월 20일 발행

발행인 朴 烜 求

발행처

주 소 1510-0110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16-2 中小企業會館 9層
☎ (代)(02) 782-0141 Fax : (02)786-1862

조판·인쇄 거 목 기 획
(代) 706-7077

등록일자 1988년 9월 14일
등록번호 제13-155호

86.3 66.2 77.9 53 0.2 0.4 1.0 2.1 17.9 5.1. 19.4 7.6 11.7 5.1 15.7
7.9 1.2 1.3 2.9 1.4 1.9 0.8 8.1 2.8 0.5 0.5 0.5 0.3

86.3 66.2 77.9 53 0.2 0.4 1.0 2.1 17.9 5.1. 19.4 7.6 11.7 5.1 15.7
7.9 1.2 1.3 2.9 1.4 1.9 0.8 8.1 2.8 0.5 0.5 0.5 0.3

86.3 66.2 77.9 53 0.2 0.4 1.0 2.1 17.9 5.1. 19.4 7.6 11.7 5.1 15.7
7.9 1.2 1.3 2.9 1.4 1.9 0.8 8.1 2.8 0.5 0.5 0.5 0.3

86.3 66.2 77.9 53 0.2 0.4 1.0 2.1 17.9 5.1. 19.4 7.6 11.7 5.1 15.7
7.9 1.2 1.3 2.9 1.4 1.9 0.8 8.1 2.8 0.5 0.5 0.5 0.3

86.3 66.2 77.9 53 0.2 0.4 1.0 2.1 17.9 5.1. 19.4 7.6 11.7 5.1 15.7
7.9 1.2 1.3 2.9 1.4 1.9 0.8 8.1 2.8 0.5 0.5 0.5 0.3

86.3 66.2 77.9 53 0.2 0.4 1.0 2.1 17.9 5.1. 19.4 7.6 11.7 5.1 15.7
7.9 1.2 1.3 2.9 1.4 1.9 0.8 8.1 2.8 0.5 0.5 0.5 0.3

86.3 66.2 77.9 53 0.2 0.4 1.0 2.1 17.9 5.1. 19.4 7.6 11.7 5.1 15.7
7.9 1.2 1.3 2.9 1.4 1.9 0.8 8.1 2.8 0.5 0.5 0.5 0.3

86.3 66.2 77.9 53 0.2 0.4 1.0 2.1 17.9 5.1. 19.4 7.6 11.7 5.1 15.7
7.9 1.2 1.3 2.9 1.4 1.9 0.8 8.1 2.8 0.5 0.5 0.5 0.3

第 1 章

序 論

第 1 節 韓國勞動패널 調査 目的

패널자료란,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 각각의 장점을 모두 지니고 있다. 패널데이터는 노동시장의 분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횡단면데이터¹⁾의 모든 장점을 갖추고 있으며, 더불어 횡단면데이터로는 파악할 수 없는 추가적인 장점을 지닌다.

첫 번째로 시계열적 자료의 장점을 제시하면 시간의 경과 및 정부정책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 또는 가구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양식의 동태적인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횡단면 분석에서도 과거 사실에 대한 회상적 질문을 통하여 이러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만, 오래된 과거에 대한 회상적 기록은 그 정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과거 사실 이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과거의 사실이 변색되어 기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패널자료는 당시의 상황을 질문함으로써 과거의 사실에 대한 변색이나 왜곡 없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자료들이 모여서 변화를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횡단면데이터에서는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간의 변이과정 (transition between states)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직자가 1년간

1) 고용구조특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이 있다.

의 구직활동 끝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였다고 하면,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어떤 구직방법을 사용하였는지, 구직활동에 투입한 노력은 어느 정도인지, 노동시장을 이탈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한 파악은 패널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만이 획득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이다.

마지막으로 시계열 자료를 통하여 특정기간 효과, 특정연령 효과, 그리고 동시태생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특정기간 효과(period specific effect)란, 시간에 따라서는 변화하나 주어진 특정기간 내에서는 모든 응답자들에게 동일한 경우를 지칭한다. 그리고 특정연령 효과(age specific effect)란, 연령에 따라 변화하지만 특정연령의 응답자들에게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동시태생 효과(cohort effect)란, 어떤 특정한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동일하지만 그렇지 않은 때에는 상이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효과들의 정확한 분석은 패널자료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므로 패널조사는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선진국들에서는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패널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현재의 우리 나라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과 함께 노동시장에서도 질적·양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노동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그리고 올바른 노동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데이터의 뒷받침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노동관련 통계조사는 그 내용이 빈약하여 노동시장의 이해 및 정책 결정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노동관련 통계조사는 모두 사업체 조사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노동력의 수급 및 이동상황, 임금과 근로시간의 수준 및 그 변동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는 실업급여 수준의 결정, 여성의 고용 촉진, 파견근로제도의 실시 여부 등과 같은 각 개인의 특성 및 의사결정에 바탕을 둔 미시적 노동정책의 합리적 결정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에 관한 관심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나,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통계자료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시계열 데이터가 가지는 장

점 중 하나인 특정기간 효과 분석을 통하여 각종 노동정책의 효과 및 효율성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의 입안이나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로서 패널자료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한국노동패널조사는 기존의 노동관련 자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노동관련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합리적이고 정확한 고용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기여하고자 시행되었다.

第 2 節 標本抽出 方法

1. 표본의 크기

노동패널조사에서는 표본크기를 5,000가구로 선정한다. 통계청의 추계에 의하면 1가구당 15세 이상 가구원수는 평균 2.75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설문대상자는 총 13,770명에 달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설문대상자가 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정확하게 반영한다면 설문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는 <표 1-1>과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본의 크기는 유의수준, 허용오차 및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소득, 저축 등의 수량적인 변수의 경우 모집단에서 단순임의추출 (simple random sampling)할 경우에 요구되는 표본크기는 다음의 식과 같다.

$$n = \frac{N}{(\rho/z(\alpha))^2 \frac{N-1}{\sigma^2} + 1}$$

여기에서 α = 유의수준, $1 - \alpha$ = 신뢰도,

$z(\alpha)$ = 정규분포의 표에서 α 에 해당하는 z 값,

ρ = 허용오차, N = 모집단의 크기, σ^2 = 모분산의 값을 의미한다.

<표 1-1> 설문대상자의 연령별 분포 : 예상치

(단위 : 명)

연령계급	남 성	여 성	전 체
15 ~ 19	799	751	1,550
20 ~ 24	786	740	1,526
25 ~ 29	886	840	1,726
30 ~ 34	824	783	1,607
35 ~ 39	855	815	1,670
40 ~ 44	718	692	1,410
45 ~ 49	512	450	962
50 ~ 54	422	420	842
55 ~ 59	384	402	786
60 ~ 64	309	353	662
65세 이상	444	733	1,177
전 체	6,939	6,979	13,770

또한, 취업유무, 거주지,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의 질적 변수인 경우에 모분산(σ^2)은 $p(1-p)$ 가 되며, 표본크기(n)는 다음 식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n = \frac{N}{(\rho/z(\alpha))^2 \frac{N-1}{p(1-p)} + 1}$$

이 때 표본크기는 $p=0.5$ 일 때 최대가 된다.

위의 식에서 모집단의 수가 아주 클 때에는 유의수준과 허용오차만 결정되면 최대의 표본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유의수준(α)를 0.05로 고정하고 허용오차(ρ)를 $\pm 1\%$, $\pm 2\%$, $\pm 3\%$ 로 할 때의 필요 최대표

본수는 <표 1-2>와 같다.

<표 1-2> 필요 최대표본수

허용오차	± 0.01	± 0.02	± 0.03
최대표본수	9,604	2,401	1,068

우리 나라의 경우 가구수는 1997년에 1,296만 1,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유의수준 0.05, 허용오차 ± 0.02 의 범위를 만족시키기 위한 최대 표본수는 2,401가구 정도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구수는 표본추출방법이 단순임의추출법을 사용하였을 때의 숫자이며, 다단계층화추출법이나 계통추출법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표본수가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에 부딪힌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2단계집락계통추출법(two-stage cluster systematic sampling)을 사용하여 먼저 1,000개의 조사구를 선정하고, 선정된 조사구(SSU)에서 각기 5가구를 임의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그 결과 유의수준과 허용오차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대 표본수는 단순임의추출법을 사용하였을 경우의 2배가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노동패널 조사의 5,000가구는 유의수준을 0.05로 하였을 때 허용오차 ± 0.0196 를 만족시키게 된다.

2. 표본틀 및 추출방법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전국 21,938 조사구)를 모집단으로 하고 있다. 다만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 중에서 5,000가구를 직접 추출하는 작업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동시에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의 결과와의 상호비교를 위하여 추출된 표본이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의 표본에 속하도록 하였다.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인 21,938 조사구 중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이를 층화하였으며 층화의 기준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동일 지역 내에서는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층화방법을 채택하였다. 조사구의 추출방법은 계통추출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시부만을 대상으로 1,000개의 조사구를 선정하고, 각 조사구 내에서는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조사대상 가구 중에서 5가구를 임의 선정(random sampling)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렇게 계통추출한 조사구가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조사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조사구에 포함되도록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선정된 조사구의 분포는 <표 1-3>과 같으며, 조사구가 추출될 확률은 지역에 상관없이 5.3% 정도이다. 단, 서울 지역과 경기도 시부의 읍·면지역은 추출되어야 할 조사구의 숫자보다 1997년 고특의 조사구수가 적기 때문에 해당되는 모든 조사구를 포함시키고 조사구당 가구수를 5가구에서 6가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구를 선정한 후 각 조사구 내에서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에서 조사 성공한 가구들 중 임의추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5~6가구를 선정하였다.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추출하였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전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일례로 노동패널조사 표본의 광역시 이상 가구원 비중은 57.8%로 1998년 추계인구조사에서 광역시 이상의 가구원 비중이 48.8%로 나온 것에 비하여 9% 가량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시 지역에서 추출한 5,000가구와 그 가구에 속해 있는 15세 이상의 인구를 그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 1-3〉 시·도별 모집단 및 표본규모 현황

시·도명	모집단 조사구수	고용구조특별조사 조사구수	한국노동패널 조사 조사구수
서울	5,186	227	227
부산	1,841	176	97
대구	1,212	155	64
인천	1,116	150	59
광주	607	106	32
대전	592	101	31
울산	456	70	24
경기	3,624	280	167
강원	725	165	26
충북	694	159	22
충남	865	122	25
전북	967	170	40
전남	996	152	25
경북	1,372	129	54
경남	1,878	290	58
전체	21,938	2,497	951

3. 표본과 관련된 기준

가. 표본 대체

- 1) 주소불명인 경우(주소가 기록상으로는 있지만 실제로는 없는 경우) : 대체
- 2) 조사대상자가 거주지에서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살았던 적은 없고 주소만 올려놓은 경우 : 대체
- 3) 조사대상에 절(寺)이 표집되었으며 순수한 종교활동을 하는 승려만이 거주하는 경우 : 대체

나. 이사 추적

- 1) 조사대상자가 거주지에서 지난 1년 동안 살았던 적이 있었고 현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경우 : 조사대상자를 추적함.

다. 성공가구와 실패가구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 설문지가 빠진 경우

- ☞ 가구 안의 경제활동인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성공가구로 봄. 빠진 설문지는 다음해에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함. 즉,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가 미취업자인 경우는 설문지를 받지 않더라도 성공가구이지만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임금 근로자나 비임금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패가구임.

라. 다가구 주택

: 주택으로 여러 집이 같은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 ☞ 다가구주택의 경우 그 가구 내에 사는 모든 가구들을 단독가구로 처리
- ☞ 다가구주택의 주소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조사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구만을 조사함
- ☞ 조사대상자가 없고 추적도 불가능한 경우 대체함

第 3 節 實查 進行過程

1.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면접 타개식 조사방법으로 면접원이 직접 조사대상자의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특히 가구용 설문지의 경우는 가구에 유치하거나 타인이 대리하는 일이 없이 가구원이 반드시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인용 설문지의 경우에, 면접을 기본으로 하지만 응답자를 만날 수 없거나 응답을 거부할 때는 설문지를 가구에 유치하여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에 기입하는 방법을 보충적으로 사용하였다.

2. 한국노동패널 실사 총괄

총조사표본수	→	5000가구, 총인원은 17,505명 15세 이상 가구원 13,738명 중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은 13,317명
총투입 면접원수	→	129명
실사 기간	→	1998년 6월 2일 ~ 1998년 10월 13일
원표본 성공률	→	원표본 5,000가구 중 75.3% 성공률 : 3,773가구 (추가 표본은 24.7%로 1,227가구)
자료처리 기간	→	1998년 6월 8일 ~ 1998년 11월 27일

3. 원표본 성공률과 표본 대체율

가. 실사 결과

- ① 원표본 성공률 : 원표본 5,000가구 중 75.5%(3,773가구)의 성공률을 보였다. 나머지 24.5%(1,227가구)는 대체하여 성공하였다.
- ② 5,000가구의 구성
 - ㉠ 5,000가구의 총가구원수는 17,505명

가구당 가구원수	가구수	비 율(%)
1	517	10.3
2	655	13.1
3	965	19.3
4	1,892	37.8
5	696	13.9
6	205	4.1
7	58	1.2
8	9	0.2
9	3	0.1
전 체	5,000	100.0

- ㉡ 15세 이상 가구원은 13,738명. 그 중 응답한 사람은 13,317명
- ㉢ 13,738명의 취업상태
 - (가) 임금근로자 : 4,012명
 - (나) 비임금근로자 : 2,415명
 - (다) 미취업자 : 7,311명(무응답 : 421명)
- ㉣ 5,000가구의 지역별 분포

지 역	조사가구수	지 역	조사가구수
서울	1,362	경기	853
부산	485	강원	130
대구	320	충청	235
인천	295	전라	325
광주	160	경북	270
대전	155	경남	290
울산	120	전국	5,000

나. 실사진행 상황

1) 응답 시기 분포

응답 시기는 가구용과 각각의 개인용에서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우선 가구용 설문지를 면접원이 가구원과 만나서 작성을 한 이후에 개인용 설문지를 면접하거나 면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치를 해서 본인이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때, 개인이 설문지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응답 시기가 가구용 설문지와 달라지게 되고, 한 가구 내에서도 개인간의 응답 시기 차이가 날 수 있다.

① 가구용 설문지

월	가구수	비율(%)
6월	1,245	24.9
7월	1,366	27.3
8월	1,246	24.9
9월	593	11.9
10월	31	0.6
무응답	519	10.4
전 체	5,000	100.0

② 개인용 설문지

(단위 : 명, %)

월	개인용 설문지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
6월	3,391(24.7)	1,004(25.0)	599(24.8)	1,788(26.0)
7월	3,937(28.7)	1,157(28.8)	760(31.5)	2,020(29.3)
8월	3,576(26.0)	1,073(26.7)	640(26.5)	1,863(27.0)
9월	1,686(12.3)	547(13.6)	278(11.5)	861(12.5)
10월	98(0.7)	35(0.9)	15(0.6)	48(0.7)
무응답	1,050(7.6)	196(4.9)	123(5.1)	310(4.5)
전 체	13,738 (100.0)	4,012 (100.0)	2,415 (100.0)	6,890 (100.0)

2) 응답자 분포

① 가구용 설문지

가구주와의 관계	가 구	비 율(%)
조부모	2	-
부모	59	1.2
가구주	2,282	45.6
배우자	2,342	46.8
자녀/자녀의 배우자	275	5.5
형제자매/형제자매의 배우자	28	0.6
손자녀/손자녀의 배우자	5	0.1
기타	7	0.1
전 체	5,000	100.0

② 개인용 설문지

	본 인	대 리	전 체
면접	7,382	1,970	9,352
유치	2,585	404	2,989
전화	143	62	205
면접+전화	239	99	338
유치+전화	351	82	433
전 체	10,700	2,617	13,317

③ 임금근로자용 설문지

	본 인	대 리	전 체
면접	1,827	603	2,430
유치	1,060	123	1,183
전화	60	23	83
면접+전화	99	38	137
유치+전화	150	29	179
전 체	3,196	816	4,012

④ 비임금근로자용 설문지

	본 인	대 리	전 체
면접	1,506	292	1,798
유치	387	67	454
전화	15	10	25
면접+전화	49	15	64
유치+전화	56	18	74
전 체	2,013	402	2,415

⑤ 미취업자용 설문지

	본 인	대 리	전 체
면접	4,049	1,075	5,124
유치	1,138	214	1,352
전화	68	29	97
면접+전화	91	46	137
유치+전화	145	35	180
전 체	5,491	1,399	6,890

다. 대체가구

1) 지역별 대체율

대체율은 평균 24.5%로 1,227가구를 대체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2%로 가장 대체율이 높았다. 그리고 가장 대체율이 낮은 지역은 충청으로 1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역	대체율(%)	지 역	대체율(%)
서울	30.2	경기	27.7
부산	19.4	강원	27.7
대구	25.3	충청	16.2
인천	23.4	전라	22.5
광주	16.3	경북	24.1
대전	18.1	경남	16.9
울산	16.7	전국	24.5

2) 대체사유별 대체율

대체를 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전체 24.5%의 대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강력 거절로 11.8%, 59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사유	대체율(%)
주소불명	1.7
이사→추적 불가	6.1
이사추적→거절	0.6
강력거절	11.8
기타	4.3
전 체	24.5

3) 지역별 유형별 대체가구 수

각각의 대체사유별로 지역을 구분하여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은데, 각각의 사유들을 합하면 전체에 해당하는 비율이 된다. 서울의 경우에 강력거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울산의 경우에는 이사→추적 불가가 5.8%로 강력거절 5.0%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경남의 경우도 이사→추적 불가가 7.2%로 다른 사유에 비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

지 역	주소 불명	이사 →추적 불가	이사 추적 →거절	강력 거절	기타	전체
서 울	1.0	7.3	1.0	14.8	6.2	30.2
부 산	4.3	4.7	0.2	8.2	1.9	19.4
대 구	0.6	8.8	0.6	14.4	0.9	25.3
인 천	0.7	3.7	1.0	11.2	6.8	23.4
광 주	0.0	5.0	0.6	10.6	0.0	16.3
대 전	1.9	3.2	0.0	11.0	1.9	18.1
울 산	3.3	5.0	0.0	8.3	0.0	16.7
경 기	1.9	4.6	0.6	12.8	7.9	27.7
강 원	4.6	1.5	0.0	14.6	6.9	27.7
충 청	1.7	3.8	0.0	8.9	1.7	16.2
전 라	2.5	3.7	0.9	11.7	3.7	22.5
경 북	0.0	14.8	0.7	8.1	0.4	24.1
경 남	1.7	7.6	0.7	5.2	1.7	16.9
전 국	1.7	6.1	0.6	11.8	4.3	24.5

라. 이사 가구

1) 이사 가구 분포와 성공률

조사대상 가구 중 이사 가구는 전체의 11.3%인 563가구였다. 이 중

전체의 4.5%인 226가구를 조사 성공하였다.

(단위 : %)

지 역	파악된 총 이사가구	이사 추적 불가	이사 추적 →거절	이사 추적 →성공
서 울	10.9	7.3	1.0	2.6
부 산	13.2	4.7	0.2	8.2
대 구	13.8	8.8	0.6	4.4
인 천	10.5	3.7	1.0	5.8
광 주	12.5	5.0	0.6	6.9
대 전	13.5	3.2	0.0	10.3
울 산	11.7	5.0	0.0	6.7
경 기	8.7	4.6	0.6	3.5
강 원	5.4	1.5	0.0	3.8
충 청	7.2	3.8	0.0	3.4
전 라	6.8	3.7	0.9	2.2
경 북	17.4	14.8	0.7	1.9
경 남	18.3	7.6	0.7	10.0
전 국	11.3	6.1	0.6	4.5

第 2 章

家 口

第 1 節 調査對象 家口의 一般的 特性

1. 세대 및 가구구성

조사대상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3.5명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이 4명인 가구가 37.8%로 가장 많고, 5명 이상인 가구도 19.4%이다. 최다 가구원수는 9명이다.

세대별 구성²⁾을 보면, 2세대 가구가 전체의 67.9%로 가장 많다. 1인

2) 가구의 세대별 구성은 「'95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를 따랐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 가구구성원이 1명인 가구

1세대 가구 : 가구주와 동일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 가구주와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 또 가구주와 배우자, 그리고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가 속한다.

2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가 속한다.

3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 가구주의 손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 그리고 가구주의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등이

가구는 10.3%, 1세대 가구는 10.1%이다. 3세대 가구는 전체의 11.4%이다. 가구의 세대별 구성은 지역별로 약간 차이를 보인다. 3세대 가구의 비중은 도 지역이 12.8%인 데 비해 서울특별시는 9.2%이다. 반면 1인 가구의 비중은 서울특별시가 광역시나 도 지역보다 약간 높다.

〈표 2-1〉 가구원수

	빈 도(가구)	비 율(%)
전 체	5,000	100.0
1명	517	10.3
2명	655	13.1
3명	965	19.3
4명	1,892	37.8
5명 이상	971	19.4

〈표 2-2〉 거주지별 세대구성

(단위 : 가구, %)

	전 체	1인 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4세대 이상 가구
전 체	5,000(100.0)	517(10.3)	506(10.1)	3,396(67.9)	569(11.4)	12(0.2)
서울특별시	1,353(100.0)	149(11.0)	142(10.5)	933(69.0)	125(9.2)	4(0.3)
광역시	1,525(100.0)	153(10.0)	132(8.7)	1,066(69.9)	172(11.3)	2(0.1)
도	2,122(100.0)	215(10.1)	232(10.9)	1,397(65.8)	272(12.8)	6(0.3)

부모와 미혼 자녀, 또는 자녀 없이 부부만으로 구성된 핵가족은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76.1%를 차지한다. 양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60.1%이며, 편부모가구는 7.0%이다.

포함된다.

4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표 2-3〉 핵가족 형태별 구성

		빈 도(가구)	비 율(%)
전 체		5,000	100.0
확대 가족		1,194	23.9
핵가족	부부 단독	452	9.0
	부모 + 미혼자녀	3,004	60.1
	편부모 + 미혼자녀	350	7.0

배우자가 있는 3,951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와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취업자인 맞벌이 가구는 33.1%이며, 가구주만 취업한 가구가 44.7%로 가장 많다.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미취업자인 가구는 15.8%이다.

2. 가구주의 특성

가구주의 85.9%가 남성이다. 여성 가구주인 경우는 14.1%이다. 가구주의 연령은 40대가 28.0%, 30대가 27.1%로 3,40대가 가장 많다. 그러나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연령구성이 차이가 나는데 남성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만 45.4세인 반면, 여성 가구주는 만 52.1세로 평균 5.7세 정도 여성 가구주의 연령이 높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36.4%, 고졸 미만인 경우가 32.1%이며, 남성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여성 가구주보다 높게 나타난다. 취업자의 비중은 남성 가구주는 76.9%인 반면, 여성 가구주는 51.6%로 낮다. 세대별 구성에서도 차이가 나서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43.3%가 가구주 혼자 사는 1인 가구이다. 반면 남성 가구주의 경우 1인 가구의 비중은 4.9%에 불과하다. 전반적으로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는 60대 이상의 노인 단독 가구가 많다.

〈표 2-4〉 가구주와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비교

(단위 : 가구, %)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전 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
전 체		3,951(100.0)	1,830(100.0)	1,246(100.0)	875(100.0)
배우자의 경제활동 상태	임금근로자	754(19.1)	451(24.6)	139(11.2)	164(18.7)
	비임금근로자	805(20.4)	137(7.5)	581(46.6)	87(9.9)
	미취업자	2,392(60.5)	1,242(67.9)	526(42.2)	624(71.3)

第 2 節 子女保育(初等學校 3學年 以下)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보육과 관련된 질문을 하였다. 전체 5,000가구 중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8%인 1,540가구이다. 자녀의 수는 평균 1.5명으로 자녀가 1명인 가구가 53.1%로 가장 많다.

1. 보육시설·교육기관과 탁아모 이용 여부

자녀 개인별로 유치원, 놀이방, 사설학원 등의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에 보내거나 엄마 이외에 돌봐주는 탁아모가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전체 2,319명의 아동 중 보육시설·교육기관이나 탁아모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는 6.3%이며 보육시설만 이용하는 경우는 41.6%, 탁아모만 이용하는 경우는 6.3%이다. 그러나 절반 정도인 45.8%는 보육시설·교육기관과 탁아모 모두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표 2-5〉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

(단위 : 가구, %)

		전 체	남성 가구주	여성 가구주
전 체		5,000(100.0)	4,295(100.0)	705(100.0)
연령	15~19세	7(0.1)	5(0.1)	2(0.3)
	20~24세	60(1.2)	33(0.8)	27(3.8)
	25~29세	313(6.3)	266(6.2)	47(6.7)
	30~39세	1,357(27.1)	1,279(29.8)	78(11.1)
	40~49세	1,398(28.0)	1,241(28.9)	157(22.3)
	50~59세	983(19.7)	839(19.5)	144(20.4)
	60세 이상	882(17.6)	632(14.7)	250(35.5)
평균연령(세)		만 46.4세	만 45.4세	만 52.1세
교육 수준 ¹⁾	무학	306(6.1)	130(3.0)	176(25.0)
	고졸 미만	1,604(32.1)	1,309(30.5)	295(41.9)
	고졸	1,819(36.4)	1,664(38.7)	155(22.0)
	대졸 미만 ²⁾	147(2.9)	132(3.1)	15(2.1)
	전문대졸	241(4.8)	222(5.2)	19(2.7)
	대졸 이상	882(17.6)	838(19.5)	44(6.2)
경제 활동 상태	임금근로자	2,229(44.6)	2,003(46.6)	226(32.1)
	비임금근로자	1,440(28.8)	1,302(30.3)	138(19.6)
	미취업자	1,331(26.6)	990(23.1)	341(48.4)
세대 구성	1인 가구	517(10.3)	212(4.9)	305(43.3)
	1세대 가구	506(10.1)	475(11.1)	31(4.4)
	2세대 가구	3,396(67.9)	3,102(72.2)	294(41.7)
	3세대 가구	569(11.4)	494(11.5)	75(10.6)
	4세대 이상	12(0.2)	12(0.3)	-

주 : 1) 교육수준이 모름/무응답인 1가구는 분석에서 제외.

2) 대졸 미만은 전문대 및 일반대학의 재학, 휴학, 수료 및 중퇴자를 포함.

〈표 2-6〉 초등학교 3학년이하 자녀수

	빈 도(가구)	비율(%)
전 체	5,000	100.0
자녀 없음	3,460	69.2
자녀 있음	1,540	30.8
1명	818	53.1
2명	668	43.4
3명	54	3.5

전반적으로 보육시설·교육기관의 이용률이 높았는데 자녀의 연령별로는 4세에서 6세 사이의 학령기 전 연령대에서 78.6%로 높게 나타난다. 0세에서 3세 사이의 경우에는 탁아모가 돌보아주는 경우가 13.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탁아모 이용률이 가장 높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인 7세 이상에서는 보육시설과 탁아모의 이용률은 다시 낮아진다.

엄마의 취업 여부별로 자녀보육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엄마가 취업한 경우는 72.7%가 보육시설·교육기관이나 탁아모 둘 중 하나는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취업모의 경우 그 이용률은 45.7%로 낮아진다. 특히 취업모의 14.1%가 보육시설과 탁아모를 모두 이용하고 있는 반면, 비취업모의 경우는 2.2%만이 둘 다를 이용하고 있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시설과 탁아모의 이용률이 높아진다. 월평균 소득이 50만~1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육시설·교육기관과 탁아모의 이용률은 42.3%이나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78.6%로 높아진다.

2. 보육시설·교육기관

보육시설·교육기관에 다니는 1,11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시설·교육기관 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자녀 1명당 다니는 보육시설·교육기

〈표 2-7〉 보육시설·교육기관과 탁아모 이용 여부

(단위 : 명, %)

		전 체	보육시설 과 탁아모 모두이용	보육 시설만 이용	탁아모만 이용	모두 안함
전 체		2,319(100.0)	146(6.3)	964(41.6)	147(6.3)	1,062(45.8)
자녀 연령	0~3세	953(100.0)	20(2.1)	131(13.7)	110(11.5)	692(72.6)
	4~6세	767(100.0)	79(10.3)	524(68.3)	17(2.2)	147(19.2)
	7세 이상	599(100.0)	47(7.8)	309(51.6)	20(3.3)	223(37.2)
엄마 취업 여부	취업	695(100.0)	98(14.1)	307(44.2)	100(14.4)	190(27.3)
	미취업	1,568(100.0)	34(2.2)	646(41.2)	37(2.4)	851(54.3)
	엄마 없음	56(100.0)	14(25.0)	11(19.6)	10(17.9)	21(37.5)
월평균 가구 총소득 ^{b)}	소득 없음	77(100.0)	2(2.6)	30(39.0)	6(7.8)	39(50.6)
	50만원 미만	97(100.0)	6(6.2)	28(28.9)	14(14.4)	49(50.5)
	50만~100만원 미만	300(100.0)	13(4.3)	92(30.7)	22(7.3)	173(57.7)
	100만~150만원 미만	603(100.0)	17(2.8)	248(41.1)	13(2.2)	325(53.9)
	150만~200만원 미만	502(100.0)	21(4.2)	232(46.2)	23(4.6)	226(45.0)
	200만~300만원 미만	457(100.0)	45(9.8)	202(44.2)	34(7.4)	176(38.5)
300만원 이상	234(100.0)	37(15.8)	113(48.3)	34(14.5)	50(21.4)	

주: 1) 월평균 가구 총소득이 모름/무응답인 49명은 분석에서 제외.

관의 수는 평균 1.1개소이다. 시설의 종류로는 예체능학원이 51.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정규시간만 담당하는 유치원이 19.0%를 차지한다. 전반적으로 보육시설보다는 교육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의 경우는 단지 1명의 아동만이 이용하고 있다.

보육시설·교육기관에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 평균 21.3시간이다. 그러나 보육시설과 교육기관별로 차이가 나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일주일 평균 29.3시간이며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반 정도인 13.0시간이다. 일주일에 주말을 제외하고 주중 5일 동안 보육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면 하루 평균 5.9시간씩 맡기는 것이 된다. 교육시설의 경우는

하루 평균 2.6시간이 된다. 자녀 1명당 보육시설·교육기관에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월평균 9.3만원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인 경우가 가장 많다.

3. 탁아모

293명의 아동이 엄마 이외에 정기적으로 자녀를 돌봐주는 탁아모가 있다고 답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탁아모는 1명이다. 탁아모의 50.2%는 동거하는 가족이나 친지이며 비동거하는 가족·친지인 경우가 40.3%로 탁아모의 대부분이 가족이나 친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1명당 1주일에 탁아모에게 맡기는 시간은 평균 48.2시간이다. 10~30시간 미만으로 맡기는 경우가 32.4%로 가장 많고 70시간 이상 탁아모가 돌보는 경우도 21.2%로 높게 나타난다. 일주일 내내 24시간동안 돌보는 경우도 8.2%이다.

탁아모에게 탁아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는³⁾ 293명 중 77명으로 26.6%이다. 탁아모별 탁아비용 지불여부를 보면 동거하는 가족이나 친지에 대해서는 10.2%만이 탁아비를 지불하고 있다. 반면 비동거하는 가족이나 친지의 경우는 35.6%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많은 경우 탁아는 동거하는 가족·친지에게 비용지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탁아비용은 21.2만원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비용이 30.8%로 가장 많다.

3) 자녀별 탁아비용 지불 여부는 자녀 1명당 탁아모가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1명에 계라도 비용을 지불하면 탁아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표 2-8〉 보육시설·교육기관

		빈 도(명)	비 율(%)	
전 체		1,110	100.0	
보육시설· 교육기관수	1개	964	86.8	
	2개	130	11.7	
	3개	16	1.4	
보육시설· 교육기관 종류 ¹⁾	보육시설	탁아소	8	0.7
		어린이집	99	8.9
		놀이방	46	4.1
		유아원	49	4.4
		직장보육시설	1	0.1
		유치원(정규시간 이외)	127	11.4
	교육기관	보습학원	143	12.9
		예체능학원	566	51.0
		유치원(정규시간만 담당)	211	19.0
		개인레슨, 방문교육 및 기타	22	2.0
일주일 평균 보육시설· 교육기관에 보내는 시간	10시간 미만	311	28.0	
	10~20시간 미만	223	20.1	
	20~30시간 미만	269	24.2	
	30~40시간 미만	149	13.4	
	40시간 이상	153	13.8	
	모름/무응답	5	0.5	
	평균(시간)	21.3		
보육시설· 교육기관 월평균 비용	5만원 미만	121	10.9	
	5~10만원 미만	495	44.6	
	10~15만원 미만	332	29.9	
	15~20만원 미만	104	9.4	
	20만원 이상	47	4.2	
	모름/무응답	11	1.0	
	평균(만원)	9.3		

주: 1)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중응답으로 %는 보육시설·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자녀 수 1,110명 중의 비중임.

〈표 2-9〉 탁아모

		빈 도(명)	비 율(%)
전 체		293	100.0
탁아모 수	1명	289	98.6
	2명	4	1.4
탁아모의 구분 ¹⁾	동거하는 가족·친지	147	50.2
	비동거하는 가족·친지	118	40.3
	비동거하는 타인	29	9.9
	기 타	2	0.7
주당평균 탁아시간	10시간 미만	24	8.2
	10~30시간 미만	95	32.4
	30~50시간 미만	61	20.8
	50~70시간 미만	38	13.0
	70시간 이상	62	21.2
	모름/무응답	13	4.4
	평 균(시간)	48.2	

주: 1) 탁아모의 구분은 다중응답으로 탁아모가 있는 자녀수 293명 중의 비중이며 탁아모의 종류가 모름/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

第 3 節 住居生活

1. 입주형태와 주택의 종류

5,000가구 중 절반 이상인 55.7%가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전세의 비중은 31.1%이고 월세는 9.4%이다. 거주지별로 자가의 비중은 도 지역이 가장 높으며, 전세와 월세의 비중은 반대로 서울특별시의 경우가 가장 높다.

〈표 2-10〉 탁아모별 탁아비용 지불 여부

(단위 : 명, %)

	전 체	지불	비지불
전 체	296(100.0)	78(26.4)	218(73.6)
동거하는 가족·친지	147(100.0)	15(10.2)	132(89.8)
비동거하는 가족·친지	118(100.0)	42(35.6)	76(64.4)
비동거하는 타인	29(100.0)	21(72.4)	8(27.6)
기 타	2(100.0)	-	2(100.0)

주: 여기서의 분석단위는 아동 개인이 아니라 탁아모이며, 탁아모의 구분에 모름/무응답이라고 답한 1명은 분석에서 제외.

〈표 2-11〉 자녀 1명당 탁아 비용

	빈 도(명)	비 율(%)
전 체	78	100.0
10만원 미만	13	16.7
10만~20만원 미만	24	30.8
20만~30만원 미만	10	12.8
30만~40만원 미만	12	15.4
40만원 이상	15	19.2
모름/무응답	4	5.1
평 균(만원)	21.2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이 39.2%로 가장 많고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의 순이다. 거주지역으로 보면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비중은 광역시와 도 지역이 서울특별시보다 높다. 반면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다세대주택이 단독주택보다 더 많으며 다른 지역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입주형태별로는 자가의 경우 단독주택이 43.5%로 가장 많으며 아파트가 38.9%이다. 전세와 월세 역시 단독주택이 가장 많으나 다세대주택도 각각 29.8%와 32.3%로 높게 나타난다.

2. 주택 규모

단독주택인 경우 대지면적⁴⁾은 평균 73.1평으로 25~50평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33.5%를 차지한다. 대지면적은 지역별로 차이가 나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평균 43.3평인 반면, 도 지역은 그 배가 넘는 89.5평이다. 도 지역은 150평 이상이 17.8%가 된다.

연건평⁵⁾은 평균 25.5평이며, 61.5%의 가구가 10~30평 미만이다. 대지면적과 달리 연건평의 경우는 서울특별시가 광역시나 도 지역보다 약간 넓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40평 이상인 경우가 18.7%로 높지만 반대로 10평 미만인 경우도 15.3%로 나타난다.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는 평수만을 답하였으며 아파트 등의 평수는 실평수가 아닌 분양평수를 답하게 하였다. 평균 평수는 21.9평이며 10~20평 미만이 37.9%, 20~30평 미만이 34.8%로 10~30평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다. 지역별로는 도 지역이 평균 22.9평으로 평균 평수가 가장 넓다.

3. 입주비용

자가인 경우 주택의 평당 시가를 살펴보았다. 단독주택인 경우 주택의

〈표 2-12〉 거주지별 입주형태

(단위 : 가구, %)

	전 체	자 가	전 세	월 세	기 타
전 체	5,000(100.0)	2,785(55.7)	1,555(31.1)	471(9.4)	189(3.8)
서울특별시	1,353(100.0)	605(44.7)	563(41.6)	140(10.3)	45(3.3)
광역시	1,525(100.0)	852(55.9)	457(30.0)	161(10.6)	55(3.6)
도	2,122(100.0)	1,328(62.6)	535(25.2)	170(8.0)	89(4.2)

4) 단독주택인 경우 입주형태가 자가인 경우만 대지 면적을 답하게 하였다.

5) 단독주택이면서 입주형태가 전세나 월세, 기타인 경우는 그 가구가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연건평만을 답하게 하였다.

〈표 2-13〉 거주지별·입주형태별 주택의 종류

(단위 : 가구, %)

		전 체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비주거용 건물내의 주택	오피스텔	임시 막사	기 타
전 체		5,000 (100.0)	1,959 (39.2)	1,589 (31.8)	411 (8.2)	799 (16.0)	157 (3.1)	2 (0.0)	10 (0.2)	73 (1.5)
거주지	서울특별시	1,353 (100.0)	368 (27.2)	335 (24.8)	178 (13.2)	396 (29.3)	37 (2.7)	2 (0.1)	5 (0.4)	32 (2.4)
	광역시	1,525 (100.0)	643 (42.2)	541 (35.5)	66 (4.3)	211 (13.8)	47 (3.1)	-	1 (0.1)	16 (1.0)
	도	2,122 (100.0)	948 (44.7)	713 (33.6)	167 (7.9)	192 (9.0)	73 (3.4)	-	4 (0.2)	25 (1.2)
입주형태	자가	2,785 (100.0)	1,212 (43.5)	1,082 (38.9)	275 (9.9)	159 (5.7)	32 (1.1)	-	4 (0.1)	21 (0.8)
	전세	1,555 (100.0)	519 (33.4)	370 (23.8)	111 (7.1)	464 (29.8)	67 (4.3)	2 (0.1)	-	22 (1.4)
	월세	471 (100.0)	182 (38.6)	53 (11.3)	18 (3.8)	152 (32.3)	53 (11.3)	-	(0.4)	11 (2.3)
	기타	189 (100.0)	46 (24.3)	84 (44.4)	7 (3.7)	24 (12.7)	5 (2.6)	-	4 (2.1)	19 (10.1)
	기타									

시가를 연건평으로 나누었고 단독주택이 아닐 경우에는 평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평당 시가는 평균 328.3만원으로 200만~300만원 미만이 32.5%로 가장 많다. 거주지별로는 서울특별시가 498.2만원으로 광역시의 302.4만원이나 도의 275.9만원에 비해 크게 높아 평당 시가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37.5%나 된다. 반면 도 지역의 경우는 100만원 미만이 11.5%를 차지한다.

자가가 아닐 경우는 월평균 주거비를 구하였다.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의 이자율을 2%로 가정하고 그 이자액과 월세의 합을 월평균 주거비로 보았다. 보증금이 없는 경우는 월세만을 월평균 주거비로 하였다.

〈표 2-14〉 단독주택의 거주지별 대지면적

(단위 : 가구, %)

	전 체	25평 미만	25~50평 미만	50~100평 미만	100~150평 미만	150평 이상	평균 (평)
전 체	1,146(100.0)	123(10.7)	384(33.5)	378(33.0)	127(11.1)	134(11.7)	73.1
서울특별시	152(100.0)	27(17.8)	78(51.3)	41(27.0)	4(2.6)	2(1.3)	43.3
광역시	347(100.0)	54(15.6)	138(39.8)	119(34.3)	19(5.5)	17(4.9)	55.7
도	647(100.0)	42(6.5)	168(26.0)	218(33.7)	104(16.1)	115(17.8)	89.5

주: 단독주택이면서 입주형태가 자가인 1,212가구 중 대지면적이 모름/무응답인 66가구는 분석에서 제외.

〈표 2-15〉 단독주택의 거주지별 연건평

(단위 : 가구, %)

	전 체	10평 미만	10~20평 미만	20~30평 미만	30~40평 미만	40평 이상	평균 (평)
전 체	1,864(100.0)	189(10.1)	563(30.2)	583(31.3)	250(13.4)	279(15.0)	25.5
서울특별시	347(100.0)	53(15.3)	113(32.6)	85(24.5)	31(8.9)	65(18.7)	26.0
광역시	602(100.0)	61(10.1)	195(32.4)	179(29.7)	72(12.0)	95(15.8)	25.3
도	915(100.0)	75(8.2)	255(27.9)	319(34.9)	147(16.1)	119(13.0)	25.5

주: 단독주택인 1,959가구 중 연건평이 모름/무응답인 95가구는 분석에서 제외.

〈표 2-16〉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거주지별 평수

(단위 : 가구, %)

	전체	10평 미만	10~20평 미만	20~30평 미만	30~40평 미만	40평 이상	평균 (평)
전 체	3,017(100.0)	237(7.9)	1,142(37.9)	1,051(34.8)	439(14.6)	148(4.9)	21.9
서울특별시	975(100.0)	94(9.6)	418(42.9)	317(32.5)	86(8.8)	60(6.2)	21.0
광역시	877(100.0)	89(10.1)	305(34.8)	292(33.3)	150(17.1)	41(4.7)	21.4
도	1,165(100.0)	54(4.6)	419(36.0)	442(37.9)	203(17.4)	47(4.0)	22.9

주: 단독주택이 아닌 3,041가구 중 평수가 모름/무응답인 24가구는 분석에서 제외.

〈표 2-17〉 자가 주택의 평당 시가

(단위 : 가구, %)

	전 체	100만원 미만	100만~200 만원미만	200만~300 만원미만	300만~400 만원미만	400만~500 만원미만	5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전 체	2,408(100.0)	149(6.2)	418(17.4)	783(32.5)	454(18.9)	255(10.6)	349(14.5)	328.3
서울특별시	477(100.0)	3(0.6)	12(2.5)	61(12.8)	131(27.5)	91(19.1)	179(37.5)	498.2
광역시	765(100.0)	12(1.6)	129(16.9)	370(48.4)	130(17.0)	56(7.3)	68(8.9)	302.4
도	1,166(100.0)	134(11.5)	277(23.8)	352(30.2)	193(16.6)	108(9.3)	102(8.7)	275.9

주: 자가인 2,785가구 중 연건평과 주택의 시가가 모름/무응답인 377가구는 분석에서 제외.

월평균 주거비는 평균 52.9만원이며 25만~50만원 미만이 28.9%로 가장 많다. 거주지별로는 서울특별시가 평균 70.5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100만원 이상인 경우도 20.1%이다. 그러나 광역시와 도 지역은 각각 평균 41.1만원과 46.6만원으로 서울특별시보다 매우 낮다. 특히 광역시의 경우 25만원 미만이 36.3%를 차지한다.

〈표 2-18〉 자가가 아닐 경우 월평균 주거비

(단위 : 가구, %)

	전 체	25만원 미만	25만~50 만원미만	50만~75 만원미만	75만~100 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전 체	2,019(100.0)	537(26.6)	583(28.9)	488(24.2)	186(9.2)	225(11.1)	52.9
서울특별시	677(100.0)	91(13.4)	156(23.0)	183(27.0)	111(16.4)	136(20.1)	70.5
광역시	617(100.0)	224(36.3)	192(31.1)	146(23.7)	28(4.5)	27(4.4)	41.1
도	725(100.0)	222(30.6)	235(32.4)	159(21.9)	47(6.5)	62(8.6)	46.6

주: 자가가 아닌 2,215가구 중 전세 보증금과 월세가 모름/무응답인 196가구는 분석에서 제외.

월평균 주거비를 단독주택인 경우는 연건평으로,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는 평수로 나누어 평당 월평균 주거비를 구하였다. 평당 월평균 주거비는 3.5만원으로 2만~3만원 미만인 경우가 25.6%로 가장 많다.

역시 거주지역로 차이가 나서 서울특별시가 평균 4.6만원으로 가장 높다. 서울특별시는 평당 5만원 이상인 경우가 36.7%로 가장 많은 반면, 광역시와 도 지역은 2만~3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다.

<표 2-19> 평당 월평균 주거비

(단위 : 가구, %)

	전 체	1만원 미만	1만~2만원 미만	2만~3만원 미만	3만~4만원 미만	4만~5만원 미만	5만원 이상	평균 (만원)
전 체	1,962(100.0)	186(9.5)	269(13.7)	503(25.6)	375(19.1)	269(13.7)	360(18.3)	3.5
서울특별시	663(100.0)	26(3.9)	29(4.4)	77(11.6)	129(19.5)	159(24.0)	243(36.7)	4.6
광역시	594(100.0)	63(10.6)	105(17.7)	219(36.9)	114(19.2)	50(8.4)	43(7.2)	3.0
도	705(100.0)	97(13.8)	135(19.1)	207(29.4)	132(18.7)	60(8.5)	74(10.5)	2.8

주: 자가가 아닌 2,215가구 중 전세 보증금과 월세, 연건평과 평수가 모름/무응답인 253가구는 분석에서 제외.

4. 평균 거주기간

현재의 집에서 거주한 기간은 평균 9.1년이다. 거주기간이 2년에서 5년 사이인 가구가 32.1%로 가장 많고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도 27.6%이다.

거주기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평균 거주기간은 6.5년이지만 도 지역은 11.5년이다. 도 지역의 경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도 32.2%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2~5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다.

〈표 2-20〉 거주지별 평균 거주기간

(단위 : 가구, %)

	전 체	1년 미만	1~2년 미만	2~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평균 (년)
전 체	4,962(100.0)	271(5.5)	653(13.2)	1,595(32.1)	1,073(21.6)	1,370(27.6)	9.1
서울특별시	1,348(100.0)	68(5.0)	200(14.8)	495(36.7)	285(21.1)	300(22.3)	6.5
광역시	1,516(100.0)	79(5.2)	193(12.7)	497(32.8)	352(23.2)	395(26.1)	8.1
도	2,098(100.0)	124(5.9)	260(12.4)	603(28.7)	436(20.8)	675(32.2)	11.5

주: 거주기간이 모름/무응답인 38가구는 분석에서 제외.

第 4 節 家計經濟

1. 소 득

조사일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가구 전체의 소득을 조사하였다. 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과 기타소득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하였다.

가. 가구 총소득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5개 영역의 소득의 합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구하였다. 조사대상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157.5만원이다. 10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이 20.9%로 가장 많고 50만~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8.0%이다. 소득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가구도 4.8%로 나타난다.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는 9.8%이다.

〈표 2-21〉 월평균 가구 총소득

	빈 도(가구)	비 율(%)
전 체	5,000	100.0
소득 없음	239	4.8
50만원 미만	595	11.9
50만~100만원 미만	902	18.0
100만~150만원 미만	1,047	20.9
150만~200만원 미만	807	16.1
200만~300만원 미만	812	16.2
300만원 이상	488	9.8
모름/무응답 ¹⁾	110	2.2
평 균(만원)	157.5	

주: 1) 모름/무응답은 5개 소득 영역 중 하나의 영역이라도 소득이 있다고 답하였으나 정확한 액수를 밝히지 않은 경우임.

나.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근로(일)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을 의미하며 직장 또는 일 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봉급,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등이 포함된다. 지난 1년 동안 근로소득이 있었던 가구는 4,252가구로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84.8%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근로소득액은 155.5만원이며 100만~150만원 미만인 경우가 24.4%로 가장 많다. 50만~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9.5%이며 50만원 미만은 8.1%이다.

다.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금융소득이 있는 가구는 473가구로 전체 5,000가구의 9.5%에 불과하다. 금

〈표 2-22〉 월평균 근로소득

	빈 도(가구)	비 율(%)
전 체	5,000	100.0
소득 없음	748	15.2
소득 있음	4,252	84.8
50만원 미만	346	8.1
50만~100만원 미만	829	19.5
100만~150만원 미만	1,036	24.4
150만~200만원 미만	790	18.6
200만~300만원 미만	773	18.2
300만원 이상	406	9.5
모름/무응답	72	1.7
평 균(만원)	155.5	

용소득이 있는 경우 연평균 소득액은 477.4만원이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39.8만원 정도가 된다. 25.4%가 연평균 1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이 있고 28.5%는 100만~25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이 있다고 답하였다. 금융소득이 연평균 1,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14.2%나 된다.

라. 부동산소득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을 포함한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가구는 273가구로 전체 가구의 5.5%이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연평균 부동산소득은 703.6만원이며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58.6만원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것이 된다. 연평균 부동산소득은 100만~250만원 미만인 경우가 26.4%로 가장 많지만 1,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20.9%나 된다.

〈표 2-23〉 연평균 금융소득

	빈 도(가구)	비 율(%)
전 체	5,000	100.0
소득 없음	4,527	90.5
소득 있음	473	9.5
100만원 미만	120	25.4
100만~250만원 미만	135	28.5
250만~500만원 미만	58	12.3
500만~1,000만원 미만	70	14.8
1,000만원 이상	67	14.2
모름/무응답	23	4.9
평 균(만원)	477.4	

〈표 2-24〉 연평균 부동산소득

	빈 도(가구)	비 율(%)
전 체	5,000	100.0
소득 없음	4,727	94.5
소득 있음	273	5.5
100만원 미만	40	14.7
100만~250만원 미만	72	26.4
250만~500만원 미만	44	16.1
500만~1,000만원 미만	55	20.1
1,000만원 이상	57	20.9
모름/무응답	5	1.8
평 균(만원)	703.6	

마. 이전소득

이전소득은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친척·친지로부터 받은 지

원금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없이 받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동사무소의 빈민생활보조금이나 경로우대교통비 등도 이에 포함된다.

〈표 2-25〉 월평균 이전소득

	빈 도(가구)	비 율(%)
전 체	5,000	100.0
소득 없음	4,424	88.5
소득 있음	576	11.5
10만원 미만	115	20.0
10만~25만원 미만	209	36.3
25만~50만원 미만	136	23.6
50만~100만원 미만	83	14.4
100만원 이상	24	4.2
모름/무응답	9	1.6
평 균(만원)	29.2	

5,000가구 중 11.5%의 가구가 이전소득이 있다고 답하였다. 월평균 이전소득은 29.2만원이며 10만원에서 25만원 미만인 경우가 36.3%로 가장 많으며 25만~50만원 미만인 경우가 23.6%이다.

바.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보험금 지급이나 퇴직금, 복권 당첨금과 같이 앞의 다른 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을 의미한다. 지난 1년간 기타소득이 있었던 가구는 전체의 4.7%이다. 월평균 기타소득액은 160.8만원이며 100만원 이상인 경우가 28.3%로 가장 많으며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모두 55.3%이다. 기타소득액이 많은 것은 보험금이나 퇴직금 등 큰 액수의 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2-26〉 월평균 기타소득

	빈 도(가구)	비 율(%)
전 체	5,000	100.0
소득 없음	4,763	95.3
소득 있음	237	4.7
10만원 미만	40	16.9
10만~25만원 미만	44	18.6
25만~50만원 미만	47	19.8
50만~100만원 미만	35	14.8
100만원 이상	67	28.3
모름/무응답	4	1.7
평 균(만원)	160.8	

2. 저 축

가구당 월평균 얼마나 저축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저축에는 개인 연금, 적금, 저축성보험, 계 등도 포함된다. 과반수인 54.2%의 가구가 저축을 하고 있으며 저축을 전혀 안하고 있는 가구는 45.8%이다.

월평균 저축액은 62.4만원으로 31.4%의 가구가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금액을 저축하고 있으며 25만~50만원 미만도 24.5%이다. 평균적으로 저축액은 가구 총소득의 35.8%를 차지한다.

3. 부 채

부채는 은행, 회사,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개인에게 빌린 돈, 그리고 깃돈을 미리 타고 계에 대한 잔금을 계속 지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체 5,000가구 중 41.8%의 가구가 부채를 지고 있다. 부채 총액은 평균 2,823.5만원으로 부채액이 1,000만원에서 2,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6.5%

〈표 2-27〉 월평균 저축액

	빈 도(가구)	비 율(%)
전 체	5,000	100.0
저축 안함	2,292	45.8
저축 함	2,708	54.2
10만원 미만	124	4.6
10만~25만원 미만	482	17.8
25만~50만원 미만	664	24.5
50만~100만원 미만	849	31.4
100만원 이상	554	20.5
모름/무응답	35	1.3
평 균(만원)	62.4	

로 가장 많다.

부채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는 월평균 50.2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범주별로는 10만~25만원 미만이 가장 많아 23.2%이며 25만~50만원 미만도 21.1%이다. 월상환액이 없는 경우도 17.9%이다.

4. 생활비

생활비는 교육비, 주거비⁶⁾, 식품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각종 공과금, 자동차 등의 물품할부대금 등 생활하는 데 드는 돈을 의미한다⁷⁾.

가구의 생활비는 월평균 101.2만원이다. 50만~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3.7%로 가장 많고, 100만~150만원 미만인 경우는 25.3%이다.

6) 생활비에 포함되는 주거비는 일반적인 주택관리비와 월세금 등을 의미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제외된다.

7) 1차 연도 패널조사에서 생활비는 각 항목별로 분류하지 않고 전체를 합하여 총생활비로 응답케 하였다.

<표 2-28> 부채 여부 및 부채 총액

	빈 도(가구)	비 율(%)
전 체	5,000	100.0
부채 없음	2,911	58.2
부채 있음	2,089	41.8
500만원 미만	298	14.3
500만~1,000만원 미만	282	13.5
1,000만~2,500만원 미만	763	36.5
2,500만~5,000만원 미만	435	20.8
5,000만원 이상	263	12.6
모름/무응답	48	2.3
평 균(만원)	2,823.5	

<표 2-29> 월평균 부채 원금 및 이자상환금

	빈 도(가구)	비 율(%)
전 체	2,089	100.0
월상환액 없음	373	17.9
10만원 미만	256	12.3
10만~25만원 미만	485	23.2
25만~50만원 미만	440	21.1
50만~100만원 미만	296	14.2
100만원 이상	197	9.4
모름/무응답	42	2.0
평 균(만원)	50.2	

〈표 2-30〉 월평균 생활비

	빈 도(가구)	비 율(%)
전 체	5,000	100.0
50만원 미만	930	18.6
50만~75만원 미만	1,100	22.0
75만~100만원 미만	583	11.7
100만~150만원 미만	1,263	25.3
150만~200만원 미만	586	11.7
200만원 이상	524	10.5
모름/무응답	14	0.3
평 균(만원)	101.2	

5.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의 소득 및 소비 변화

가. 소득의 변화

1997년 말의 경제위기로 인한 소득과 소비의 변화 여부를 살펴보았다. 소득의 경우 74.0%의 가구가 소득이 줄었다고 답하였으며 변화가 없는 경우는 24.9%이다. 월평균 가구 총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5.4%만이 소득이 줄었다고 답하였다. 반면 200만원 이상인 가구는 그보다 많은 78.4%가 소득이 줄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그 감소폭은 월평균 가구 총소득이 낮을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월평균 가구 총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소득 감소의 정도는 평균 35.6%이나 100만원 이하 소득 가구의 경우는 58.6%이다.

나. 소비의 변화

경제위기 이후 56.5%의 가구가 소비가 줄어들었다고 답하였으며, 변

〈표 2-31〉 월평균 가구 총소득별 경제위기 이후 소득의 변화

(단위 : 가구, %)

	소득의 변화 여부 ¹⁾				소득 감소 정도 ²⁾					
	전 체	늘어남	변화 없음	줄어듦	전 체	25% 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 이상	평균 (%)
전 체	4,888 (100.0)	56 (1.1)	1,216 (24.9)	3,616 (74.0)	3,248 (100.0)	968 (29.8)	1,012 (31.2)	1,032 (31.8)	236 (7.3)	44.2
100만원 미만	1,735 (100.0)	16 (0.9)	585 (33.7)	1,134 (65.4)	879 (100.0)	158 (18.0)	216 (24.6)	380 (43.2)	125 (14.2)	58.6
100만~200만원미만	1,853 (100.0)	24 (1.3)	366 (19.8)	1,463 (79.0)	1,392 (100.0)	448 (32.2)	457 (32.8)	412 (29.6)	75 (5.4)	38.9
200만원 이상	1,300 (100.0)	16 (1.2)	265 (20.4)	1,019 (78.4)	977 (100.0)	362 (37.1)	339 (34.7)	240 (24.6)	36 (3.7)	35.6

주: 1) 월평균 가구 총소득과 소득 변화 여부가 모름/무응답인 112가구는 분석에서 제외.

2) 월평균 가구 총소득과 소득 감소의 정도가 모름/무응답인 368가구는 분석에서 제외.

화가 없다고 답한 경우는 37.1%이다. 100만원 미만 소득가구의 경우는 41.4%가 경제위기로 인해 별다른 소비의 변화가 없었다고 답하였다. 소비가 줄어든 경우 그 감소폭은 25%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다. 가구소득 별로 소비의 감소정도가 차이가 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소비감소 정도는 평균 40.7%이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평균 26.5%이다. 200만원 이상 소득가구의 경우 54.6%의 가구가 소비감소 정도를 25% 미만이라고 답하였다.

6. 경제적 어려움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전체의 62.4%가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조사 당시가 1997년 말의 경제위기로 인

〈표 2-32〉 월평균 가구 총소득별 경제위기 이후 소비의 변화

(단위 : 가구, %)

	소비의 변화 여부 ¹⁾				소비 감소 정도 ²⁾					
	전 체	늘어남	변화 없음	줄어듦	전체	25% 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 이상	평균 (%)
전 체	4,888 (100.0)	315 (6.4)	1,813 (37.1)	2,760 (56.5)	2,690 (100.0)	1,173 (43.6)	758 (28.2)	667 (24.8)	92 (3.4)	32.1
100만원 미만	1,736 (100.0)	83 (4.8)	718 (41.4)	935 (53.9)	897 (100.0)	266 (29.7)	218 (24.3)	348 (38.8)	65 (7.2)	40.7
100만~200만원 미만	1,852 (100.0)	136 (7.3)	597 (32.2)	1,119 (60.4)	1,102 (100.0)	530 (48.1)	334 (30.3)	222 (20.1)	16 (1.5)	28.6
200만원 이상	1,300 (100.0)	96 (7.4)	498 (38.3)	706 (54.3)	691 (100.0)	377 (54.6)	206 (29.8)	97 (14.0)	11 (1.6)	26.5

주: 1) 월평균 가구 총소득과 소비 변화 여부가 모름/무응답인 112가구는 분석에서 제외.

2) 월평균 가구 총소득과 소비 감소의 정도가 모름/무응답인 70가구는 분석에서 제외.

한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100만원 미만 소득가구의 경우 78.0%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였다.

〈표 2-33〉 월평균 가구 총소득별 경제적 어려움 여부

(단위 : 가구, %)

	전 체	어려움 있다	어려움 없다
전 체	4,889(100.0)	3,051(62.4)	1,838(37.6)
100만원 미만	1,736(100.0)	1,354(78.0)	382(22.0)
100만~200만원 미만	1,853(100.0)	1,107(59.7)	746(40.3)
200만원 이상	1,300(100.0)	590(45.4)	710(54.6)

주: 월평균 가구 총소득과 경제적 어려움 여부가 모름/무응답인 111가구는 분석에서 제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본
 왔다. 경제적 어려움 중에서는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40.0%의 가구가 교육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하였다.
 36.0%는 빚(채무)의 원리금 상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월평균
 총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경우 39.4%가 식비로 인한 어려움
 을 겪고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교육비와 주거비에서도 어려움을 들었다.
 100만~200만원 미만 소득자의 경우는 47.6%가 교육비를 가장 큰 어려
 움으로 들었으며, 다음으로 빚(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들었다. 반대로 월
 평균 총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가구는 빚(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가장
 높게 들었으며 그 다음이 교육비 순이다.

<표 2-34> 월평균 가구 총소득별 경제적 어려움의 내용

(단위 : 명, %)

	전 체	100만원 미만	100만~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식비(식료품비)	898(28.8)	533(39.4)	250(22.6)	97(16.4)
교육비	1,247(40.0)	436(32.2)	527(47.6)	259(43.9)
빚(채무)의 원리금 상환	1,124(36.0)	400(29.6)	406(36.7)	290(49.2)
의료비	623(20.0)	391(28.9)	140(12.6)	73(12.4)
주거비	826(26.5)	436(32.2)	262(23.7)	114(19.3)
기 타	291(9.3)	109(8.1)	108(9.8)	69(11.7)

주: 다중응답문항으로 %는 각각 전체 3,121가구,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353가구,
 100만~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107가구, 그리고 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590가구
 중의 비중임.

第 5 節 社會保險

조사일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연금이나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은 가구원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사회보험 수급자가 있는 가구는 전체의 3.7%에 불과하며, 한 가구당 수급자수는 대부분 1명이다.

〈표 2-35〉 사회보험 수급자 유무와 수급자 수

	빈 도(가구)	비 율(%)
전 체	5,000	100.0
수급자 없음	4,817	96.3
수급자 있음	183	3.7
1명	181	98.9
2명	2	1.1

사회보험 수급자 185명 중 97.3%에 해당하는 180명은 사회보험을 1개만 수급하고 있었으며 2개를 수급하는 경우는 2.7%이다. 수급자별로 받고 있는 사회보험의 종류를 다중응답한 결과 실업급여가 21.6%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18.9%를 차지하는 공무원연금과 15.1%를 차지하는 보훈연급의 순이다.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는 전체 19.9%에 불과하다.

〈표 2-36〉 사회보험의 종류

		빈 도(명)	비 율(%)
국민연금	장해연금	6	3.2
	유족연금	9	4.9
	반환일시금	16	8.6
	특례노령연금	6	3.2
사학/공무원/ 군인연금	사학연금	3	1.6
	공무원연금	35	18.9
	군인연금	15	8.1
	반환일시금	3	1.6
산재보험	휴업급여	7	3.8
	장해연금	11	5.9
	유족급여	1	0.5
	기타	2	1.1
보훈연금/실업급여/ 기타연금	보훈연금	28	15.1
	실업급여	40	21.6
	기타연금	8	4.3

주: 다중응답으로 사회보험 수급자 185명 중의 비중임.

第 3 章

個人 特性 및 人口移動 分析

第 1 節 個人應答者의 人口學的 特性

1. 연령, 가구주와의 관계, 혼인상태 및 교육수준

전체 개인 응답자들을 연령, 가구주와의 관계, 혼인상태 및 교육수준별 분포를 성별로 살펴보았다. 연령 집단은 전체 개인 응답자의 22.3%에 해당하는 3,064명이 속한 30대 집단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여성과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면서, 전 연령에 걸쳐 여성보다 대부분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60세 이상의 집단은 남성의 비중이 여성보다 낮다. 이러한 특징은 가구주의 관계에서도 보인다. 여성의 경우, 가구주의 관계 중 부모에 해당하는 비중이 남성에 비해 약 4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 또 가구주가 본인인 경우는 전체 개인 응답자의 36.4%를 차지한다. 또한 남성은 가구주인 경우가 전체 남성의 63.2%로 가장 많고, 여성은 배우자인 경우가 전체 여성의 56.2%로 가장 많다.

혼인상태별 집단에서는, 미혼 남성의 비중이 미혼 여성의 비중보다 높고, 배우자가 없는 기혼 남성의 비중이 같은 조건의 여성보다 적다. 한편, 교육수준별 집단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은 고졸

<표 3-1> 개인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13,738(100.0)	6,791(100.0)	6,947(100.0)
연령	15~19세	1,653(12.0)	859(12.6)	794(11.4)
	20~24세	1,494(10.9)	747(11.0)	747(10.8)
	25~29세	1,524(11.1)	764(11.3)	760(10.9)
	30~39세	3,064(22.3)	1,529(22.5)	1,535(22.1)
	40~49세	2,561(18.6)	1,281(18.9)	1,280(18.4)
	50~59세	1,696(12.3)	873(12.9)	823(11.8)
	60세 이상	1,746(12.7)	738(10.9)	1,008(14.5)
가구주와 의 관계 ¹⁾	가구주	5,000(36.4)	4,295(63.2)	705(10.1)
	배우자	3,951(28.8)	45(0.7)	3,906(56.2)
	부 모	539(3.9)	105(1.5)	434(6.2)
	자 녀	3,976(28.9)	2,203(32.4)	1,773(25.5)
	형 제	167(1.2)	89(1.3)	78(1.1)
	기 타 ²⁾	105(0.8)	54(0.8)	51(0.7)
혼인 상태 ³⁾	미 혼	3,856(29.0)	2,095(32.4)	1,761(25.7)
	기혼 유배우	8,296(62.4)	4,146(64.1)	4,150(60.7)
	기혼 무배우	1,151(8.7)	223(3.4)	928(13.6)
교육 수준 ⁴⁾	무 학	866(6.3)	176(2.6)	690(9.9)
	고졸 미만	4,653(33.9)	2,098(30.9)	2,555(36.8)
	고 졸	4,529(33.0)	2,282(33.6)	2,247(32.4)
	대졸 미만 ⁵⁾	1,296(9.4)	780(11.5)	516(7.4)
	전문대졸	725(5.3)	374(5.5)	351(5.1)
	대졸 이상	1,662(12.1)	1,077(15.9)	585(8.4)

주: 1) 부모, 자녀, 형제의 경우는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를 포함하고, 자녀, 형제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2) 조부모, 손자녀(그 배우자 포함), 기타 친인척과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을 포함.

3) 혼인상태가 무응답인 435명은 분석에서 제외.

4) 교육수준이 무응답인 7명은 분석에서 제외.

5) 앞의 <표 2-5> 참조.

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무학인 경우와 고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비중이 더 높으며, 그 이상의 교육수준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연령과 교육수준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 무학인 경우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중도 증가하는데, 20세 이상의 모든 연령대를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해당 교육수준에 대한 비중이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3-2> 개인 응답자의 연령별 교육수준

(단위 : 명, %)

	전 체	무 학	고졸 미만	고 졸	대졸 미만 ¹⁾	전문대졸	대졸 이상
전 체	13,731(100.0)	866(6.3)	4,653(33.9)	4,529(33.0)	1,296(9.4)	725(5.3)	1,662(12.1)
15~19세	1,653(100.0)	1(0.1)	1,145(69.3)	148(9.0)	359(21.7)	-	-
20~24세	1,490(100.0)	3(0.2)	48(3.2)	521(35.0)	641(43.0)	158(10.6)	119(8.0)
25~29세	1,524(100.0)	3(0.2)	85(5.6)	766(50.3)	123(8.1)	192(12.6)	355(23.3)
30~39세	3,063(100.0)	10(0.3)	568(18.5)	1,509(49.3)	88(2.9)	264(8.6)	624(20.4)
40~49세	2,560(100.0)	29(1.1)	1,093(42.7)	996(38.9)	38(1.5)	85(3.3)	319(12.5)
50~59세	1,695(100.0)	133(7.8)	943(55.6)	420(24.8)	34(2.0)	15(0.9)	150(8.8)
60세 이상	1,746(100.0)	687(39.3)	771(44.2)	169(9.7)	13(0.7)	11(0.6)	95(5.4)

주 : 교육수준이 무응답인 7명은 분석에서 제외.

1) 앞의 <표 2-5> 참조.

2. 종 교

조사대상자의 과반수인 56.2%가 종교를 지니고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종교를 지니는 비중이 높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종교를 갖는 비중도 높아져, 60대 이상은 65.2%가 종교가 있다고 답하였다.

종교의 종류는 불교가 48.0%로 가장 많고 개신교, 천주교의 순이다.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종교를 가진 사람 중 55.4%가 불교를 종교라고 답한 반면, 2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45.3%가 개신교를 종교로 답

하였다.

〈표 3-3〉 인구학적 특성별 종교 유무와 종류

(단위 : 명, %)

	종교 없음	종교 있음	종교					기타 ¹⁾
			불 교	개신교	천주교	유 교		
전 체	5,831(43.8)	7,485(56.2)	3,595(48.0)	2,670(35.7)	1,026(13.7)	53(0.7)	141(1.9)	
성 별	남성	3,257(50.4)	3,210(49.6)	1,597(49.7)	1,103(34.4)	409(12.8)	42(1.3)	59(1.8)
	여성	2,574(37.6)	4,275(62.4)	1,998(46.7)	1,567(36.7)	617(14.4)	11(0.3)	82(1.9)
연 령	15~19세	801(51.1)	765(48.9)	283(37.0)	347(45.4)	123(16.1)	1(0.1)	11(1.4)
	20~24세	686(54.5)	572(45.5)	220(38.5)	256(44.8)	89(15.6)	3(0.5)	4(0.7)
	25~29세	837(56.4)	648(43.6)	251(38.7)	297(45.8)	85(13.1)	2(0.3)	13(2.0)
	30~39세	1,379(45.3)	1,666(54.7)	741(44.5)	623(37.4)	250(15.0)	5(0.3)	47(2.8)
	40~49세	924(36.2)	1,625(63.8)	859(52.9)	527(32.4)	202(12.4)	10(0.6)	27(1.7)
	50~59세	604(35.8)	1,085(64.2)	617(56.9)	299(27.6)	139(12.8)	11(1.0)	19(1.8)
	60세 이상	600(34.8)	1,124(65.2)	624(55.4)	321(28.6)	138(12.3)	21(1.9)	20(1.8)

주: 종교 유무가 모름/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

1) 기타 종교에는 원불교, 천도교, 대종교 등이 포함.

第 2 節 出生地, 成長地, 居住地 및 人口移動

1. 거주지

현재 거주지는 서울특별시가 26.7%로 가장 많고 경기도 지역이 16.4%를 차지한다. 즉 조사대상자의 43.1%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부산과 대구 등의 광역시는 31.5%, 그 외 도 지역은 41.8%로 나타났다. 또 성별로 현재 거주지의 응답자 분포를 보면, 개인응답자의 51.4%가 여성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광주와

〈표 3-4〉 현재 거주지의 성별 분포

(단위 : 명, %)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13,317(100.0)	6,468(48.6)	6,849(51.4)
서울	3,576(100.0)	1,721(48.1)	1,855(51.9)
부산	1324(100.0)	660(49.8)	664(50.2)
대구	878(100.0)	416(47.4)	462(52.6)
대전	425(100.0)	211(49.6)	214(50.4)
인천	819(100.0)	406(49.6)	413(50.4)
광주	439(100.0)	221(50.3)	218(49.7)
울산	323(100.0)	154(47.7)	169(52.3)
경기	2,163(100.0)	1,051(48.6)	1,112(51.4)
강원	334(100.0)	165(49.4)	169(50.6)
충북	327(100.0)	164(50.2)	163(49.8)
충남	343(100.0)	165(48.1)	178(51.9)
전북	548(100.0)	252(46.0)	296(54.0)
전남	329(100.0)	158(48.0)	171(52.0)
경북	686(100.0)	318(46.4)	368(53.6)
경남	803(100.0)	406(50.6)	397(49.4)

주: 현재 거주지가 무응답인 421명은 분석에서 제외.

충북 그리고 경남의 경우는 남성의 비중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연령과 교육수준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20대 미만의 젊은 연령층과 전문대졸 이상의 집단이 서울특별시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연령 분포를 보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15~29세의 젊은층이 30%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도 지역은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15.4%로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이 22.9%로 광역시나 도 지역에 비해 높다.

<표 3-5> 거주지별 연령, 교육수준 분포

(단위 : 명, %)

	전 체	연 령							교육수준 ^{b)}					
		15~19세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무학	고졸 미만	고졸	대졸 미만 ²⁾	전문대졸	대졸 이상
전 체	13,317 (100.0)	1,566 (11.8)	1,258 (9.4)	1,485 (11.2)	3,045 (22.9)	2,549 (19.1)	1,689 (12.7)	1,725 (13.0)	856 (6.4)	4,570 (34.3)	4,405 (33.1)	1,137 (8.5)	711 (5.3)	1,638 (12.3)
서울	3,555 (100.0)	395 (14.3)	331 (9.6)	420 (10.7)	831 (19.2)	740 (20.4)	459 (13.2)	379 (12.6)	121 (3.4)	1,077 (30.3)	1,247 (35.1)	296 (8.3)	191 (5.4)	623 (17.5)
부산	1,321 (100.0)	189 (14.3)	127 (9.6)	142 (10.7)	253 (19.2)	269 (20.4)	174 (13.2)	167 (12.6)	73 (5.5)	538 (40.7)	394 (29.8)	137 (10.4)	47 (3.6)	132 (10.0)
대구	876 (100.0)	123 (14.0)	91 (10.4)	92 (10.5)	176 (20.1)	177 (20.2)	117 (13.4)	100 (11.4)	46 (5.3)	352 (40.2)	251 (28.7)	84 (9.6)	61 (7.0)	82 (9.4)
대전	424 (100.0)	51 (12.0)	43 (10.1)	54 (12.7)	107 (25.2)	79 (18.6)	48 (11.3)	23 (9.9)	54 (12.7)	123 (29.0)	163 (38.4)	34 (8.0)	27 (6.4)	54 (12.7)
인천	814 (100.0)	95 (11.7)	80 (9.8)	103 (12.7)	174 (21.4)	165 (20.3)	100 (12.3)	97 (11.9)	51 (6.3)	279 (34.3)	313 (38.5)	58 (7.1)	46 (5.7)	67 (8.2)
광주	438 (100.0)	60 (13.7)	46 (10.5)	59 (13.5)	90 (20.5)	74 (16.9)	58 (13.2)	51 (11.6)	30 (6.8)	132 (30.1)	271 (29.0)	62 (14.2)	20 (4.6)	67 (15.3)
울산	325 (100.0)	44 (13.5)	39 (12.0)	23 (7.1)	80 (24.6)	65 (20.0)	41 (12.6)	33 (10.2)	21 (6.5)	112 (34.5)	130 (40.0)	30 (9.2)	14 (4.3)	18 (5.5)
경기	2,181 (100.0)	209 (9.6)	164 (7.5)	246 (11.3)	649 (29.8)	403 (18.5)	235 (10.8)	275 (12.6)	139 (6.4)	674 (30.9)	799 (36.6)	133 (6.1)	126 (5.8)	310 (14.2)
강원	333 (100.0)	35 (10.5)	32 (9.6)	23 (6.9)	83 (24.9)	62 (18.6)	40 (12.0)	58 (17.4)	40 (12.0)	126 (37.8)	99 (29.7)	31 (9.3)	12 (3.6)	25 (7.5)
충북	309 (100.0)	48 (15.5)	26 (8.4)	28 (9.1)	64 (20.7)	61 (19.7)	41 (13.3)	41 (13.3)	25 (8.1)	112 (36.2)	92 (29.8)	33 (10.7)	16 (5.2)	31 (10.0)
충남	347 (100.0)	32 (9.2)	31 (8.9)	27 (7.8)	75 (21.6)	48 (13.8)	44 (12.7)	90 (25.9)	58 (16.7)	142 (40.9)	126 (26.5)	26 (7.5)	14 (4.0)	15 (4.3)
전북	567 (100.0)	61 (10.8)	82 (14.5)	63 (11.1)	77 (13.6)	80 (14.1)	104 (18.3)	100 (17.6)	47 (8.3)	213 (37.6)	151 (26.6)	69 (12.2)	23 (4.1)	64 (11.3)
전남	333 (100.0)	43 (12.9)	32 (9.6)	37 (11.1)	73 (21.9)	52 (15.6)	41 (12.3)	55 (16.5)	35 (10.5)	126 (37.8)	93 (27.9)	25 (7.5)	18 (5.4)	36 (10.8)
경북	682 (100.0)	74 (10.9)	46 (6.7)	69 (10.1)	144 (21.1)	117 (17.2)	100 (14.7)	132 (19.4)	81 (11.9)	286 (41.9)	192 (28.2)	44 (6.5)	41 (6.0)	38 (5.6)
경남	812 (100.0)	107 (13.2)	88 (10.8)	99 (12.2)	169 (20.8)	157 (19.3)	87 (10.7)	105 (12.9)	66 (8.1)	278 (34.2)	262 (32.3)	75 (9.2)	55 (6.8)	76 (9.4)
서울특별시	3,555 (100.0)	395 (14.3)	331 (9.6)	420 (10.7)	831 (19.2)	740 (20.4)	459 (13.2)	379 (12.6)	121 (3.4)	1,077 (30.3)	1,247 (35.1)	296 (8.3)	191 (5.4)	623 (17.5)
광역시	4,198 (100.0)	562 (13.4)	426 (10.1)	473 (11.3)	880 (21.0)	829 (19.7)	538 (12.8)	490 (11.7)	244 (5.8)	1,536 (36.6)	1,378 (32.8)	405 (9.6)	215 (5.1)	420 (10.0)
도	5,564 (100.0)	609 (10.9)	501 (9.0)	592 (10.6)	1,334 (24.0)	980 (17.6)	692 (12.4)	856 (15.4)	491 (8.8)	1,957 (35.2)	1,780 (32.0)	436 (7.8)	305 (5.5)	595 (10.7)

주 : 1) 교육수준이 모름/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

2) 앞의 <표 2-5> 참조.

2. 출생지와 성장지

출생지는 경상도가 24.0%로 가장 많고 서울·경기 지역이 21.3%로 두 번째로 많은 분포를 보인다. 북한이 출생지인 경우는 1.2%이다. 그러나 만14세 무렵 주로 성장한 곳은 서울·경기 지역이 24.5%로 가장 많다. 도 지역과 광역시의 구분에서는 출생지가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부산 등 광역시인 경우는 전체의 27.5%이나 14세 무렵 성장지에서는 그 비중이 36.2%로 높아진다.

〈표 3-6〉 출생지와 14세 무렵 성장지

(단위 : 명, %)

	출생지	14세 무렵 성장지
전 체	13,317(100.0)	1,3317(100.0)
서울	1,715(12.9)	2,118(15.9)
부산	715(5.4)	861(6.5)
대구	420(3.2)	593(4.5)
대전	153(1.1)	248(1.9)
인천	320(2.4)	450(3.4)
광주	222(1.7)	357(2.7)
울산	119(0.9)	191(1.4)
경기	1,117(8.4)	1,150(8.6)
강원	626(4.7)	567(4.3)
충북	665(5.0)	578(4.3)
충남	1,148(8.6)	990(7.4)
전북	1,100(8.2)	1,045(7.8)
전남	1,491(11.2)	1,220(9.2)
경북	1,724(12.9)	1,444(10.8)
경남	1,477(11.1)	1,291(9.7)
제주도	53(0.4)	42(0.3)
북한	166(1.2)	99(0.7)
외국	78(0.6)	61(0.5)
모름/무응답	8(0.1)	12(0.1)

3. 인구이동

지역간 인구이동⁸⁾을 살펴보면 출생지와 성장지간의 이동률은 17.8%로 그리 높지 않은 반면, 성장지에서 거주지로의 이동률은 47.6%로 높아진다. 이동한 경우에 한하여 광역시와 도 지역간의 이동을 보면⁹⁾ 도 지역에서 광역시로 이동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출생지와 성장지간 이동의 경우 도 지역에서 광역시로 이동은 61.1%이며, 성장지와 거주지간 이동의 경우에도 58.7%가 도 지역에서 광역시로 이동이다.

성장지와 거주지간의 이동률은 연령별로 차이가 나 19세 미만 연령층에서는 8.2%에 불과하다 30대로 가면서 58.1%로 급격히 증가한다. 이동

〈표 3-7〉 출생지, 성장지, 거주지간의 이동

(단위 : 명, %)

		출생지→성장지	성장지→거주지
이동여부	전 체	13,317(100.0)	13,317(100.0)
	이동하지 않음	10,936(82.1)	6,963(52.3)
	이동함	2,365(17.8)	6,342(47.6)
	모름/무응답	16(0.1)	12(0.1)
이동한 경우 시-도간 이동 분포 ¹⁾	전 체	2,230(100.0)	6,182(100.0)
	시→시	198(8.9)	508(8.2)
	시→도	264(11.8)	810(13.1)
	도→시	1,362(61.1)	3,629(58.7)
	도→도	406(18.2)	1,235(20.0)

주 : 1) 시-도간의 이동분포는 국내에서의 이동에만 한정하였으며, 북한과 외국의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

8) 인구이동은 출생지와 성장지, 성장지와 거주지가 서로 다른 경우로 정의하였다.
 9) 광역시와 도 지역간의 인구이동 분석은 국내에서의 이동으로만 한정하였다. 외국과 북한의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된다.

률은 40대 연령층에서 63.1%로 높아지다 50대를 넘으면서 점차 감소한다.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을 나타내는 도 지역에서 광역시로의 이동은 50대와 60대 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도시화 과정을 직접 경험한 집단이며, 산업화로 인해 직업과 관련된 이동을 많이 한 연령층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성별 성장지와 거주지간 이동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성의 이동률이 남성보다 높다. 결혼 여부별로 나누어 보면 미혼인 경우에는 여성이

〈표 3-8〉 연령별 성장지-거주지간의 이동률

(단위 : 명, %)

	이동률	시 지역과 도 지역간의 이동분포				
		전 체	시→시	시→도	도→시	도→도
전 체	47.6	6,182(100.0)	508(8.2)	810(13.1)	3,629(58.7)	1,235(20.0)
15~19세	8.2	123(100.0)	15(12.2)	41(33.3)	45(36.6)	22(17.9)
20~24세	20.9	259(100.0)	33(12.7)	59(22.8)	121(46.7)	46(17.8)
25~29세	38.8	572(100.0)	52(9.1)	116(20.3)	289(50.5)	115(20.1)
30~39세	58.1	1,761(100.0)	139(7.9)	305(17.3)	936(53.2)	381(21.6)
40~49세	63.1	1,605(100.0)	148(9.2)	165(10.3)	993(61.9)	299(18.6)
50~59세	60.1	985(100.0)	67(6.8)	71(7.2)	673(68.3)	174(17.7)
60세 이상	57.4	877(100.0)	54(6.2)	53(6.0)	572(65.2)	198(22.6)

주 : 이동률은 전체에서 이동한 경우의 비중을 의미.

〈표 3-9〉 혼인 여부별 성별 성장지-거주지간의 이동률

(단위 : %)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47.7	44.5	50.7
미 혼	17.5	18.6	16.2
기 혼	60.0	56.9	62.6

주 : 이동률은 전체에서 이동한 경우의 비중을 의미.

16.2%로 18.6%인 남성보다 이동률이 낮지만 기혼자 집단에서는 오히려 여성의 이동률이 높아진다. 이는 여성의 경우 결혼이 지역 이동의 큰 요인이 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第 3 節 婚姻狀態와 子女

1. 혼인상태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¹⁰⁾를 살펴보면 미혼이 29.0%, 결혼하고 있거나 결혼한 적이 있는 기혼자가 71.0%이다. 성별로는 전체적으로 여성의 기혼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24세까지 미혼율은 98.7%이나 25~29세로 가면 70.5%로 떨어지고 다시 30대에 들어서서는 14.2%로 감소된다. 여성의 경우 20대 후반에서 미혼율 감소는 더욱 큰 폭으로 나타나, 25~29세에서 미혼율은 36.7%로, 30대에 들어서서는 4.1%로 떨어진다.

별거와 이혼의 비중은 남성보다 여성이 약간 높았으며 남녀 모두 40~50대에 들어서 높아진다. 사별의 비중은 여성이 11.3%로 1.4%인 남성보다 10% 정도 높다. 특히 60세 이상 여성 노인의 사별률은 54.1%로서 남성 노인의 사별률이 9.2%인 것과 비교할 때 남녀간의 평균 수명의 차이가 큼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은 26.8세, 여성은 22.9세로 성별 초혼 연령의 차이는 3.9세이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초혼 연령은 낮아져, 3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의 초혼 연령 차이는 4.5세가 된다. 교육수준별로도 차이를 보여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초혼 연령 또한 낮아져, 무학과

10) 설문지 구성상 재혼한 이후의 결혼상태 변화(재혼 후 다시 사별, 별거, 이혼을 하거나 삼혼, 사혼 등을 한 경우)는 추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재혼한 경우(176명)를 기혼 유배우자로 분류하였다.

〈표 3-10〉 성별·연령별 혼인상태

(단위 : 명, %)

		전 체	15~19세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전 체	전 체	1,3303 (100.0)	1,566 (100.0)	1,258 (100.0)	1,483 (100.0)	3,042 (100.0)	2,548 (100.0)	1,685 (100.0)	1,721 (100.0)
	미 혼	3,856 (29.0)	1,564 (99.9)	1,160 (92.2)	795 (53.6)	277 (9.1)	50 (2.0)	8 (0.5)	2 (0.1)
	기 혼 유배우	8,296 (62.4)	1 (0.1)	97 (7.7)	682 (46.0)	2672 (87.8)	2,304 (90.4)	1,467 (87.1)	1,073 (62.3)
	별 거	135 (1.0)	-	1 (0.1)	3 (0.2)	26 (0.9)	46 (1.8)	35 (2.1)	24 (1.4)
	이 혼	152 (1.1)	1 (0.1)	-	3 (0.2)	40 (1.3)	66 (2.6)	25 (1.5)	17 (1.0)
	사 별	864 (6.5)	-	-	-	27 (0.9)	82 (3.2)	150 (8.9)	605 (35.2)
남 성	전 체	6,464 (100.0)	804 (100.0)	533 (100.0)	742 (100.0)	1,515 (100.0)	1,273 (100.0)	870 (100.0)	727 (100.0)
	미 혼	2,095 (32.4)	804 (100.0)	515 (96.6)	523 (70.5)	215 (14.2)	30 (2.4)	7 (0.8)	1 (0.1)
	기 혼 유배우	4,146 (64.1)	-	17 (3.2)	214 (28.8)	1,267 (83.6)	1,185 (93.1)	813 (93.4)	650 (89.4)
	별 거	56 (0.9)	-	1 (0.2)	3 (0.4)	14 (0.9)	19 (1.5)	15 (1.7)	4 (0.6)
	이 혼	76 (1.2)	-	-	2 (0.3)	17 (1.1)	33 (2.6)	19 (2.2)	5 (0.7)
	사 별	91 (1.4)	-	-	-	2 (0.1)	6 (0.5)	16 (1.8)	67 (9.2)
여 성	전 체	6,839 (100.0)	762 (100.0)	725 (100.0)	741 (100.0)	1,527 (100.0)	1,275 (100.0)	815 (100.0)	994 (100.0)
	미 혼	1,761 (25.7)	760 (99.7)	645 (89.0)	272 (36.7)	62 (4.1)	20 (1.6)	1 (0.1)	1 (0.1)
	기 혼 유배우	4,150 (60.7)	1 (0.1)	80 (11.0)	468 (63.2)	1,405 (92.0)	1,119 (87.8)	654 (80.2)	423 (42.6)
	별 거	79 (1.2)	-	-	-	12 (0.8)	27 (2.1)	20 (2.5)	20 (2.0)
	이 혼	76 (1.1)	1 (0.1)	-	1 (0.1)	23 (1.5)	33 (2.6)	6 (0.7)	12 (1.2)
	사 별	773 (11.3)	-	-	-	25 (1.6)	76 (6.0)	134 (16.4)	538 (54.1)

주: 혼인상태가 모름/무응답인 14명은 분석에서 제외.

대학 이상의 초혼 연령 차이는 7.4세이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젊은 연령층이 많고 교육연수가 길어지므로 생애주기상 결혼이 늦어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혼자의 85.8%는 처음 결혼한 배우자와 계속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배우자와 비동거하는 경우 그 이유는 사별이 71.4%로 가장 많고 이혼, 별거의 순이다. 사별이나 이혼을 한 경우는 14.9%가 재혼하였다. 초혼부터 초혼 종료까지 걸린 기간은 사별한 경우 평균 28.7년, 별거나 이혼의 경우는 평균 12.4년이다. 또한 재혼한 경우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초혼 종료 후 재혼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5.7년이다.

<표 3-11> 인구학적 특성별 초혼 연령

(단위 : 세)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24.7	26.8	22.9
연 령 ¹⁾	20~24세	21.5	22.2	21.4
	25~29세	24.6	25.7	24.1
	30~39세	26.1	27.6	24.7
	40~49세	25.3	27.2	23.4
	50~59세	24.9	27.0	22.6
	60세 이상	21.6	24.7	19.3
교육수준	무학	19.9	24.1	18.8
	고졸 미만	23.6	25.8	22.1
	고졸	25.5	26.9	24.3
	대졸 미만 ²⁾	26.4	27.5	24.6
	전문대졸	26.5	27.3	25.5
	대졸 이상	27.4	28.3	25.5

주 : 1) 15~19세 연령층의 응답자는 2명뿐으로 분석에서 제외.

2) 앞의 <표 2-5> 참조.

〈표 3-12〉 처음 배우자와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재혼 여부

(단위 : 명, %)

처음 배우자와 동거 여부		처음 배우자와 비동거 이유		재혼 여부	
그렇다	8,120(85.8)	별 거	135(10.2)	재혼하지 않았다	1,007(85.1)
아니다	1,333(14.2)	사 별	945(71.4)	재혼했다	176(14.9)
		이 혼	243(18.4)	전 체	1,183(100.0)
전 체	9,460(100.0)	전 체	1,323(100.0)	전 체	1,183(100.0)

주: 각 항목에 대해 모름/무응답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

〈표 3-13〉 연령별 출산경험 유무와 초산연령, 자녀수

	출산 유경험자 비중(%)		초산연령(세)		자녀수 (명)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전 체	96.2	96.4	28.1	24.3	2.8
20~24세	66.7	78.8	22.6	21.8	1.3
25~29세	77.2	85.6	26.3	25.0	1.5
30~39세	94.7	96.9	28.6	25.6	1.9
40~49세	98.5	98.3	28.3	24.5	2.3
50~59세	98.4	99.0	28.4	24.2	3.1
60세 이상	99.2	97.8	27.4	22.4	4.5

주: 15~19세 연령층에서는 단 1명만이 출산한 경험이 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

2. 자 녀

기혼자 중 출산 경험이 있는 경우, 즉 자녀를 둔 경우는 96.3%이다.

첫아이를 출산한 초산 연령은 남성은 28.1세, 여성은 24.3세이다.

초산 연령은 초혼 연령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진다. 아들과 딸을 합한 평균 자녀수는 2.8명으로 아들 평균 1.7명, 딸은 평균 1.6명이다. 자녀수 역시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져, 30대의 자녀수는 평균 1.9명인 데 비해 60대 이상은 4.5명이다. 초혼 후 초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5년이다.

第 4 節 家計의 背景

1. 아버지의 교육수준

조사대상자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무학이 26.8%, 초등학교(보통학교) 졸업 또는 중퇴가 28.2%로, 중학교(공민학교) 이하인 경우는 모두 68.9%로 나타났다. 전문대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경우는 9.1%에 불과하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자녀, 즉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지는데 이는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연령 또한 낮아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자녀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아버지가 무학인 비중은 58.8%에 달한다.

자녀가 학업을 어느 정도 마친 경우, 즉 졸업이나 중퇴의 경우로 제한한 후 아버지와 자녀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보다 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는 전체의 68.2%, 같은 경우는 27.0%로 대부분 자녀의 교육수준이 아버지의 교육수준보다 높거나 같다.

2. 14세 무렵 아버지의 경제활동상태

성장기 때 가정의 경제상태를 알기 위하여 만 14세 무렵 아버지(아

〈표 3-14〉 아버지의 교육수준

	명	비율(%)
전 체	13,317	100.0
무 학	3,569	26.8
초등학교(보통학교)	3,752	28.2
중학교(공민학교)	1,855	13.9
고등학교	2,159	16.2
전문대학(사범학교)	232	1.7
대학/대학교	871	6.5
대학원 이상	121	0.9
잘 모르겠다	758	5.7

〈표 3-15〉 아버지와 자녀의 교육수준 비교

(단위 : 명, %)

		조사대상인 자녀의 교육수준						
		전 체	무 학	고졸 미만	고 졸	대졸 미만 ¹⁾	전문 대졸	대졸 이상
전 체		10,478 (100.0)	776 (100.0)	3,191 (100.0)	4,136 (100.0)	160 (100.0)	695 (100.0)	1,520 (100.0)
아버지의 교육수준	무 학	3,526 (33.7)	713 (91.9)	1,824 (57.2)	761 (18.4)	22 (13.8)	74 (10.6)	132 (8.7)
	초등학교	3,441 (32.8)	43 (5.5)	999 (31.3)	1767 (42.7)	59 (36.9)	181 (26.0)	392 (25.8)
	중학교	1,415 (13.5)	12 (1.5)	226 (7.1)	748 (18.1)	28 (17.5)	147 (21.2)	254 (16.7)
	고등학교	1,325 (12.6)	5 (0.6)	106 (3.3)	632 (15.3)	30 (18.8)	198 (28.5)	354 (23.3)
	전문대	173 (1.7)	-	20 (0.6)	74 (1.8)	7 (4.4)	18 (2.6)	54 (3.6)
	대학 이상	598 (5.7)	3 (0.4)	16 (0.5)	154 (3.7)	14 (8.8)	77 (11.1)	334 (22.0)

주: 조사대상자인 자녀의 교육수준(수료 여부)은 각 학교를 졸업이나 중퇴, 수료한 경우로 제한하여 분석함.

1) 앞의 <표 2-5> 참조.

<표 3-16> 14세 무렵 아버지(어머니)의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명	비율(%)
전 체		13,174	100.0
산 업	농업·수렵업 및 임업·어업	6,367	48.3
	제조업	1,241	9.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9	0.3
	건설업	902	6.8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1,324	10.1
	숙박 및 음식점업	281	2.1
	운수·창고 및 통신업	559	4.2
	금융 및 보험업	105	0.8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203	1.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73	5.1
	교육서비스업	356	2.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3	0.6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57	2.0
	가사서비스업	112	0.9
	국제 및 기타외국기관	24	0.2
	광업	82	0.6
	무직	238	1.8
모름/무응답, 분류불가	328	2.5	
직 업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1,134	8.6
	사무직원	792	6.0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1,489	11.3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6,308	47.9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단순노무자	2,251	17.1
	군인	85	0.6
	무직	237	1.8
모름/무응답, 분류불가	878	6.7	
종사상 지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3,024	23.0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772	5.9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	1,306	9.9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7,487	56.8
	가족종사자	274	2.1
	주부·무직	12	0.1
모름/무응답	299	2.3	

버지가 안 계실 경우에는 어머니)의 경제활동상태를 질문하였다¹¹⁾. 14세 무렵 아버지나 어머니의 산업 분포를 보면 48.3%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직업 역시 농림어업 종사자가 47.9%로 가장 많다. 종사상의 지위로는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가 56.8%인데 이는 자영농의 경우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79.0%가 농림어업 숙련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취업자에 한하여 14세 무렵 아버지·어머니와 자녀의 산업, 직업, 종사상지위 일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세대간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85.3%가 부모와는 다른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78.2%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종사상지위 역시 69.9%가 부모의 종사상지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표 3-17> 부모와 자녀의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일치 여부

(단위 : 명, %)

	산 업	직 업	종사상지위
전 체	5,877(100.0)	5,369(100.0)	6,209(100.0)
같 다	861(14.7)	1,171(21.8)	1,868(30.1)
다르다	5,016(85.3)	4,198(78.2)	4,341(69.9)

11) 14세 무렵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머니의 경제활동상태를 답하게 하였다. 해당 응답자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빈 도(명)	비 율(%)
전 체		13,317	100.0
14세 무렵 해 당되는 분	아버지	12,137	91.1
	어머니	1,037	7.8
	두 분 다 돌아가심	143	1.1
	모름/무응답		

第 4 章

經濟活動狀態

第 1 節 人口學的 特性과 經濟活動狀態

전체 개인 응답자에 대하여 경제활동상태를 크게 취업자와 실업자¹²⁾,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었으며, 취업자는 다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비경제활동인구는 비학생 인구나 학생 인구나 나누었다.

각 집단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분포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 13,317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은 취업자에 해당하는 임금근로자이며 30.1%에 달한다. 남성은 전체 남성의 39.1%를 차지하는 임금근로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전체 여성의 43.2%를 차지하는 비임금근로자인 비학생 인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연령별로 경제활동상태의 분포를 보면, 아직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않은 20세 미만은 학생 인구의 비중이 83.4%로 현저히 높고, 20세~50세 미만에 해당하는 모든 응답자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다. 반면에 50세 이상은 비학생 인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상태의 분포를 살펴보면, 무

12) 여기서의 실업자는 지난 한 달 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경험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학과 고졸 미만의 경우에는 비학생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고, 고졸과 전문대졸, 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을 보았을 때,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이 30대인 경우와 교육수준이 고졸인 경우에 임금근로자가 밀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비임금근로자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많으며, 연령이 증가하고 교육수준이 감소할수록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다. 한편 실업자 집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고 나타나는데, 이는 남성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그 밖에 실업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집단을 살펴보면, 20대 초반인 경우와 대졸 미만인 경우이며, 남성 기혼자 중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第 2 節 家口主와의 關係別 經濟活動 狀態

가구주와의 관계는 크게 가구주와 그 배우자 그리고 부모와 자녀, 형제로 나누었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 및 형제를 각각 포함하였으며, 자녀와 형제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다. 가구주와 그 형제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각각 44.7%와 44.3%를 차지하고 있는 임금근로자이고, 배우자와 그 부모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각각 52.6%와 88.6%를 차지하는 비학생 인구이다. 전체 가구주 중 8.9%가 실업자이고, 17.0%가 학생을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이다.

<표 4-1> 인구학적 특성별 경제활동상태

(단위 : 명, %)

		전 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비학생 인구	학생 인구	
전 체		13,317(100.0)	4,012(30.1)	2,415(18.1)	1,255(9.4)	3,876(29.1)	1,759(13.2)	
성 별	남 성	6,468(100.0)	2,531(39.1)	1,411(21.8)	677(10.5)	919(14.2)	930(14.4)	
	여 성	6,849(100.0)	1,481(21.6)	1,004(14.7)	578(8.4)	2,957(43.2)	829(12.1)	
연 령	15~19세	1,566(100.0)	81(5.2)	1(0.1)	116(7.4)	62(4.0)	1,306(83.4)	
	20~24세	1,258(100.0)	430(34.2)	32(2.5)	213(16.9)	222(17.6)	361(28.7)	
	25~29세	1,485(100.0)	661(44.5)	128(8.6)	183(12.3)	435(29.3)	78(5.3)	
	30~39세	3,045(100.0)	1,279(42.0)	691(22.7)	260(8.5)	806(26.5)	9(0.3)	
	40~49세	2,549(100.0)	968(38.0)	782(30.7)	234(9.2)	563(22.1)	2(0.1)	
	50~59세	1,689(100.0)	448(26.5)	493(29.2)	174(10.3)	574(34.0)	-	
	60세 이상	1,725(100.0)	145(8.4)	288(16.7)	75(4.3)	1,214(70.4)	3(0.2)	
혼 인 상 태 ¹⁾	남 성	미 혼	2,095(100.0)	564(26.9)	80(3.8)	279(13.3)	252(12.0)	920(43.9)
		기혼 유배우	4,146(100.0)	1,913(46.1)	1,288(31.1)	359(8.7)	576(13.9)	10(0.2)
		기혼 무배우	223(100.0)	53(23.8)	41(18.4)	39(17.5)	90(40.4)	-
	여 성	미 혼	1,761(100.0)	541(30.7)	51(2.9)	201(11.4)	144(8.2)	824(46.8)
		기혼 유배우	4,150(100.0)	783(18.9)	817(19.7)	314(7.6)	2,233(53.8)	3(0.1)
		기혼 무배우	928(100.0)	156(16.8)	136(14.7)	63(6.8)	571(61.5)	2(0.2)
교 육 수 준 ²⁾	무 학	856(100.0)	70(8.2)	139(16.2)	32(3.7)	615(71.8)	-	
	고졸 미만	4,570(100.0)	894(19.6)	962(21.1)	404(8.8)	1,287(28.2)	1,023(22.4)	
	고 졸	4,405(100.0)	1,651(37.5)	889(20.2)	461(10.5)	1,354(30.7)	50(1.1)	
	대졸 미만 ³⁾	1,137(100.0)	166(14.6)	48(4.2)	168(14.8)	129(11.3)	626(55.1)	
	전문대졸	711(100.0)	351(49.4)	118(16.6)	80(11.3)	152(21.4)	10(1.4)	
	대졸 이상	1,637(100.0)	880(53.8)	259(15.8)	110(6.7)	338(20.6)	50(3.1)	

주 : 1) 혼인상태가 무응답인 14명은 분석에서 제외.
 2) 교육수준이 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
 3) 앞의 <표 2-5> 참조.

〈표 4-2〉 가구주와의 관계별 경제활동상태

(단위 : 명, %)

	전 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비학생인구	학생인구
전 체	13,317(100.0)	4,012(30.1)	2,415(18.1)	1,255(9.4)	3,875(29.1)	1,759(13.2)
가구주	4,989(100.0)	2,229(44.7)	1,440(28.9)	444(8.9)	848(17.0)	28(0.6)
배우자	3,929(100.0)	754(19.2)	805(20.5)	301(7.7)	2,066(52.6)	3(0.1)
부 모	528(100.0)	21(4.0)	27(5.1)	11(2.1)	468(88.6)	1(0.2)
자 녀	3,620(100.0)	918(25.4)	135(3.7)	460(12.7)	444(12.3)	1,663(45.9)
형 제	158(100.0)	70(44.3)	8(5.1)	27(17.1)	25(15.8)	28(17.7)
기 타 ¹⁾	93(100.0)	20(21.5)	-	12(12.9)	25(26.9)	36(38.7)

주: 부모, 자녀, 형제의 경우는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를 포함하며, 자녀, 형제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1) 조부모, 손자녀(그 배우자 포함), 기타 친인척과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을 포함.

第 3 節 居住地別 經濟活動狀態

현 거주지별로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충남과 경북을 제외한 전 조사 지역에 걸쳐 비임금근로자보다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서울, 경기 지역은 임금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다. 또 실업자 집단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로 11.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비학생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31.7%를 차지하는 강원 지역이고, 학생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18.2%를 차지하는 광주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경제활동상태는 현 거주지와는 무관하게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4-3〉 현 거주지별 경제활동상태

(단위 : 명, %)

	전 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비학생인구	학생인구
전 체	13,317(100.0)	4,012(30.1)	2,415(18.1)	1,255(9.4)	3,876(29.1)	1,759(13.2)
서 울	3,576(100.0)	1,153(32.2)	574(16.1)	369(10.3)	1,014(28.4)	466(13.0)
부 산	1,324(100.0)	357(27.0)	204(15.4)	134(10.1)	416(31.4)	213(16.1)
대 구	878(100.0)	268(30.5)	134(15.3)	102(11.6)	239(27.2)	135(15.4)
대 전	425(100.0)	138(32.5)	66(15.5)	38(8.9)	120(28.2)	63(14.8)
인 천	819(100.0)	260(31.7)	133(16.2)	73(8.9)	244(29.8)	109(13.3)
광 주	439(100.0)	129(29.4)	76(17.3)	35(8.0)	119(27.1)	80(18.2)
울 산	323(100.0)	100(31.0)	46(14.2)	33(10.2)	91(28.2)	53(16.4)
경 기	2,163(100.0)	729(33.7)	359(16.6)	198(9.2)	671(31.0)	206(9.5)
강 원	334(100.0)	100(29.9)	59(17.7)	31(9.3)	106(31.7)	38(11.4)
충 북	327(100.0)	81(24.8)	75(22.9)	27(8.3)	91(27.8)	53(16.2)
충 남	343(100.0)	77(22.4)	105(30.6)	27(7.9)	100(29.2)	34(9.9)
전 북	548(100.0)	155(28.3)	112(20.4)	62(11.3)	145(26.5)	74(13.5)
전 남	329(100.0)	88(26.7)	82(24.9)	19(5.8)	96(29.2)	44(13.4)
경 북	686(100.0)	155(22.6)	214(31.2)	51(7.4)	185(27.0)	81(11.8)
경 남	803(100.0)	222(27.6)	176(21.9)	56(7.0)	239(29.8)	110(13.7)

第 5 章

就業者 特性

第 1 節 就業者 分布

1.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전체 취업자 6,427명 중 임금근로자는 4,012명으로 62.4%를 차지하고, 비임금근로자는 2,415명으로 37.6%를 차지한다. 이들을 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금근로자 집단의 성별 분포는 남성의 비중이 현저히 높으나 비임금근로자 집단의 성별 분포를 보면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줄어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지만, 40대에 들어서면서 그 비중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한다. 비임금근로자의 비중도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다가, 임금근로자보다 늦은 5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전반적으로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비임금근로자의 비중보다 높으나 50대 이후에는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임금근로자의 비중을 앞서게 된다.

혼인상태에 따른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기혼 남성의 경우에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고, 배우자

가 있는 기혼 여성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혼 남녀의 경우에는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산업과 직업

취업자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23.5%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집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또한 제조업으로서, 전체의 29.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비임금근로자 집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서 29.7%에 달한다. 대체적으로 농림어업이나 서비스업종의 산업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광공업 및 건설업 등의 산업에서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다.

직업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을 보면 임금근로자의 과반수인 44.5%가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장치·기계 조작용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기능직에 종사하고 있고, 비임금근로자의 과반수인 40.6%가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어업숙련직은 비임금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은 기능직으로서, 이는 전체의 36.1%에 달한다.

3. 기업체 종류와 사업체 규모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현재 일자리의 기업체 종류를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로서 전체의 71.5%를 차지하고 있다. 군인이나 공무원 등 정부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10.7%로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인다.

〈표 5-1〉 인구학적 특성별 취업자 분포

(단위 : 명, %)

		전 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전 체		6,427(100.0)	4,012(100.0)	2,415(100.0)	
성별	남 성	3,942(61.3)	2,531(63.1)	1,411(58.4)	
	여 성	2,485(38.7)	1,481(36.9)	1,004(41.6)	
연령	15~19세	82(1.3)	81(2.0)	1(0.0)	
	20~24세	462(7.2)	430(10.7)	32(1.3)	
	25~29세	789(12.3)	661(16.5)	128(5.3)	
	30~39세	1,970(30.7)	1,279(31.9)	691(28.6)	
	40~49세	1,750(27.2)	968(24.1)	782(32.4)	
	50~59세	941(14.6)	448(11.2)	493(20.4)	
	60세 이상	433(6.7)	145(3.6)	288(11.9)	
혼인 상태 ¹⁾	남 성	미 혼	644(10.0)	564(14.1)	80(3.3)
		기혼 유배우	3,201(49.8)	1,913(47.7)	1,288(53.4)
		기혼 무배우	94(1.5)	53(1.3)	41(1.7)
	여 성	미 혼	592(9.2)	541(13.5)	51(2.1)
		기혼 유배우	1,600(24.9)	783(19.5)	817(33.9)
		기혼 무배우	292(4.5)	156(3.9)	136(5.6)
교육 수준	무 학	209(3.3)	70(1.7)	139(5.8)	
	고졸 미만	1,856(28.9)	894(22.3)	962(39.8)	
	고 졸	2,540(39.5)	1,651(41.2)	889(36.8)	
	대졸 미만 ²⁾	214(3.3)	166(4.1)	48(2.0)	
	전문대졸	469(7.3)	351(8.7)	118(4.9)	
	대졸 이상	1,139(17.7)	880(21.9)	259(10.7)	

주: 1) 혼인상태가 무응답인 4명은 분석에서 제외.

2) 앞의 <표 2-5> 참조.

〈표 5-2〉 산업과 직업별 취업자 분포

(단위 : 명, %)

		전 체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전 체		6,427(100.0)	4,012(100.0)	2,415(100.0)
산업	농업·수렵업 및 임업·어업	550(8.6)	36(0.9)	514(21.3)
	제조업	1,508(23.5)	1,195(29.8)	313(13.0)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3(0.4)	22(0.5)	1(0.0)
	건설업	488(7.6)	393(9.8)	95(3.9)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1,154(18.0)	436(10.9)	718(29.7)
	숙박 및 음식점업	500(7.8)	179(4.5)	321(13.3)
	운수·창고 및 통신업	371(5.8)	276(6.9)	95(3.9)
	금융 및 보험업	258(4.0)	244(6.1)	14(0.6)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405(6.3)	307(7.7)	98(4.1)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56(4.0)	256(6.4)	-
	교육서비스업	380(5.9)	323(8.1)	57(2.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39(2.2)	116(2.9)	23(1.0)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303(4.7)	144(3.6)	159(6.6)
	가사서비스업	42(0.7)	39(1.0)	3(0.1)
	국제 및 기타외국기관	4(0.1)	3(0.1)	1(0.0)
	광업	8(0.1)	8(0.2)	-
분류불가	38(0.6)	35(0.9)	3(0.1)	
직업	임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1,222(19.0)	942(23.5)	280(11.6)
	사무직원	819(12.7)	760(18.9)	59(2.4)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1,430(22.2)	449(11.2)	981(40.6)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526(8.2)	17(0.4)	509(21.1)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근로자	2,320(36.1)	1,786(44.5)	534(22.1)
	군인	13(0.2)	13(0.3)	-
분류불가	97(1.5)	45(1.1)	52(2.2)	

〈표 5-3〉 기업체 종류와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분포

(단위 : 명, %)

		전 체	임금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기업체 종류 ¹⁾	전 체	-	4,011(100.0)	-
	민간회사, 개인사업체	-	2,869(71.5)	-
	외국인 회사	-	36(0.9)	-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	-	160(4.0)	-
	(재단, 사단)법인단체	-	173(4.3)	-
	정부기관(군인, 공무원)	-	430(10.7)	-
	특정회사나 사업체에 소속 되지 않음	-	278(6.9)	-
	기타	-	65(1.6)	-
사업체 규모 ²⁾	전 체	6,427(100.0)	4,012(100.0)	2,415(100.0)
	0인	1,786(27.8)	-	1,786(74.0)
	1~4인	947(14.7)	468(11.7)	479(19.8)
	5~9인	460(7.2)	381(9.5)	79(3.3)
	10~49인	799(12.4)	743(18.5)	56(2.3)
	50~99인	264(4.1)	261(6.5)	3(0.1)
	100~499인	426(6.6)	421(10.5)	5(0.2)
	500인 이상	717(11.2)	717(17.9)	-
	모름/무응답	1,208(16.0)	1,021(25.4)	7(0.3)

주: 1) 기업체 종류가 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

2) 사업체 규모에서는 임금을 받는 종업원수만 고려.

사업체 규모는 고용주 등을 제외한 임금을 받는 종업원수만을 고려한 것으로 자영업자 혼자서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가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74.0%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체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비임금근로자가 해당하는 비중은 감소하게 된다. 한편 임금근로자 중 모름 또는 무응답자를 제외하면, 10~49인 이하의 규모와 500인 이상의 규모가 각각

18.5%와 17.9%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규모에 비해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다.

第 2 節 人口特性別 就業形態

전체 응답자들의 취업형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산업, 직업, 기업체 종류, 사업체 규모 그리고 노동조합 여부별로 인구학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1. 산 업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25.7%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이다. 광공업은 23.6%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남성은 광공업에 25.7%가 종사하고 있고, 여성은 개인서비스업에 33.4%가 종사한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대 이상 40대 미만의 연령은 광공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은 개인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또 60세 이상은 과반수인 48.0%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1차산업의 노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혼인상태에 따른 산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은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게 모두 광공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으나, 여성은 미혼인 경우 공공서비스업에, 기혼인 경우 개인서비스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산업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무학인 경우 농림어업에 종사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과반수 이상인 51.2%에 달한다. 고졸 미만과 고졸의 경우, 개인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광공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대졸 미만과 전문대졸,

대졸 이상은 모두 공공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졸 미만과 고졸과 마찬가지로 광공업이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 직 업

취업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 중에서 가장 많은 직업은 기능직으로서 36.1%를 차지한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기능직이, 여성은 서비스직이 가장 많다. 연령집단 중에서는 20대 초반 집단과 60세 이상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이 기능직에서 그 비중이 가장 높다.

직업 분포를 성별에 따른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결혼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집단에서 기능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여성은 미혼인 경우에는 사무직에서, 기혼인 경우에는 서비스직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 직업 분포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무학인 경우에는 농림어업직이 가장 많고, 고졸 미만에서 대졸 미만은 기능직이, 전문대졸 이상은 전문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3. 기업체 종류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기업체 종류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기업체 종류는 민간회사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인구학적 특성별로 나눈 다른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과반수가 넘는 높은 비중을 민간회사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교육수준별로 그 분포를 살펴보면 외국인 회사, 공기업, 법인단체, 정부기관 등의 각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4>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

(단위 : 명, %)

		전 체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공익설비	개인 서비스업	금융 서비스업	공공 서비스업	
전 체		6,427(100.0)	550(8.6)	1,516(23.6)	488(7.6)	394(6.1)	1,654(25.7)	663(10.3)	1,124(17.5)	
성 별	남 성	3,942(100.0)	291(7.4)	1,014(25.7)	439(11.1)	358(9.1)	825(20.9)	415(10.5)	576(14.6)	
	여 성	2,485(100.0)	259(10.4)	502(20.2)	49(2.0)	36(1.4)	829(33.4)	248(10.0)	548(22.1)	
연 령	15~19세	82(100.0)	-	27(32.9)	7(8.5)	2(2.4)	26(31.7)	3(3.7)	16(19.5)	
	20~24세	462(100.0)	3(0.6)	130(28.1)	24(5.2)	10(2.2)	104(22.5)	73(15.8)	116(25.1)	
	25~29세	789(100.0)	5(0.6)	224(28.4)	55(7.0)	44(5.6)	188(23.8)	111(14.1)	155(19.6)	
	30~39세	1,970(100.0)	67(3.4)	546(27.7)	140(7.1)	140(7.1)	528(26.8)	198(10.1)	334(17.0)	
	40~49세	1,750(100.0)	108(6.2)	402(23.0)	154(8.8)	134(7.7)	511(29.2)	140(8.0)	293(16.7)	
	50~59세	941(100.0)	159(16.9)	165(17.5)	83(8.8)	50(5.3)	232(24.7)	89(9.5)	162(17.2)	
	60세 이상	433(100.0)	208(48.0)	22(5.1)	25(5.8)	14(3.2)	65(15.0)	49(11.3)	48(11.1)	
혼 인 상 태 ¹⁾	남 성	미 혼	644(100.0)	9(1.4)	198(30.7)	64(9.9)	42(6.5)	153(23.8)	83(12.9)	90(14.0)
		기 혼	3,201(100.0)	272(8.5)	795(24.8)	361(11.3)	302(9.4)	652(20.4)	329(10.3)	471(14.7)
		유배우								
		기 혼 무배우	94(100.0)	9(9.6)	21(22.3)	14(14.9)	14(14.9)	19(20.2)	3(3.2)	14(14.9)
	여 성	미 혼	592(100.0)	2(0.3)	136(23.0)	22(3.7)	13(2.2)	132(22.3)	89(15.0)	194(32.8)
		기 혼	1,600(100.0)	204(12.8)	334(20.9)	17(1.1)	21(1.3)	581(36.3)	136(8.5)	298(18.6)
		유배우								
		기 혼 무배우	292(100.0)	53(18.2)	31(10.6)	10(3.4)	2(0.7)	116(39.7)	23(7.9)	56(19.2)
교 육 수 준	무 학	209(100.0)	107(51.2)	21(10.0)	9(4.3)	-	44(21.1)	7(3.3)	20(9.6)	
	고졸 미만	1,856(100.0)	336(18.1)	433(23.3)	156(8.4)	91(4.9)	552(29.7)	99(5.3)	182(9.8)	
	고졸	2,540(100.0)	88(3.5)	697(27.4)	210(8.3)	196(7.7)	746(29.4)	275(10.8)	305(12.0)	
	대졸 미만 ²⁾	214(100.0)	1(0.5)	43(20.1)	20(9.3)	12(5.6)	42(19.6)	30(14.0)	66(30.8)	
	전문대졸	469(100.0)	9(1.9)	105(22.4)	33(7.0)	32(6.8)	94(20.0)	65(13.9)	130(27.7)	
	대졸 이상	1,139(100.0)	9(0.8)	217(19.1)	60(5.3)	63(5.5)	176(15.5)	187(16.4)	421(37.0)	

주 : 농림어업에는 농업, 수렵업 및 임업, 어업 등을 포함.

공익설비에는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을 포함.

개인서비스업에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을 포함.

금융서비스업에는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이 포함.

공공서비스업에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외국기관 등을 포함.

산업이 분류불가인 38명은 표에서 제외.

1) 혼인상태가 무응답인 4명은 분석에서 제외.

2) 앞의 <표 2-5> 참조.

〈표 5-5〉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 분포

(단위 : 명, %)

		전 체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농림 어업직	기능직	
전 체		6,427(100.0)	1,222(19.0)	819(12.7)	1,430(22.2)	526(8.2)	2,320(36.1)	
성별	남 성	3,942(100.0)	791(20.1)	430(10.9)	600(15.2)	274(7.0)	1,756(44.5)	
	여 성	2,485(100.0)	431(17.3)	389(15.7)	830(33.4)	252(10.1)	564(22.7)	
연령	15~19세	82(100.0)	4(4.9)	24(29.3)	24(29.3)	-	30(36.6)	
	20~24세	462(100.0)	109(23.6)	146(31.6)	87(18.8)	3(0.6)	108(23.4)	
	25~29세	789(100.0)	191(24.2)	200(25.3)	125(15.8)	3(0.4)	263(33.3)	
	30~39세	1,970(100.0)	403(20.5)	262(13.3)	438(22.2)	63(3.2)	766(38.9)	
	40~49세	1,750(100.0)	338(19.3)	129(7.4)	471(26.9)	97(5.5)	677(38.7)	
	50~59세	941(100.0)	130(13.8)	51(5.4)	232(24.7)	154(16.4)	362(38.5)	
	60세 이상	433(100.0)	47(10.9)	7(1.6)	53(12.2)	206(47.6)	114(26.3)	
혼인 상태 ¹⁾	남 성	미혼	644(100.0)	115(17.9)	98(15.2)	93(14.4)	7(1.1)	321(49.8)
		기혼	3,201(100.0)	665(20.8)	328(10.2)	492(15.4)	257(8.0)	1,379(43.1)
		유배우						
		기혼 무배우	94(100.0)	11(11.7)	3(3.2)	15(16.0)	9(9.6)	55(58.5)
	여 성	미혼	592(100.0)	181(30.6)	238(40.2)	109(18.4)	2(0.3)	54(9.1)
		기혼	1,600(100.0)	228(14.3)	148(9.3)	595(37.2)	198(12.4)	420(26.3)
		유배우						
		기혼 무배우	292(100.0)	22(7.5)	3(1.0)	126(43.2)	52(17.8)	89(30.5)
교육 수준	무학	209(100.0)	4(1.9)	-	46(22.0)	105(50.2)	53(25.4)	
	고졸 미만	1,856(100.0)	55(3.0)	38(2.0)	526(28.3)	326(17.6)	892(48.1)	
	고졸	2,540(100.0)	276(10.9)	383(15.1)	657(25.9)	80(3.1)	1,091(43.0)	
	대졸 미만 ²⁾	214(100.0)	59(27.6)	50(23.4)	38(17.8)	-	63(29.4)	
	전문대졸	469(100.0)	177(37.7)	108(23.0)	70(14.9)	8(1.7)	95(20.3)	
	대졸 이상	1,139(100.0)	651(57.2)	240(21.2)	93(8.2)	7(0.6)	126(11.1)	

주: 전문직에는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등을 포함.

사무직에는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등을 포함.

농림어업직에는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등을 포함.

기능직에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근로자 등을 포함.

군인이나 직업이 분류불가인 110명은 표에서 제외.

1) 혼인상태가 무응답인 4명은 분석에서 제외.

2) 앞의 <표 2-5> 참조.

<표 5-6>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기업체 종류

(단위 : 명, %)

		전 체	민간회사	외국인 회사	공기업	법인 단체	정부기관	기 타	
전 체		4,011(100.0)	2,869(71.5)	36(0.9)	160(4.0)	173(4.3)	430(10.7)	343(8.6)	
성별	남 성	2,530(100.0)	1,751(69.2)	21(0.8)	121(4.8)	101(4.0)	300(11.9)	236(9.3)	
	여 성	1,481(100.0)	1,118(75.5)	15(1.0)	39(2.6)	72(4.9)	130(8.8)	107(7.2)	
연령	15~19세	81(100.0)	71(87.7)	3(3.7)	1(1.2)	4(4.9)	1(1.2)	1(1.2)	
	20~24세	430(100.0)	357(83.0)	7(1.6)	7(1.6)	19(4.4)	24(5.6)	16(3.7)	
	25~29세	661(100.0)	538(81.4)	4(0.6)	27(4.1)	34(5.1)	40(6.1)	18(2.7)	
	30~39세	1,278(100.0)	923(72.2)	18(1.4)	73(5.7)	52(4.1)	132(10.3)	80(6.3)	
	40~49세	968(100.0)	654(67.6)	2(0.2)	39(4.0)	39(4.0)	125(12.9)	109(11.3)	
	50~59세	448(100.0)	245(54.7)	2(0.4)	11(2.5)	20(4.5)	85(19.0)	85(19.0)	
	60세 이상	145(100.0)	81(55.9)	-	2(1.4)	5(3.4)	23(15.9)	34(23.4)	
혼인 상태 ¹⁾	남 성	미 혼	563(100.0)	460(81.7)	6(1.1)	13(2.3)	22(3.9)	32(5.7)	30(5.3)
		기 혼	1,913(100.0)	1,261(65.9)	14(0.7)	107(5.6)	76(4.0)	262(13.7)	193(10.1)
		유배우							
		기 혼	53(100.0)	29(54.7)	1(1.9)	1(1.9)	3(5.7)	6(11.3)	13(24.5)
	여 성	미 혼	541(100.0)	440(81.3)	8(1.5)	17(3.1)	30(5.5)	34(6.3)	12(2.2)
		기 혼	783(100.0)	574(73.3)	7(0.9)	20(2.6)	37(4.7)	82(10.5)	63(8.0)
		유배우							
		기 혼	156(100.0)	103(66.0)	-	2(1.3)	5(3.2)	14(9.0)	32(20.5)
교육 수준	무 학	70(100.0)	36(51.4)	-	1(1.4)	1(1.4)	5(7.1)	27(38.6)	
	고졸 미만	894(100.0)	663(74.2)	1(0.1)	8(0.9)	13(1.5)	50(5.6)	159(17.8)	
	고 졸	1,651(100.0)	1,310(79.3)	14(0.8)	49(3.0)	42(2.5)	119(7.2)	117(7.1)	
	대졸 미만 ²⁾	166(100.0)	116(69.9)	1(0.6)	9(5.4)	10(6.0)	19(11.4)	11(6.6)	
	전문대졸	351(100.0)	248(70.7)	4(1.1)	19(5.4)	26(7.4)	46(13.1)	8(2.3)	
	대졸 이상	879(100.0)	496(56.4)	16(1.8)	74(8.4)	81(9.2)	191(21.7)	21(2.4)	

주: 민간회사에는 민간회사와 개인사업체 등을 포함.

공기업에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 등을 포함.

법인단체에는 재단 및 사단 법인단체를 포함.

정부기관에는 군인, 공무원 등을 포함.

기타에는 특정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

기업체 종류가 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

1) 혼인상태가 무응답인 2명은 분석에서 제외.

2) 앞의 <표 2-5> 참조.

4. 사업체 규모

취업자의 사업체 규모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는 자영업자 혼자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로서 전체의 33.1%를 차지한다. 이러한 추세는 남녀 모두에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연령별 분포에 따른 사업체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대 이하의 집단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체 규모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30대에 접어들면서 자영업자 혼자서 경영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남성 중 미혼인 경우는 각 사업체 규모별로 고루 분포하고 있으나 기혼인 경우에는 자영업자 혼자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추세는 여성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교육수준별로 사업체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고졸 이하까지는 자영업자 혼자서 경영하는 경우, 대졸 미만의 경우에는 1~4인 이하인 경우, 전문대졸 이상에서는 500인 이상인 경우가 각각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종사하고 있는 사업체 규모는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노동조합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유무 및 가입 여부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업자 중에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전체의 71.5%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중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노동조합이 있으며 가입한 경우가 더 높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노동조합이 있다는 비중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는 30대까지 그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다가 40대 이상으로 접어들면 서 감소하는 추세로 바뀐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차지하는 비

<표 5-7>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사업체 규모

(단위 : 명, %)

		전 체	0인	1~4인	5~9인	10~49인	50~99인	100~499인	500인 이상	
전 체		5,399(100.0)	1,786(33.1)	947(17.5)	460(8.5)	799(14.8)	264(4.9)	426(7.9)	717(13.3)	
성별	남 성	3,284(100.0)	974(29.7)	529(16.1)	278(8.5)	517(15.7)	194(5.9)	300(9.1)	492(15.0)	
	여 성	2,115(100.0)	812(38.4)	418(19.8)	182(8.6)	282(13.3)	70(3.3)	126(6.0)	225(10.6)	
연령	15~19세	62(100.0)	1(1.6)	24(38.7)	7(11.3)	11(17.7)	4(6.5)	6(9.7)	9(14.5)	
	20~24세	377(100.0)	26(6.9)	69(18.3)	56(14.9)	88(23.3)	21(5.6)	47(12.5)	70(18.6)	
	25~29세	692(100.0)	82(11.8)	137(19.8)	83(12.0)	129(18.6)	44(6.4)	60(8.7)	157(22.7)	
	30~39세	1,669(100.0)	475(28.5)	311(18.6)	121(7.2)	245(14.7)	91(5.5)	146(8.7)	280(16.8)	
	40~49세	1,466(100.0)	531(36.2)	280(19.1)	123(8.4)	202(13.8)	68(4.6)	112(7.6)	150(10.2)	
	50~59세	758(100.0)	406(53.6)	94(12.4)	55(7.3)	90(11.9)	27(3.6)	43(5.7)	43(5.7)	
	60세 이상	375(100.0)	265(70.7)	32(8.5)	15(4.0)	34(9.1)	9(2.4)	12(3.2)	8(2.1)	
혼인 상태 ¹⁾	남 성	미혼	535(100.0)	49(9.2)	118(22.1)	67(12.5)	113(21.1)	40(7.5)	51(9.5)	97(18.1)
		기혼	2,675(100.0)	894(33.4)	400(15.0)	205(7.7)	395(14.8)	152(5.7)	239(8.9)	390(14.6)
		유배우								
		기혼 무배우	71(100.0)	30(42.3)	10(14.1)	6(8.5)	9(12.7)	1(1.4)	10(14.1)	5(7.0)
	여 성	미혼	488(100.0)	36(7.4)	90(18.4)	73(15.0)	111(22.7)	22(4.5)	58(11.9)	98(20.1)
		기혼	1,390(100.0)	657(47.3)	273(19.6)	93(6.7)	147(10.6)	46(3.3)	62(4.5)	112(8.1)
		유배우								
		기혼 무배우	236(100.0)	119(50.4)	55(23.3)	16(6.8)	23(9.7)	2(0.8)	6(2.5)	15(6.4)
교육 수준	무 학	174(100.0)	137(78.7)	12(6.9)	6(3.4)	14(8.0)	2(1.1)	2(1.1)	1(0.6)	
	고졸 미만	1,607(100.0)	833(51.8)	263(16.4)	124(7.7)	192(11.9)	54(3.4)	79(4.9)	62(3.9)	
	고 졸	2,165(100.0)	614(28.4)	423(19.5)	197(9.1)	346(16.0)	118(5.5)	187(8.6)	280(12.9)	
	대졸 미만 ²⁾	178(100.0)	24(13.5)	39(21.9)	15(8.4)	34(19.1)	9(5.1)	21(11.8)	36(20.2)	
	전문대졸	395(100.0)	71(18.0)	64(16.2)	47(11.9)	68(17.2)	29(7.3)	30(7.6)	86(21.8)	
	대졸 이상	880(100.0)	107(12.2)	146(16.6)	71(8.1)	145(16.5)	52(5.9)	107(12.2)	252(28.6)	

주: 사업체 규모는 임금을 받는 종업원수만 고려.
 사업체 규모가 무응답인 1,028명은 분석에서 제외.
 1) 혼인상태가 무응답인 4명은 분석에서 제외.
 2) 앞의 <표 2-5> 참조.

〈표 5-8〉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노동조합 유무 및 가입 여부

(단위 : 명, %)

		전 체	있다			없다	모른다	
			있다	가입	미가입			
전 체		4,012(100.0)	938(23.4)	596(14.9)	342(8.5)	2,870(71.5)	204(5.1)	
성별	남 성	2,531(100.0)	705(27.9)	467(18.5)	238(9.4)	1,736(68.6)	90(3.6)	
	여 성	1,481(100.0)	233(15.7)	129(8.7)	104(7.0)	1,134(76.6)	114(7.7)	
연령	15~19세	81(100.0)	9(11.1)	6(7.4)	3(3.7)	62(76.5)	10(12.3)	
	20~24세	430(100.0)	94(21.9)	56(13.0)	38(8.8)	305(70.9)	31(7.2)	
	25~29세	661(100.0)	144(21.8)	92(13.9)	52(7.9)	490(74.1)	27(4.1)	
	30~39세	1,279(100.0)	352(27.5)	229(17.9)	123(9.6)	868(67.9)	59(4.6)	
	40~49세	968(100.0)	238(24.6)	151(15.6)	87(9.0)	684(70.7)	46(4.8)	
	50~59세	448(100.0)	90(20.1)	57(12.7)	33(7.4)	336(75.0)	22(4.9)	
	60세 이상	145(100.0)	11(7.6)	5(3.4)	6(4.1)	125(86.2)	9(6.2)	
혼인 상태 ¹⁾	남성	미 혼	564(100.0)	105(18.6)	69(12.2)	36(6.4)	428(75.9)	31(5.5)
		기혼유배우	1,913(100.0)	586(30.6)	388(20.3)	198(10.4)	1,271(66.4)	56(2.9)
		기혼무배우	53(100.0)	14(26.3)	10(18.9)	4(7.5)	36(67.9)	3(5.7)
	여성	미 혼	541(100.0)	116(21.4)	64(11.8)	52(9.6)	386(71.3)	39(7.2)
		기혼유배우	783(100.0)	104(13.3)	58(7.4)	46(5.9)	615(78.5)	64(8.2)
		기혼무배우	156(100.0)	13(8.3)	7(4.5)	6(3.8)	132(84.6)	11(7.1)
교육 수준	무 학	70(100.0)	6(8.6)	4(5.7)	2(2.9)	55(78.6)	9(12.9)	
	고졸 미만	894(100.0)	132(14.8)	109(12.2)	23(2.6)	705(78.9)	57(6.4)	
	고 졸	1,651(100.0)	388(23.5)	279(16.9)	109(6.6)	1,178(71.4)	85(5.1)	
	대졸 미만 ²⁾	166(100.0)	45(27.1)	31(18.7)	14(8.4)	111(66.9)	10(6.0)	
	전문대졸	351(100.0)	92(26.2)	49(14.0)	43(12.3)	247(70.4)	12(3.4)	
	대졸 이상	880(100.0)	275(31.3)	124(14.1)	151(17.2)	574(65.2)	31(3.5)	

주: 1) 혼인상태가 무응답인 2명은 분석에서 제외.

2) 앞의 <표 2-5> 참조.

중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와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성별에 따른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서 노동조합이 있고 그에 가입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 여성은 미

혼인 경우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노동조합의 유무에 관련된 분포는 다음과 같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가지며, 노동조합의 여부를 모르는 사람들의 비중도 점점 줄어든다. 특이한 점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도 증가하지만, 반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비중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이다.

第 3 節 副 業

취업자 집단에서 주업 이외의 활동인 부업에 관련한 사항들을 살펴본다. 그러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부업을 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194명으로서 전체 취업자의 3.0%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대답을 전반적인 취업자들의 특징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1. 부업 여부 및 부업 이유

부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는 임금근로자보다 비임금근로자가 조금 더 많다. 부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과반수 이상인 52.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업의 소득이 적은 것을 주된 이유로 답하였다. 그 외에 자기발전이나 장래를 위해서, 여가 활용을 위해서, 학비나 용돈 마련을 위해서의 순으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 부업의 주당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일수 및 월평균 수입

한편, 성별에 따른 혼인상태별로 부업의 주당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일

수 및 월평균 수입 등을 살펴보았다. 주당 근로시간의 경우, 혼인상태나 성별과 무관하게 주당 10시간 미만의 시간을 부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월평균 근로일수의 경우, 기혼 여성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집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단에서 10일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업의 월평균 수입의 분포를 보면 월 평균 수입이 20만~5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다.

<표 5-9> 취업자의 부업 여부와 부업 이유

(단위 : 명, %)

		전 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전 체		6,427(100.0)	4,012(100.0)	2,415(100.0)
부업을 안함		6,233(97.0)	3,932(98.0)	2,301(95.3)
부업을 함		194(3.0)	80(2.0)	114(4.7)
부업 이유	적은 주업소득	101(52.1)	35(43.8)	66(57.9)
	학비, 용돈 마련	12(6.2)	9(11.3)	3(2.6)
	사회봉사	9(4.6)	2(2.5)	7(6.1)
	자기발전, 장래	31(16.0)	19(23.8)	12(10.5)
	여가 활용	13(6.7)	5(6.3)	8(7.0)
	기타	21(10.8)	9(11.3)	12(10.5)
	모름/무응답	7(3.6)	1(1.3)	6(5.3)

<표 5-10> 남녀 취업자의 혼인상태별 부업

(단위 : 명, %)

		전 체	남 성			여 성		
			미 혼	기혼 유배우	기혼 무배우	미 혼	기혼 유배우	기혼 무배우
전 체		194(100.0)	12(100.0)	110(100.0)	3(100.0)	13(100.0)	40(100.0)	16(100.0)
부업의 주당 근로 시간	10시간 미만	71(36.6)	6(50.0)	39(35.5)	1(33.3)	9(69.2)	10(25.0)	6(37.5)
	10~20시간 미만	49(25.3)	2(16.7)	24(21.8)	2(66.7)	3(23.1)	12(30.0)	6(37.5)
	20~40시간 미만	43(22.2)	2(16.7)	29(26.4)	-	1(7.7)	8(20.0)	3(18.8)
	40시간 이상	20(10.3)	1(8.3)	10(9.1)	-	-	9(22.5)	-
	무응답	11(5.7)	1(8.3)	8(7.3)	-	-	1(2.5)	1(6.3)
부업의 월평균 근로 일수	1~10일 미만	70(36.1)	5(41.7)	37(33.6)	3(100.0)	5(38.5)	10(25.0)	10(62.5)
	10~20일 미만	49(25.3)	3(25.0)	29(26.4)	-	5(38.5)	9(22.5)	3(18.8)
	20일 이상	66(34.0)	3(25.0)	38(34.5)	-	3(23.1)	19(47.5)	3(18.8)
	무응답	9(4.6)	1(8.3)	6(5.5)	-	-	2(5.0)	-
부업의 월평균 수입	10만원 미만	48(24.7)	1(8.3)	21(19.1)	1(33.3)	2(15.4)	14(35.0)	9(56.3)
	10만~20만원 미만	44(22.7)	3(25.0)	24(21.8)	1(33.3)	4(30.8)	9(22.5)	3(18.8)
	20만~50만원 미만	49(25.3)	6(50.0)	29(26.4)	-	5(38.5)	8(20.0)	1(6.3)
	50만원 이상	37(19.1)	1(8.3)	25(22.7)	-	1(7.7)	8(20.0)	2(12.5)
	무응답	16(8.2)	1(8.3)	11(10.0)	1(33.3)	1(7.7)	1(2.5)	1(6.3)

第 6 章

賃金勤勞者の 雇傭形態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근로시간의 형태 및 일시적 혹은 상시적으로 근로하는지의 여부 등이 있다. 본 장에서는 이 같은 기준들에 의한 인구학적인 특징 및 기업체 특징별 분포를 살펴본다.

第 1 節 勤勞契約과 從事上地位

임금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상용직, 일용직, 임시직 등의 종사상지위로 분류된다. 이 절에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유무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종사상지위의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과 기업체 특성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근로계약

임금근로자를 근로계약 기간의 유무에 따라 나누어 보았다. 본 절에서 다루는 근로계약 기간은 사용자와의 근로기간 또는 약속이나 계약이 반복적으로 계속될 경우에도 한 번에 약속하거나 계약하는 근로기간만을 고려한 것이다.

가. 인구학적 특성

임금근로자의 95.6%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정해진 근로계약 기간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이들 중 계약기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근로를 지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84.5%에 달하는 것을 볼 때, 임금근로자의 고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은 근로계약 기간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4.8%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연령별에 있어서 계약기간 유무에 따른 분포를 보면,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가 가장 높은 경우는 10대이고, 계약기간이 없는 사람들 중 근로를 계속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경우는 20대 초반이었으며,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경우는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 계약기간 유무의 분포를 살펴보면,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미혼인 여성의 경우, 계약기간이 없으며 향후 근로를 계속할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계약기간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경우는 배우자가 없는 기혼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근로를 계속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반대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나. 기업체 특성

산업별로 근로계약 기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산업은 농림어업이며, 계약기간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산업은 광공업이다. 또 계약기간이 없으며 근로를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공익설비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근로

〈표 6-1〉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근로 계약

(단위 : 명, %)

		전 체	계약 기간이 있다	계약기간이 없다			
				근로지속 가능	근로지속 불가능		
전 체		4,010(100.0)	176(4.4)	3,834(95.6)	3,387(84.5)	447(11.1)	
성별	남성	2,530(100.0)	105(4.2)	2,425(95.8)	2,140(84.6)	285(11.3)	
	여성	1,480(100.0)	71(4.8)	1,409(95.2)	1,247(84.3)	162(10.9)	
연령	15~19세	81(100.0)	10(12.3)	71(87.7)	63(77.8)	8(9.9)	
	20~24세	430(100.0)	21(4.9)	409(95.1)	377(87.7)	32(7.4)	
	25~29세	661(100.0)	34(5.1)	627(94.9)	578(87.4)	49(7.4)	
	30~39세	1,277(100.0)	38(3.0)	1,239(97.0)	1,115(87.3)	124(9.7)	
	40~49세	968(100.0)	32(3.3)	936(96.7)	807(83.4)	129(13.3)	
	50~59세	448(100.0)	27(6.0)	421(94.0)	345(77.0)	76(17.0)	
	60세 이상	145(100.0)	14(9.7)	131(90.3)	102(70.3)	29(20.0)	
혼인 상태 ¹⁾	남 성	미 혼	563(100.0)	32(5.7)	531(94.3)	470(83.5)	61(10.8)
		기혼유배우	1,913(100.0)	70(3.7)	1,843(96.3)	1,629(85.2)	214(11.2)
		기혼무배우	53(100.0)	3(5.7)	50(94.3)	40(75.5)	10(18.9)
	여 성	미 혼	541(100.0)	26(4.8)	515(95.2)	486(89.8)	29(5.4)
		기혼유배우	782(100.0)	35(4.5)	747(95.5)	651(83.2)	96(12.3)
		기혼무배우	156(100.0)	10(6.4)	146(93.6)	109(69.9)	37(23.7)
교육 수준	무 학	70(100.0)	1(1.4)	69(98.6)	44(62.9)	25(35.7)	
	고졸 미만	894(100.0)	53(5.9)	841(94.1)	683(76.4)	158(17.7)	
	고 졸	1,651(100.0)	45(2.7)	1,606(97.3)	1,418(85.9)	188(11.4)	
	대졸 미만 ²⁾	166(100.0)	19(11.4)	147(88.6)	132(79.5)	15(9.0)	
	전문대졸	350(100.0)	11(3.1)	339(96.9)	316(90.3)	23(6.6)	
	대졸 이상	879(100.0)	47(5.3)	832(94.7)	794(90.3)	38(4.3)	

주: 근로계약이 무응답인 2명은 분석에서 제외.

1) 혼인상태가 무응답인 2명은 분석에서 제외.

2) 앞의 <표 2-5> 참조.

<표 6-2> 임금근로자의 기업체 특성별 근로 계약

(단위 : 명, %)

	전 체	계약기간 이 있다	계약기간이 없다			
			근로지속 가능	근로지속 불가능		
전 체	4,010(100.0)	176(4.4)	3,834(95.6)	3,387(84.5)	447(11.1)	
산업 ¹⁾	농림어업	36(100.0)	4(11.1)	32(88.9)	16(44.4)	16(44.4)
	광공업	1,203(100.0)	27(2.2)	1,176(97.8)	1,076(89.4)	100(8.3)
	건설업	393(100.0)	16(4.1)	377(95.9)	221(56.2)	156(39.7)
	공익설비	298(100.0)	7(2.3)	291(97.7)	275(92.3)	16(5.4)
	개인서비스업	615(100.0)	20(3.3)	595(96.7)	549(89.3)	46(7.5)
	금융서비스업	550(100.0)	22(4.0)	528(96.0)	492(89.5)	36(6.5)
	공공서비스업	881(100.0)	79(9.0)	802(91.0)	731(83.0)	71(8.1)
직업 ²⁾	전문직	941(100.0)	52(5.5)	889(94.5)	838(89.1)	51(5.4)
	사무직	760(100.0)	18(2.4)	742(97.6)	712(93.7)	30(3.9)
	서비스직	449(100.0)	14(3.1)	435(96.9)	392(87.3)	43(9.6)
	농림어업직	17(100.0)	-	17(100.0)	7(41.2)	10(58.8)
	기능직	1,786(100.0)	88(4.9)	1,698(95.1)	1,389(77.8)	309(17.3)
기업체 종류 ³⁾	민간회사	2,868(100.0)	95(3.3)	2,773(96.7)	2,534(88.4)	239(8.3)
	외국인회사	36(100.0)	-	36(100.0)	33(91.7)	3(8.3)
	공기업	160(100.0)	9(5.6)	151(94.4)	144(90.0)	7(4.4)
	법인단체	173(100.0)	26(15.0)	147(85.0)	141(81.5)	6(3.5)
	정부기관	430(100.0)	32(7.4)	398(92.6)	381(88.6)	17(4.0)
	기 타	343(100.0)	14(4.1)	329(95.9)	154(44.9)	175(51.0)
사업체 규모 ⁴⁾	전 체	2,990(100.0)	105(3.5)	2,885(96.5)	2,664(89.1)	221(7.4)
	1~4인	468(100.0)	12(2.6)	456(97.4)	400(85.5)	56(12.0)
	5~9인	381(100.0)	11(2.9)	370(97.1)	330(86.6)	40(10.5)
	10~49인	742(100.0)	21(2.8)	721(97.2)	664(89.5)	57(7.7)
	50~99인	261(100.0)	12(4.6)	249(95.4)	228(87.4)	21(8.0)
	100~499인	421(100.0)	23(5.5)	398(94.5)	377(89.5)	21(5.0)
500인 이상	717(100.0)	26(3.6)	691(96.4)	665(92.7)	26(3.6)	

주 : 근로계약이 무응답인 2명은 분석에서 제외.

- 1) 앞의 <표 5-4> 참조, 산업이 분류불가인 34명은 표에서 제외.
- 2) 앞의 <표 5-5> 참조, 직업이 군인 및 분류불가인 57명은 표에서 제외.
- 3) 앞의 <표 5-6> 참조.
- 4) 앞의 <표 5-7> 참조, 사업체 규모가 모름/무응답인 1,022명은 분석에서 제외.

를 지속할 수 없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역시 농림어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림어업은 계약기간이 있거나 계약기간이 없어도 향후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 나타났다.

직업 중에서 계약기간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직업은 전문직이며, 계약기간이 없고 근로도 계속 지속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직업은 사무직으로 나타났다. 기업체 종류 중에서 계약기간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법인단체이고, 계약기간이 없으며 향후 근로를 계속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경우는 외국인 회사이다. 사업체 규모별로 계약기간의 분포를 보면,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대체적으로 계약기간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과 계약기간이 없으며 근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증가하고, 근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가진다.

2.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중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상용근로자’라 하고,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임시근로자’라 하며,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라 구분한다. 이 같이 구분된 상용직, 임시직 및 일용직 등을 일컬어 일반적으로 ‘종사상지위에 의한 분류’라고 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종사상지위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및 기업체 특성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았다.

가. 인구학적 특성

임금근로자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사상지위는 80.7%를 차지하고 있는 상용직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종사상지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임시직이나

일용직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다.

연령별로 나타나는 종사상지위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20대에서 30대는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상용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임시직의 비중이 높았다. 일용직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은 60세 이상이다.

혼인상태별로 종사상지위 분포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기혼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서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상용직의 비중이 있어서 남성은 배우자가 있는 기혼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미혼인 경우 상용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종사상지위 분포는 다음과 같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상용직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무학인 경우가 임시직과 일용직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것에 비해, 대졸 이상인 경우는 임시직과 일용직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인다.

나. 기업체 특성

산업별로 나타나는 종사상지위별 분포가 가지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상용직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공익설비로서 9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시직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개인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또 일용직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농림어업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 상용직과 일용직의 비중이 각각 43.3%와 42.7%로서 다른 산업과는 달리 상용직과 일용직의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상용직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직업은 각각 94.3%와 93.3%를 차지하는 사무직과 전문직으로 나타났으며, 상용직의 비중이 가장 낮은 직업은 농림어업직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직의 경우, 일용직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직업이며, 그 비중은 무려 88.2%에 해당한다. 한편 임시직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직업은 서비스직으로 나타났다.

〈표 6-3〉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종사상지위 분포

(단위 : 명, %)

		전 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전 체		4,010(100.0)	3,236(80.7)	390(9.7)	384(9.6)	
성별	남 성	2,530(100.0)	2,118(83.7)	187(7.4)	225(8.9)	
	여 성	1,480(100.0)	1,118(75.5)	203(13.7)	159(10.7)	
연령	15~19세	81(100.0)	52(64.2)	25(30.9)	4(4.9)	
	20~24세	430(100.0)	364(84.7)	49(11.4)	17(4.0)	
	25~29세	661(100.0)	585(88.5)	54(8.2)	22(3.3)	
	30~39세	1,277(100.0)	1,074(84.1)	91(7.1)	112(8.8)	
	40~49세	968(100.0)	748(77.3)	102(10.5)	118(12.2)	
	50~59세	448(100.0)	322(71.9)	49(10.9)	77(17.2)	
	60세 이상	145(100.0)	91(62.8)	20(13.8)	34(23.4)	
혼인 상태 ¹⁾	남 성	미 혼	563(100.0)	455(80.8)	70(12.4)	38(6.7)
		기혼 유배우	1,913(100.0)	1,628(85.1)	110(5.8)	175(9.1)
		기혼 무배우	53(100.0)	34(64.2)	7(13.2)	12(22.6)
	여 성	미 혼	541(100.0)	471(87.1)	54(10.0)	16(3.0)
		기혼 유배우	782(100.0)	563(72.0)	121(15.5)	98(12.5)
		기혼 무배우	156(100.0)	83(53.2)	28(17.9)	45(28.8)
교육 수준	무 학	70(100.0)	31(44.3)	13(18.6)	26(37.1)	
	고졸 미만	894(100.0)	567(63.4)	136(15.2)	191(21.4)	
	고 졸	1,651(100.0)	1,356(82.1)	151(9.1)	144(8.7)	
	대졸 미만 ²⁾	166(100.0)	129(77.7)	26(15.7)	11(6.6)	
	전문대졸	350(100.0)	327(93.4)	16(4.6)	7(2.0)	
	대졸 이상	879(100.0)	826(94.0)	48(5.5)	5(0.6)	

주: 종사상지위가 모름/무응답인 2명은 분석에서 제외.

1) 혼인상태가 무응답인 2명은 분석에서 제외.

2) 앞의 <표 2-5> 참조.

<표 6-4> 임금근로자의 기업체 특성별 종사상지위 분포

(단위 : 명, %)

		전 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전 체		4,010(100.0)	3,236(80.7)	390(9.7)	384(9.6)
산업 ¹⁾	농림어업	36(100.0)	12(33.3)	2(5.6)	22(61.1)
	광공업	1,203(100.0)	1,058(87.9)	87(7.2)	58(4.8)
	건설업	393(100.0)	170(43.3)	55(14.0)	168(42.7)
	공익설비	298(100.0)	272(91.3)	17(5.7)	9(3.0)
	개인서비스업	615(100.0)	476(77.4)	88(14.3)	51(8.3)
	금융서비스업	550(100.0)	494(89.8)	34(6.2)	22(4.0)
	공공서비스업	881(100.0)	728(82.6)	104(11.8)	49(5.6)
직업 ²⁾	전문직	941(100.0)	878(93.3)	58(6.2)	5(0.5)
	사무직	760(100.0)	717(94.3)	36(4.7)	7(0.9)
	서비스직	449(100.0)	318(70.8)	85(18.9)	46(10.2)
	농림어업직	17(100.0)	2(11.8)	-	15(88.2)
	기능직	1,786(100.0)	1,266(70.9)	209(11.7)	311(17.4)
기업체 종류 ³⁾	민간회사	2,868(100.0)	2,448(85.4)	264(9.2)	156(5.4)
	외국인회사	36(100.0)	34(94.4)	1(2.8)	1(2.8)
	공기업	160(100.0)	148(92.5)	10(6.3)	2(1.3)
	법인단체	173(100.0)	150(86.7)	22(12.7)	1(0.6)
	정부기관	430(100.0)	383(89.1)	29(6.7)	18(4.2)
	기 타	343(100.0)	73(21.3)	64(18.7)	206(60.1)
사업체 규모 ⁴⁾	전 체	2,990(100.0)	2,588(86.6)	260(8.7)	142(4.7)
	1~4인	468(100.0)	333(71.2)	83(17.7)	52(11.1)
	5~9인	381(100.0)	319(83.7)	33(8.7)	29(7.6)
	10~49인	742(100.0)	642(86.5)	60(8.1)	40(5.4)
	50~99인	261(100.0)	230(88.1)	22(8.4)	9(3.4)
	100~499인	421(100.0)	393(93.3)	21(5.0)	7(1.7)
	500인 이상	717(100.0)	671(93.6)	41(5.7)	5(0.7)

주: 종사상지위가 모름/무응답인 2명은 분석에서 제외.

- 1) 앞의 <표 5-4> 참조, 산업이 분류불가인 34명은 표에서 제외.
- 2) 앞의 <표 5-5> 참조, 직업이 군인 및 분류불가인 57명은 표에서 제외.
- 3) 앞의 <표 5-6> 참조.
- 4) 앞의 <표 5-7> 참조, 사업체 규모가 모름/무응답인 1,020명은 분석에서 제외.

기업체 종류 중에서 상용직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체의 종류는 외국인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시직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체의 종류는 법인단체이며, 민간회사는 일용직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체 종류이다. 특히 사업체 규모와 종사상지위간의 분포에 있어서는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상용직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第 2 節 勤勞時間 形態

임금근로자 중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과 같이 일을 시작할 때 몇 시간이나 근로할 것인지를 미리 정한 경우나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일하는 경우를 ‘시간제 근로’라 하고, 몇 시간이나 일할 것인지를 정하지 않고 하루 종일 근로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전일제 근로’라 한다. 임금근로자를 이러한 근로시간의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인구학적 특성과 기업체 특성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았다.

1. 인구학적 특성

임금근로자 중 전일제로 근로하는 경우가 87.6%로서, 시간제로 근로하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전일제 근로자 비중이 여성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 집단간은 대체적으로 시간제 및 전일제의 분포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혼인상태별 집단에서 가장 높은 전일제 근로의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을 성별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기혼 남성과 미혼 여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수준별 집단의 시간제 및 전일제 근로자의 분포를 보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시간제 근로의 경우는 감소하고 전일제 근로의 형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표 6-5>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근로시간 형태

(단위 : 명, %)

		전 체	시간제	전일제
전 체		4,010(100.0)	496(12.4)	3,514(87.6)
성별	남 성	2,530(100.0)	212(8.4)	2,318(91.6)
	여 성	1,480(100.0)	284(19.2)	1,196(80.8)
연령	15~19세	81(100.0)	11(13.6)	70(86.4)
	20~24세	430(100.0)	62(14.4)	368(85.6)
	25~29세	661(100.0)	60(9.1)	601(90.9)
	30~39세	1,277(100.0)	138(10.8)	1,139(89.2)
	40~49세	968(100.0)	141(14.6)	827(85.4)
	50~59세	448(100.0)	63(14.1)	385(85.9)
	60세 이상	145(100.0)	21(14.5)	124(85.5)
혼인 상태 ¹⁾	남성	미 혼	61(10.8)	502(89.2)
		기혼유배우	139(7.3)	1,774(92.7)
		기혼무배우	12(22.6)	41(77.4)
	여성	미 혼	70(12.9)	471(87.1)
		기혼유배우	173(22.1)	609(77.9)
		기혼무배우	41(26.3)	115(73.7)
교육 수준	무 학	70(100.0)	17(24.3)	53(75.7)
	고졸 미만	894(100.0)	151(16.9)	743(83.1)
	고 졸	1,651(100.0)	208(12.6)	1,443(87.4)
	대졸 미만 ²⁾	166(100.0)	28(16.9)	138(83.1)
	전문대졸	350(100.0)	21(6.0)	329(94.0)
	대졸 이상	879(100.0)	71(8.1)	808(91.9)

주: 근로시간 형태가 모름/무응답인 2명은 분석에서 제외.

1) 혼인상태가 무응답인 2명은 분석에서 제외.

2) 앞의 <표 2-5> 참조.

2. 기업체 특성

산업별로 시간제 및 전일제에 근로하는 각각의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 전산업에 걸쳐 전일제의 비중이 시간제의 비중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금융서비스업에서 전일제의 비중이 9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의 산업도 대부분 80% 이상의 높은 전일제 근로자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산업은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그 비중은 16.1%이다.

직업별 분포도 산업별 분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전일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일제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직업은 사무직으로서 그 비중은 무려 94.7%에 달하는 것에 비해, 가장 높은 시간제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인 농림어업직의 경우, 시간제의 비중은 29.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기업체 종류 중에서 전일제로 근로하는 경우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기업체 종류는 95.6%를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제로 근로하는 경우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체 종류는 22.2%를 차지하는 외국인 회사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시간제 및 전일제의 분포를 보면,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전일제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第 3 節 正規職과 非正規職

임금근로자 집단 중에서 단기간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등 한 직장에서 일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라고 할 때, 이 같은 기준으로 임금근로자를 나누어 본 결과 대부분의 임금근로자인 76.1%가 정규직에 종사

<표 6-6> 임금근로자의 기업체 특성별 근로시간 형태

(단위 : 명, %)

		전 체	시간제	전일제
전 체		4,010(100.0)	496(12.4)	3,514(87.6)
산업 ¹⁾	농림어업	36(100.0)	5(13.9)	31(86.1)
	광공업	1,203(100.0)	141(11.7)	1,062(88.3)
	건설업	393(100.0)	40(10.2)	353(89.8)
	공익설비	298(100.0)	23(7.7)	275(92.3)
	개인서비스업	615(100.0)	99(16.1)	516(83.9)
	금융서비스업	550(100.0)	41(7.5)	509(92.5)
	공공서비스업	881(100.0)	141(16.0)	740(84.0)
직업 ²⁾	전문직	941(100.0)	100(10.6)	841(89.4)
	사무직	760(100.0)	40(5.3)	720(94.7)
	서비스직	449(100.0)	97(21.6)	352(78.4)
	농림어업직	17(100.0)	5(29.4)	12(70.6)
	기능직	1,786(100.0)	250(14.0)	1,536(86.0)
기업체 종류 ³⁾	민간회사	2,868(100.0)	343(12.0)	2,525(88.0)
	외국인회사	36(100.0)	8(22.2)	28(77.8)
	공기업	160(100.0)	7(4.4)	153(95.6)
	법인단체	173(100.0)	26(15.0)	147(85.0)
	정부기관	430(100.0)	30(7.0)	400(93.0)
	기 타	343(100.0)	82(23.9)	261(76.1)
사업체 규모 ⁴⁾	전 체	2,990(100.0)	343(11.5)	2,647(88.5)
	1~4인	468(100.0)	77(16.5)	391(83.5)
	5~9인	381(100.0)	51(13.4)	330(86.6)
	10~49인	742(100.0)	90(12.1)	652(87.9)
	50~99인	261(100.0)	28(10.7)	233(89.3)
	100~499인	421(100.0)	44(10.5)	377(89.5)
	500인 이상	717(100.0)	53(7.4)	664(92.6)

주: 근로 시간 형태가 무응답인 2명은 분석에서 제외.

1) 앞의 <표 5-4> 참조, 산업이 분류불가인 34명은 표에서 제외.

2) 앞의 <표 5-5> 참조, 직업이 군인 및 분류불가인 57명은 표에서 제외.

3) 앞의 <표 5-6> 참조.

4) 앞의 <표 5-7> 참조, 사업체 규모가 모름/무응답인 1,020명은 분석에서 제외.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인구학적 특성

성별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포를 보면, 여성보다 남성의 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더 높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남성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제일 높은 반면, 여성은 미혼인 경우에 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제일 높다. 한편 비정규직의 비중은 남성과 여성 모두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포는 다르게 나타난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정규직의 비중은 증가하고 비정규직의 비중은 감소한다.

2. 기업체 특성

산업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66.7%를 차지하는 농림어업으로 나타났고, 정규직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87.2%를 차지하는 공익설비로 나타났다. 그 밖에 건설업은 비정규직의 비중이 60.6%로서 정규직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광공업이나 기타서비스 산업에는 정규직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농림어업직을 제외한 전 직업에서 정규직의 비중이 비정규직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업체 종류별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비중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업체 종류에서 정규직의 비중이 비정규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기업의 경우 정규직의 비중이 9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을 살펴보면, 규모가 커질수록 대체적으로 정규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7>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정규·비정규직 분포

(단위 : 명, %)

		전 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4,011(100.0)	3,054(76.1)	957(23.9)	
성별	남성	2,530(100.0)	2,037(80.5)	493(19.5)	
	여성	1,481(100.0)	1,017(68.7)	464(31.3)	
연령	15~19세	81(100.0)	50(61.7)	31(38.3)	
	20~24세	430(100.0)	348(80.9)	82(19.1)	
	25~29세	661(100.0)	554(83.8)	107(16.2)	
	30~39세	1,278(100.0)	1,015(79.4)	263(20.6)	
	40~49세	968(100.0)	697(72.0)	271(28.0)	
	50~59세	448(100.0)	308(68.8)	140(31.3)	
	60세 이상	145(100.0)	82(56.6)	63(43.4)	
혼인 상태 ¹⁾	남성	미 혼	563(100.0)	434(77.1)	129(22.9)
		기혼 유배우	1,913(100.0)	1,570(82.1)	343(17.9)
		기혼 무배우	53(100.0)	33(62.3)	20(37.7)
	여성	미 혼	541(100.0)	446(82.4)	95(17.6)
		기혼 유배우	783(100.0)	495(63.2)	288(36.8)
		기혼 무배우	156(100.0)	76(48.7)	80(51.3)
교육 수준	무 학	70(100.0)	23(32.9)	47(67.1)	
	고졸 미만	894(100.0)	526(58.8)	368(41.2)	
	고 졸	1,651(100.0)	1,274(77.2)	377(22.8)	
	대졸 미만 ²⁾	166(100.0)	122(73.5)	44(26.5)	
	전문대졸	351(100.0)	315(89.7)	36(10.3)	
	대졸 이상	879(100.0)	794(90.3)	85(9.7)	

주: 정규·비정규직이 모름/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

1) 혼인상태가 무응답인 3명은 분석에서 제외.

2) 앞의 <표 2-5> 참조.

〈표 6-8〉 임금근로자의 기업체 특성별 정규·비정규직 분포

(단위 : 명, %)

		전 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4,011(100.0)	3,054(76.1)	957(23.9)
산업 ¹⁾	농림어업	36(100.0)	12(33.3)	24(66.7)
	광공업	1,203(100.0)	1,023(85.0)	180(15.0)
	건설업	393(100.0)	155(39.4)	238(60.6)
	공익설비	298(100.0)	260(87.2)	38(12.8)
	개인서비스업	615(100.0)	440(71.5)	175(28.5)
	금융서비스업	551(100.0)	459(83.3)	92(16.7)
	공공서비스업	881(100.0)	683(77.5)	198(22.5)
직업 ²⁾	전문직	942(100.0)	813(86.3)	129(13.7)
	사무직	760(100.0)	701(92.2)	59(7.8)
	서비스직	449(100.0)	295(65.7)	154(34.3)
	농림어업직	17(100.0)	1(5.9)	16(94.1)
	기능직	1,786(100.0)	1,194(66.9)	592(33.1)
기업체 종류 ³⁾	민간회사	2,869(100.0)	2,308(80.4)	561(19.6)
	외국인회사	36(100.0)	31(86.1)	5(13.9)
	공기업	160(100.0)	144(90.0)	16(10.0)
	법인단체	173(100.0)	141(81.5)	32(18.5)
	정부기관	430(100.0)	368(85.6)	62(14.4)
	기 타	343(100.0)	62(18.1)	281(81.9)
사업체 규모 ⁴⁾	전 체	2,991(100.0)	2,460(82.2)	531(17.8)
	1~4인	468(100.0)	311(66.5)	157(33.5)
	5~9인	381(100.0)	297(78.0)	84(22.0)
	10~49인	743(100.0)	607(81.7)	136(18.3)
	50~99인	261(100.0)	225(86.2)	36(13.8)
	100~499인	421(100.0)	385(91.4)	36(8.6)
	500인 이상	717(100.0)	635(88.6)	82(11.4)

주: 정규·비정규직이 모름/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

- 1) 앞의 <표 5-4> 참조, 산업이 분류불가인 34명은 표에서 제외.
- 2) 앞의 <표 5-5> 참조, 직업이 군인 및 분류불가인 57명은 표에서 제외.
- 3) 앞의 <표 5-6> 참조.
- 4) 앞의 <표 5-7> 참조, 사업체 규모가 모름/무응답인 1,020명은 분석에서 제외.

第 4 節 雇庸形態간의 關係

앞서 다룬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시간제와 전일제, 그리고 상용직, 임시직 및 일용직의 크게 세 가지 형태로서, 각각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기업체 특성에 따라 그 분포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세 가지 고용형태는 각각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나 그 개념상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고용형태와 관련된 용어들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고용형태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고용형태간에 상호 비중이 높은 순으로 정리를 하면, 크게 두 가지의 고용형태가 나타난다. 하나는, 시간제로 근로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이고,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일제로 근로하며, 정규직 근로자이고, 상용직에 근로하는 근로자이다. 임

〈표 6-9〉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형태와 그 외 고용형태간의 관계

(단위 : 명, %)

	전 체	시간제	전일제
전 체	4,010(100.0)[100.0]	496(12.4)[100.0]	3,514(87.6)[100.0]
정규직	3,054(100.0)[76.2]	192(6.3)[38.7]	2,862(93.7)[81.4]
비정규직	956(100.0)[23.8]	304(31.8)[61.3]	652(68.2)[18.6]
상용직	3,236(100.0)[80.7]	231(7.1)[46.6]	3,005(92.9)[85.5]
임시직	390(100.0)[9.7]	152(39.0)[30.6]	238(61.0)[6.8]
일용직	384(100.0)[9.6]	113(29.4)[22.8]	271(70.6)[7.7]

주: 근로시간 형태가 모름/무응답인 2명은 분석에서 제외.

() : 근로시간 형태를 제외한 근로 형태를 기준으로 한 비율, [] : 근로시간 형태를 기준으로 한 비율.

〈표 6-10〉 임금근로자의 정규·비정규와 종사상지위간의 관계

(단위 : 명, %)

	전 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4,010(100.0)[100.0]	3,054(76.2)[100.0]	956(23.8)[100.0]
상용직	3,236(100.0)[80.7]	2,973(91.9)[97.3]	263(8.1)[27.5]
임시직	390(100.0)[9.7]	56(14.4)[1.8]	334(85.6)[34.9]
일용직	384(100.0)[9.6]	25(6.5)[0.8]	359(93.5)[37.6]

주: 정규·비정규직이 모름/무응답인 2명은 분석에서 제외.

() : 종사상지위를 기준으로 한 비율, [] : 정규직·비정규직을 기준으로 한 비율.

금근로자의 고용형태는 크게 위의 두 가지 경우가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일제로 근로하면서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근로하는 경우와 시간제로 근로하면서 정규직 혹은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를 볼 때, 고용형태를 일컫는 용어들이 실질적으로 사용될 때는 상당히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근로계약 기간의 유무에 따라 각 고용형태간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근로계약 기간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높은 고용형태로는 각각 비정규직, 전일제, 임시직인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계약 기간이 없고 향후 근로를 계속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높은 고용형태로는 각각 정규직, 전일제, 상용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 기간이 없고 향후 근로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추이는 근로계약기간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와 비슷하나 종사상지위에서 일용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표 6-11〉 임금근로자의 근로 계약의 유무와 고용 형태간의 관계

(단위 : 명, %)

	전 체	계약기간이 있다	계약기간이 없다		
				근로지속 가능	근로지속 불가능
전 체	4,010(100.0) [100.0]	176(4.4) [100.0]	3,834(95.6) [100.0]	3,387(84.5) [100.0]	447(11.1) [100.0]
정규직	3,054(100.0) [76.2]	59(1.9) [33.5]	2,995(98.1) [78.1]	2,876(94.2) [84.9]	119(3.9) [26.6]
비정규직	956(100.0) [23.8]	117(12.2) [66.5]	839(87.8) [21.9]	511(53.5) [15.1]	328(34.3) [73.4]
시간제	496(100.0) [12.4]	40(8.1) [22.7]	456(91.9) [11.9]	336(67.7) [9.9]	120(24.2) [26.8]
전일제	3,514(100.0) [87.6]	136(3.9) [77.3]	3,378(96.1) [88.1]	3,051(86.8) [90.1]	327(9.3) [73.2]
상용직	3,236(100.0) [80.7]	78(2.4) [44.3]	3,158(97.6) [82.4]	3,012(93.1) [88.9]	146(4.5) [32.7]
임시직	390(100.0) [9.7]	85(21.8) [48.3]	305(78.2) [8.0]	214(54.9) [6.3]	91(23.3) [20.4]
일용직	384(100.0) [9.6]	13(3.4) [7.4]	371(96.6) [9.7]	161(41.9) [4.8]	210(54.7) [47.0]

주: 근로계약이 모름/무응답인 2명은 분석에서 제외.

() :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한 비율, [] : 계약기간 유무를 기준으로 한 비율.

第 7 章

勤勞時間

第 1 節 勤勞時間의 規則性

1. 근로시간 및 정기휴무

취업자 집단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월평균 근로일수와 정기휴무 등에 대하여 그 분포를 살펴보았다. 예상했던 바대로 임금근로자가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 임금근로자의 과반수가 넘는 65.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월평균 근로일수가 24~26일이라고 답하였다. 한편, 월평균 근로일수가 증가할수록 비임금근로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취업자 집단의 정기적인 휴일의 수를 살펴보았더니, 임금근로자의 59.4%가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고 답한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기타에 해당하는 비중이 35.7%로 나타나, 비임금근로자는 자신의 사업장에 알맞게 임의대로 휴무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업체 특성

기업체 특성별 근로시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취업자를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에 따라 나누고, 규칙적이라면 월평균 근로일수가 몇 일인지에 따라 분류하여 그에 따른 기업체 특성별 분포를 살펴 보았다.

산업 중에서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공공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각 근로일수별 산업의 분포를 보면, 월평균 근로일수가 1~23일과 27일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

〈표 7-1〉 취업자의 경제활동상태별 근로시간과 정기휴무

(단위 : 명, %)

		전 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전 체		6,427(100.0)	4,012(100.0)	2,415(100.0)	
근로시간	불규칙적	650(10.1)	390(9.7)	260(10.8)	
	규칙적	5,764(89.7)	3,620(90.2)	2,144(88.8)	
	월평균 근로 일수	1~14일	93(1.4)	50(1.2)	43(1.8)
		15~23일	716(11.1)	463(11.5)	253(10.5)
		24~26일	3,406(53.0)	2,627(65.5)	779(32.3)
		27일이상	1,549(24.1)	480(12.0)	1,069(44.3)
모름/무응답		13(0.2)	2(0.0)	11(0.5)	
정기휴무	매2주마다 하루	380(5.9)	220(5.5)	160(6.6)	
	일주일에 하루	3,107(48.3)	2,382(59.4)	725(30.0)	
	격주휴무제(매2주마다 이틀)	325(5.1)	312(7.8)	13(0.5)	
	일주일에 이틀	312(4.9)	248(6.2)	64(2.7)	
	수시로	1,056(16.4)	472(11.8)	584(24.2)	
	기타	1,199(18.7)	338(8.4)	861(35.7)	
	모름/무응답	48(0.7)	40(1.0)	8(0.3)	

〈표 7-2〉 취업자의 기업체 특성별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 및 근로일수

(단위 : 명, %)

	전 체	규칙적					불규칙적	
		월평균 근로일수						
		1~14일	15~23일	24~26일	27일 이상			
전 체	6,414(100.0)	5,764(89.9)	93(1.4)	716(11.2)	3,406(53.1)	1,549(24.2)	650(10.1)	
산업 ¹⁾	농림어업	545(100.0)	488(89.5)	18(3.3)	100(18.3)	85(15.6)	285(52.3)	57(10.5)
	광공업	1,515(100.0)	1,384(91.4)	10(0.7)	158(10.4)	1,050(69.3)	166(11.0)	131(8.6)
	건설업	488(100.0)	258(52.9)	8(1.6)	29(5.9)	168(34.4)	53(10.9)	230(47.1)
	공익설비	393(100.0)	352(89.6)	7(1.8)	69(17.6)	228(58.0)	48(12.2)	41(10.4)
	개인서비스업	1,653(100.0)	1,551(93.8)	10(0.6)	93(5.6)	677(41.0)	771(46.6)	102(6.2)
	금융서비스업	659(100.0)	626(95.0)	5(0.8)	80(12.1)	468(71.0)	73(11.1)	33(5.0)
공공서비스업	1,123(100.0)	1,073(95.5)	34(3.0)	183(16.3)	707(63.0)	149(13.3)	50(4.5)	
직업 ²⁾	전문직	1,218(100.0)	1,168(95.9)	32(2.6)	176(14.4)	848(69.6)	112(9.2)	50(4.1)
	사무직	819(100.0)	810(98.9)	4(0.5)	60(7.3)	685(83.6)	61(7.4)	9(1.1)
	서비스직	1,429(100.0)	1,353(94.7)	11(0.8)	93(6.5)	503(35.2)	746(52.2)	76(5.3)
	농림어업직	521(100.0)	470(90.2)	18(3.5)	99(19.0)	76(14.6)	277(53.2)	51(9.8)
	기능직	2,317(100.0)	1,862(80.4)	27(1.2)	283(12.2)	1,215(52.4)	337(14.5)	455(19.6)
기업체 종류 ³⁾	전 체	4,009(100.0)	3,619(90.3)	50(1.2)	463(11.5)	2,626(65.5)	480(12.0)	390(9.7)
	민간회사	2,867(100.0)	2,697(94.1)	27(0.9)	312(10.9)	1,942(67.7)	416(14.5)	170(5.9)
	외국인회사	36(100.0)	35(97.2)	1(2.8)	16(44.4)	18(50.0)	-	1(2.8)
	공기업	160(100.0)	156(97.5)	3(1.9)	11(6.9)	137(85.6)	5(3.1)	4(2.5)
	법인단체	173(100.0)	171(98.8)	6(3.5)	25(14.5)	127(73.4)	13(7.5)	2(1.2)
	정부기관	430(100.0)	423(98.4)	3(0.7)	52(12.1)	348(80.9)	20(4.7)	7(1.6)
기타	343(100.0)	137(39.9)	10(2.9)	47(13.7)	54(15.7)	26(7.6)	206(60.1)	
사업체 규모 ⁴⁾	전 체	5,387(100.0)	4,981(92.3)	79(1.5)	597(11.1)	2,812(52.2)	1,482(27.5)	417(7.7)
	0인	1,775(100.0)	1,561(87.9)	36(2.0)	213(12.0)	469(26.4)	843(47.5)	214(12.1)
	1~4인	947(100.0)	871(92.0)	8(0.8)	82(8.7)	454(47.9)	327(34.5)	76(8.0)
	5~9인	460(100.0)	415(90.2)	3(0.7)	41(8.9)	304(66.1)	67(14.6)	45(9.8)
	10~49인	798(100.0)	735(92.1)	14(1.8)	70(8.8)	558(69.9)	93(11.7)	63(7.9)
	50~99인	264(100.0)	258(97.7)	5(1.9)	24(9.1)	196(74.2)	33(12.5)	6(2.3)
	100~499인	426(100.0)	419(98.4)	7(1.6)	56(13.1)	303(71.1)	53(12.4)	7(1.6)
500인 이상	717(100.0)	711(99.2)	6(0.8)	111(15.5)	528(73.6)	66(9.2)	6(0.8)	

주: 근로시간의 규칙성이 모름/무응답인 13명은 분석에서 제외.

1) 앞의 <표 5-4> 참조, 산업이 분류 불가인 38명은 표에서 제외.

2) 앞의 <표 5-5> 참조, 직업이 군인 및 분류 불가인 110명은 표에서 제외.

3) 앞의 <표 5-6> 참조, 비임금근로자이거나 기업체 종류가 무응답인 2,405명은 분석에서 제외.

4) 앞의 <표 5-7> 참조, 사업체 규모가 모름/무응답인 1,027명은 분석에서 제외.

이 가장 높은 산업은 농림어업이고, 24~26일 이하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서비스업이다.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산업은 건설업으로서 47.1%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별 근로시간의 분포를 보면,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직업은 사무직으로 무려 98.9%에 달한다. 또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직업은 기능직으로서 전체 기능직의 9.6% 정도가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라고 답하였다. 기업체 종류 중에서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법인단체로 전체 법인단체 중에 9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회사인 경우 월평균 근로일수가 다른 기업체 종류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근로일수가 규칙적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는데, 특이한 점은 월평균 근로일수가 24~26일 이하인 경우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지만 27일 이상인 경우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근로시간이 불규칙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第 2 節 正規勤勞

1. 정규근로시간

취업자의 근로시간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규근로시간의 유무로 임금근로자를 나누고, 주당 근로시간별로 전체 취업자를 나누어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간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79.1%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답하였다.

한편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간의 주당 근로시간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임금근로자의 경우, 주당 45~54시간 이하 근로를 하는 비중이 가

〈표 7-3〉 취업자의 경제활동상태별 정규근로시간의 유무와 근로시간의 분포
(단위 : 명, %)

		전 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전 체		6,427(100.0)	4,012(100.0)	2,415(100.0)
정규 근로시간	유	-	3,174(79.1)	-
	무	-	838(20.9)	-
주당 근로시간	1~18시간	250(3.9)	112(2.8)	138(5.7)
	19~35시간	513(8.0)	258(6.4)	255(10.6)
	36~43시간	656(10.2)	482(12.0)	174(7.2)
	44시간	856(13.3)	827(20.6)	29(1.2)
	45~54시간	1,659(25.8)	1,265(31.5)	394(16.3)
	55~70시간	1,346(20.9)	695(17.3)	651(27.0)
	71시간이상	1,078(16.8)	339(8.4)	739(30.6)
	모름/무응답	69(1.1)	34(0.8)	35(1.4)
단시간 근로 ¹⁾	자발적 ²⁾	-	197(4.9)	-
	비자발적	-	173(4.3)	-

주: 1) 주당 36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경우로 총 370명만 응답.

2) 단시간근로 외의 다른 직업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시간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자발적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비자발적이라고 정의.

장 높은 것에 비해, 비임금근로자는 주당 71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임금근로자보다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비교적 길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주당 법정 최고 근로 시간인 44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57.8%, 비임금근로자는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75.1%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취업자의 64.3%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반수 이상의 취업자들이 법정 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인구학적 특성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별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았다.

취업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당 근로시간은 45~54시간 미만으로서 이는 전체의 2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취업자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53.3시간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근로시간 분포를 보면, 43시간 이하로 근로를 하는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고, 44~70시간 이하로 근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71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집단의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1.5시간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주당 근로시간의 분포를 보면, 35시간 이하로 근로를 하는 경우는 60세 이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았다. 또한, 36~54시간 이하로 근로를 하는 경우는 20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5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는 50대 이상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연령 집단은 50대이며, 가장 짧은 연령 집단은 20대 초반이었다. 성별로 본 혼인상태별 집단에서는, 미혼자 집단의 근로시간과 기혼자 집단의 근로시간의 분포가 남녀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근로시간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근로시간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단, 무학의 경우, 근로시간이 55시간 이상 뿐 아니라 35시간 이하를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게 나타난다. 또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높은 집단은 56.7시간인 고졸이며, 가장 낮은 집단은 47.3시간으로 나타난 대졸 이상이다.

3. 기업체 특성

산업별 근로시간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농림어업의 경우는 근로시간이 짧거나 근로시간이 긴 경우에 있어서 다른 근로시간대에 비해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주당 법정 최고 근로시간인 44시간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공공서비스업이며,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낮은 산업도 공공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당 평균근로시간의 가장 높은 산업은 개인서비스업으로서 63.5시간이나 된다. 직업별 근로시간의 분포

를 보면,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직업은 서비스직이며 서비스직의 주당 평균근로시간도 66.3시간으로 다른 직업들에 비해 가장 높다. 반면에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직업은 전문직으로서 45.8시간이다. 기업체 종류 중 주당 법정 최고 근로시간대인 44시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정부기관이었으며, 외국인 회사의 경우,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2.9시간으로

<표 7-4>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단위 : %)

		전 체 (명)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 시간	45~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주당평균 근로시간 (시간)	
전 체		6,358(100.0)	3.9	8.1	10.3	13.5	26.1	21.2	17.0	53.3	
성별	남 성	3,903(100.0)	2.9	6.1	9.8	15.6	26.7	22.3	16.5	53.9	
	여 성	2,455(100.0)	5.5	11.2	11.1	10.1	25.1	19.3	17.7	52.4	
연령	15~19세	79(100.0)	0.0	6.3	12.7	12.7	39.2	22.8	6.3	51.0	
	20~24세	460(100.0)	3.3	5.7	12.8	16.5	39.3	17.6	4.8	48.2	
	25~29세	782(100.0)	2.4	6.1	10.5	18.0	33.1	17.9	11.9	51.2	
	30~39세	1,951(100.0)	3.4	7.0	10.6	15.7	26.6	20.9	15.8	52.9	
	40~49세	1,729(100.0)	4.2	7.8	9.0	12.6	22.6	23.0	20.9	55.4	
	50~59세	930(100.0)	4.5	9.2	11.0	8.9	22.7	20.6	23.0	55.8	
	60세 이상	427(100.0)	8.2	17.8	9.4	5.4	16.2	25.8	17.3	51.3	
혼인 상태 ¹⁾	남성	미 혼	638(100.0)	2.7	3.9	9.7	16.3	35.7	21.6	10.0	51.7
		기혼 유배우	3,169(100.0)	2.9	6.3	9.8	15.7	24.9	22.6	17.8	54.4
		기혼 무배우	93(100.0)	5.4	14.0	10.8	6.5	26.9	18.3	18.3	52.3
	여성	미 혼	585(100.0)	3.4	8.7	12.6	16.9	39.3	15.0	3.9	46.9
		기혼 유배우	1,579(100.0)	5.7	11.3	10.6	8.7	21.1	20.2	22.4	54.6
		기혼 무배우	290(100.0)	8.6	15.5	10.7	4.5	18.3	22.8	19.7	51.8
교육 수준	무 학	207(100.0)	9.7	17.4	9.2	2.9	15.5	27.5	17.9	52.2	
	고졸 미만	1,829(100.0)	5.2	10.8	9.7	4.5	19.4	26.2	24.2	56.7	
	고 졸	2,513(100.0)	3.1	6.8	9.1	11.5	28.7	22.7	18.0	54.5	
	대졸 미만 ²⁾	213(100.0)	4.2	7.0	10.3	17.4	33.3	15.5	12.2	49.8	
	전문대졸	466(100.0)	1.7	4.7	12.0	22.3	33.3	16.1	9.9	50.6	
	대졸 이상	1,130(100.0)	3.5	6.2	13.5	29.8	28.8	11.5	6.6	47.3	

주: 주당근로시간이 모름/무응답인 69명은 분석에서 제외.

1) 혼인상태가 무응답인 4명은 분석에서 제외.

2) 앞의 <표 2-5> 참조.

<표 7-5> 취업자의 기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단위 : %)

		전 체 (명)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 시간	45~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주당평균 근로시간 (시간)
전 체		6,358(100.0)	3.9	8.1	10.3	13.5	26.1	21.2	17.0	53.3
산업 ¹⁾	농림어업	539(100.0)	7.8	20.0	13.0	0.6	12.6	29.7	16.3	51.5
	광공업	1,507(100.0)	2.5	4.0	12.3	17.9	38.4	19.1	5.8	49.7
	건설업	475(100.0)	5.1	13.1	10.3	8.0	26.3	29.9	7.4	49.0
	공익설비	391(100.0)	2.6	3.8	7.9	17.6	27.6	22.0	18.4	54.7
	개인서비스업	1,638(100.0)	2.6	6.9	5.9	3.8	18.6	26.4	35.8	63.5
	금융서비스업	658(100.0)	2.4	7.1	13.8	20.7	29.9	13.7	12.3	50.0
	공공서비스업	1,114(100.0)	6.6	9.2	11.8	24.5	23.7	12.7	11.5	47.8
직업 ²⁾	전문직	1,212(100.0)	5.5	8.4	14.3	25.9	27.8	12.7	5.4	45.8
	사무직	816(100.0)	0.5	3.7	12.1	29.8	40.1	11.3	2.6	47.6
	서비스직	1,412(100.0)	2.8	7.0	5.0	2.0	13.7	27.1	42.4	66.3
	농림어업직	516(100.0)	8.1	20.3	13.4	0.4	12.2	29.5	16.1	51.1
	기능직	2,294(100.0)	4.2	7.5	10.3	11.0	30.5	23.5	13.0	52.0
기업체 종류 ³⁾	전 체	3,977(100.0)	2.8	6.5	12.1	20.8	31.8	17.5	8.5	49.5
	민간회사	2,848(100.0)	1.9	5.3	11.2	16.5	35.7	20.3	9.1	50.9
	외국인회사	36(100.0)	5.6	5.6	41.7	13.9	25.0	5.6	2.8	42.9
	공기업	160(100.0)	1.9	1.3	15.0	46.3	29.4	3.8	2.5	45.3
	법인단체	171(100.0)	5.8	9.4	15.2	34.5	26.9	5.8	2.3	43.4
	정부기관	429(100.0)	1.4	3.0	11.4	49.4	21.2	6.8	6.8	47.2
	기 타	333(100.0)	10.8	22.5	14.4	2.4	16.2	20.7	12.9	46.2
사업체 규모 ⁴⁾	전 체	5,345(100.0)	3.6	7.6	9.8	11.1	26.5	22.4	18.8	54.7
	0인	1,754(100.0)	6.6	12.0	7.9	0.5	12.8	28.2	32.1	60.0
	1~4인	941(100.0)	3.1	9.2	7.3	3.2	27.1	23.5	26.6	58.1
	5~9인	459(100.0)	2.4	5.4	9.6	9.6	39.0	22.4	11.5	52.5
	10~49인	789(100.0)	3.0	4.3	7.7	16.5	39.7	22.3	6.5	50.3
	50~99인	262(100.0)	0.8	3.4	9.5	19.5	36.6	21.8	8.4	51.3
	100~499인	424(100.0)	0.7	2.4	13.0	21.9	33.5	17.9	10.6	51.7
	500인 이상	716(100.0)	1.5	4.6	18.7	33.0	29.1	9.9	3.2	46.3

주 : 주당근로시간이 모름/무응답인 69명은 분석에서 제외.

- 1) 앞의 <표 5-4> 참조, 산업이 분류불가인 38명은 표에서 제외.
- 2) 앞의 <표 5-5> 참조, 직업이 군인 및 분류불가인 108명은 표에서 제외.
- 3) 앞의 <표 5-6> 참조, 비임금근로자이거나 기업체 종류가 모름/무응답인 2,381명은 분석에서 제외.
- 4) 앞의 <표 5-7> 참조, 사업체 규모가 모름/무응답인 1,013명은 분석에서 제외.

근로시간이 42.9시간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의 분포를 보면,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第 3 節 超過勤勞

1. 초과근로와 초과급여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초과근로시간의 유무 및 초과급여 지급방식, 그리고 월평균 초과급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과근로에 대하여 응답한 사람은 임금근로자의 79.1%에 해당하는 3,174명으로 이들 중 39.8%에 해당하는 1,263명만이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 또 초과근로를 한다고 답한 사람 중 25.7%가 주당 7~10시간

〈표 7-6〉 임금근로자의 초과 근로

		명	비율(%)
전체		3,174	100.0
초과근로를 안함		1,911	60.2
초과근로를 함		1,263	39.8
주당 초과 근로 시간	1~4시간	343	27.2
	5~6시간	246	19.5
	7~10시간	325	25.7
	11~15시간	169	13.4
	16시간 이상	151	12.0
	모름/무응답	29	2.3

주: 초과근로가 무응답인 838명은 분석에서 제외.

이하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

한편 초과급여에 대한 지급방식 중에는 시간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고 답한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러나 과반수에 가까운 46.2%의 임금근로자들은 초과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지 않고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과급여의 수준은 월평균 1만~10만원 이하가 가장 많다. 월평균 초과급여를 시간당 초과급여로 환산하여 보면, 1.5천~5천원 미만

〈표 7-7〉 임금근로자의 초과급여

		명	비율(%)
전체		1,263	100.0
초과급여가 없음		583	46.2
초과급여가 있음		680	53.8
초과급여 지급방식	시간에 따라 계산	502	73.8
	일정금액	149	21.9
	기준없음	26	3.8
	모름/무응답	3	0.4
월평균 초과급여	1만~10만원	361	53.1
	11만~20만원	188	27.6
	21만~30만원	58	8.5
	31만원 이상	42	6.2
	모름/무응답	31	4.6
시간당 초과급여 ¹⁾	1천~1.5천원 미만	100	14.7
	1.5천~3천원 미만	190	27.9
	3천~5천원 미만	189	27.8
	5천~1만원 미만	119	17.5
	1만원 이상	51	7.5
	모름/무응답	31	4.6

주: 1) 시간당 초과급여(=월평균 초과급여/월평균 초과근로시간)를 계산시 사용한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은 주당 초과근로시간에 4.3을 곱한 값임.

에서 과반수 이상의 높은 비중을 보인다.

2. 기업체 특성

기업체 특성별로 주당 초과근로시간의 분포에 관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과근로를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광공업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이 가장 높은 산업이며, 개인서비스업은 주당 초과근로시간이 가장 낮은 산업이다. 특히 개인서비스업은 초과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도 높는데, 이는 정상근로시간이 가장 높은 산업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업별로 주당 초과근로시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초과근로가 있다고 답한 비중이 가장 높은 직업인 사무직은 가장 짧은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보인다. 또 기업체 종류 중에서 민간회사는 초과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중이 가장 높고, 외국인 회사는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이 가장 짧으며, 정부기관은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이 가장 길다. 한편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초과근로를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도 커진다. 50~99인 이하의 사업체 규모를 가진 사업체는 주당 10.0시간으로 가장 긴 주당 초과근로시간을 보인다.

<표 7-8> 임금근로자의 기업체 특성별 초과 근로시간

(단위 : 명, %)

		전 체	초과근로를 한다		초과근로를 안한다
				주당평균 초과근로시간 (시간)	
전 체		3,174(100.0)	1,263(39.8)	8.9	1,911(60.2)
산업 ¹⁾	농림어업	12(100.0)	3(25.0)	9.7	9(75.0)
	광공업	1,024(100.0)	488(47.7)	8.9	536(52.3)
	건설업	207(100.0)	71(34.3)	10.0	136(65.7)
	공익설비	239(100.0)	97(40.6)	9.7	142(59.4)
	개인서비스업	463(100.0)	129(27.9)	8.1	334(72.1)
	금융서비스업	436(100.0)	181(41.5)	9.2	255(58.5)
	공공서비스업	769(100.0)	289(37.6)	8.4	480(62.4)
직업 ²⁾	전문직	758(100.0)	337(44.5)	9.0	421(55.5)
	사무직	705(100.0)	349(49.5)	8.7	356(50.5)
	서비스직	336(100.0)	75(22.3)	9.7	261(77.7)
	농림어업직	2(100.0)	-	-	2(100.0)
	기능직	1,323(100.0)	477(36.1)	8.9	846(63.9)
기업체 종류 ³⁾	전 체	3,173(100.0)	1,263(39.8)	8.9	1,910(60.2)
	민간회사	2,295(100.0)	886(38.6)	8.9	1,409(61.4)
	외국인회사	33(100.0)	18(54.5)	7.1	15(45.5)
	공기업	154(100.0)	81(52.6)	9.0	73(47.4)
	법인단체	155(100.0)	66(42.6)	8.0	89(57.4)
	정부기관	417(100.0)	198(47.5)	9.1	219(52.5)
기타	119(100.0)	14(11.8)	5.5	105(88.2)	
사업체 규모 ⁴⁾	전 체	2,446(100.0)	982(40.1)	8.8	1,464(59.9)
	1~4인	328(100.0)	62(18.9)	6.5	266(81.1)
	5~9인	308(100.0)	92(29.9)	6.7	216(70.1)
	10~49인	596(100.0)	234(39.3)	8.1	362(60.7)
	50~99인	228(100.0)	88(38.6)	10.0	140(61.4)
	100~499인	372(100.0)	164(44.1)	9.8	208(55.9)
500인 이상	614(100.0)	342(55.7)	9.4	272(44.3)	

주 : 초과근로가 무응답인 838명은 분석에서 제외.

- 1) 앞의 <표 5-4> 참조, 산업이 분류불가인 24명은 표에서 제외.
- 2) 앞의 <표 5-5> 참조, 직업이 군인 및 분류불가인 50명은 표에서 제외.
- 3) 앞의 <표 5-6> 참조, 기업체 종류가 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
- 4) 앞의 <표 5-7> 참조, 사업체 규모가 모름/무응답인 728명은 분석에서 제외.

第 4 節 勤勞交代制

임금근로자 4,012명 중에 근로교대제가 있는 사업체에서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불과 11.6%인 464명이다. 또 이들 중 가장 많은 교대제 형태는 2조 2교대제이다. 그러나 해당 응답자의 수가 적으므로 더 이상의 분석은 생략하기로 한다.

〈표 7-9〉 임금근로자의 근로교대제

	명	비율(%)
전 체	4,012	100.0
근로 교대제가 없다	3,548	88.4
근로 교대제가 있다	464	11.6
2조 2교대제	290	62.5
3조 3교대제	106	22.8
3조 2교대제	11	2.4
4조 3교대제	25	5.4
기 타	27	5.8
모름/무응답	5	1.1

第 8 章

勤勞所得

第 1 節 賃 金

이 절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인 임금에 대해 다룬다. 임금지급 방식과 결정방식, 성과급제의 유무 및 형태 그리고 임금수준과 관련된 분포는 다음과 같다.

1. 임금지급 및 결정방식

임금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관련하여, 성별로 지급 주기 및 결정 방식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임금지급 주기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 한 달에 한 번 지급하는 경우가 가장 높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보름이나 일주일에 한번씩 임금을 지급받거나 매일 지급받는 경우가 남성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임금결정방식에 있어, 남성의 경우에는 연봉계약제나 월급, 일당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주급 및 격주, 시간급제나 도급제 및 실적제 등의 방식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 성과급제

개인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성과급제에 관련하여, 성과급제의 유무 및 성과급제의 형태에 대해 성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성과급제가 있다고 답한 임금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7.3%에 그치고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성과급제에 의한 임금지급은 보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성과급제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다. 또 이러한 성과급제의 여러 형태 중에서 개인성과급제에는 남녀 모두 과반수가 넘는 비중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여성 임금근로자 중 성과급제가 있다고 답한 여성 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은 개인성과급제의 형태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단성과제나 회사성과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표 8-1〉 임금근로자의 임금지급 주기와 임금결정방식

(단위 : 명, %)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4,012(100.0)	2,531(100.0)	1,481(100.0)
임금 지급 주기	한달	3,716(92.6)	2,367(93.5)	1,349(91.1)
	보름/주	44(1.1)	20(0.8)	24(1.6)
	일	86(2.1)	32(1.3)	54(3.6)
	수시	144(3.6)	98(3.9)	46(3.1)
	기타	22(0.5)	14(0.6)	8(0.5)
임금 결정 방식	연봉계약제	118(2.9)	93(3.7)	25(1.7)
	월급	3,145(78.4)	2,033(80.3)	1,112(75.1)
	주급/격주	12(0.3)	4(0.2)	8(0.5)
	일당	393(9.8)	265(10.5)	128(8.6)
	시간급제	84(2.1)	36(1.4)	48(3.2)
	도급제	849(2.1)	40(1.6)	44(3.0)
	실적급	160(4.0)	55(2.2)	105(7.1)
	기타	16(0.4)	5(0.2)	11(0.7)

〈표 8-2〉 임금근로자의 성과급제

(단위 : 명, %)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4,012(100.0)	2,531(100.0)	1,481(100.0)
성과급제가 없다	3,077(70.7)	1,962(77.5)	1,115(75.3)
성과급제가 있다	693(17.3)	423(16.7)	270(18.2)
개인성과급제 ¹⁾	443(63.9)	234(55.3)	209(77.4)
집단(팀, 부서)성과급제 ²⁾	105(15.2)	75(17.7)	30(11.1)
회사성과급제	120(17.3)	98(23.2)	22(8.1)
해당사항 없음	25(3.6)	16(3.8)	9(3.3)
모름	242(6.0)	146(5.8)	96(6.5)

- 주 : 1) 개인성과급제라고 답한 응답자 중 집단성과급제도 함께 채택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0명이고, 회사성과급제도 함께 채택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명이며, 이 모두를 다 채택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명임.
 2) 집단성과급제라고 답한 응답자 중 회사성과급제도 함께 채택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명임.

3. 임금수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인구학적 특성 및 기업체 특성별로 나누어 그 분포를 살펴보았다.

가. 인구학적 특성

임금근로자의 평균적인 임금수준¹³⁾은 111.5만원이며, 임금이 50만~1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임금을 받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¹⁴⁾는 임금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 중 액수를 응답하지 않은 응답자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13) 본 절에서의 임금은 모두 ‘월평균 임금’을 말한다.
 14) 예를 들어, 임금 대신 기술 등을 전수 받는 근로자들의 경우가 있다.

성별로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임금보다 52.1만원이 적은 78.6만원으로, 남성 임금의 60.1%에 해당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대 미만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금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가장 높은 평균임금을 보이는 것은 40대 집단이며 이들

<표 8-3>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임금

(단위 : 명, %)

		전 체	임금을 받는다					평균 임금 (만원)	임금을 받지 않는다 ¹⁾	
			50만원 미만	50만~ 100만원 미만	100만~ 150만원 미만	150만~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전 체		4,012(100.0)	386(9.6)	1,494(37.2)	1,098(27.4)	572(14.3)	424(10.6)	111.5	38(0.9)	
성 별	남 성	2,531(100.0)	108(4.3)	661(26.1)	874(34.5)	492(19.4)	375(14.8)	130.7	21(0.8)	
	여 성	1,481(100.0)	278(18.8)	833(56.2)	224(15.1)	80(5.4)	49(3.3)	78.6	17(1.1)	
연 령	15~19세	81(100.0)	25(30.9)	51(63.0)	4(4.9)	-	-	57.2	1(1.2)	
	20~24세	430(100.0)	40(9.3)	304(70.7)	74(17.2)	5(1.2)	1(0.2)	77.1	6(1.4)	
	25~29세	661(100.0)	27(4.1)	282(42.7)	263(39.8)	62(9.4)	21(3.2)	101.4	6(0.9)	
	30~39세	1,279(100.0)	85(6.6)	322(25.2)	450(35.2)	271(21.2)	140(10.9)	122.9	11(0.9)	
	40~49세	968(100.0)	102(10.5)	305(31.5)	202(20.9)	176(18.2)	173(17.9)	125.3	10(1.0)	
	50~59세	448(100.0)	61(13.6)	164(36.6)	95(21.2)	52(11.6)	72(16.1)	114.8	4(0.9)	
	60세 이상	145(100.0)	46(31.7)	66(45.5)	10(6.9)	6(4.1)	17(11.7)	87.5	0(0.0)	
혼 인 상 태 ²⁾	남 성	미 혼	564(100.0)	45(8.0)	240(42.6)	220(39.0)	37(6.6)	13(2.3)	95.4	9(1.6)
		기혼 유배우	1,913(100.0)	56(2.9)	399(20.9)	640(33.5)	450(23.5)	356(18.6)	141.8	12(0.6)
		기혼 무배우	53(100.0)	7(13.2)	21(39.6)	14(26.4)	5(9.4)	6(11.3)	105.2	-
	여 성	미 혼	541(100.0)	47(8.7)	370(68.4)	96(17.7)	15(2.8)	6(1.1)	79.5	7(1.3)
		기혼 유배우	783(100.0)	177(22.6)	377(48.1)	116(14.8)	63(8.0)	42(5.4)	82.3	8(1.0)
		기혼 무배우	156(100.0)	54(34.6)	85(54.5)	12(7.7)	2(1.3)	1(0.6)	57.4	2(1.3)
교 육 수 준	무 학	70(100.0)	31(44.3)	31(44.3)	3(4.3)	2(2.9)	-	53.2	3(4.3)	
	고졸 미만	894(100.0)	181(20.2)	459(51.3)	181(20.2)	52(5.8)	14(1.6)	77.3	7(0.8)	
	고 졸	1,651(100.0)	123(7.5)	671(40.6)	500(30.3)	231(14.0)	111(6.7)	105.3	15(0.9)	
	대졸 미만 ³⁾	166(100.0)	23(13.9)	54(32.5)	55(33.1)	16(9.6)	16(9.6)	109.5	2(1.2)	
	전문대졸	351(100.0)	7(2.0)	148(42.2)	110(31.3)	55(15.7)	29(8.3)	114.6	2(0.6)	
	대졸 이상	880(100.0)	21(2.4)	131(14.9)	249(28.3)	216(24.5)	254(28.9)	161.8	9(1.0)	

- 주 : 1)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 무응답도 포함시킴.
 2) 혼인상태가 무응답인 2명은 분석에서 제외.
 3) 앞의 <표 2-5> 참조.

<표 8-4> 임금근로자의 기업체 특성별 월평균 임금

(단위 : 명, %)

	전 체	임금을 받는다						평균 임금 (만원)	임금을 받지 않는다
		50만원 미만	50만~ 100만원 미만	100만~ 150만원 미만	150만~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전 체	4,012(100.0)	386(9.6)	1,494(37.2)	1,098(27.4)	572(14.3)	424(10.6)	111.5	38(0.9)	
산업 ¹⁾	농림어업	36(100.0)	15(41.7)	11(30.6)	5(13.9)	4(11.1)	1(2.8)	73.9	-
	광공업	1,203(100.0)	106(8.8)	498(41.4)	346(28.8)	163(13.5)	79(6.6)	105.6	11(0.9)
	건설업	393(100.0)	41(10.4)	141(35.9)	114(29.0)	51(13.0)	43(10.9)	110.6	3(0.8)
	공익설비	298(100.0)	12(4.0)	88(29.5)	106(35.6)	54(18.1)	35(11.7)	123.0	3(1.0)
	개인서비스업	615(100.0)	71(11.5)	289(47.0)	163(26.5)	54(8.8)	30(4.9)	93.4	8(1.3)
	금융서비스업	551(100.0)	47(8.5)	188(34.1)	146(26.5)	77(14.0)	90(16.3)	120.8	3(0.5)
	공공서비스업	881(100.0)	88(10.0)	271(30.8)	209(23.7)	161(18.3)	143(16.2)	124.8	9(1.0)
직업 ²⁾	전문직	942(100.0)	38(4.0)	197(20.9)	241(25.6)	214(22.7)	246(26.1)	152.6	6(0.6)
	사무직	760(100.0)	18(2.4)	295(38.8)	217(28.6)	134(17.6)	87(11.4)	119.6	9(1.2)
	서비스직	449(100.0)	84(18.7)	234(52.1)	81(18.0)	30(6.7)	14(3.1)	80.9	6(1.3)
	농림어업직	17(100.0)	12(70.6)	4(23.5)	1(5.9)	-	-	40.0	-
	기능직	1,786(100.0)	231(12.9)	751(42.0)	540(30.2)	181(10.1)	69(3.9)	94.4	14(0.8)
기업체 종류 ³⁾	전 체	4,011(100.0)	385(9.6)	1,494(37.2)	1,098(27.4)	572(14.3)	424(10.6)	111.6	38(0.9)
	민간회사	2,869(100.0)	249(8.7)	1,192(41.5)	825(28.8)	356(12.4)	219(7.6)	105.4	28(1.0)
	외국인회사	36(100.0)	2(5.6)	8(22.2)	10(27.8)	5(13.9)	11(30.6)	160.2	-
	공기업	160(100.0)	5(3.1)	29(18.1)	35(21.9)	44(27.5)	45(28.1)	156.8	2(1.3)
	법인단체	173(100.0)	9(5.2)	52(30.1)	37(21.4)	35(20.2)	38(22.0)	142.4	2(1.2)
	정부기관	430(100.0)	24(5.6)	54(12.6)	132(30.7)	114(26.5)	102(23.7)	149.5	4(0.9)
	기타	343(100.0)	96(28.0)	159(46.4)	59(17.2)	18(5.2)	9(2.6)	73.8	2(0.6)
사업체 규모 ⁴⁾	전 체	2,991(100.0)	233(7.8)	1,192(39.9)	840(28.1)	414(13.8)	288(9.6)	111.0	24(0.8)
	1~4인	468(100.0)	75(16.0)	255(54.5)	105(22.4)	25(5.3)	4(0.9)	76.8	4(0.9)
	5~9인	381(100.0)	35(9.2)	184(48.3)	111(29.1)	29(7.6)	15(3.9)	93.4	7(1.8)
	10~49인	743(100.0)	54(7.3)	340(45.8)	185(24.9)	103(13.9)	56(7.5)	106.6	5(0.7)
	50~99인	261(100.0)	21(8.0)	93(35.6)	87(33.3)	36(13.8)	23(8.8)	114.3	1(0.4)
	100~499인	421(100.0)	26(6.2)	148(35.2)	135(32.1)	60(14.3)	50(11.9)	119.8	2(0.5)
500인 이상	717(100.0)	22(3.1)	172(24.0)	217(30.3)	161(22.5)	140(19.5)	140.7	5(0.7)	

주: 1) 앞의 <표 5-4> 참조, 산업이 분류 불가인 35명은 표에서 제외.
 2) 앞의 <표 5-5> 참조, 직업이 군인 및 분류 불가인 58명은 표에서 제외.
 3) 앞의 <표 5-6> 참조, 기업체 종류가 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
 4) 앞의 <표 5-7> 참조, 사업체 규모가 모름/무응답인 1,021명은 분석에서 제외.

은 평균 125.3만원을 받는다. 성별에 따른 혼인상태별 집단에서는, 남녀 모두 배우자가 있는 기혼 집단의 임금수준이 미혼 집단에 비해 평균임금이 높으며, 배우자가 있는 기혼 남성의 평균임금과 배우자가 없는 기혼 여성 집단의 평균임금간의 차이는 무려 59.5만원이다.

<표 8-5>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시간당 임금

(단위 : 명, %)

		전 체	1,700원 미만	1,700원 이상 3,400원 미만	3,400원 이상 5,100원 미만	5,100원 이상 7,500원 미만	7,500원 이상 10,000원 미만	10,000원 이상	평균 시간당 임금 (천원)	
전 체		3,943(100.0)	192(4.9)	1,042(26.4)	934(23.7)	880(22.3)	438(11.1)	457(11.6)	5.8	
성별	남성	2,489(100.0)	79(3.2)	404(16.2)	588(23.6)	685(27.5)	357(14.3)	376(15.1)	6.6	
	여성	1,454(100.0)	113(7.8)	638(43.9)	346(23.8)	195(13.4)	81(5.6)	81(5.6)	4.4	
연령	15~19세	78(100.0)	10(12.8)	55(70.5)	11(14.1)	2(2.6)	-	-	2.7	
	20~24세	422(100.0)	15(3.6)	186(44.1)	146(34.6)	61(14.5)	7(1.7)	7(1.7)	4.2	
	25~29세	651(100.0)	18(2.8)	141(21.7)	222(34.1)	188(28.9)	56(8.6)	26(4.0)	5.1	
	30~39세	1,256(100.0)	41(3.3)	223(17.8)	261(20.8)	367(29.2)	207(16.5)	157(12.5)	6.3	
	40~49세	952(100.0)	42(4.4)	252(26.5)	178(18.7)	178(18.7)	125(13.1)	177(18.6)	6.6	
	50~59세	440(100.0)	39(8.9)	129(29.3)	93(21.1)	73(16.6)	38(8.6)	68(15.5)	5.7	
	60세 이상	144(100.0)	27(18.8)	56(38.9)	23(16.0)	11(7.6)	5(3.5)	22(15.3)	5.2	
혼인 상태 ¹⁾	남성	미 혼	550(100.0)	20(3.6)	156(28.4)	186(33.8)	141(25.6)	35(6.4)	12(2.2)	4.7
		기혼 유배우	1,886(100.0)	52(2.8)	237(12.6)	388(20.6)	535(28.4)	319(16.9)	355(18.8)	7.1
		기혼 무배우	52(100.0)	7(13.5)	11(21.2)	13(25.0)	9(17.3)	3(5.8)	9(17.3)	6.2
	여성	미 혼	529(100.0)	19(3.6)	217(41.0)	182(34.4)	81(15.3)	16(3.0)	14(2.6)	4.3
		기혼 유배우	770(100.0)	73(9.5)	327(42.5)	144(18.7)	103(13.4)	60(7.8)	63(8.2)	4.7
		기혼 무배우	154(100.0)	21(13.6)	93(60.4)	20(13.0)	11(7.1)	5(3.2)	4(2.6)	3.3
교육 수준	무학	67(100.0)	16(23.9)	38(56.7)	7(10.4)	3(4.5)	3(4.5)	-	2.8	
	고졸 미만	878(100.0)	98(11.2)	394(44.9)	204(23.2)	125(14.2)	38(4.3)	19(2.2)	3.9	
	고졸	1,620(100.0)	58(3.6)	441(27.2)	472(29.1)	378(23.3)	152(9.4)	119(7.3)	5.3	
	대졸 미만 ²⁾	164(100.0)	8(4.9)	38(23.2)	41(25.0)	43(26.2)	20(12.2)	14(8.5)	5.6	
	전문대졸	347(100.0)	3(0.9)	72(20.7)	96(27.7)	98(28.2)	45(13.0)	33(9.5)	5.9	
	대졸 이상	867(100.0)	9(1.0)	59(6.8)	114(13.1)	233(26.9)	180(20.8)	272(31.4)	8.7	

주: 주당 근로시간 및 월평균 임금이 무응답인 69명은 분석에서 제외.
 시간당 임금(=월평균 임금/월평균 근로시간)을 계산시 사용한 월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근로시간에 4.3을 곱한 것.
 1) 혼인상태가 무응답인 2명은 분석에서 제외.
 2) 앞의 <표 2-5> 참조.

<표 8-6> 임금근로자의 기업체 특성별 시간당 임금

(단위 : 명, %)

		전 체	1,700원 미만	1,700원 이상 3,400원 미만	3,400원 이상 5,100원 미만	5,100원 이상 7,500원 미만	7,500원 이상 10,000원 미만	10,000원 이상	평균 시간당 임금 (천원)
전 체		3,943(100.0)	192(4.9)	1,042(26.4)	934(23.7)	880(22.3)	438(11.1)	457(11.6)	5.8
산업 ¹⁾	농림어업	34(100.0)	9(26.5)	15(44.1)	3(8.8)	4(11.8)	2(5.9)	1(2.9)	3.3
	광공업	1,186(100.0)	40(3.4)	343(28.9)	327(27.6)	278(23.4)	116(9.8)	82(6.9)	5.3
	건설업	382(100.0)	13(3.4)	82(21.5)	116(30.4)	93(24.3)	43(11.3)	35(9.2)	5.8
	공익설비	293(100.0)	16(5.5)	65(22.2)	62(21.2)	77(26.3)	40(13.7)	33(11.3)	5.9
	개인서비스업	604(100.0)	39(6.5)	261(43.2)	130(21.5)	105(17.4)	42(7.0)	27(4.5)	4.4
	금융서비스업	545(100.0)	39(7.2)	103(18.9)	123(22.6)	113(20.7)	69(12.7)	98(18.0)	6.4
	공공서비스업	866(100.0)	33(3.8)	166(19.2)	167(19.3)	201(23.2)	120(13.9)	179(20.7)	7.1
직업 ²⁾	전문직	929(100.0)	9(1.0)	79(8.5)	157(16.9)	228(24.5)	182(19.6)	274(29.5)	8.6
	사무직	748(100.0)	3(0.4)	152(20.3)	199(26.6)	205(27.4)	100(13.4)	89(11.9)	6.1
	서비스직	440(100.0)	51(11.6)	232(52.7)	80(18.2)	48(10.9)	19(4.3)	10(2.3)	3.6
	농림어업직	16(100.0)	7(43.8)	7(42.8)	1(6.3)	-	1(6.3)	-	2.3
	기능직	1,756(100.0)	120(6.8)	560(31.9)	487(27.7)	382(21.8)	131(7.5)	76(4.3)	4.7
기업체 종류 ³⁾	전 체	3,942(100.0)	191(4.8)	1,042(26.4)	934(23.7)	880(22.3)	438(11.1)	457(11.6)	5.8
	민간회사	2,821(100.0)	130(4.6)	853(30.2)	734(26.0)	622(22.0)	263(9.3)	219(7.8)	5.2
	외국인회사	36(100.0)	-	-	11(30.6)	9(25.0)	3(8.3)	13(36.1)	9.0
	공기업	158(100.0)	2(1.3)	13(8.2)	21(13.3)	33(20.9)	43(27.2)	46(29.1)	8.3
	법인단체	169(100.0)	1(0.6)	23(13.6)	34(20.1)	39(23.1)	26(15.4)	46(27.2)	8.9
	정부기관	425(100.0)	6(1.4)	50(11.8)	52(12.2)	122(28.7)	84(19.8)	111(26.1)	7.8
	기타	333(100.0)	52(15.6)	103(30.9)	82(24.6)	55(16.5)	19(5.7)	22(6.6)	4.7
사업체 규모 ⁴⁾	전 체	2,948(100.0)	129(4.4)	823(27.9)	735(24.9)	653(22.2)	310(10.5)	298(10.1)	5.6
	1~4인	460(100.0)	59(12.8)	213(46.3)	104(22.6)	59(12.8)	12(2.6)	13(2.8)	3.7
	5~9인	373(100.0)	17(4.6)	132(35.4)	114(30.6)	74(19.8)	18(4.8)	18(4.8)	4.6
	10~49인	729(100.0)	23(3.2)	230(31.6)	201(27.6)	156(21.4)	68(9.3)	51(7.0)	5.3
	50~99인	258(100.0)	7(2.7)	59(22.9)	81(31.4)	66(25.6)	28(10.9)	17(6.6)	5.5
	100~499인	417(100.0)	15(3.6)	100(24.0)	104(24.9)	100(24.0)	44(10.6)	54(12.9)	5.9
	500인 이상	711(100.0)	8(1.1)	89(12.5)	131(18.4)	198(27.8)	140(19.7)	145(20.4)	7.5

주: 주당 근로시간 및 월평균 임금이 무응답인 69명은 분석에서 제외.
 시간당 임금(=월평균 임금/월평균 근로시간)을 계산시 사용한 월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근로시간에 4.3을 곱한 것.

- 1) 앞의 <표 5-4> 참조, 산업이 분류 불가인 33명은 표에서 제외.
- 2) 앞의 <표 5-5> 참조, 직업이 군인 및 분류 불가인 54명은 표에서 제외.
- 3) 앞의 <표 5-6> 참조, 기업체 종류가 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
- 4) 앞의 <표 5-7> 참조, 사업체 규모가 모름/무응답인 995명은 분석에서 제외.

교육수준별로 임금의 분포를 살펴보면 교육수준과 임금간의 관계가 명확히 나타난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임금수준도 높아지는데, 무학과 대졸 이상 간의 임금격차는 무려 108.6만원이다.

나. 기업체 특성

기업체 특성별 월평균 임금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은 공익설비, 금융서비스업, 공공서비스업 등의 산업으로서, 그 액수는 평균 120만원 이상이고 이들 중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는 산업은 공공서비스업이다. 이에 비해 농림어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평균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중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직업은 전문직이며,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직업은 농림어업직이다. 이 두 직업간의 임금의 차이는 112.6천원이 나 된다. 기업체 종류 중에는 외국인 회사가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다. 한편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임금의 평균도 함께 증가한다.

앞서 분석한 임금을 주당 근로시간을 이용하여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보았다. 따라서 시간당 임금의 추이는 대체로 월평균 임금과 비슷하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5천 8백원으로 나타났다.

第 2 節 非賃金勤勞者의 勤勞所得

본 절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다룬다. 단, 여기서 고려하게 될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매출액이 아닌 월평균 소득이다.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나타나는 인구학적 특성 및 기업체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구학적 특성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수준¹⁵⁾은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14.6%에 해당하는 100만~150만원 이하, 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평균적인 월평균 소득은 131.8만원으로 앞 절에서 논의했던 임금근로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소득을 얻는다. 한편, 적자를 본다고 답한 비임금근로자는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14.2%를 차지하며, 종업원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종사자는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24.1%에 해당한다. 특히 여성은 전체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과반수가 넘는 51.0%가 가족종사자이다. 연령별 집단과 소득간의 분포를 보면 임금근로자와 거의 같은 추세이다.

한편 성별에 다른 혼인상태별 집단을 보면, 가장 높은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난 배우자가 있는 남성은 적자를 보고 있다고 답한 비율도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앞서 말했듯이 여성 비임금근로자는 가족종사자 비중이 높으며 이들 대부분은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다. 또 미혼여성의 소득이 기혼여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와는 반대의 결과이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비임금근로자의 비율도 증가한다.

2. 기업체 특성

기업체 특성과 월평균 소득간의 분포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산업별로 비교하여 보면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산업은 광공업이며, 적자를 보고 있다고 답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서비스업이다. 농림어업의 경우 평균 소득수준과 적자를 보고 있다고 답한 비중 모두 가장 낮다. 건설업은 비교적 높은 평균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도 높다. 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산

15) 본 절에서의 소득은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업은 농림어업과 개인서비스업이다.

직업별 소득분포를 비교하여 보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소득은 무려 218.4만원인 것에 비해 농림어업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소득은 불과 67.6만원에 그치고 있음을 볼 때 비임금근로자의 직종간 임금격차가 임금근로자들보다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소득은 증가하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과 가족종사자의 비중은 감소한다.

<표 8-7>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소득

(단위 : 명, %)

		전 체	50만원 미만	50만~100만원 미만	100만~150만원 미만	150만~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평균 소득 (만원)	적 자	가족 종사자	
전 체		2,405(100.0)	252(10.5)	345(14.3)	352(14.6)	188(7.8)	347(14.4)	131.8	341(14.2)	580(24.1)	
성별	남성	1,404(100.0)	140(10.0)	212(15.1)	251(17.9)	163(11.6)	305(21.7)	148.7	264(18.8)	69(4.9)	
	여성	1,001(100.0)	112(11.2)	133(13.3)	101(10.1)	25(2.5)	42(4.2)	88.0	77(7.7)	511(51.0)	
연령	15~19세	1(100.0)	-	-	-	-	-	-	1(100.0)	-	
	20~24세	32(100.0)	7(21.9)	7(21.9)	4(12.5)	-	1(3.1)	65.3	-	13(40.6)	
	25~29세	127(100.0)	9(7.1)	13(10.2)	23(18.1)	13(10.2)	19(15.0)	137.7	20(15.7)	30(23.6)	
	30~39세	686(100.0)	40(5.8)	80(11.7)	115(16.8)	62(9.0)	122(17.8)	151.0	103(15.0)	164(23.9)	
	40~49세	779(100.0)	38(4.9)	103(13.2)	107(13.7)	68(8.7)	140(18.0)	155.6	137(17.6)	186(23.9)	
	50~59세	492(100.0)	57(11.6)	87(17.7)	82(16.7)	41(8.3)	50(10.2)	117.1	61(12.4)	114(23.2)	
	60세 이상	288(100.0)	101(35.1)	55(19.1)	21(7.3)	4(1.4)	15(5.2)	63.0	19(6.6)	73(25.3)	
혼인 상태 ¹⁾	남성	미 혼	80(100.0)	7(8.8)	12(15.0)	18(22.5)	6(7.5)	10(12.5)	121.2	17(21.3)	10(12.5)
		기혼 유배우	1,282(100.0)	123(9.6)	190(14.8)	227(17.7)	153(11.9)	290(22.6)	151.7	243(19.0)	56(4.4)
		기혼 무배우	40(100.0)	9(22.5)	10(25.0)	6(15.0)	3(7.5)	5(12.5)	106.2	4(10.0)	3(7.5)
	여성	미 혼	51(100.0)	6(11.8)	13(25.5)	9(17.6)	4(7.8)	5(9.8)	106.8	4(7.8)	10(19.6)
		기혼 유배우	814(100.0)	60(7.4)	88(10.8)	77(9.5)	17(2.1)	26(3.2)	91.5	56(6.9)	490(60.2)
		기혼 무배우	136(100.0)	46(33.8)	32(23.5)	15(11.0)	4(2.9)	11(8.1)	72.7	17(12.5)	11(8.1)
교육 수준	무 학	139(100.0)	60(43.2)	11(7.9)	4(2.9)	1(0.7)	1(0.7)	39.2	9(6.5)	53(38.1)	
	고졸 미만	961(100.0)	108(11.2)	189(19.7)	132(13.7)	66(6.9)	61(6.3)	96.5	103(10.7)	302(31.4)	
	고 졸	884(100.0)	56(6.3)	105(11.9)	155(17.5)	85(9.6)	168(19.0)	146.7	141(16.0)	174(19.7)	
	대졸 미만 ²⁾	48(100.0)	6(12.5)	5(10.4)	7(14.6)	4(8.3)	8(16.7)	142.8	9(18.8)	9(18.8)	
	전문대졸	118(100.0)	7(5.9)	12(10.2)	17(14.4)	9(7.6)	27(22.9)	159.7	27(22.9)	19(16.1)	
대졸 이상	255(100.0)	15(5.9)	23(9.0)	37(14.5)	23(9.0)	82(32.2)	220.3	52(20.4)	23(9.0)		

주 : 월평균 소득이 무응답인 10명은 분석에서 제외.

- 1) 혼인상태가 무응답인 2명은 분석에서 제외.
- 2) 앞의 <표 2-5> 참조.

<표 8-8> 비임금근로자의 기업체 특성별 월평균 소득

(단위 : 명, %)

		전 체	50만원 미만	50만~100만원 미만	100만~150만원 미만	150만~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평균 소득 (만원)	적 자	가족 종사자
전 체		2,405(100.0)	252(10.5)	345(14.3)	352(14.6)	188(7.8)	347(14.4)	131.8	341(14.2)	580(24.1)
산업 ¹⁾	농림어업	513(100.0)	125(24.4)	80(15.6)	40(7.8)	13(2.5)	18(3.5)	68.6	44(8.6)	193(37.6)
	광공업	312(100.0)	16(5.1)	25(8.0)	45(14.4)	26(8.3)	62(19.9)	187.0	64(20.5)	74(23.7)
	건설업	95(100.0)	4(4.2)	5(5.3)	17(17.9)	12(12.6)	28(29.5)	174.8	24(25.3)	5(5.3)
	공익설비	94(100.0)	3(3.2)	16(17.0)	25(26.6)	22(23.4)	14(14.9)	133.1	11(11.7)	3(3.2)
	개인서비스업	1,036(100.0)	76(7.3)	146(14.1)	165(15.9)	84(8.1)	167(16.1)	135.0	143(13.8)	255(24.6)
	금융서비스업	110(100.0)	3(2.7)	16(14.5)	16(14.5)	10(9.1)	23(20.9)	144.4	29(26.4)	13(11.8)
	공공서비스업	242(100.0)	25(10.3)	55(22.7)	44(18.2)	21(8.7)	35(14.5)	143.6	25(10.3)	37(15.3)
직업 ²⁾	전문직	276(100.0)	20(7.2)	32(11.6)	39(14.1)	24(8.7)	86(31.2)	218.4	58(21.0)	17(6.2)
	사무직	58(100.0)	1(1.7)	2(3.4)	2(3.4)	-	4(6.9)	137.8	5(8.6)	44(75.9)
	서비스직	978(100.0)	70(7.2)	149(15.2)	165(16.9)	79(8.1)	138(14.1)	129.8	133(13.6)	244(24.9)
	농림어업직	508(100.0)	125(24.6)	80(15.7)	39(7.7)	13(2.6)	17(3.3)	67.6	42(8.3)	192(37.8)
	기능직	533(100.0)	34(6.4)	80(15.0)	102(19.1)	69(12.9)	83(15.6)	130.8	87(16.3)	78(14.6)
사업체 규모 ³⁾	전 체	2,400(100.0)	252(10.5)	345(14.4)	352(14.7)	188(7.8)	345(14.4)	131.5	339(14.1)	579(24.1)
	0인	1,782(100.0)	242(13.6)	323(18.1)	278(15.6)	134(7.5)	138(7.7)	99.1	205(11.5)	462(25.9)
	1~4인	478(100.0)	7(1.5)	18(3.8)	64(13.4)	42(8.8)	145(30.3)	209.0	102(21.3)	100(20.9)
	5~9인	79(100.0)	1(1.3)	3(3.8)	6(7.6)	8(10.1)	35(44.3)	243.4	16(20.3)	10(12.7)
	10~49인	54(100.0)	2(3.7)	1(1.9)	3(5.6)	4(7.4)	24(44.4)	345.3	14(25.9)	6(11.1)
	50~9인	2(100.0)	-	-	1(50.0)	-	-	120.0	1(50.0)	-
	100~499인	5(100.0)	-	-	-	-	3(60.0)	633.3	1(20.0)	1(20.0)

주: 월평균 소득이 무응답인 10명은 분석에서 제외.

- 1) 앞의 <표 5-4> 참조, 산업이 분류불가인 3명은 표에서 제외.
- 2) 앞의 <표 5-5> 참조, 직업이 군인 및 분류불가인 54명은 표에서 제외.
- 3) 앞의 <표 5-7> 참조, 사업체 규모가 모름/무응답인 5명은 분석에서 제외.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및 고용주의 월평균 소득을 주당 근로시간을 이용하여 시간당 소득으로 환산하여 보았다.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소득은 7천 1백원으로 나타나, 임금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인 5천 8백원보다 많다. 시간당 소득의 추이는 대체로 월평균 소득과 같다.

<표 8-9>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시간당 소득

(단위 : 명, %)

		전 체	1,700원 미만	1,700원 이상 3,400원 미만	3,400원 이상 5,100원 미만	5,100원 이상 7,500원 미만	7,500원 이상 10,000원 미만	10,000원 이상	평균 시간당 소득 (천원)	
전 체		1,466(100.0)	237(16.2)	342(23.3)	273(18.6)	214(14.6)	167(11.4)	233(15.9)	7.1	
성별	남성	1,061(100.0)	136(12.8)	209(19.7)	214(20.2)	174(16.4)	137(12.9)	191(18.0)	7.7	
	여성	405(100.0)	101(24.9)	133(32.8)	59(14.6)	40(9.9)	30(7.4)	42(10.4)	5.4	
연령	15~19세	-	-	-	-	-	-	-	0.0	
	20~24세	19(100.0)	3(15.8)	6(31.6)	5(26.3)	2(10.5)	-	3(15.8)	4.9	
	25~29세	76(100.0)	7(9.2)	12(15.8)	24(31.6)	13(17.1)	4(5.3)	16(21.1)	7.2	
	30~39세	416(100.0)	40(9.6)	75(18.0)	91(21.9)	71(17.1)	64(15.4)	75(18.0)	7.8	
	40~49세	450(100.0)	47(10.4)	111(24.7)	81(18.0)	68(15.1)	52(11.6)	91(20.2)	7.7	
	50~59세	313(100.0)	60(19.2)	81(25.9)	55(17.6)	47(15.0)	34(10.9)	36(11.5)	7.4	
	60세 이상	192(100.0)	80(41.7)	57(29.7)	17(8.9)	13(6.8)	13(6.8)	12(6.3)	3.5	
혼인 상태 ¹⁾	남성	미 혼	52(100.0)	5(9.6)	12(23.1)	17(32.7)	3(5.8)	4(7.7)	11(21.2)	7.6
		기혼 유배우	974(100.0)	122(12.5)	191(19.6)	191(19.6)	167(17.1)	127(13.0)	176(18.1)	7.8
		기혼 무배우	33(100.0)	8(24.2)	6(18.2)	6(18.2)	3(9.1)	6(18.2)	4(12.1)	6.4
	여성	미 혼	36(100.0)	1(2.8)	7(19.4)	10(27.8)	3(8.3)	5(13.9)	10(27.8)	9.0
		기혼 유배우	263(100.0)	56(21.3)	98(37.3)	39(14.8)	29(11.0)	19(7.2)	22(8.4)	5.6
		기혼 무배우	106(100.0)	44(41.5)	28(26.4)	10(9.4)	8(7.5)	6(5.7)	10(9.4)	3.8
교육 수준	무 학	75(100.0)	41(54.7)	25(33.3)	3(4.0)	3(4.0)	2(2.7)	1(1.3)	2.2	
	고졸 미만	550(100.0)	119(21.6)	163(29.6)	106(19.3)	65(11.8)	50(9.1)	47(8.5)	5.3	
	고 졸	561(100.0)	63(11.2)	114(20.3)	115(20.5)	103(18.4)	77(13.7)	89(15.9)	6.9	
	대졸 미만 ²⁾	30(100.0)	2(6.7)	5(16.7)	5(16.7)	6(20.0)	3(10.0)	9(30.0)	7.5	
	전문대졸	71(100.0)	4(5.6)	12(16.9)	17(23.9)	11(15.5)	11(15.5)	16(22.5)	7.4	
	대졸 이상	179(100.0)	8(4.5)	23(12.8)	27(15.1)	26(14.5)	24(13.4)	71(39.7)	14.6	

주: 가족종사자 및 월평균 소득과 주당 근로시간이 무응답인 949명은 분석에서 제외.
 시간당 소득(=월평균 소득/월평균 근로시간)을 계산시 사용한 월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근로시간에 4.3을 곱한 것.
 1) 혼인상태가 무응답인 2명은 분석에서 제외.
 2) 앞의 <표 2-5> 참조.

<표 8-10>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기업체 특성별 시간당 소득

(단위 : 명, %)

		전 체	1,700원 미만	1,700원 이상 3,400원 미만	3,400원 이상 5,100원 미만	5,100원 이상 7,500원 미만	7,500원 이상 10,000원 미만	10,000원 이상	평균 시간당 소득 (천원)
전 체		1,466(100.0)	237(16.2)	342(23.3)	273(18.6)	214(14.6)	167(11.4)	233(15.9)	7.1
산업 ¹⁾	농림어업	271(100.0)	96(35.4)	77(28.4)	34(12.5)	26(9.6)	21(7.7)	17(6.3)	4.3
	광공업	173(100.0)	13(7.5)	20(11.6)	33(19.1)	38(22.0)	22(12.7)	47(27.2)	12.3
	건설업	64(100.0)	3(4.7)	2(3.1)	10(15.6)	16(25.0)	12(18.8)	21(32.8)	10.0
	공익설비	80(100.0)	3(3.8)	17(21.3)	25(31.3)	12(15.0)	11(13.8)	12(15.0)	7.2
	개인서비스업	632(100.0)	103(16.3)	169(26.7)	119(18.8)	92(14.6)	80(12.7)	69(10.9)	5.8
	금융서비스업	67(100.0)	8(11.9)	9(13.4)	12(17.9)	9(13.4)	9(13.4)	20(29.9)	8.7
	공공서비스업	177(100.0)	11(6.2)	48(27.1)	39(22.0)	21(11.9)	12(6.8)	46(26.0)	9.1
직업 ²⁾	전문직	200(100.0)	11(5.5)	13(6.5)	33(16.5)	30(15.0)	25(12.5)	88(44.0)	14.5
	사무직	9(100.0)	1(11.1)	2(22.2)	1(11.1)	-	3(33.3)	2(22.2)	7.1
	서비스직	593(100.0)	97(16.4)	178(30.0)	118(19.9)	84(14.2)	60(10.1)	56(9.4)	5.3
	농림어업직	269(100.0)	96(35.7)	77(28.6)	33(12.3)	26(9.7)	21(7.8)	16(5.9)	4.2
	기능직	364(100.0)	30(8.3)	72(19.8)	83(22.8)	68(18.7)	48(13.2)	63(17.3)	7.8
사업체 규모 ³⁾	전체	1,464(100.0)	237(16.2)	342(23.4)	273(18.6)	213(14.5)	167(11.4)	232(15.8)	7.1
	0인	1,099(100.0)	226(20.6)	308(28.0)	221(20.1)	138(12.6)	98(8.9)	108(9.8)	5.5
	1~4인	274(100.0)	8(2.9)	33(12.0)	42(15.3)	65(23.7)	48(17.5)	78(28.5)	9.6
	5~9인	53(100.0)	1(1.9)	-	10(18.9)	6(11.3)	10(18.9)	26(49.1)	14.5
	10~49인	34(100.0)	2(5.9)	1(2.9)	-	3(8.8)	11(32.4)	17(50.0)	23.8
	50~99인	1(100.0)	-	-	-	1(100.0)	-	-	6.2
	100~499인	3(100.0)	-	-	-	-	-	3(100.0)	36.4

주: 가족종사자 및 월평균 소득과 주당 근로시간이 무응답인 949명은 분석에서 제외.
 시간당 소득=(월평균 소득/월평균 근로시간)을 계산시 사용한 월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근로시간에 4.3을 곱한 것.

- 1) 앞의 <표 5-4> 참조, 산업이 분류불가인 2명은 표에서 제외.
- 2) 앞의 <표 5-5> 참조, 직업이 군인 및 분류불가인 31명은 표에서 제외.
- 3) 앞의 <표 5-7> 참조, 사업체 규모가 모름/무응답인 2명은 분석에서 제외.

第 9 章

求職活動

第 1 節 未就業者

이 절에서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면 구직활동을 하는 이유 및 희망하는 직장에 대한 정보, 고용형태, 구직시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 분포를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별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다.

1.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활동 여부 및 비구직 사유

현재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을 희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앞에서 구분된 비경제활동인구에게 우선 일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 일을 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일자리와 구직활동, 구직방법 등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그리고, 일할 의사가 없다면 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비경제활동인구 내에서 일할 의사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22.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일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77.3%로 나타났다.

〈표 9-1〉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

(단위 : 명, %)

	전 체	일할 의사가 있다	일할 의사가 없다
전 체	5,635 (100.0)	1,279 (22.7)	4,356 (77.3)
일할 수 있다	1,272 (100.0)	1,213 (95.4)	59 (4.6)
일할 수 없다	4,363 (100.0)	66 (1.5)	4,297 (98.5)

일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따른 비구직 사유를 분류해 보았다. 일할 수 있다고 응답을 한 경우와 일을 할 수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 모두에서 학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을 할 수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학업의 비중이 35.7%로 약 5.2%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은퇴와 건강 문제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육아와 가사의 비중이 각각 27.1%와 22.0%로 높게 나타났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는 무관하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자리가 있더라도 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학업으로 전체의 35.7%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10대와 20대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전체의 18.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연령별 미취업 사유를 보면 10대의 경우는 96.8%가 학업 때문에 일자리가 있더라도 일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20~24세는 학업이 72.1%, 군복무가 12.0%를 차지하고 있으며 25~29세에는 학업이 단지 18.7%를 차지한 데 반하여 육아가 57.8%를 차지하고 있다. 30대는 육아가 62.3%를 차지하고 가사가 21.6%를 차지하였다. 40대 이상이 되면 건강이라는 사유가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50대 이상부터는 은퇴하였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는 비중도 점차로 늘어나고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체의 64.2%가 은퇴하여서 일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9-2〉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

(단위 : 명, %)

분 포	전 체	일할 수 있다	일할 수 없다
전 체	4,356(100.0)	59(100.0)	4,297(100.0)
학 업	1,554(35.7)	18(30.5)	1,536(35.7)
육 아	613(14.1)	16(27.1)	597(13.9)
가 사	495(11.4)	13(22.0)	482(11.2)
은 퇴	794(18.2)	2(3.4)	792(18.4)
건강문제	674(15.5)	4(6.8)	670(15.6)
당분간 쉬고 싶어서	47(1.1)	2(3.4)	45(1.0)
군복무	68(1.6)	-	68(1.6)
기 타	111(2.5)	4(6.8)	107(2.5)

성별로 비교하면 남성의 58.6%가 학업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24.4%만이 그 항목에 응답하였다. 대신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하여 육아와 가사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현재 재학이나 휴학, 중퇴, 수료의 비율이 높은 고졸 미만과 대졸 미만에서 학업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특히 대졸 미만의 경우에는 학업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86.3%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학업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은퇴와 건강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혼인상태에 따라서 살펴보면, 미혼의 경우 89.0%가 학업을 이유로 일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배우자가 있는 기혼의 경우는 가사와 육아, 은퇴, 건강 문제가 모두 20%를 넘어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배우자가 없는 기혼의 경우에는 은퇴와 건강 문제가 각각 65.7%와 27.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직장의 유무에 따라 비교하여 보면 이전직장이 없었던 경우의 60.8%가 일할 의사가 없는 이유로 학업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이전직

〈표 9-3〉 비경제활동인구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이유

(단위 : 명, %)

		전체	학업	육아	가사	은퇴	건강 문제	당분간 쉬고 싶어서	군복무	기타
전 체		4,356	35.7	14.1	11.4	18.2	15.5	1.1	1.6	2.5
성별	남 성	1,436	58.6	0.2	0.1	14.9	16.9	1.4	4.7	3.2
	여 성	2,920	24.4	20.9	16.9	19.9	14.8	0.9	-	2.2
연령	15~19세	1,207	96.8	0.2	0.1	0.1	0.3	0.2	1.2	1.2
	20~24세	426	72.1	8.0	0.2	-	3.3	1.2	12.0	3.3
	25~29세	358	18.7	57.8	7.5	-	5.3	3.1	0.6	7.0
	30~39세	501	2.0	62.3	21.6	-	9.2	1.4	-	3.6
	40~49세	356	0.3	9.0	48.3	0.8	32.3	3.4	-	5.9
	50~59세	420	0.2	2.9	31.7	21.7	38.3	2.4	-	2.9
	60세 이상	1,088	-	1.3	4.9	64.2	29.0	-	-	0.6
혼인 상태	미 혼	1,734	89.0	0.1	0.2	-	2.9	1.2	3.9	2.7
	기혼 유배우	2,068	0.5	29.0	22.7	20.8	22.8	1.3	-	2.9
	기혼 무배우	554	-	2.2	4.2	65.7	27.3	-	-	0.7
교육 수준	무 학	577	-	1.6	5.0	62.2	30.5	-	-	0.7
	고졸 미만	1,919	49.6	3.5	10.8	16.1	18.1	0.5	0.3	1.2
	고 졸	940	6.2	42.2	21.4	8.7	12.2	2.6	2.0	4.7
	대졸 미만 ¹⁾	576	86.3	1.7	0.7	0.9	1.6	0.2	6.9	1.7
	전문대졸	90	6.7	53.3	12.2	5.6	11.1	2.2	1.1	7.8
	대졸 이상	253	16.6	32.4	16.6	13.4	6.3	4.3	1.2	9.1
	모름/무응답	1	-	-	-	100.0	-	-	-	-
이전 직장	없다	2,391	60.8	3.8	9.8	13.2	8.2	0.3	2.2	1.7
	있다	1,965	5.1	26.6	13.3	24.3	24.3	2.0	0.8	3.6
가구 주와 의 관계	조부모	8	-	-	12.5	87.5	-	-	-	-
	부모	444	-	2.7	4.1	73.0	19.8	-	-	0.5
	가구주	618	3.9	1.5	2.6	43.0	43.9	2.9	-	2.3
	배우자	1,493	0.1	36.6	29.0	12.7	17.8	0.9	-	2.9
	자녀/배우자	1,719	86.0	2.5	1.5	0.1	2.6	0.8	3.8	2.8
	형제자매/배우자	38	63.2	2.6	2.6	10.5	5.3	2.6	2.6	10.5
	기타	36	72.2	2.8	2.8	8.3	8.3	2.8	2.8	-
가구 구성	취업자 가구	3,414	40.5	16.1	12.2	14.0	11.8	0.9	1.8	2.7
	미취업자 가구	942	18.3	6.8	8.3	33.5	28.7	1.6	0.8	2.0

주: 1) 앞의 <표 2-5> 참조.

장이 있었던 경우에 학업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5.0%에 불과하다. 이전직장이 있었던 경우에는 육아나 가사, 은퇴, 건강상의 이유로 일하지 않겠다는 비중이 고루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가구주와의 관계별로 일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가구주의 경우에는 은퇴와 건강 문제가 각각 40%를 넘어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주의 배우자는 육아가 36.6%, 가사가 29.0%를 차지하고 있다. 조부모와 부모는 은퇴와 건강 문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학업이 각각 86.0%, 63.2%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당 가구에 취업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취업자 가구와 미취업자 가구로 구분하였을 때, 취업자 가구의 경우에는 일할 수 없는 이유로 학업이 40.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두 번째로는 육아가 16.1%로 나타났다. 미취업자 가구의 경우에는 은퇴가 3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 문제도 28.7%를 차지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 미취업자들의 구직사유

가. 실업자들의 구직 사유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들의 구직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구직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를 벌기 위한 것으로 전체의 72.8%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본인의 학비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한다는 것으로 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발전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중도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할 때 남성의 75.6%가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여성에 비하여 약 6% 정도 높게 나타났다. 연령

대별로 비교하면 10대에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는 비중이 17.2%로 매우 낮지만, 25세가 넘어가면서 그 비중이 70% 이상으로 매우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10대와 25세 미만의 경우에는 본인의 학비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10대의 경우에는 이 항목이 전체의 64.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항목에도 13.8%가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혼인상태별로 비교하면 기혼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90.0% 이상이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미혼인 경우에는 생활비 마련과 본인의 학비·용돈 마련,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중이 각각 39.0%, 34.4%, 2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혼인상태에 따른 구직사유가 매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율이 대졸 미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6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졸 미만의 경우에는 본인의 학비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중이 64.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고졸 미만과 무학의 경우에는 각각 87.6%와 93.8%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중이 20% 이상으로 나타나서 학력 집단간 특성을 보다 명확히 볼 수 있다. 즉, 학력과 연령을 연관지어 생각하여 보면 연령대가 높은 집단일수록 학력은 낮아지므로 무학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연령이 높은 저학력 집단은 가정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나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생활비 마련이 다른 어떤 이유보다 중요한 구직 사유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교육수준은 상승하지만 아직 가정에 직접적인 생활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학비와 용돈, 혹은 자신의 발전을 목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전직장 경험 유무에 따라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유를 알아보면 직장

경험이 있었던 경우에 78.9%가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직장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학비와 용돈 마련이 41.5%,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가 16.0%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와의 관계에 따라서도 가구주의 경우는 97.3%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구주의 배우자도 89.4%가 응답하여 생활비를 벌기 위한 구직활동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는 단지 39.6%만이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응답하고 33.5%가 본인의 학비나 용돈 마련을 위하여, 22.2%가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것만을 비교하더라도 가정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경우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의 취업상태를 구분하기 위해서 한 가구에 취업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취업자 가구로, 취업자가 1명도 없으면 미취업자 가구로 구분하였다. 해당 가구의 취업상태에 따라서 살펴보면, 취업자 가구나 미취업자 가구 모두 생활비 마련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으나, 취업자 가구의 경우에는 66.6%, 미취업자 가구의 경우에는 86.3%가 생활비 마련에 응답하여 가구간 19.7%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가구의 경우에는 그 이외에도 본인의 학비·용돈의 마련과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아서 미취업자 가구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나.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사유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을 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구직사유 분포는 다음과 같다. 구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실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활비를 벌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업자들의 구직사유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는 항목이 전체의 72.8%를 차지한 것에 비하면 14.2%나 낮은 58.6%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항목은 본인의 학비 또는 용돈을 벌기 위해라는 항목

<표 9-4> 실업자들의 구직사유

(단위 : 명, %)

		전 체	생활비 마련	배우자/ 가족 실직	본인의 학비· 용돈 마련	자신 의 발전	지식· 기술의 활용	여가 시간 활용	기타
전 체		1,255	72.8	0.5	13.9	9.6	1.2	1.5	0.5
성별	남 성	677	75.6	0.1	12.7	8.9	0.9	1.0	0.7
	여 성	578	69.6	0.9	15.2	10.6	1.6	2.1	0.2
연령	15~19세	116	17.2	0.9	64.7	13.8	0.9	2.6	-
	20~24세	213	34.3	-	35.2	24.9	3.3	0.9	1.4
	25~29세	183	70.5	1.1	7.1	16.9	3.3	1.1	-
	30~39세	260	89.6	0.4	2.7	5.0	0.4	1.5	0.4
	40~49세	234	96.6	0.4	0.9	1.7	-	-	0.4
	50~59세	174	94.3	-	0.6	2.3	-	2.9	-
	60세 이상	75	92.0	1.3	1.3	-	-	4.0	1.3
혼인 상태	미 혼	480	39.0	0.2	34.4	21.9	2.7	1.0	0.8
	기혼 유배우	696	94.1	0.6	1.3	1.7	0.3	1.9	0.1
	기혼 무배우	79	91.1	1.3	-	5.1	-	1.3	1.3
교육 수준	무 학	32	93.8	3.1	-	3.1	-	-	-
	고졸 미만	404	87.6	0.2	5.4	4.0	0.2	2.0	0.5
	고 졸	461	80.3	0.4	6.7	10.4	0.7	1.1	0.4
	대졸 미만 ¹⁾	168	23.8	0.6	64.3	7.1	0.6	2.4	1.2
	전문대졸	80	62.5	1.3	3.8	27.5	3.8	1.3	-
	대졸 이상	110	63.6	-	9.1	20.0	6.4	0.9	-
이전 직장	없다	188	38.3	-	41.5	16.0	1.6	1.6	1.1
	있다	1,067	78.9	0.6	9.0	8.5	1.1	1.5	0.4
가구 주와 의 관계	조부모	2	100.0	-	-	-	-	-	-
	부모	11	63.6	9.1	-	18.2	-	-	9.1
	가구주	444	97.3	-	0.5	0.7	0.2	1.1	0.2
	가구주의 배우자	301	89.4	0.7	3.0	3.3	0.7	3.0	-
	자녀/배우자	460	39.6	0.7	33.5	22.2	2.4	1.1	0.7
	형제자매/배우자	27	66.7	-	14.8	11.1	3.7	-	3.7
	기타	10	40.0	-	50.0	10.0	-	-	-
가구 구성	취업자 가구	860	66.6	0.2	17.9	11.7	1.2	1.9	0.5
	미취업자 가구	395	86.3	1.0	5.1	5.1	1.3	0.8	0.5

주: 1) 앞의 <표 2-5> 참조.

으로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라는 항목이 나왔다. 이 두 항목은 실업자들의 분포에서도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중이 실업자에 비하여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생활비를 벌려는 항목이 실업자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는 58.8%와 58.5%로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학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남성의 경우에 여성에 비하여 약 8%가 높은 22.0%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성 실업자가 12.7%인 것과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비교하여 보면, 생활비를 벌기 위한 항목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비중이 점차로 증가하다가 60대 이상이 되면 약간 감소한다. 그리고 본인의 학비 또는 용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항목은 15~19세에서 75.2%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로 감소하다가 40대를 최저점으로 다시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중은 20~24세에서 22.9%, 25~29세에서 25.2%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0대와 30대에도 다른 연령대에 비하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하여 보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전문대학이나 대졸 미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점차로 낮아지는 분포를 보이다가 대졸 이상에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경향을 연령과 연결시켜 볼 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학력수준이 낮아지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아지는 것과는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의 학비 또는 용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사유에 대해서는 대졸 미만의 경우에 전체의 6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중은 대졸 이상이나 전문대졸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직장이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35.6%만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구직활동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이전직장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응답 비중이 66.5%에 비하여 31.1%나 낮은 것이다. 이런 현상은 실업자들과 경우에 이전직장 경험에 따라 각각 38.3%와 78.9%의 응답이 나온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가구주와의 관계별로 살펴보면,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의 경우에 각각 82.2%, 72.0%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자녀/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배우자, 기타의 경우에는 매우 낮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는 본인의 학비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항목에 47.7%가 응답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가족의 취업상태별로 구분하여 구직사유를 비교하면 [그림 9-1]과 같다. 그림에서의 수치는 실업자들 중 취업자 가족을 100%의 비중으로 놓고, 실업자들 중 미취업자 가족을 100%, 비경제활동인구를 다시 각각 취업자 가족과 미취업자 가족으로 구분하여 100%로 보았을 때 나타나는 수치이다. 전체적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구직활동을 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재 실업자이면서 가족이 모두 미취업자인 경우에 생활비를 벌기 위한 구직활동이 8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이면서 가족이 모두 미취업자인 경우이며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사유 중 7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구직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중만을 놓고 비교할 때 미취업자 가족이 공통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통하여 미취업자 가족의 경우에는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취업자 가족의 경우에는 본인의 용돈 마련과 자신의 발전을 위해 구직활동을 한다는 비중이 미취업 가족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한다는 응답의 경우에 취업자 가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8.1%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위의 사유들에 대해서 취업자 가족 내

〈표 9-5〉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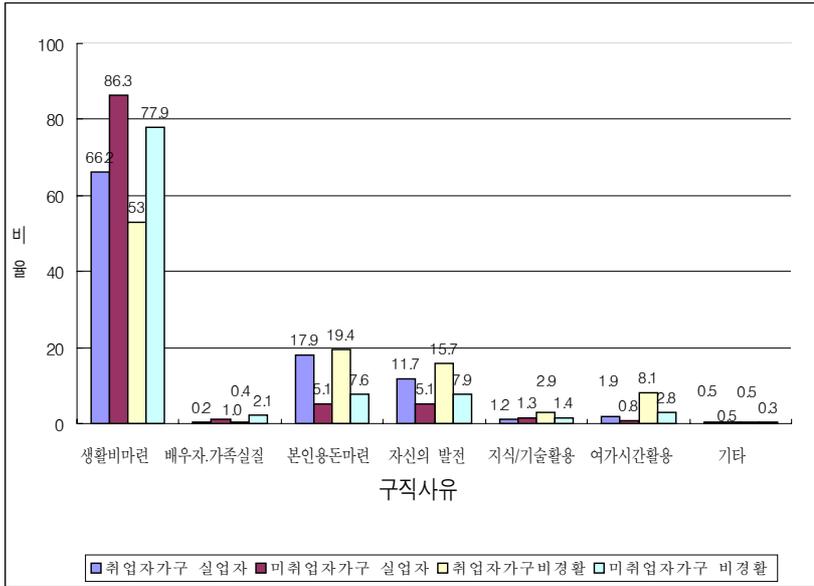
(단위 : 명, %)

		전 체	생활비 마련	배우자/ 가족 실직	본인의 학비/ 용돈 마련	자신의 발전	지식/ 기술의 활용	여가 시간 활용	기 타
전 체		1,279	58.6	0.8	16.7	13.9	2.6	6.9	0.5
성별	남 성	413	58.8	0.2	22.0	12.1	2.4	3.9	0.5
	여 성	866	58.5	1.0	14.2	14.8	2.7	8.3	0.5
연령	15~19세	161	6.2	0.6	75.2	10.6	3.1	4.3	-
	20~24세	157	30.6	1.3	36.9	22.9	4.5	3.2	0.6
	25~29세	155	52.9	-	11.0	25.2	4.5	6.5	-
	30~39세	314	71.3	1.6	2.2	15.3	2.2	6.7	0.6
	40~49세	209	79.9	1.0	1.0	9.6	1.0	7.7	-
	50~59세	154	84.4	-	2.6	5.8	0.6	6.5	-
	60세 이상	129	69.0	-	3.9	7.0	3.1	14.7	2.3
혼인 상태	미혼	406	23.6	1.0	47.8	20.0	3.4	3.7	0.5
	기혼 유배우	817	74.7	0.6	2.4	11.4	2.3	8.2	0.4
	기혼 무배우	56	78.6	1.8	-	7.1	-	10.7	1.8
교육 수준	무학	38	92.1	-	-	2.6	-	2.6	2.6
	고졸 미만	391	70.3	0.5	16.4	5.9	1.3	5.1	0.5
	고졸	464	67.7	0.9	4.1	16.6	2.4	8.2	0.2
	대졸 미만 ¹⁾	179	12.3	1.7	67.0	12.3	1.7	4.5	0.6
	전문대졸	72	41.7	1.4	5.6	31.9	11.1	6.9	1.4
	대졸 이상	135	54.8	-	5.2	23.7	4.4	11.9	-
직장 경험	없다	326	35.6	1.5	40.8	13.5	2.1	6.4	-
	있다	953	66.5	0.5	8.5	14.1	2.7	7.0	0.6
가구 주와 의 관계	부모	25	60.0	-	4.0	20.0	-	16.0	-
	가구주	258	82.2	0.4	3.5	5.4	1.6	6.2	0.8
	가구주의 배우자	576	72.0	0.9	1.6	13.4	2.6	9.2	0.3
	자녀/배우자	388	24.7	0.8	47.7	19.3	3.4	3.9	0.3
	형제자매/배우자	15	53.3	-	13.3	26.7	-	-	6.7
	기타	17	23.5	5.9	47.1	17.6	5.9	-	-
가구 구성	취업자 가족	989	53.0	0.4	19.4	15.7	2.9	8.1	0.5
	미취업자 가족	290	77.9	2.1	7.6	7.9	1.4	2.8	0.3

주: 1) 앞의 <표 2-5> 참조.

[그림 9-1] 경제활동상태 및 가구 구성별 구직사유

(단위 : %)



에서도 실업자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취업에 의사가 별로 없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 구직사유로 개인적인 이유를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희망하는 일자리의 산업 및 직업

다음은 미취업자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산업과 직업에 대한 것이다. 우선, 실업자들의 희망하는 산업을 살펴보면 개인서비스업이 전체의 26.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광공업과 건설업, 공공서비스업이 각각 12~14% 정도로 약간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는 개인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31.3%를 차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실업자와 비슷하지만, 실업자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류 불가를 제외하고 공공서비스업이 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비중이 실업자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 중 이전직장이 있었던 경우만을 뽑아서 이전직장에서의 산업과 희망하는 일자리에에서의 산업을 비교해서 산업의 변화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과 산업의 변화를 희망하는 응답자를 분석하여 보았다. 실업자의 경우에는 이전직장이 있었던 사람들 중 48.8%는 동종 산업에 다시 종사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51.2%가 다른 산업에 종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57.6%가 이전직장과 다른 산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실업자에 비하여 6.4% 높은 수치인 것이다.

실업자들의 경우에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산업의 변화를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10대의 경우에는 64.8%가 산업의 변화를 희망하였고, 40대까지는 이전직장과 같은 산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낮아진다. 그러나 50대부터는 다시 산업의 변화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하면 대졸 미만이거나 전문대졸, 대졸 이상의 경우에 산업의 변화를 희망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 비교하면 미혼의 경우에 기혼보다 산업의 변화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서 6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직장의 이직사유와 산업의 변화 희망 여부를 비교하여 보면 비자발적 이직보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산업의 변화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이전직장의 산업에 다시 종사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57.4%로 나타난 반면,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40.6%만이 이전직장과 같은 산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직장의 산업분포에 따른 산업 변화 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농림어업의 경우에는 76.5%가 산업을 바꾸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33.9%만이 다른 산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표 9-6> 실업자가 희망하는 일자리의 산업

(단위 : 명, %)

		전 체	농림 어업	광공업	건설업	공익 설비	개인 서비스업	금융 서비스업	공공 서비스업	분류 불가
전 체		1,254	1.0	13.4	14.1	4.3	26.5	9.2	12.1	19.5
성별	남 성	676	1.3	13.6	24.3	6.8	20.0	10.2	7.8	16.1
	여 성	578	0.7	13.1	2.2	1.3	34.1	7.9	17.2	23.4
연령	15~19세	116	-	7.8	7.8	1.7	41.3	6.9	13.8	20.7
	20~24세	213	0.5	6.6	7.0	2.8	16.0	13.6	22.2	31.5
	25~29세	183	1.1	12.6	8.2	7.7	25.2	9.8	13.0	22.4
	30~39세	259	1.2	22.0	12.4	3.9	32.4	5.4	7.3	15.4
	40~49세	234	0.9	18.8	17.1	4.3	33.8	6.8	5.3	13.2
	50~59세	174	2.9	10.3	27.0	4.6	21.8	9.8	8.0	15.5
	60세 이상	75	-	4.0	25.3	5.3	4.0	17.3	25.3	18.7
혼인 상태	미 혼	479	0.4	6.8	7.9	4.8	22.3	11.7	17.5	25.5
	기혼 유배우	696	1.4	15.9	18.8	4.0	27.9	7.9	8.1	15.8
	기혼 무배우	79	1.3	12.7	10.1	3.8	39.3	5.1	12.8	15.2
교육 수준	무 학	32	3.1	9.4	15.6	3.1	21.9	9.4	18.7	18.8
	고졸 미만	404	1.2	18.6	23.3	4.2	25.0	7.6	9.2	10.9
	고 졸	461	1.1	15.4	11.3	5.0	31.3	8.0	6.7	21.3
	대졸 미만 ¹⁾	168	-	3.0	6.0	4.8	29.2	10.1	23.3	23.8
	전문대졸	80	1.3	6.3	10.0	2.6	15.0	16.3	21.4	27.5
	대졸 이상	109	0.9	8.3	7.3	2.7	17.5	12.8	19.3	31.2
직장 경험	없다	188	0.5	7.4	5.3	3.7	28.2	10.1	21.8	22.9
	있다	1,066	1.1	14.4	15.7	4.4	26.2	9.0	10.3	18.9

주: 앞의 <표 5-4> 참조.

희망하는 일자리의 산업이 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

1) 앞의 <표 2-5> 참조.

비경제활동인구는 이전직장과 다른 산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57.6%로 나타나서 실업자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로

〈표 9-7〉 비경제활동인구가 희망하는 일자리의 산업

(단위 : 명, %)

		전 체	농림 어업	광공업	건설업	공익 설비	개인 서비스업	금융 서비스업	공공 서비스업	분류 불가
전 체		1,279	1.3	11.0	6.8	2.9	31.3	10.5	17.1	19.0
성별	남 성	413	2.7	10.4	17.9	6.5	16.0	17.4	9.9	19.1
	여 성	866	0.7	11.3	1.5	1.2	38.5	7.3	20.4	18.9
연령	15~19세	161	-	5.6	9.9	1.2	28.0	10.5	19.9	24.8
	20~24세	157	-	9.6	3.2	6.3	19.1	13.3	27.4	21.0
	25~29세	155	1.3	9.7	5.2	5.1	24.5	10.9	20.7	22.6
	30~39세	314	-	12.1	3.5	2.5	40.7	6.3	15.3	19.4
	40~49세	209	1.4	15.3	6.2	1.9	45.5	5.2	13.9	10.5
	50~59세	154	2.6	11.7	12.3	3.9	33.8	8.4	10.3	16.9
	60세 이상	129	6.2	10.9	11.6	-	9.3	27.9	14.0	20.2
혼인 상태	미 혼	406	-	7.6	6.7	5.4	20.4	11.3	23.6	24.9
	기혼 유배우	817	2.1	12.4	6.6	1.9	36.5	10.5	13.9	16.0
	기혼 무배우	56	-	16.1	10.7	-	33.9	5.4	14.3	19.6
교육 수준	무 학	38	7.9	7.9	2.6	-	26.3	21.1	15.9	18.4
	고졸 미만	391	2.0	17.1	12.8	1.5	36.1	9.5	6.5	14.6
	고 졸	464	1.1	8.6	3.7	3.4	40.8	7.1	13.7	21.6
	대졸 미만 ¹⁾	179	-	5.0	5.6	4.5	16.8	13.9	29.1	25.1
	전문대졸	72	-	11.1	2.8	4.2	18.1	9.7	33.3	20.8
	대졸 이상	135	0.7	10.4	5.2	3.7	12.6	18.5	34.9	14.1
직장 경험	없다	326	0.3	8.0	5.8	2.8	32.2	10.4	17.2	23.3
	있다	953	1.7	12.1	7.1	3.0	30.9	10.6	17.0	17.5

주: 앞의 <표 5-4> 참조.

1) 앞의 <표 2-5> 참조.

구분하여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56.5%가 다른 산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는 58.1%가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비중은 실업 여성에 비하여 3.0% 정도 높은 것이다. 연령별로 비교하면 15~19세와 20~24세, 25~29세의 경우에 다른 산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70.6%, 63.4%, 62.9%로 나타나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직사유별로 산업의 변화를 희망하는지를 살펴보면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산업을 바꾸고자 하는 비중이 47.7%에 불과한 데 반하여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이전직장의 산업과 다른 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비중이 62.2%로 14.5%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실업자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전직장의 산업분포에 따른 산업 변화 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농림어업의 경우에 77.3%가 산업을 바꾸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실업자들의 경향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인 것은 광공업으로 70.1%가 다른 산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40.8%만이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을 희망하여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업자들이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응답을 보면 기능직을 희망하는 비중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직이 31.6%를 차지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희망하는 직업도 실업자가 선호하는 직업의 항목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비중면에서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직이 37.9%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기능직을 희망하는 비중이 26.1%를 차지하고 있다.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전직장이 있었던 경우에 이전직장에서의 직업과 희망하는 일자리에서의 직업을 비교해서 직업의 변화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과 직업의 변화를 희망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특징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직업의 경우도 산업과 마찬가지로 이전직장에서 가졌던 직업을 전반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전직장에서 농림어업직으로 종사하였던 사람은 농림어업직을 계속하기보다는 기능직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전직장이 있었던

〈표 9-8〉 미취업자의 산업 변화 희망 비중

(단위 : 명,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전 체		546(51.2)	953(57.6)
성 별	남 성	280(48.0)	173(56.5)
	여 성	266(55.1)	376(58.1)
연 령	15~19세	35(64.8)	24(70.6)
	20~24세	96(65.3)	59(63.4)
	25~29세	88(55.7)	78(62.9)
	30~39세	121(49.0)	161(56.3)
	40~49세	87(39.5)	77(47.5)
	50~59세	78(46.7)	71(53.0)
	60세 이상	41(56.2)	79(65.8)
혼인상태	미 혼	195(60.0)	119(64.7)
	기혼 유배우	318(48.0)	403(56.1)
	기혼 무배우	33(42.3)	27(52.9)
교육수준	무 학	14(46.7)	19(63.3)
	고졸 미만	161(43.6)	143(50.0)
	고 졸	223(52.3)	245(62.2)
	대졸 미만 ¹⁾	58(65.2)	48(63.2)
	전문대졸	40(60.6)	36(58.1)
	대졸 이상	50(58.1)	58(55.2)
가구주와의 관계	부모	6(54.5)	17(68.0)
	가구주	184(41.6)	127(51.8)
	가구주의 배우자	150(55.1)	279(57.8)
	자녀/배우자	188(61.4)	115(63.2)
	형제자매/배우자	13(52.0)	6(60.0)
기타	5(55.6)	5(62.5)	
이직사유	비자발적 이직	223(42.6)	145(47.7)
	자발적 이직	322(59.4)	404(62.2)
이전직장 산업 ²⁾	농림어업	13(76.5)	17(77.3)
	광공업	213(63.0)	199(70.1)
	건설업	60(33.9)	31(40.8)
	공익설비	22(55.0)	28(70.0)
	개인서비스업	128(44.3)	114(43.7)
	금융서비스업	48(64.0)	68(68.7)
	공공서비스업	54(49.1)	88(53.0)
	분류불가	8(40.0)	4(75.0)

주: 1) 앞의 <표 2-5> 참조.

2) 이전직장이 있었던 사람들 중 희망하는 산업에 응답하지 않은 1명의 실업자는 분석에서 제외.

경우에 직업의 변화를 희망하지 않는 비중은 전체의 6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업의 변화를 바라는 비중은 34.7%를 나타내고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71.6%, 여성의 경우에는 58.3%가 이전직장과 같은 직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비교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직업의 변화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직장을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77.0%가 이전직장과 같은 직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으로 이직을 한 경우에는 54.2%만이 같은 직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발적 이직보다는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이전직업과 동종의 직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직장의 직업과 비교하면 서비스직과 기능직의 경우에는 직업의 변화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직은 단지 11.1%만이 같은 직업에 종사하기를 바랐으며 나머지 88.9%는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는 43.7%가 이전 직업과 다른 직업에서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실업자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여성의 45.2%가 직업을 바꾸기를 희망하여 남성에 비하여 약 5% 정도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비교하여 보면 실업자는 연령에 따라 점차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직사유에 따라서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비중도 실업자와 마찬가지로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직장에서 종사하던 직업과 비교하면 농림어업직에서 다른 직업으로 바꾸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사무직이었던 비경제활동인구의 56.6%가 직업에 변화를 바라고 있었다.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서비스직으로 33.3%만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표 9-9〉 실업자가 희망하는 일자리의 직업

(단위 : 명, %)

		전 체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농림 어업직	기능직	군 인
전 체		1,118	13.2	13.1	29.9	0.7	42.9	0.1
성별	남 성	585	12.5	8.4	17.9	0.7	60.5	-
	여 성	533	14.1	18.4	43.0	0.8	23.6	0.2
연령	15~19세	105	20.0	16.2	49.5	-	14.3	-
	20~24세	189	35.4	29.6	20.6	0.5	13.2	0.5
	25~29세	161	15.5	23.0	27.3	-	34.2	-
	30~39세	233	6.9	10.7	35.6	1.3	45.5	-
	40~49세	211	5.2	3.3	34.6	0.9	55.9	-
	50~59세	153	4.6	2.0	24.2	1.3	68.0	-
	60세 이상	66	1.5	3.0	9.1	-	86.4	-
혼인 상태	미혼	419	26.3	23.6	26.3	0.2	23.4	0.2
	기혼 유배우	626	5.9	7.3	31.0	1.0	54.8	-
	기혼 무배우	73	1.4	2.7	41.1	1.4	53.4	-
교육 수준	무학	27	-	-	25.9	-	74.1	-
	고졸 미만	375	1.9	2.4	28.5	1.3	65.9	-
	고졸	405	7.9	14.6	34.3	0.5	42.7	-
	대졸 미만 ¹⁾	151	33.1	19.2	38.4	-	8.6	0.7
	전문대졸	67	41.8	26.9	16.4	-	14.9	-
	대졸 이상	93	33.3	34.4	12.9	1.1	18.3	-
직장 경험	없다	166	26.5	21.1	36.7	0.6	15.1	-
	있다	952	10.9	11.8	28.7	0.7	47.8	0.1
이직 사유 ²⁾	비자발적이직	465	7.5	7.3	21.5	0.9	62.8	-
	자발적이직	487	14.2	16.0	35.5	0.6	33.5	0.2

주: 앞의 <표 5-5> 참조

실업자 중 희망하는 직업이 “아무거나”라고 응답한 137명은 분석에서 제외.

1) 앞의 <표 2-5> 참조.

2) 이직사유에서는 이전직장이 없었던 166명은 분석에서 제외.

<표 9-10> 비경제활동인구가 희망하는 일자리의 직업

(단위 : 명, %)

		전 체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농림 어업직	기능직
전 체		1,136	19.1	15.7	37.9	1.3	26.1
성별	남 성	353	20.4	11.9	18.7	2.5	46.5
	여 성	783	18.5	17.4	46.5	0.8	16.9
연령	15~19세	145	35.2	13.8	39.3	-	11.7
	20~24세	140	40.0	23.6	25.7	-	10.7
	25~29세	138	29.0	28.3	26.8	0.7	15.2
	30~39세	279	13.6	19.0	47.7	-	19.7
	40~49세	190	8.4	7.9	50.0	1.1	32.6
	50~59세	136	4.4	6.6	44.1	2.9	41.9
	60세 이상	108	9.3	8.3	11.1	7.4	63.9
혼인 상태	미혼	355	36.3	21.4	29.0	-	13.2
	기혼 유배우	731	11.8	13.7	41.5	1.9	31.2
	기혼 무배우	50	4.0	4.0	48.0	2.0	42.0
교육 수준	무학	33	-	3.0	33.3	9.1	54.5
	고졸 미만	357	5.6	4.8	41.2	2.0	46.5
	고졸	415	8.2	20.7	49.4	1.0	20.7
	대졸 미만 ¹⁾	155	49.0	17.4	27.7	-	5.8
	전문대졸	66	47.0	28.8	16.7	-	7.6
	대졸 이상	110	50.9	25.5	11.8	0.9	10.9
직장 경험	없다	282	28.4	14.2	43.3	0.4	13.8
	있다	854	16.0	16.2	36.1	1.6	30.1
이직 사유 ²⁾	비자발적 이직	276	10.1	11.6	29.7	2.9	45.7
	자발적 이직	578	18.9	18.3	39.1	1.0	22.7

주: 앞의 <표 5-5> 참조.

비경제활동인구 중 희망하는 직업이 “아무거나”라고 응답한 143명은 분석에서 제외.

1) 앞의 <표 2-5> 참조.

2) 이직 사유 항목에서는 이전 직장이 없었던 282명은 분석에서 제외.

<표 9-11> 미취업자의 직업 변화 희망 비중

(단위 : 명,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전 체		330(34.7)	373(43.7)
성별	남 성	143(28.4)	106(40.3)
	여 성	187(41.7)	267(45.2)
연령	15~19세	24(51.1)	24(75.0)
	20~24세	60(46.2)	45(53.6)
	25~29세	60(42.9)	48(43.6)
	30~39세	88(39.6)	117(45.5)
	40~49세	50(25.0)	56(37.6)
	50~59세	39(26.4)	46(38.3)
	60세 이상	9(13.8)	37(36.3)
혼인 상태	미 혼	117(41.9)	81(50.9)
	기혼 유배우	194(32.3)	282(43.5)
	기혼 무배우	19(26.4)	10(21.7)
교육 수준	무학	7(26.9)	11(40.7)
	고졸 미만	75(21.8)	93(34.7)
	고졸	141(37.6)	173(48.9)
	대졸 미만 ¹⁾	43(54.4)	38(58.5)
	전문대졸	27(49.1)	22(39.3)
	대졸 이상	27(50.7)	36(42.9)
이직 사유 ²⁾	비자발적 이직	107(23.0)	89(32.2)
	자발적 이직	223(45.8)	284(49.1)
직업 ³⁾	전문직	58(57.4)	58(43.6)
	사무직	51(48.1)	103(56.6)
	서비스직	74(33.5)	67(33.3)
	농림어업직	8(88.9)	11(68.8)
	기능직	124(24.8)	125(39.9)
	군인/분류불가	15(100.0)	9(100.0)

주: 1) 앞의 <표 2-5> 참조.

2) 이전직장이 있었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분석.

3) 앞의 <표 5-5> 참조.

4. 희망하는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

실업자들이 가장 많이 희망하는 고용형태는 정규직 임금근로로 전체의 61.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임금근로가 27.1%, 고용주 및 자영업이 11.2%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선호하는 비중이 더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임금근로를 선호하는 비중이 32.0%로 남성에 비하여 약 9.1%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나 자영업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남성이 13.6%로 여성에 비하여 약 5.3% 정도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20~24세와 25~29세에서 각각 70.0%와 74.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가 희망하는 고용형태는 정규직 임금근로의 경우에 5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임금근로는 32.1%로 나타나,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83.2%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이는 실업자의 88.9%가 임금근로를 희망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5.7% 정도 낮은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실업자의 경우에는 가족종사를 희망한 비중이 전혀 없는 데 반하여,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는 0.4%가 가족종사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정규직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57.6%로 여성에 비하여 약 9.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정규직 임금근로에서는 여성의 35.2%가 희망한 것에 비하여, 남성은 단지 25.7%만이 비정규직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비교하여 보면, 20~24세에서 정규직 임금근로를 63.7%가 희망하고 있으며, 25~29세에서 70.3%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비정규직 임금근로는 15~19세에서 55.9%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나 자영업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비중은 30대가 24.5%, 40대가 25.8%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높았으며, 이는 고용주나 자영업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전체 비중이 16.4%라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9-12> 실업자가 희망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

(단위 : 명, %)

		전 체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전 체		1,255	61.8	27.1	11.2
성별	남 성	677	63.5	22.9	13.6
	여 성	578	59.7	32.0	8.3
연령	15~19세	116	46.6	50.9	2.6
	20~24세	213	70.0	25.8	4.2
	25~29세	183	74.3	16.9	8.7
	30~39세	260	60.8	21.9	17.3
	40~49세	234	55.1	28.2	16.7
	50~59세	174	56.9	27.6	15.5
	60세 이상	75	66.7	32.0	1.3
혼인 상태	미혼	480	67.9	27.1	5.0
	기혼 유배우	696	58.0	27.2	14.8
	기혼 무배우	79	57.0	26.6	16.5
교육 수준	무학	32	56.3	40.6	3.1
	고졸 미만	404	59.7	30.2	10.1
	고졸	461	64.9	20.6	14.5
	대졸 미만 ¹⁾	168	39.9	54.8	5.4
	전문대졸	80	78.8	8.8	12.5
	대졸 이상	110	79.1	10.0	10.9
직장 경험	없다	188	53.7	41.5	4.3
	있다	1,067	63.2	24.6	12.3

주: 1) 앞의 <표 2-5> 참조.

교육수준별로 비교하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경우에 정규직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다른 학력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비정규직 임금근로의 경우에는 대졸 미만에서 54.2%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유와 연관시켜 볼 때 정식 직장의 개념보다는 학비나 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의 비정규직을 원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직장이 있었던 경우와 없었던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실업자들의 경우에 이전직장이 있었던 사람들 중 63.2%가 정규직 임금근로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직장이 없었던 사람들의 53.7%가 정규직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것에 비하여 9.5% 정도 높은 비중이다. 그리고 이전직장이 없었던 경우에는 비정규직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41.3%로 나타나서 이전직장이 있었던 경우의 24.6%에 비해 약 16.7% 정도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전직장이 있었던 경우에는 12.4%가 고용주나 자영업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전직장이 없었던 경우에는 4.8%만이 고용주나 자영업자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매우 대조적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이전직장이 있었던 경우와 없었던 경우를 비교하여 정규직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이전직장이 있었던 경우에 이전직장이 없었던 경우보다 약간 높은 51.6%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전직장이 없었던 경우에는 이전직장이 있었던 사람들에 비하여 비정규직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약 8.8% 정도 높은 38.7%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주나 자영업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비중은 이전직장이 있었던 경우에 18.0%로 나타나서 이전직장이 없었던 경우에 비하여 약 7.3% 정도 높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고용주나 자영업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16.4%로 실업자에 비하여 5.2%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직장이 있었던 경우에 희망하는 고용형태를 보면, 정규직 임금근로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정규직 임금근로를 희망하며 고용주나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이전직장이 없었던 사람들의 경우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다.

이전직장의 직업에 따라서 구분을 하여 보면 현재 실업자 중 이전직장에서 사무직이었던 경우에 정규직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7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직이었던 경우에는 56.4%만이 정규직 임금근

〈표 9-13〉 비경제활동인구가 희망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

(단위 : 명, %)

		전 체	정규직 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 종사자
전 체		1,279	51.1	32.1	16.4	0.4
성별	남 성	413	57.6	25.7	16.7	-
	여 성	866	47.9	35.2	16.3	0.6
연령	15~19세	161	41.0	55.9	3.1	-
	20~24세	157	63.7	30.6	5.7	-
	25~29세	155	70.3	16.1	13.5	-
	30~39세	314	43.0	32.5	24.5	1.4
	40~49세	209	47.8	24.9	25.8	1.3
	50~59세	154	46.8	32.5	19.5	-
	60세 이상	129	55.0	34.1	10.9	-
혼인 상태	미혼	406	56.9	35.5	7.6	-
	기혼 유배우	817	49.0	30.0	20.6	0.5
	기혼 무배우	56	39.3	39.3	19.6	1.8
교육 수준	무학	38	50.0	42.1	7.9	-
	고졸 미만	391	47.1	36.1	16.4	0.5
	고졸	464	50.0	26.9	22.4	0.6
	대졸 미만 ¹⁾	179	41.9	54.2	3.9	-
	전문대졸	72	73.6	13.9	12.5	-
	대졸 이상	135	66.7	16.3	17.0	-
직장 경험	없다	326	49.4	38.7	11.7	0.3
	있다	953	51.6	29.9	18.0	0.4

주: 1) 앞의 <표 2-5> 참조.

<표 9-14> 실업자 중 이전직장이 있었던 경우, 희망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
(단위 : 명, %)

		전 체	정규직 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전 체		1,067	63.2	24.6	12.3
직업 ¹⁾	전문직	121	63.6	15.7	20.7
	사무직	119	70.6	20.2	9.2
	서비스직	236	56.4	25.4	18.2
	농림어업직	12	66.7	25.0	8.3
	기능직	555	64.7	26.7	8.6
	군인	24	-	-	-
종사상 지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579	76.5	13.8	9.7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359	48.2	45.1	6.7
	종업원 있는 고용주	57	40.4	8.8	50.9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57	47.4	19.3	33.3
	가족종사자	15	53.3	26.7	20.0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	523	66.5	21.8	11.7
	자발적 이직	543	60.0	27.1	12.9

주: 1) 앞의 <표 5-5> 참조.

료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나 자영업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비중도 전문직이었던 경우에 20.7%, 서비스직이었던 경우에 1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반적인 분포는 실업자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문직이었던 경우나 서비스직의 경우에 고용주나 자영업자를 희망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도 실업자와 비슷한 분포이다.

실업자 중 이전직장에서 정규직 임금근로자였던 경우에 다시 정규직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76.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전직장에서 정규직 임금근로자였던 비경제활동인구는 60.6%가 정규직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비중은 실업자에 비하면

〈표 9-15〉 비경제활동인구 중 이전 직장이 있었던 경우, 희망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

(단위 : 명, %)

		전 체	정규직 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 종사자
전 체		953	51.6	29.9	18.0	0.4
직업 ¹⁾	전문직	153	56.2	26.8	16.3	0.7
	사무직	206	56.8	29.6	13.6	-
	서비스직	217	43.3	30.0	25.3	1.4
	농림어업직	19	42.1	47.4	10.5	-
	기능직 군인	340 18	52.4 100.0	31.8 -	15.9 -	- -
종사상 지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540	60.6	23.7	15.7	-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262	43.1	45.0	11.1	0.8
	종업원 있는 고용주	49	26.5	10.2	63.3	-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71	39.4	28.2	32.4	-
	가족종사자	31	35.5	45.2	12.9	6.5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	304	58.6	25.0	15.5	1.0
	자발적 이직	649	48.4	32.2	19.3	0.2

주: 1) 앞의 <표 5-5> 참조.

하면 약 16% 정도 낮은 분포이다.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로 종사했던 경우에 정규직 임금근로자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비중은 각각 43.1%와 45.0%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실업자의 분포와도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전직장에서 고용주였던 경우에는 현재도 고용주를 희망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실업자의 경우에는 50.9%, 비경제활동인구에서는 63.3%가 다시 고용주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가족종사자였던 사람들 중 6.3%가 여전히 가족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여 실업자와는 매우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

다.

이직사유별로 살펴보면,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정규직을 희망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업자의 경우에는 66.5%,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는 58.6%가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반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에 비하여 정규직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낮았는데, 실업자의 60.0%, 비경제활동인구의 48.4%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들의 희망하는 근로시간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실업자들 중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임금근로를 희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를 질문한 결과를 볼 때,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체의 69.5%를 차지하고 있고,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은 30.5%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남성의 경우에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82.4%로 여성에 비하여 27.1%가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44.7%로 나타나 다른 집단보다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미만의 경우에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나 대졸 이상의 경우에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전직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보면, 이전직장이 있었던 경우에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73.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는 전체의 49.5%가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는 것이다. 나타났다. 이 분포는 실업자들의 분포와는 매우 다른 것으로, 실업자들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전체의 6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하여 매우 높았다.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남성의 67.4%가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고 여성의 41.0%가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여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실업자의

경우와 비슷한 분포이기는 하지만, 실업자의 경우에는 전일제를 희망하는 남성의 비중이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약 14.6%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6> 미취업자의 희망 근로시간 형태

(단위 : 명,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전 체	전일제	시간제	전 체	전일제	시간제
전 체		1,115	69.5	30.5	1,064	49.5	50.5
성별	남 성	585	82.4	17.6	344	67.4	32.6
	여 성	53	55.3	44.7	720	41.0	59.0
연령	15~19세	113	41.6	58.4	156	30.1	69.9
	20~24세	204	66.7	33.3	148	52.0	48.0
	25~29세	167	74.9	25.1	134	61.9	38.1
	30~39세	215	66.0	34.0	237	40.1	59.9
	40~49세	195	74.9	25.1	152	52.6	47.4
	50~59세	147	82.3	17.7	122	56.6	43.4
	60세 이상	74	78.4	21.6	115	66.1	33.9
혼인 상태	미혼	456	66.2	33.8	375	49.3	50.7
	기혼 유배우	593	70.8	29.2	645	49.8	50.2
	기혼 무배우	66	80.3	19.7	44	47.7	52.3
교육 수준	무학	31	71.0	29.0	35	54.3	45.7
	고졸 미만	363	75.2	24.8	325	51.1	48.9
	고졸	394	72.8	27.2	357	49.6	50.4
	대졸 미만 ¹⁾	159	34.6	65.4	172	32.0	68.0
	전문대졸	70	75.7	24.3	63	66.7	33.3
	대졸 이상	98	86.7	13.3	112	60.7	39.3
직장 경험	없다	179	48.6	51.4	287	41.8	58.2
	있다	936	73.5	26.5	777	52.4	47.6

주: 1) 앞의 <표 2-5> 참조.

다. 연령별로 비교하여 보면 15~19세에서 전일제를 희망하는 비중이 30.1%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50%를 전후하여 나타나, 10대를 제외하고는 연령 집단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전직장이 있었던 경우에는 없었던 경우에 비하여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비경제활동인구의 52.4%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 역시 실업자의 경우에 73.5%가 나타난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비중이다.

이전직장이 있었던 경우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분포를 비교하여 보면, 전일제를 희망하는 비중이 실업자의 경우에는 73.5%,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는 52.4%로 약 21.1%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서 실업자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하여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전직장에서 가족종사를 하던 실업자의 경우에는 50.0%가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전직장에서의 고용형태 중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직사유별로 살펴보면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실업자의 경우에는 85.1%가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였고,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는 68.5%가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였다. 반면 자발적 이직 중에서는 실업자의 경우에 62.4%,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 44.6%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와 각각 22.7%, 23.9%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직장에서의 고용형태에 따른 희망하는 근로시간의 분포에 대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비교하여보았다. 실업자들 중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는 73.5%를 차지하고 있고,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는 52.4%가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사이에 21.1% 정도 차이가 났다. 그리고, 이 차이는 각각의 고용형태에서도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실업자의 경우에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서 약 23.2% 정도 높은 79.0%로 나타난다. 그러나 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사

〈표 9-17〉 미취업자의 이전직장 고용형태에 따른 희망하는 일자리의 근로시간
(단위 : 명,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전체	전일제	시간제	전체	전일제	시간제
전 체		936	73.5	26.5	777	52.4	47.6
종사상 지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523	79.0	21.0	455	55.8	44.2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335	65.7	34.3	231	45.9	54.1
	시간제	682	42.0	58.0	515	28.7	71.3
	전일제	176	82.0	18.0	171	60.4	39.6
	종업원 있는 고용주	28	78.6	21.4	18	55.6	44.4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38 12	71.1 50.0	28.9 50.0	48 25	52.1 48.0	47.9 52.0
이직 사유 ¹⁾	비자발적 이직	462	85.1	14.9	254	68.5	31.5
	자발적 이직	473	62.4	37.6	523	44.6	55.4

주: 1) 실업자의 경우에 이직 사유에서 모름/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

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직장에서 임금근로자였던 경우에 이전직장에서의 근로시간에 따른 희망 근로시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이전직장에서 전일제로 근로한 경우에 전일제를 희망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전직장에서 시간제로 근로한 경우에 시간제를 희망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자 중에서 이전직장에서 전일제로 근로한 경우에는 전일제를 희망하는 비중이 8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이전직장에서 시간제로 근로한 경우에는 다시 시간제를 희망하는 비중이 71.3%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직사유에 따라서 분류를 하자면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자발적 이직에 비하여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업자 중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85.1%가 전일제 근로를 희망한

<표 9-18> 실업자의 시간제 근로 희망사유

(단위 : 명, %)

		전체	육아	가사	학업	전일제 직장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일을 같이 하려고	건강 등 개인 사정	취미 생활/ 여가 활용	기타
전체		340	18.2	26.8	31.2	4.4	5.9	8.8	2.1	2.6
성별	남성	103	1.0	9.7	54.4	6.8	5.8	13.6	1.9	6.8
	여성	237	25.7	34.2	21.1	3.4	5.9	6.8	2.1	0.8
연령	15~19세	66	-	15.2	72.7	3.0	3.0	4.5	1.5	-
	20~24세	68	2.9	10.3	67.6	1.5	7.4	2.9	4.4	2.9
	25~29세	42	35.7	21.4	16.7	7.1	2.4	9.5	4.8	2.4
	30~39세	73	52.1	23.3	2.7	4.1	8.2	5.5	1.4	2.7
	40~49세	49	12.2	67.3	-	2.0	4.1	10.2	-	4.1
	50~59세	26	-	46.2	7.7	11.5	3.8	30.8	-	-
	60세 이상	16	6.2	18.8	6.3	12.5	18.8	25.0	-	12.5
혼인 상태	미혼	154	-	12.3	65.6	5.2	6.5	4.5	3.9	1.9
	기혼 유배우	173	35.3	38.7	2.3	3.5	4.6	12.1	-	3.5
	기혼 무배우	13	7.7	38.5	7.7	7.7	15.4	15.4	7.7	-
교육 수준	무학	9	-	44.4	11.1	11.1	-	22.2	-	11.1
	고졸 미만	90	12.2	38.9	15.6	4.4	11.1	12.2	1.1	4.4
	고졸	107	32.7	30.8	8.4	6.5	2.8	13.1	1.9	3.7
	대졸 미만 ¹⁾	104	4.8	15.4	73.1	1.9	2.9	1.0	1.0	-
	전문대졸	17	35.3	5.9	11.8	-	23.5	11.8	11.8	-
	대졸 이상	13	38.5	15.4	30.8	7.7	-	-	7.7	-
직장 경험	없다	92	5.4	21.7	62.0	1.1	2.2	5.4	2.2	-
	있다	248	23.0	28.6	19.8	5.6	7.3	10.1	2.0	3.6

주: 1) 앞의 <표 2-5> 참조.

반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한 경우에는 62.4%만이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였다. 이런 경향은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나타나는데,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68.5%,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44.6%가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들 중 실업자가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원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학업으로 31.2%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가사가 26.8%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는 학업이 54.4%를 차지해서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들 중 과반수가 이 항목에 해당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13.6%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여성의 경우는 육아와 가사, 학업이 비교적 균등하게 나왔으나, 그 중 가사 때문에 시간제 근로를 희망한다는 비중이 3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15~19세의 경우와 20~24세의 경우에 학업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특히 15~19세의 경우에는 학업이 전체의 72.7%를 차지하고 있다. 30대는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로 52.1%가 육아라고 응답하였다. 40대와 50대는 가사를 가장 큰 이유로 제시하였으며 60대가 되면 건강 등 개인 사정 때문에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직장이 있었던 경우와 직장 경험이 없는 경우에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를 비교하면, 이전직장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가사가 28.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육아가 2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학업이라고 응답을 하였다. 반면, 이전직장이 없었다고 한 경우에는 학업이 6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가사가 21.7%를 차지하고 있다. 육아 때문에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은 단지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전직장이 있었던 경우와는 매우 다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경향을 연령대와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전직장이 없었던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서 현재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경우가 많은 관계로 학업 때문에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9-19> 비경제활동인구의 시간제 근로 희망사유

(단위 : 명, %)

		전체	육아	가사	학업	전일제 직장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일을 같이 하려고	건강 등 개인 사정	기타	취미 생활/여가 활용
전체		537	22.3	29.6	25.3	3.5	7.3	9.3	1.7	0.9
성별	남성	112	-	9.8	53.6	7.1	9.8	15.2	4.5	-
	여성	425	28.2	34.8	17.9	2.6	6.6	7.8	0.9	1.2
연령	15~19세	109	-	11.0	76.1	1.8	4.6	4.6	0.9	0.9
	20~24세	71	9.9	15.5	59.2	7.0	4.2	1.4	1.4	1.4
	25~29세	51	39.2	25.5	13.7	5.9	3.9	3.9	2.0	5.9
	30~39세	142	62.7	29.6	-	0.7	2.8	2.8	1.4	-
	40~49세	72	5.6	72.2	2.8	2.8	9.7	6.9	-	-
	50~59세	53	-	41.5	3.8	7.5	15.1	32.1	-	-
	60세 이상	39	-	17.9	-	5.1	25.6	41.0	10.3	-
혼인 상태	미혼	190	-	13.2	68.9	4.7	5.3	3.7	1.6	2.6
	기혼 유배우	324	37.0	40.7	1.5	2.8	6.2	10.2	1.5	-
	기혼 무배우	23	-	8.7	-	4.3	39.1	43.5	4.3	-
교육 수준	무학	16	-	25.0	-	-	25.0	43.8	6.3	-
	고졸 미만	159	9.4	32.1	26.4	3.1	13.2	15.1	0.6	-
	고졸	180	44.4	37.2	2.2	4.4	4.4	4.4	1.7	1.1
	대졸 미만 ¹⁾	117	2.6	15.4	71.8	2.6	1.7	3.4	1.7	0.9
	전문대졸	21	42.9	33.3	-	9.5	-	9.5	4.8	-
	대졸 이상	44	29.5	27.3	13.6	2.3	9.1	11.4	2.3	4.5
직장 경험	없다	167	3.6	24.6	56.3	1.8	6.0	7.2	-	0.6
	있다	370	30.8	31.9	11.4	4.3	7.8	10.3	2.4	1.1

주: 1) 앞의 <표 2-5> 참조.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사유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29.6%를 나타낸 가사이고, 두 번째로는 학업이 25.3%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육아가 22.3%를 차지해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것을 실업자와 비교해 보면, 실업자는 학업이

31.2%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육아가 18.2%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과 대조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학업이 5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이나 다른 개인사정에 의해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1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가사가 34.8%로 나타났고, 육아가 28.2%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비교하여 보면, 15~19세와 20세 이상과 25세 미만의 경우에 학업이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가장 큰 사유로 각각 76.1%, 5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대 이상이 되면 학업을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 보다는 육아나 가사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의 개인적 배경과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데, 연령이 낮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학업 때문에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전직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이전직장이 없었을 경우에는 학업이 가장 큰 사유로 나타났고 두 번째로 가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직장이 있었던 경우에는 가사와 육아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업은 그다지 큰 사유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전직장이 있었을 경우에 건강 등 개인사정이 10.3%나 차지해서 다른 경우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희망하는 직업의 희망소득 및 구직활동

미취업자들이 희망하는 직업의 최저 희망소득은 다음과 같다. 실업자가 희망하는 소득은 월 98.6만원이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88.1만원 정도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실업자의 희망소득을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남성은 119.5만원을 희망하고 여성의 경우는 74.0만원을 희망하여 45.5만원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

다. 비경제활동인구가 희망하는 소득을 보면, 남성의 경우는 남성 실업자가 희망하는 소득보다 낮은 106.4만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실업자가 희망하는 소득보다 높은 79.4만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업자와 마찬가지로 비경제활동인구 내에서도 남성과 여성 사이에 희망하는 소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연령대별로 비교하여 보면 실업자의 경우에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희망하는 소득수준이 높아지다가 50대 이상이 되면서 점차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연령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도 실업자와 마찬가지로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희망하는 소득수준이 높아지다가 50대 이후가 되면서 점차로 감소하는 경향이며,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하여 보면, 실업자의 경우에 희망하는 소득이 학력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졸 미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집단이 올라갈수록 희망하는 소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자보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 그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실업자의 경우에는 무학의 경우에 희망하는 소득이 69.2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대졸 이상의 경우에 124.6만원이어서 그 격차가 55.4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는 무학의 경우에 56.5만원, 대졸 이상의 경우에 138.4만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81.9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혼인상태별로 비교하면 실업자의 경우 기혼 유배우자가 가장 높은 107.3만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에 반하여 미혼과 기혼 무배우자 경우에는 약 90만원 가량으로 나타나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기혼의 경우에 미혼인 사람들에 비하여 희망하는 소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배우자가 없는 기혼의 경우가 미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연령대이면서 학력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혼인 고학력 저연령층보다 희망하는 소득이 낮

〈표 9-20〉 미취업자의 희망최저소득

(단위 : 만원)

구 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전 체		98.6	88.1
성별	남 성	119.5	106.4
	여 성	74.0	79.4
연령	15~19세	71.6	66.8
	20~24세	81.8	81.2
	25~29세	98.6	92.0
	30~39세	111.0	100.4
	40~49세	116.4	101.5
	50~59세	105.7	87.1
	60세 이상	72.6	67.1
혼인 상태	미혼	87.4	82.2
	기혼 유배우	107.3	92.0
	기혼 무배우	90.1	73.4
교육 수준	무학	69.2	56.5
	고졸 미만	95.7	75.5
	고졸	103.5	89.1
	대졸 미만 ¹⁾	78.4	73.8
	전문대졸	103.4	109.0
	대졸 이상	124.6	138.4
직장 경험	없다	76.8	77.7
	있다	102.4	91.7

주: 희망 소득을 응답하지 않은 실업자 중 8명과 비경제활동인구 중 18명은 분석에서 제외.

1) 앞의 <표 2-5> 참조.

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전직장이 있었던 사람들과 직장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소득을 비교하면 실업자들의 경우에 약 25.6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는 이전직장 경험에 따라서 약 14만원의 차이가 있어서 실업자에 비하면 그 격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업자와 마찬가지로 이전직장 유무에 따라서 희망하는 소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들이 직장을 구하는 구직방법의 갯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업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는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우선 지난 1년 이내에 구직활동을 해본 적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구직활동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하면 그에 해당하는 구직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표 9-21〉 비경제활동인구의 지난 1년간 구직활동 여부

지난 1년간 구직활동	명	비율(%)
전체	5,635	100.0
해본 적이 있다	657	11.7
해본 적이 없다	4,978	88.3

결과적으로, 실업자들은 평균 2.1가지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는 1.5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사이에 구직방법의 갯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구직방법으로 들어가서 실업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직방법은 친구나 친지의 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신문이나 TV등의 광고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직

〈표 9-22〉 미취업자가 사용하는 구직방법 갯수

(단위 : 명,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전 체	1,255(100.0)	657(100.0)
1 개	452(36.0)	441(67.1)
2 개	417(33.2)	150(22.8)
3 개	265(21.1)	54(8.2)
4 개	83(6.6)	9(1.4)
5 개	28(2.2)	1(0.2)
6 개	6(0.5)	2(0.3)
7 개	3(0.2)	-
8 개	1(0.1)	-
평 균(개)	2.1	1.5

점 찾아가서 알아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방법과 비교할 때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다. 비경제활동인구도 실업자와 마찬가지로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그 비중이 실업자들의 경우에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하여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방법에 대해서는 복수 응답을 허용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는 모든 방법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실업자들의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대부분이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총계가 216.3%로 1인당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193.6%로 두 가지 방법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24세의 경우에 2.3가지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연령대에서도 전반적으로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0대 이상이 되면서 각각 1.9가지, 1.9가지, 1.5가지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구직방법의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교육수준별로 비

<표 9-23> 실업자의 구직방법

(단위 : 명, %)

구분	전체	학교, 학원, 스승의 추천	친구, 친지의 소개	공공 직업 안내소	사설 직업 안내소	신문, TV 등의 광고	직접 찾아가서	가족을 통하여	인터넷, PC통신 등	기타	
전체	1,255	10.5	62.5	12.7	5.7	57.2	35.9	14.4	6.7	2.8	
성별	남성	677	10.2	67.5	14.3	6.4	54.1	42.7	14.3	6.8	2.4
	여성	578	10.9	57.1	10.7	5.0	60.9	27.9	14.5	6.6	3.3
연령	15~19세	116	20.7	52.6	8.6	6.9	66.4	33.6	17.2	6.9	0.9
	20~24세	213	25.4	60.1	15.0	3.3	66.2	31.5	16.9	16.4	2.8
	25~29세	183	18.6	60.1	17.5	5.5	68.9	24.6	14.2	14.8	1.6
	30~39세	260	3.5	64.2	12.3	4.2	58.5	42.7	15.4	3.5	1.2
	40~49세	234	2.6	67.5	7.7	7.3	53.4	36.8	13.2	0.9	3.0
	50~59세	174	2.9	70.7	14.4	8.6	40.8	44.3	11.5	1.1	3.4
	60세 이상	75	-	53.3	13.3	5.3	34.7	33.3	10.7	1.3	12.0
혼인 상태	미혼	480	22.5	59.2	15.2	5.0	64.6	32.1	16.0	14.0	1.5
	기혼 유배우	696	3.3	65.9	11.4	6.2	54.3	37.9	14.2	2.4	3.2
	기혼 무배우	79	1.3	55.7	8.9	6.3	38.0	40.5	6.3	-	7.6
교육 수준	무학	32	-	68.8	6.3	-	40.6	46.9	9.4	3.1	9.4
	고졸 미만	404	3.0	67.3	10.4	8.2	49.5	38.6	13.9	1.0	3.0
	고졸	461	4.8	65.5	13.9	4.8	61.4	36.0	15.8	2.4	2.0
	대졸 미만 ¹⁾	168	31.0	51.2	7.1	1.8	58.3	33.9	14.3	19.6	1.8
	전문대졸	80	22.5	58.8	17.5	7.5	67.5	38.8	13.8	13.8	3.8
	대졸 이상	110	25.5	52.7	22.7	7.3	63.6	22.7	12.7	21.8	4.5
직장 경험	없다	188	28.7	56.9	9.0	5.9	63.3	33.5	17.0	17.0	3.7
	있다	1,067	7.3	63.7	13.3	5.7	56.1	36.3	14.0	4.9	2.6

주: 1) 앞의 <표 2-5> 참조.

교하면 전문대졸의 경우에 2.4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가장 다양한 구직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학의 경우에 1.8가지로 가장 적은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와의 관계별로 보면 조부모의 경우에 2.5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집단 중 가장 많은 방법을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주나 배우자의 부모들은 1.1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집단 중 가장 적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전직장이 있었던 경우와 없었던 경우를 비교하면 직장이 없었던 경우에는 2.3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전직장이 있었던 경우에는 2.0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나 친지의 소개를 이용한 구직활동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약 10.4%가 높은 67.5%가 이 방법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하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친구나 친지의 소개를 이용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친구나 친지의 소개를 통해 구직을 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의 경우에는 70.7%가 친구나 친지의 소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전직장의 경험 유무에 따른 비교를 하면 이전에 직장이 있었던 경우에 63.7%가 친구나 친지의 소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이전직장이 없었던 경우에 비해 약 6.8%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들이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신문이나 TV등의 광고라는 항목을 비교해 보면 여성의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하는 비중이 60.9%로 남성에 비하여 6.8%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이 방법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하면 고졸 이상의 경우에 대부분 이 방법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전문대졸의 경우에는 67.5%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전직장 경험에 따라서 비교하여 보면 이전직장이 없었던 경우에 63.3%가 신문이나 TV등의 광고를 이용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이전직장이 있었던 경우에는 56.1%만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실업자들의 경우에는 학교나 학원, 스승의 추천을 이용하는 비중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10.5%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수

준별로 비교하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이 방법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졸 미만의 경우에는 31.0%로 다른 학력 대에 비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 비교하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학교, 학원, 스승의 추천을 통해 구직을 하고자 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직장이 없었던 경우에는 28.7%가 이 방법을 사용하지만, 이전직장이 있었던 경우에는 7.3%만이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연령대가 낮으면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이전직장 경험이 없는 비중이 높아지는데, 이럴 경우에 주로 학교나 학원, 스승의 추천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사용한 구직활동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6.7%로 매우 적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지만, 교육수준이 올라갈수록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20대에서 사용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24세와 25~29세의 경우에는 16.4%와 14.8%가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미만의 경우에 19.4%, 전문대졸의 경우에 13.8%, 대졸 이상의 경우에 21.8%가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낮은 연령대의 고학력층에서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비중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은 경향이 있다. 이전직장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비교해보면, 이전직장이 없었던 경우에 이전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들보다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서 1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가장 활발한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집단은 남성으로 1.6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적은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집단은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로 1.3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경제활동인구 집단 자체가 구직활동을 하는 방법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 편차는 매우 작게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활동의 추세는 실업자와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

〈표 9-24〉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방법

(단위 : 명, %)

구 분		전체	학교, 학원, 스승의 추천	친구, 친지의 소개	공공 직업 안내소	사설 직업 안내소	신문, TV 등의 광고	직접 찾아가서	가족을 통하여	인터넷, PC통신 등	기타
전 체		657	7.8	49.9	4.9	2.1	43.4	21.2	8.5	5.8	2.0
성별	남 성	249	8.8	57.8	7.2	2.8	44.2	21.7	9.6	6.8	2.0
	여 성	408	7.1	45.1	3.4	1.7	42.9	20.8	7.8	5.1	2.0
연령	15~19세	111	10.8	48.6	3.6	2.7	51.4	23.4	7.2	6.3	0.9
	20~24세	123	17.1	37.4	2.4	-	48.8	20.3	7.3	13.0	2.4
	25~29세	96	13.5	38.5	7.3	4.2	60.4	10.4	5.2	8.3	4.2
	30~39세	121	2.5	50.4	4.1	2.5	41.3	20.7	11.6	4.1	0.8
	40~49세	102	1.0	60.8	5.9	2.0	32.4	26.5	10.8	2.0	2.0
	50~59세	62	1.6	62.9	9.7	1.6	33.9	24.2	8.1	-	-
	60세 이상	42	-	69.0	2.4	2.4	14.3	26.2	9.5	-	4.8
혼인 상태	미혼	286	15.0	43.7	4.2	2.1	53.5	20.6	6.6	10.8	1.7
	기혼 유배우	343	2.3	55.1	5.0	2.0	36.7	19.2	10.2	1.7	2.3
	기혼 무배우	28	-	50.0	10.7	3.6	21.4	50.0	7.1	3.6	-
교육 수준	무학	20	-	65.0	10.0	-	5.0	50.0	5.0	-	-
	고졸 미만	180	2.2	60.0	3.9	1.7	39.4	22.2	6.7	1.1	1.7
	고졸	220	4.1	52.7	5.5	3.6	40.5	22.7	10.0	1.8	1.8
	대졸 미만 ¹⁾	128	16.4	40.6	3.1	0.8	52.3	22.7	9.4	10.9	-
	전문대졸	34	20.6	38.2	5.9	-	55.9	8.8	5.9	14.7	2.9
	대졸 이상	75	13.3	34.7	6.7	2.7	50.7	9.3	9.3	17.3	6.7
직장 경험	없다	170	13.5	48.8	2.9	1.2	49.4	19.4	7.1	8.8	1.8
	있다	487	5.7	50.3	5.5	2.5	41.3	21.8	9.0	4.7	2.1

주: 1) 앞의 <표 2-5> 참조.

지는 않는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친구나 친지의 소개로 49.9%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 57.8%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여성에 비하여 12.7%가 높았다. 그

리고,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친구나 친지의 소개라는 방법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학의 경우에 65.0%가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친구나 친지의 소개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데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69.0%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이나 TV등의 광고를 보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비중은 남성이 44.2%로 여성에 비하여 약 1.3%정도 높았고, 연령대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 방법을 사용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직장이 있었던 경우와 없었던 경우를 비교하면 이전직장이 없었던 경우에 신문이나 TV등의 구인광고를 활용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가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직접 찾아가서 구직활동을 하는 비중을 보면 21.2%로 실업자들의 35.9%에 비하면 약 14.7% 정도 낮다. 성별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교육수준별로 보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직접 찾아가서 구직활동을 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 방법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전직장이 있었던 경우와 이전직장이 없었던 경우를 비교하면 이전에 직장경험을 한 사람일수록 직접 찾아가서 구직활동을 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나 학원, 스승의 추천이라는 항목을 살펴보면, 낮은 연령대에서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세와 25~29세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비중이 각각 17.1%, 13.5%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하여 보면 대졸 미만의 경우와 전문대졸, 대졸 이상의 경우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직장 유무별로 비교하여 보아도 이전직장이 있었던 경우에는 단지 5.7%만이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반하여 이전직장이 없었던 경우에는 13.5%가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여 7.8%가 높았다.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직을 하는 비중은 전체의 5.8%를 차지하여 실업자와 비교할 때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비

교하여 보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졸 미만의 경우에 10.9%, 전문대졸의 경우에 14.3%, 대졸 이상의 경우에 17.3%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10대와 20대에서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50대 이상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진직장의 유무에 따라서 비교하여 보면 이전에 직장경험을 했을 경우에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사용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비중이 직장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하여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구직시 어려움

다음으로 미취업자가 구직시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과 그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실업자를 보면, 실업자 중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항목은 ‘일자리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의 94.9%가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두 번째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항목은 ‘정보 부족’이었는데, 이 두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집단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학력·기능이 안 맞음’에 대해서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어려움을 느끼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경험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어려움을 느끼는 비중이 높아지고 또한 연령대별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은 연령대가 몰려 있고, 그로 인해서 직장 경험이나 사회생활 경험이 높은 연령대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입이 적음’이라는 항목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어려움을 느끼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기대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근로여건이 맞지 않음’에

<표 9-25> 실업자의 구직시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별 비중

(단위 : 명, %)

구 분		전체	일자리 부족	정보 부족	학력· 기능 등이 안맞음	경험 부족	수입이 너무 적음	근로 여건이 안맞음	나이가 많음	사업 자금 부족	여성 이기 때문
전 체		1,246	94.9	81.1	51.2	48.3	56.9	44.6	38.8	52.0	28.3
성별	남 성	672	96.6	79.2	51.6	42.3	54.4	33.2	35.3	57.0	-
	여 성	574	93.0	83.4	50.6	55.2	60.0	57.8	43.0	46.3	48.3
연령	15~19세	116	93.1	77.6	48.3	74.1	62.6	56.9	3.5	24.1	28.8
	20~24세	210	88.1	80.5	43.3	61.9	55.3	43.5	12.9	31.9	26.0
	25~29세	181	96.7	80.8	53.6	50.5	59.7	43.6	20.6	62.1	23.1
	30~39세	259	94.2	80.9	51.7	43.2	61.8	51.9	35.3	62.3	33.0
	40~49세	222	98.3	83.9	55.2	45.5	60.3	47.2	58.3	60.3	29.4
	50~59세	173	99.4	82.1	55.2	33.1	52.0	36.0	70.1	63.1	30.9
	60세 이상	75	94.7	78.7	48.0	25.3	30.7	16.2	89.3	41.1	21.7
혼인 상태	미 혼	476	92.0	80.0	49.4	61.7	57.9	44.2	15.2	40.8	25.0
	기혼 유배우	691	96.8	81.1	52.1	40.4	57.5	46.3	51.7	59.9	28.7
	기혼 무배우	79	96.2	87.3	53.8	36.7	46.8	31.6	68.4	50.6	42.9
교육 수준	무 학	32	93.8	81.3	68.8	46.9	31.3	22.6	78.1	50.0	54.8
	고졸 미만	401	97.8	81.5	55.3	41.4	54.4	43.6	51.7	52.1	28.5
	고 졸	458	93.4	83.2	54.6	46.1	58.4	45.3	35.7	57.6	26.2
	대졸 미만 ¹⁾	167	93.4	77.8	40.7	65.3	60.6	55.2	13.9	29.9	28.0
	전문대졸	79	93.7	82.5	40.5	53.8	60.0	41.3	27.5	58.4	31.5
	대졸 이상	109	94.5	75.0	40.2	53.3	60.2	37.4	38.9	58.9	25.0
직장 경험	없다	185	96.8	83.2	48.1	78.9	53.8	50.0	17.4	39.8	33.9
	있다	1,061	94.6	80.7	51.7	42.9	57.5	43.6	42.6	54.2	27.2

주: 1) 앞의 <표 2-5> 참조.

대해서는 남성보다 약 24.6%나 높은 비중인 57.8%의 여성이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나이가 많음’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응답 비중도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전에 직장경험이 있는 경우에 직장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약 25.2%가 높은 42.6%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직장경험이 연령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령이 높으면 이전에 직장경험을 했을 비중이 높고 따라서 직장경험이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보다 더 나이가 많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는 비중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시 어려움을 느끼는 비중을 살펴보면 우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꼈다고 응답한 항목은 일자리 부족이라는 항목으로 응답자의 91.9%가 대답하였다. 두 번째로는 정보 부족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분포는 실업자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일자리 부족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어려움을 느꼈다고 응답하였지만, 이전직장을 가졌었는지에 따라서 약간 응답에 차이가 있다. 이전에 직장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경우에는 97.0%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꼈다고 응답하여 직장 경험을 했던 사람들에 비하여 약 7%정도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수입이 적음 항목에 대해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전직장이 없을 경우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았으며, 이전에 직장경험이 없을 경우에 81.5%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여 직장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에 비하여 약 29.1%가 더 높았다. 근로여건이 맞지 않음에 대한 어려움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 13.1% 정도 높게 응답하였다. 학력·기능이 안 맞음에 대해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어려움을 느꼈다는 비중이 점차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금 부족에 대해서는 48.2%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응답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60대 이상이 되면 64.3%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나이가 많음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어려움을 느끼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6>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시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별 비중

(단위 : 명, %)

구 분		전체	일자리 부족	정보 부족	학력· 기능 등이 안맞음	경험 부족	수입이 너무 적음	근로 여건이 안맞음	나이가 많음	사업 자금 부족	여성 이기 때문
전 체		655	91.9	79.5	55.7	59.8	62.6	58.1	35.4	48.2	35.4
성별	남 성	249	94.8	79.4	56.6	53.8	62.1	50.0	34.7	52.1	16.0
	여 성	406	90.1	79.6	55.2	63.5	63.0	63.1	35.8	45.9	45.6
연령	15~19세	111	93.7	82.0	56.8	74.8	64.9	69.1	7.2	25.2	21.9
	20~24세	123	91.1	79.7	52.0	69.1	69.9	61.8	8.3	34.2	31.5
	25~29세	96	84.4	76.8	46.9	56.3	57.3	52.1	22.9	51.1	35.5
	30~39세	121	89.3	78.5	55.4	59.5	65.0	63.6	37.2	60.0	37.1
	40~49세	101	96.0	75.2	55.4	52.5	68.3	54.5	57.4	58.0	45.4
	50~59세	61	100.0	83.6	67.2	41.0	51.7	45.9	82.0	60.7	43.9
	60세 이상	42	92.9	85.7	69.0	47.6	42.9	42.9	90.5	64.3	40.0
혼인 상태	미혼	286	92.3	81.4	53.1	70.3	67.8	62.1	15.4	35.4	27.8
	기혼유배우	341	90.9	76.5	56.0	52.2	58.1	55.7	49.1	57.1	38.8
	기혼무배우	28	100.0	96.4	78.6	46.4	64.3	46.4	71.4	67.9	69.2
교육 수준	무학	20	100.0	90.0	90.0	60.0	55.0	65.0	90.0	75.0	65.0
	고졸 미만	179	93.9	78.7	60.3	52.0	55.6	48.0	44.1	46.6	30.6
	고졸	220	89.5	76.8	57.3	61.8	65.5	60.5	35.6	55.1	36.0
	대졸 미만 ¹⁾	128	93.8	80.5	43.0	62.5	70.3	70.9	7.9	28.5	26.9
	전문대졸	34	100.0	88.2	58.8	64.7	67.6	55.9	35.3	54.5	39.4
	대졸 이상	74	85.1	81.1	51.4	66.2	57.5	52.7	45.9	54.8	50.0
직장 경험	없다	168	97.0	85.7	55.4	81.5	64.9	67.1	25.6	37.6	36.9
	있다	487	90.1	77.4	55.9	52.4	61.9	55.0	38.8	51.9	34.9

주: 1) 앞의 <표 2-5> 참조

7. 구직기간, 구직 시간 및 구직횟수

미취업자들의 구체적인 구직활동으로 들어가서 구직기간과 구직활동시간, 구직횟수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직기간을 보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기간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실업자들은 평균 8.1개월 정도를 구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경제활동인구는 7.5개월 정도를 구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 내에서 성별로 구직기간의 차이를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약 1개월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있다. 구직활동기간을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모두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구직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하면 실업자의 경우에는 무학에서는 구직기간이 20개월 이상인 데 반하여 다른 학력대에서는 약 7~10개월 정도로 분포되어 있고,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서도 무학의 경우는 13.6개월로 가장 길게 나타난 데 반하여 다른 교육수준에서는 6~10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미취업자들의 주당 평균 구직시간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실업자들은 1주일 평균 10시간 정도 구직활동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는 6.8시간 정도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를 다시 세분하여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평균 13시간 이상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은 7.5시간 정도로 남성에 비하여 약 5시간 정도 적게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성들이 여성에 비하여 구직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서 성별 구직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실업자의 경우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구직시간이 길어지다가 60대 이상이 되면 다시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도 실업자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실업자의 경우에는 고졸의 경우에 11.8시간으로 고졸 미만이나 무학의 경우에 비하여 구직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전직장 경험에 따른 구직시간을 살펴보면, 직장 경험이 있었던 경우는 없었던

경우에 비하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취업자들의 평균 구직횟수를 보면 실업자의 경우에는 6.3번,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는 4.2번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의 성

〈표 9-27〉 미취업자의 평균 구직기간

(단위 : 개월)

구 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전 체		8.1	7.5
성별	남 성	7.7	7.4
	여 성	8.6	7.6
연령	15~19세	3.1	2.5
	20~24세	6.6	5.2
	25~29세	8.0	8.8
	30~39세	8.8	9.9
	40~49세	8.9	8.3
	50~59세	9.8	6.7
	60세 이상	11.9	16.4
혼인 상태	미혼	6.4	5.6
	기혼 유배우	9.0	8.8
	기혼 무배우	11.2	11.7
교육 수준	무학	20.7	13.6
	고졸 미만	7.3	6.2
	고졸	8.3	8.8
	대졸 미만 ¹⁾	5.3	3.9
	전문대졸	9.8	10.5
	대졸 이상	10.2	10.0
직장 경험	없다	8.6	5.9
	있다	8.0	8.1

주: 1) 앞의 <표 2-5> 참조.

별 구직횟수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 여성에 비하여 약 2.4회 정도 많은 7.4회로 나타났다.

〈표 9-28〉 미취업자의 평균 주당 구직시간

(단위 : 시간)

구 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전 체		10.6	6.8
성별	남 성	13.2	8.4
	여 성	7.5	5.9
연령	15~19세	9.9	4.3
	20~24세	9.4	7.1
	25~29세	9.7	6.6
	30~39세	10.5	7.6
	40~49세	11.1	9.3
	50~59세	13.8	5.9
	60세 이상	8.8	6.2
혼인 상태	미혼	10.0	6.8
	기혼 유배우	10.9	6.8
	기혼 무배우	11.1	6.9
교육 수준	무학	7.8	5.6
	고졸 미만	11.7	7.3
	고졸	11.8	7.1
	대졸 미만 ¹⁾	6.6	4.9
	전문대졸	9.3	8.6
	대졸 이상	9.2	7.7
직장 경험	없다	9.7	5.9
	있다	10.7	7.2

주: 1) 앞의 <표 2-5> 참조

〈표 9-29〉 미취업자의 평균 구직횟수

(단위 : 번)

구 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전 체		6.3	4.2
성별	남 성	7.4	5.0
	여 성	5.0	3.7
연령	15~19세	4.6	2.8
	20~24세	6.4	4.4
	25~29세	5.8	5.0
	30~39세	5.1	4.7
	40~49세	6.8	4.3
	50~59세	8.7	3.7
	60세 이상	7.2	3.7
교육 수준	무학	10.4	3.2
	고졸 미만	6.5	4.2
	고졸	6.5	3.9
	대졸 미만 ¹⁾	5.2	4.0
	전문대졸	4.5	2.8
	대졸 이상	6.4	6.0
혼인 상태	미혼	6.0	4.3
	기혼 유배우	6.4	4.1
	기혼 무배우	7.4	3.7
직장 경험	없다	6.4	4.8
	있다	6.3	3.9

주: 1) 앞의 <표 2-5> 참조.

第 2 節 就業者

1. 현직장 취업 정보 및 경로

현재 임금근로자로 취업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현직장에 대한 취업 정보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에 대해서 가족, 친구 또는 친지의 소개가 5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신문이나 잡지, 벽보 등 구인·구직 정보를 통하여 구직하게 된 경우가 2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학원이나 학교, 스승의 소개로 취업하게 되었다는 비중이 15.2%로 나타났다.

PC통신을 이용하여 취업정보를 얻는 비중은 전체의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업자의 6.7%와 비경제활동인구의 8.5%가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결과와는 사뭇 대조되는 응답이다.

우선 가족, 친지 또는 친구의 소개로 취업 정보를 얻게 된 경우는 남성이나 여성에서 별다른 비중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학교, 학원 또는 스승의 소개로 취업 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비중이 17.2%를 차지하여 남성이 14.1%인 것에 비하여 높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감에 따라 가족, 친지 또는 친구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었다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5~19세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구 또는 친지의 소개로 취업 정보를 얻었다는 비중이 39.5%에 불과한 데 반하여 60세 이상이 되면 73.8%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34.3%나 차이가 난다. 신문이나 잡지, 벽보 등의 구인·구직 광고를 통하여 취업정보를 얻게 되었다는 비중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점차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학원 또는 스승의 소개로 정보를 얻게 되었다는 비중도 연령대에 따라서 다른 분포를 보였는데, 15~19세

의 경우에는 자그마치 4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60대 이상이 되면 6.9%에 불과하여, 연령대별로 구직방법에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별 차이를 보면, 우선 교육수준이 대졸 미만의 경우와 전문대졸, 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학교나 학원 또는 스승의 소개로 취업정보를 얻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기간에 따라서 비교하여 보면,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학교나 학원 또는 스승이 소개하여 취업정보를 얻게 되었다는 비중이 높아지고, 가족이나 친구 또는 친구의 소개로 취업 정보를 얻게 되었다는 비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직장의 취업경로를 살펴보면, 소개나 추천을 통한 구직이 52.9%로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공개채용을 통해서 구직을 했다는 비중이 23.3%를 차지하고 있다. 세부 집단별로 구분하여 보면, 성별로 볼 때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경우에 소개나 추천으로 취업하게 되었다는 비중이 4% 정도 높게 나타나서 55.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공개채용으로 취업하게 되었다는 비중이 27.3%로 여성에 비하여 10.9%정도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비교하여 보면, 20대와 30대, 40대에서 공개채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10대와 60대 이상에서 소개나 추천으로 취업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하여 보면, 대졸 이상의 경우에 공개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52.4%를 차지하고 있다. 고졸 미만의 경우에는 소개나 추천으로 취업하게 되었다는 비중이 6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학의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서 취업하였다는 비중이 42.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현재의 직업별로 비교하여 보면, 전문직, 사무직, 군인의 경우에 공개채용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인의 경우에는 61.5%가 공개채용이라고 응답하였다. 서비스직과 기능직의 경우에 소개나 추천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직접 찾아가서 취업하게 되었다는 비중도 서비스직, 농림어업직, 기능직의 경우에 상당히 높은 경향을

<표 9-30> 임금근로자의 현직장 취업정보

(단위 : 명, %)

		전 체	구인/구직 정보 ⁴⁾	학교, 학원 또는 스승	가족, 친구 또는 친지	공·사립 직업 훈련원	공공 직업 소개소	사설 직업 소개소	PC 통신	기 타
전 체		4,012	22.8	15.2	53.2	0.8	0.9	0.8	0.5	5.8
성 별	남 성	2,531	23.0	14.1	53.6	0.9	0.7	0.5	0.4	6.7
	여 성	1,481	22.3	17.2	52.5	0.5	1.4	1.3	0.7	4.3
연 령	15~19세	81	12.3	44.4	39.5	1.2	-	1.2	-	1.2
	20~24세	430	24.9	26.5	42.1	-	0.9	0.9	1.4	3.3
	25~29세	661	25.3	21.9	44.9	0.8	0.9	0.6	1.4	4.2
	30~39세	1,279	24.9	14.0	52.9	0.7	0.7	0.5	0.2	6.0
	40~49세	968	21.8	9.7	59.4	0.7	1.0	0.8	-	6.5
	50~59세	448	20.1	7.4	59.2	1.6	1.8	1.1	0.2	8.7
	60세 이상	145	6.2	6.9	73.8	1.4	0.7	2.8	-	8.3
혼 인 상 태	미혼	1,105	23.1	24.9	45.0	0.5	0.8	0.9	1.2	3.6
	기혼 유배우	2,740	22.9	12.1	55.9	0.8	0.9	0.7	0.2	6.5
	기혼 무배우	167	18.6	2.4	63.5	1.2	2.4	2.4	-	9.6
교 육 수 준	무학	70	21.4	-	61.4	1.4	1.4	4.3	-	10.0
	고졸 미만	894	15.7	1.9	73.2	0.6	1.3	1.7	-	5.7
	고졸	1,651	22.0	9.9	60.3	0.9	1.0	0.6	0.2	5.0
	대졸 미만 ¹⁾	166	25.9	20.5	44.0	0.6	0.6	-	0.6	7.8
	전문대졸	351	29.6	24.8	37.6	0.6	0.6	0.6	2.0	4.3
	대졸 이상	880	28.1	35.1	26.8	0.8	0.7	0.2	0.9	7.4
직 업 ²⁾	전문직	942	23.8	32.6	35.0	0.6	-	0.2	0.6	7.1
	사무직	760	26.4	24.3	41.3	-	0.9	0.5	1.4	5.0
	서비스직	449	26.3	5.6	61.0	1.1	1.1	1.3	-	3.6
	농림어업직	17	-	-	94.1	-	-	-	-	5.9
	기능직	1,786	19.8	4.9	65.8	1.1	1.4	1.1	0.1	5.9
	군인	13	15.4	23.1	15.4	7.7	-	-	7.7	30.8
	분류불가	45	33.3	6.7	51.1	0.8	2.2	-	-	6.7
근 속 기 간 ³⁾	1년 미만	937	24.5	10.9	54.2	0.5	1.8	1.4	0.4	6.2
	1~3년 미만	846	21.7	12.4	57.3	1.4	0.4	0.9	0.6	5.2
	3~5년 미만	497	22.5	16.3	54.5	0.6	1.2	0.6	0.2	4.0
	5~10년 미만	666	20.6	18.9	54.1	-	0.5	0.2	0.3	5.6
	10년 이상	751	26.2	23.6	40.5	1.3	0.4	0.3	-	7.7

- 주 : 1) 앞의 <표 2-5> 참조.
- 2) 앞의 <표 5-5> 참조.
- 3) 근속기간에서는 현직장 시작 시기를 응답하지 않거나 면접조사 시기를 응답하지 않은 315명은 분석에서 제외.
- 4) 신문, 잡지, 벽보 등 구인·구직 정보.

〈표 9-31〉 임금근로자의 구직경로

(단위 : 명, %)

		전체	공개채용	스카우트	소개나 추천	직접 찾아가서	기타
전체		4,012	23.3	3.4	52.9	17.5	2.9
성별	남성	2,531	27.3	4.5	51.4	14.4	2.5
	여성	1,481	16.4	1.7	55.4	22.8	3.6
연령	15~19세	81	9.9	2.5	66.7	19.8	1.2
	20~24세	430	19.1	1.9	54.4	22.6	2.1
	25~29세	661	28.6	2.4	51.9	15.1	2.0
	30~39세	1,279	28.7	4.5	49.6	14.5	2.7
	40~49세	968	21.2	3.7	53.6	18.3	3.2
	50~59세	448	16.1	3.3	52.9	22.8	4.9
	60세 이상	145	7.6	2.1	69.0	16.6	4.8
혼인 상태	미혼	1,105	22.0	2.4	56.6	17.4	1.6
	기혼 유배우	2,740	24.9	4.0	51.4	16.6	3.2
	기혼 무배우	167	4.8	1.2	53.3	33.5	7.2
교육 수준	무학	70	-	-	51.4	42.9	5.7
	고졸 미만	894	3.1	0.9	67.1	25.7	3.1
	고졸	1,651	17.3	3.0	58.8	18.6	2.4
	대졸 미만 ¹⁾	166	23.5	4.2	48.8	18.1	5.4
	전문대졸	351	34.5	4.0	47.6	13.4	0.6
	대졸 이상	880	52.4	6.8	30.3	6.6	3.9
직업 ²⁾	전문직	942	38.4	7.7	40.0	9.9	3.9
	사무직	760	41.6	3.3	46.4	7.1	1.6
	서비스직	449	12.5	1.3	57.5	24.3	4.5
	농림어업직	17	-	-	52.9	35.3	11.8
	기능직	1,786	10.1	1.8	61.4	24.4	2.3
	군인	13	61.5	-	7.7	-	30.8
	분류불가	45	26.7	2.2	57.8	11.1	2.2
근속 기간 ³⁾	1년 미만	937	9.0	3.1	56.9	27.2	3.8
	1~3년 미만	846	15.8	3.7	57.9	20.3	2.2
	3~5년 미만	497	22.3	3.8	55.9	15.5	2.4
	5~10년 미만	666	31.5	4.8	50.9	11.4	1.4
	10년 이상	751	48.1	2.5	37.8	7.6	4.0

주: 1) 앞의 <표 2-5> 참조.
 2) 앞의 <표 5-5> 참조.
 3) 근속기간에서는 현직장 시작시기를 응답하지 않거나 면접 조사 시기를 응답하지 않은 315명은 분석에서 제외.

나타내고 있다.

현재까지의 근속기간에 따라서 구분하여 보면,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공개채용을 통하여 취업하게 되었다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소개나 추천을 통하여 취업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2. 임금근로자의 취업시 어려움 및 현 일자리 선택 사유

현재 취업한 사람들이 취업시 느꼈던 어려움을 살펴보면 어려움이 없었다는 비중이 45.9%로 가장 높았다. 이미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어려움에 대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항목이 1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두번째로는 취업 정보 부족으로 8.2%가 응답하였다.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남성의 경우에 여성에 비하여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비중이 46.9%로 약 2.6%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근로시간이나 환경이 맞지 않았거나 나이가 많아서, 혹은 여성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꼈다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의 경우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비중이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자리가 부족하였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40대 이상에서 전반적으로 20%가 넘게 응답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취업정보가 부족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은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1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서 11.1%를 차지하고 있다. 나이가 많아서 취업하기 어렵다는 항목에서는 5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13.2%와 22.1%가 응답하였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하면 무학이나 고졸 미만, 고졸의 경우에 일자리가 부족하여 취업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31.4%, 27.3%, 18.0%로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고, 전문대졸의 경우에는 취업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12.5%로 다른 교육수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전직장에서의 직업별로 살펴보면, 군인의 경우에는 일자리 부족에 대해서 7.7%가 어려움을 느꼈다고 응답한 데 반하여 기능직의 24.0%가 어려움을 느꼈다고 하여 직업군간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중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림어업직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아서 어려움을 느꼈다는 비중이 1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군인이 6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근속기간별로 살펴보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비중이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이 5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 직장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좋아서 선택하였다는 비중이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안이 없어서 선택하였다는 응답이 41.9%,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임시로 일하고 있다는 응답이 5.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에 좋아서 선택하였다는 비중이 여성에 비해서 약 1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대안이 없어서 선택하였다는 비중이 남성에 비하여 약 1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5~19세와 60세 이상의 경우에 좋아서 선택하였다는 응답이 각각 35.8%와 36.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며, 다른 대안이 없어서 선택하였다는 부분에 상대적으로 응답이 몰려 있는 경향이 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대졸 미만과 전문대졸, 대졸 이상의 경우에 좋아서 선택하였다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직장에서의 직업군에 따라서 살펴보면, 입법공무원이나 관리자의 경우에 75.2%가 좋아서 선택하였다고 응답하여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하여, 농업근로자의 경우에는 좋아서 선택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이 단지 5.9%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근속기간별로 살펴보면, 10년 이상의 경우에 좋아서 선택하였다는 비중이 전체의 71.5%를 차지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고, 근속기간이 짧아질수록 좋아서 선택하였다는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32> 임금근로자의 취업시 어려움

(단위 : 명, %)

		전 체	일자리 부족	취업 정보 부족	학력, 기능, 자격이 맞지 않음	수입 보수가 작아서	근로 시간, 환경이 맞지 않음	나이가 많아서	여성 이기 때문	기타	어려움이 없었음
전 체		4,012	19.1	8.2	6.4	6.5	5.8	4.4	1.3	2.3	45.9
성별	남 성	2,531	19.6	8.3	7.3	7.0	5.1	3.6	-	2.1	46.9
	여 성	1,481	18.4	8.0	4.9	5.5	7.1	5.8	3.6	2.5	44.3
연령	15~19세	81	11.1	8.6	7.4	4.9	11.1	-	-	1.2	55.6
	20~24세	430	18.8	13.7	7.0	6.3	7.0	-	1.2	2.1	44.0
	25~29세	661	16.2	12.0	8.6	7.0	6.1	1.1	2.0	2.4	44.8
	30~39세	1,279	17.5	8.0	5.9	6.5	8.5	2.2	1.3	2.4	47.5
	40~49세	968	21.3	5.6	5.9	7.5	3.3	5.3	1.3	2.5	47.3
	50~59세	448	23.7	5.8	6.0	4.5	2.2	13.2	1.1	1.1	42.4
	60세 이상	145	24.1	1.4	4.1	4.8	2.1	22.1	0.7	1.4	39.3
혼인 상태	미혼	1,105	18.5	12.2	7.4	7.0	6.3	1.1	1.2	2.2	44.2
	기혼 유배우	2,740	18.8	6.9	6.1	6.2	5.8	5.4	1.3	2.3	47.2
	기혼 무배우	167	29.3	3.6	5.4	7.8	2.4	9.6	3.0	2.4	36.5
교육 수준	무학	70	31.4	2.9	11.4	1.4	1.4	14.3	1.4	1.4	34.3
	고졸 미만	894	27.3	4.5	6.0	6.4	4.3	8.3	1.9	1.3	40.0
	고졸	1,651	18.0	9.4	7.1	7.4	6.7	3.4	0.9	2.1	45.0
	대졸 미만 ¹⁾	166	14.5	9.0	7.2	6.0	10.2	4.2	1.2	0.6	47.0
	전문대졸	351	16.0	12.5	7.1	6.8	8.0	1.7	0.3	2.0	45.6
대졸 이상	880	14.2	8.2	4.8	5.2	4.4	2.7	1.9	4.0	54.5	
직업 ²⁾	전문직	942	14.1	7.1	5.2	5.6	5.5	2.5	1.5	4.5	53.9
	사무직	760	14.3	12.2	6.7	5.0	5.7	2.9	1.7	2.4	49.1
	서비스직	449	19.8	8.9	5.8	7.3	8.2	6.0	1.6	1.1	41.2
	농림어업직	17	23.5	-	-	5.9	-	11.8	5.9	-	52.9
	기능직	1,786	24.0	6.8	7.2	7.4	5.5	5.6	.9	1.5	41.1
	군인	13	7.7	7.7	7.7	-	7.7	-	-	-	69.2
	분류불가	45	8.9	15.6	4.4	4.4	2.2	4.4	4.4	-	55.6
근속 기간 ³⁾	1년 미만	937	30.3	7.3	5.2	6.7	6.0	6.4	1.6	2.5	34.0
	1~3년 미만	846	16.8	9.6	6.0	8.2	7.3	5.4	1.2	1.7	43.9
	3~5년 미만	497	11.1	8.7	8.0	5.8	8.0	3.4	0.6	3.6	50.7
	5~10년 미만	666	12.5	7.7	7.7	7.7	6.6	2.3	1.8	1.7	52.3
	10년 이상	751	13.3	8.5	7.9	3.9	2.4	2.4	1.1	2.5	58.1

주: 1) 앞의 <표 2-5> 참조.
 2) 앞의 <표 5-5> 참조.
 3) 근속기간에서는 현 직장 시작시기를 응답하지 않거나 면접 조사 시기를 응답하지 않은 315명은 분석에서 제외.

현 직장을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일의 성격이나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했다는 항목으로 전체의 29.5%에 달한다. 두 번째로는 직장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선택했다는 것으로 21.9%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일의 성격이나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일이 없어서 선택하였다는 비중도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서 직장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비중이 여성에 비하여 높은 1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에서 임금이나 수입이 많아서 직장을 선택하였다는 비중이 8.4%로 나타나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서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다는 비중이 20~24세, 25~29세, 30~39세에서 각각 12.8%, 14.7%, 11.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른 일이 없어서 현 직장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50대와 60세 이상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각각 10.0%와 12.4%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하여 보면, 고졸 미만에서 수입이나 임금이 많아서 직장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비중이 1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 미만, 전문대졸, 대졸 이상에서 회사나 일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서 선택하였다는 비중이 각각 9.0%, 8.3%, 11.1%로 다른 학력대에 비하여 높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일의 성격이나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였다는 것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서 전문대졸이나 대졸 이상의 경우에 각각 30%를 넘고 있다. 무학이나 고졸 미만의 경우에는 다른 일이 없어서 선택하였다는 응답이 각각 18.6%와 1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른 학력대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 직장의 직업군별로 보면, 기능직의 경우에 임금이나 소득이 높아서 직장을 선택하였다는 비중이 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직이 18.5%, 군인이 15.4%로 매우

〈표 9-33〉 임금근로자의 현 일자리 선택 사유

(단위 : 명, %)

		전 체	좋아서 선택	대안이 없어서 선택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임시로
전 체		4,012	52.9	41.9	5.2
성 별	남 성	2,531	56.8	37.9	5.3
	여 성	1,481	46.3	48.8	4.9
연 령	15~19세	81	35.8	54.3	9.9
	20~24세	430	52.3	39.5	8.1
	25~29세	661	56.3	36.9	6.8
	30~39세	1,279	59.0	36.1	4.9
	40~49세	968	50.9	45.2	3.8
	50~59세	448	44.2	52.2	3.6
	60세 이상	145	36.6	60.7	2.8
혼인상태	미혼	1,105	53.6	38.8	7.6
	기혼 유배우	2,740	54.3	41.5	4.2
	기혼 무배우	167	26.9	68.3	4.8
교육수준	무학	70	17.1	81.4	1.4
	고졸 미만	894	33.6	60.4	6.0
	고졸	1,651	50.6	43.7	5.7
	대졸 미만 ¹⁾	166	60.8	29.5	9.6
	전문대졸	351	62.4	31.9	5.7
	대졸 이상	880	74.5	22.8	2.6
직 업 ²⁾	전문직	942	75.2	21.4	3.4
	사무직	760	60.9	36.6	2.5
	서비스직	449	41.9	51.9	6.2
	농림어업직	17	5.9	82.4	11.8
	기능직	1,786	40.9	52.1	7.1
	군인	13	69.2	30.8	-
	분류불가	45	55.6	42.2	2.2
근속기간	1년 미만	937	37.7	49.8	12.5
	1~3년 미만	846	49.3	45.5	5.2
	3~5년 미만	497	58.6	40.2	1.2
	5~10년 미만	666	59.8	38.0	2.3
	10년 이상	751	71.5	27.6	0.9

주: 1) 앞의 <표 2-5> 참조.

2) 앞의 <표 5-5> 참조.

<표 9-34> 임금근로자의 직장 선택 이유

(단위 : 명, %)

		전 체	임금/수입이 많아서	회사/일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서	자신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서	일의 성격/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직장이 안정적 이어서	직장의 사회적 지명도가 높아서	기타	다른 일이 없어서
전 체		4,012	7.3	6.8	10.5	29.5	21.9	2.0	15.8	6.1
성별	남 성	2,531	7.6	9.1	11.0	28.0	22.5	2.4	13.7	5.7
	여 성	1,481	6.7	3.0	9.4	31.7	20.7	1.1	20.3	7.2
연령	15~19세	81	4.9	4.9	9.9	21.0	23.5	-	25.9	9.9
	20~24세	430	6.3	5.8	12.8	36.7	19.1	2.3	13.0	4.0
	25~29세	661	7.4	8.2	14.7	30.7	20.9	2.0	11.2	5.0
	30~39세	1,279	7.5	7.7	11.4	30.3	21.0	2.5	14.9	4.6
	40~49세	968	8.4	7.3	9.1	26.1	22.9	1.9	17.0	7.2
	50~59세	448	6.0	4.0	4.2	27.0	26.6	0.7	21.4	10.0
	60세 이상	145	4.8	2.1	2.8	26.9	18.6	1.4	31.0	12.4
혼인 상태	미혼	1,105	6.9	6.1	12.9	33.7	20.0	1.7	13.6	5.2
	기혼유배우	2,740	7.3	7.3	9.8	28.0	22.9	2.1	16.6	6.0
	기혼무배우	167	8.4	3.6	3.6	23.4	16.8	0.6	26.3	17.4
교육 수준	무학	70	5.7	-	-	20.0	15.7	-	40.0	18.6
	고졸 미만	894	10.3	2.9	5.1	24.9	18.8	0.3	26.4	11.2
	고졸	1,651	7.8	6.4	9.9	29.4	23.7	1.5	15.3	5.9
	대졸 미만 ¹⁾	166	6.0	9.0	13.3	27.1	23.5	1.8	13.9	5.4
	전문대졸	351	4.3	8.3	14.0	32.5	23.9	3.1	9.1	4.8
	대졸 이상	880	4.7	11.1	15.6	33.6	20.7	4.1	8.6	1.6
직업 ²⁾	전문직	942	4.6	9.2	18.5	38.3	17.2	2.3	8.3	1.6
	사무직	760	4.6	8.0	8.9	27.4	34.1	4.2	10.1	2.6
	서비스직	449	8.5	3.3	11.6	28.7	16.9	0.7	19.8	10.5
	농림어업직	17	5.9	-	-	17.6	-	-	58.8	17.6
	기능직	1,786	9.6	6.2	6.6	25.8	20.0	1.1	21.7	8.9
	군인	13	-	-	15.4	23.1	46.2	-	7.7	7.7
	분류불가	45	4.4	2.2	6.7	28.9	33.3	2.2	11.1	11.1
근속 기간	1년 미만	937	7.7	3.9	10.7	29.3	12.0	0.7	26.4	9.3
	1~3년 미만	846	6.7	6.6	12.2	30.7	20.3	1.2	16.8	5.4
	3~5년 미만	497	7.4	5.4	12.1	33.0	22.7	2.2	11.9	5.2
	5~10년 미만	666	7.5	9.2	9.9	28.8	28.1	2.9	9.3	4.4
	10년 이상	751	5.1	10.4	8.9	27.2	32.6	4.0	8.0	3.9

주: 1) 앞의 <표 2-5> 참조.

2) 앞의 <표 5-5> 참조.

높았다. 일의 성격이나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는 항목은 농림어업직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20%를 넘게 나타났다. 현재까지의 현직장 근속연수별로 비교하여 보면, 10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에 회사나 일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서 일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비중이 10.4%로 다른 근속기간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서 일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비중은 1~3년 미만과 3~5년 미만에서 각각 12.2%, 1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른 근속기간대에 비하여 높았다. 직장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응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10년 이상의 경우에는 32.6%가 직장이 안정적이라서 선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직장의 사회적 지명도의 경우에도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근속기간이 짧아질수록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1년 미만의 경우에 9.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다른 근속기간대에 비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비임금근로자의 창업시 어려움 및 현 일자리 선택 사유

다음으로 비임금근로자가 일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지, 겪었다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이 없었다는 비중이 46.1%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비중도 26.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임금근로자의 45.9%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다. 세 번째로는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11.8%가 응답하였다.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남성의 경우에 여성에 비하여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비중이 49.7%로 여성보다 8.3%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비중은 여성의 경우에 29.7%로 나타나서 남성에 비하여 6.2%가 높았다. 연령대별로 비교하여 보면, 15~19세의 경우에 100%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

답하였다. 20~24세와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낮은 25.0%, 22.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20~24세와 25~29세에서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비중이 각각 28.1%와 14.1%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하면,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에서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비중이 16.9%와 16.2%로 다른 학력대에 비하여 높았다. 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항목에는 대졸 미만의 경우에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려움이 없었다는 항목에 대해서 무학은 59.7%, 고졸 미만은 30.4%가 응답하여 다른 교육수준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 직장의 직업별로 비교하여 보면, 농림어업직의 경우에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직업군에서는 대부분 5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의 근로기간에 따른 어려움을 살펴보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경우에 39.1%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경험 부족에 대해서는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에서 각각 14.6%, 15.8%, 14.0%로 높게 나타났다. 어려움이 없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경우에 38.3%로 가장 높았고, 1~3년 미만에서는 16.6%로 가장 낮았다.

일을 선택하게 된 주된 이유를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일의 성격이나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 2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족사업이기 때문으로 전체의 19.3%를 차지하였다.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일의 성격이나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는 비중이 남성의 경우에 29.3%로 여성에 비하여 5.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사업이기 때문에 선택하였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여성의 24.2%가 응답하여 남성의 15.9%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서 선택하게 되었다는 비중은 남성의 경우에 14.0%, 여성의 경우에 5.8%가 응답하여 성별간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15~19세의 경우에 100%가 일의 성격이나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60세 이상의 50.7%가 가족사업이기 때문에 이어받았다고 응답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대졸 미만의 경우에 소득이 많아서 일을 선택하였다는 비중이 12.5%로 다른 교육수준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학의 경우에는 56.8%가 가족사업이기 때문에 일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경향은 60대 이상에서 무학의 비중이 높다는 것과 연결하여 생각할 때 매우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현 직장의 직업군별로 살펴보면, 사무직과 농림어업직이 가족사업이기 때문에 일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25.4%와 66.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일의 성격이나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는 항목에서는 전문직의 비중이 49.6%로 가장 높았다. 현재까지의 근속기간별로 살펴보면, 일의 성격이나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1년 미만 근속기간대의 31.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사업이기 때문에 이어받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5~10년 미만과 10년 이상에서 각각 12.2%, 3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교육수준을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낮은 교육수준의 고연령대가 오랜 기간 가족사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앞으로의 계획

취업자 모두에게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변화를 원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취업자의 73.4%가 계속 그대로 일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하여 변화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일자리로 바꾸고 싶다는 응답은 10.1%,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는 응답은 8.9%,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다는 항목에도 4.9%의 취업자가 응답하였다.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에 비하여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하기를 원한다는 항목의 응답 비중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다는 항목에 7.2%

<표 9-35> 비임금근로자의 창업시 어려움

(단위 : 명, %)

		전 체	창업/사업정보 부족	자금 부족	경험 부족	자격, 학력, 기능 부족	근로환경/시간이 맞지 않음	기타	어려움이 없었음
전 체		2,415	4.0	46.1	11.8	1.0	5.7	4.6	26.8
성별	남 성	1,411	4.5	49.7	11.2	1.3	5.6	4.2	23.5
	여 성	1,004	3.4	41.4	13.3	0.3	5.8	6.1	29.7
연령	15~19세	1	-	100.0	-	-	-	-	-
	20~24세	32	-	25.0	28.1	3.1	3.1	3.1	37.5
	25~29세	128	3.1	52.3	14.1	-	4.7	7.8	18.0
	30~39세	691	5.6	54.6	11.4	0.6	6.2	4.1	17.5
	40~49세	782	4.0	50.0	12.8	0.9	6.4	4.7	21.2
	50~59세	493	2.0	42.0	11.6	1.6	6.7	5.3	30.8
	60세 이상	288	4.5	22.9	10.1	0.7	1.4	6.3	54.2
혼인상태	미혼	131	3.8	38.9	17.6	1.5	6.1	6.9	25.2
	기혼유배우	2133	4.2	47.6	11.5	0.9	5.9	4.6	25.3
	기혼무배우	151	2.0	33.8	15.2	-	2.6	8.6	37.7
교육수준	무학	139	0.7	16.5	7.2	0.7	5.8	9.4	59.7
	고졸 미만	962	3.2	42.5	12.7	1.5	4.7	5.1	30.4
	고졸	889	5.1	52.6	10.2	0.7	7.5	4.3	19.6
	대졸 미만 ¹⁾	48	2.1	50.0	14.6	2.1	8.3	4.2	18.8
	전문대졸	118	0.8	54.2	16.9	-	4.2	7.6	16.1
	대졸 이상	259	6.9	49.8	16.2	-	3.1	3.5	20.5
직업 ²⁾	전문직	280	7.1	49.3	12.1	0.4	1.8	4.6	24.6
	사무직	59	3.4	61.0	11.9	1.7	6.8	-	15.3
	서비스직	981	4.5	51.9	13.8	0.7	7.7	3.7	17.7
	농림어업직	509	1.8	24.2	10.8	0.6	2.2	7.1	53.4
	기능직	534	3.6	51.5	10.7	1.7	7.3	5.6	19.7
	분류불가	52	5.8	69.2	7.7	1.9	3.8	9.6	1.9
근속기간 ³⁾	1년 미만	342	3.8	48.5	14.6	0.6	7.0	5.3	20.2
	1~3년 미만	386	4.4	51.0	15.8	0.8	7.0	4.4	16.6
	3~5년 미만	250	5.6	48.8	14.0	0.4	7.6	4.0	19.6
	5~10년 미만	426	4.2	52.8	11.5	0.7	5.4	3.8	21.6
	10년 이상	887	3.4	39.1	8.5	1.5	4.3	5.0	38.3

주: 1) 앞의 <표 2-5> 참조.
 2) 앞의 <표 5-5> 참조.
 3) 근속기간에서는 현직장 시작시기를 응답하지 않거나 면접 조사 시기를 응답하지 않은 124명은 분석에서 제외.

〈표 9-36〉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선택 사유

(단위 : 명, %)

		전 체	소득이 많아서	사업의 발전 가능성	안정적	일의 성격/ 내용	필요한 자금이 적당	가족 사업	기타	다른 일이 없어서	배운 기술/ 전공	생계/ 생활비
전 체		2,415	8.2	10.6	11.6	26.9	9.3	19.3	8.3	2.9	1.1	1.7
성별	남 성	1,411	8.1	14.0	10.9	29.3	8.4	15.9	8.3	2.8	1.3	1.1
	여 성	1,004	8.4	5.8	12.5	23.6	10.7	24.2	8.3	3.2	0.7	2.7
연령	15~19세	1	-	-	-	100.0	-	-	-	-	-	-
	20~24세	32	6.3	-	3.1	46.9	6.3	21.9	12.5	3.1	-	-
	25~29세	128	11.7	11.7	8.6	42.2	6.3	6.3	10.2	1.6	0.8	0.8
	30~39세	691	9.7	15.6	10.7	28.2	9.4	12.2	10.1	1.9	1.0	1.2
	40~49세	782	8.4	11.0	13.7	27.2	11.3	14.7	7.4	3.2	1.2	1.9
	50~59세	493	6.7	8.1	13.0	26.2	9.3	21.7	6.7	4.7	1.6	2.0
60세 이상	288	5.2	2.4	8.0	14.9	5.6	50.7	7.6	2.4	0.3	2.8	
혼인 상태	미혼	131	9.9	6.9	6.1	43.5	6.1	9.2	13.7	3.1	1.5	-
	기혼유배우	2,133	8.3	11.3	11.8	26.0	9.5	19.6	7.9	2.8	1.1	1.7
	기혼무배우	151	4.6	4.6	13.2	25.2	9.9	24.5	9.3	4.6	-	4.0
교육 수준	무학	139	4.3	1.4	4.3	9.4	7.2	56.8	7.9	5.0	-	3.6
	고졸 미만	962	8.0	5.7	14.2	21.5	10.1	25.3	7.9	3.5	1.2	2.5
	고졸	889	9.9	12.9	11.8	31.0	9.4	12.3	8.3	2.2	0.9	1.1
	대졸 미만 ¹⁾	48	12.5	12.5	8.3	35.4	2.1	10.4	12.5	4.2	2.1	-
	전문대졸 대졸 이상	118	5.1	19.5	8.5	31.4	10.2	11.0	11.0	1.7	-	1.7
259	5.8	21.2	6.9	38.6	8.1	6.9	7.7	2.3	1.9	0.4		
직업 ²⁾	전문직	280	2.9	20.4	4.6	49.6	2.5	7.1	6.8	2.5	2.5	1.1
	사무직	59	8.5	22.0	3.4	25.4	6.8	25.4	5.1	1.7	1.7	-
	서비스직	981	9.9	9.4	17.2	26.6	14.6	6.7	8.6	4.2	0.6	2.2
	농림어업직	509	5.9	0.6	8.4	7.7	2.0	66.2	5.9	1.6	-	1.8
	기능직	534	9.9	13.5	9.4	33.9	11.0	5.2	10.9	2.4	2.2	1.5
	분류불가	52	9.6	36.5	5.8	28.8	3.8	1.9	11.5	1.9	-	-
근속 기간	1년 미만	342	5.6	12.3	12.0	31.3	12.0	8.5	9.9	5.8	0.9	1.8
	1~3년 미만	386	10.6	15.0	12.7	28.8	11.7	7.8	7.5	4.7	0.3	1.0
	3~5년 미만	250	13.6	10.8	12.0	28.0	16.0	8.0	5.6	4.0	1.2	0.8
	5~10년 미만	426	8.7	12.4	11.7	32.2	7.5	12.2	11.0	1.4	0.9	1.9
	10년 이상	887	6.3	5.5	11.4	22.3	6.2	36.2	7.1	1.7	1.4	1.9

주: 1) 앞의 <표 2-5> 참조.

2) 앞의 <표 5-5> 참조.

가 응답하여 남성에 비하여 3.8%가 높았다.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대로 일하기를 원한다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낮은 연령대일수록 다른 일을 추가하여 하고 싶다는 비중과 다른 일자리로 바꾸고 싶다는 비중이 높았다. 현직장의 직업별로 비교하면, 사무직, 서비스직, 기능직의 경우에 다른 일자리로 바꾸고 싶다는 비중이 각각 10.6%, 11.0%, 11.9%로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현재까지의 근속기간별로 구분하여보면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계속 그대로 일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높아지며, 근속기간이 짧아질수록 다른 일을 추가하고 싶다는 항목과 다른 일자리로 바꾸고 싶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희망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 및 희망 근로시간

현재의 일자리에서 다른 일을 추가하고 싶거나 다른 일자리로 바꾸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에 희망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비중은 전체의 49.5%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고용주나 자영업자를 희망하는 비중도 34.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여성의 경우에 정규직 임금근로와 비정규직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을 합하여 7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남성은 57.5%를 차지하고 있어서 여성에 비하여 16.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은 고용주나 자영업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41.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비교하여 보면, 15~19세의 경우에 95.0%가 임금근로를 희망하고 있으나, 40~49세의 경우에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54.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점차로 낮아지다가 40대를 저점으로 다시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대졸 이상과 고졸의 경우에 정규직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각각 52.1%와 51.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집단은 무학의 경우

에 40.0%, 대졸 미만의 경우 32.4%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주나 자영업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교육수준간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졸 이상의 경우에 38.8%로 가장 높았고, 대졸 미만의 경우에 29.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무학의 경우에는 가족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20.0%로 나타나서 다른 집단에 비하여 매우 높았다.

현 직장의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현 직장에서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 다시 임금근로자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전체의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현재 다른 고용형태에 비하여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고용주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다시 고용주나 자영업자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65.6%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가족종사자인 경우에 임금근로자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은 46.6%로 현재 고용주나 자영업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시 가족종사자로 희망하는 비중도 20.9%로 다른 고용형태집단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현재까지의 근속기간 집단별로 구분하여보면, 근속기간이 짧아질수록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주나 자영업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자리에서의 소득을 중심으로 구분하여보면, 월평균 소득이 150만~200만원 미만의 경우나 200만원 이상의 경우에 고용주나 자영업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각각 57.4%와 65.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소득집단들에서는 정규직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0만~200만원 미만의 경우에 가족종사자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4.4%로 나타나서 다른 소득집단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규직 임금근로나 비정규직 임금근로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희망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전일제를 희망하는 비중은 전체의 73.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36.8%가 시간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남성에 비하여 18.1%가 높았다. 연령 집단별로 보면, 15~19세에서 시간제를 희망하는 비중이 36.8%로 나

<표 9-37> 취업자의 계획

(단위 : 명, %)

		전 체	계속 그대로 일하기 원함	현재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하기 원함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다	다른 일을 추가하고 싶다	다른 일자리로 바꾸고 싶다
전 체		6,427	73.4	8.9	4.9	2.8	10.1
성별	남 성	3,942	73.5	9.9	3.4	2.9	10.2
	여 성	2,485	73.2	7.4	7.2	2.5	9.7
연령	15~19세	82	61.0	6.1	8.5	4.9	19.5
	20~24세	462	67.1	7.6	3.7	6.3	15.4
	25~29세	789	71.0	6.7	4.4	3.5	14.3
	30~39세	1,970	71.0	9.7	4.6	3.0	11.7
	40~49세	1,750	73.4	11.0	4.7	1.7	9.1
	50~59세	941	80.6	7.5	4.6	2.2	5.1
	60세 이상	433	82.2	6.0	8.5	1.2	2.1
혼인 상태	미혼	1,236	68.8	7.1	4.2	5.1	14.8
	기혼유배우	4,873	74.7	9.3	4.9	2.2	8.9
	기혼무배우	318	71.4	9.7	7.2	2.5	9.1
교육 수준	무학	209	83.3	5.3	9.1	1.4	1.0
	고졸 미만	1,856	75.2	10.0	5.7	1.9	7.2
	고졸	2,540	71.5	9.3	4.7	2.7	11.7
	대졸 미만 ¹⁾	214	67.8	7.9	7.0	4.7	12.6
	전문대졸	469	69.1	9.4	4.3	5.8	11.5
	대졸 이상	1,139	75.6	6.9	3.0	2.9	11.6
직업 ²⁾	전문직	1,222	75.8	10.1	3.3	2.9	7.9
	사무직	819	79.5	4.4	2.8	2.7	10.6
	서비스직	1,430	69.3	7.7	9.4	2.6	11.0
	농림어업직	526	85.6	2.9	5.5	2.3	3.8
	기능직	2,320	69.8	12.0	3.5	2.9	11.9
	군인	13	76.9	7.7	7.7	-	7.7
	분류불가	97	72.2	10.3	4.1	4.1	9.3
	근속 기간 ³⁾	1년 미만	1,279	64.2	7.7	5.6	4.7
1~3년 미만	1,232	71.3	7.3	5.1	3.8	12.5	
3~5년 미만	747	73.6	11.1	3.5	2.3	9.5	
5~10년 미만	1,092	75.4	8.8	4.6	2.6	8.7	
10년 이상	1,638	84.0	6.6	4.7	1.2	3.5	

주: 1) 앞의 <표 2-5> 참조.

2) 앞의 <표 5-5> 참조.

3) 근속기간에서는 현직장 시작시기를 응답하지 않거나 면접 조사 시기를 응답하지 않은 439명은 분석에서 제외.

〈표 9-38〉 취업자가 희망하는 고용형태

(단위 : 명, %)

		전 체	정규직 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 종사자
전 체		823	49.5	14.0	34.4	2.2
성별	남 성	520	46.3	11.2	41.3	1.2
	여 성	303	54.8	18.8	22.4	4.0
연령	15~19세	20	80.0	15.0	5.0	-
	20~24세	100	72.0	18.0	10.0	-
	25~29세	141	57.4	14.2	27.7	0.7
	30~39세	290	43.8	11.0	42.4	2.8
	40~49세	189	39.7	14.3	43.4	2.6
	50~59세	69	40.6	15.9	37.7	5.8
	60세 이상	14	57.1	28.6	14.3	-
혼인 상태	미혼	246	68.3	15.9	15.9	-
	기혼유배우	540	40.7	13.3	42.6	3.3
	기혼무배우	37	51.4	10.8	37.8	-
교육 수준	무학	5	40.0	40.0	-	20.0
	고졸 미만	169	46.7	17.2	32.0	4.1
	고졸	366	51.4	10.9	35.2	2.5
	대졸 미만 ¹⁾	37	37.8	32.4	29.7	-
	전문대졸	81	46.9	21.0	30.9	1.2
	대졸 이상	165	52.1	9.1	38.8	-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588	59.7	15.1	24.3	.9
	고용주·자영업자	192	21.9	10.4	65.6	2.1
	가족종사자	43	32.6	14.0	32.6	20.9
근속 기간 ²⁾	1년 미만	289	63.3	15.2	19.0	2.4
	1~3년 미만	201	48.3	14.4	36.8	0.5
	3~5년 미만	88	43.2	13.6	39.8	3.4
	5~10년 미만	123	35.0	12.2	50.4	2.4
	10년 이상	77	33.8	13.0	49.4	3.9
월평균 소득 ³⁾	50만원 미만	156	53.2	10.9	34.0	1.9
	50만~100만원 미만	314	57.3	19.1	22.9	0.6
	100만~150만원 미만	182	51.6	11.5	36.3	0.5
	150만~200만원 미만	68	32.4	5.9	57.4	4.4
	200만원 이상	58	24.1	10.3	65.5	-

주: 1) 앞의 <표 2-5> 참조.

2) 앞의 <표 5-5> 참조.

3) 근속기간에 응답을 하지 않은 45명은 분석에서 제외.

4) 현직장 소득에 응답을 하지 않은 45명은 분석에서 제외.

<표 9-39> 취업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

(단위 : 명, %)

		전 체	전일제	시간제
전 체		522	73.6	26.4
성별	남 성	299	81.3	18.7
	여 성	223	63.2	36.8
연령	15~19세	19	63.2	36.8
	20~24세	90	76.7	23.3
	25~29세	101	72.3	27.7
	30~39세	159	70.4	29.6
	40~49세	101	77.5	22.5
	50~59세	39	76.9	23.1
	60세 이상	12	75.0	25.0
혼인 상태	미 혼	207	72.9	27.1
	기혼 유배우	292	73.6	26.4
	기혼 무배우	23	78.3	21.7
교육 수준	무 학	4	75.0	25.0
	고졸 미만	108	75.9	24.1
	고 졸	228	71.9	28.1
	대졸 미만 ¹⁾	26	57.7	42.3
	전문대졸	55	60.0	40.0
	대졸 이상	101	86.1	13.9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440	74.8	25.2
	고용주·자영업자	62	72.6	27.4
	가족종사자	20	50.0	50.0
근속 기간 ²⁾	1년 미만	227	76.7	23.3
	1~3년 미만	126	67.5	32.5
	3~5년 미만	50	70.0	30.0
	5~10년 미만	58	70.7	29.3
	10년 이상	36	75.0	25.0
월평균 소득 ³⁾	50만원 미만	100	75.0	25.0
	50만~100만원 미만	240	71.7	28.3
	100만~150만원 미만	115	74.8	25.2
	150만~200만원 미만	26	88.5	11.5
	200만원 이상	20	90.0	10.0

주: 1) 앞의 <표 2-5> 참조.

2) 앞의 <표 5-5> 참조.

3) 근속기간에 응답하지 않은 25명은 분석에서 제외.

4) 현직장 소득에 응답하지 않은 21명은 분석에서 제외.

타나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시간제를 희망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하여 보면, 대졸 미만에서 42.3%, 전문대학 졸업의 경우에 40.0%가 시간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전일제를 희망하는 비중이 86.1%를 차지하여 다른 학력집단에 비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 직장의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현재 가족종사자의 경우에 시간제를 희망하는 비중이 50.0%로 매우 높았다. 현재 월평균 소득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200만원 이상의 소득집단에서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90.0%를 차지하고 있다.

시간제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한하여 시간제를 희망하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36.2%가 응답한 다른 일을 같이 하려고이다. 이미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질문한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시간제를 희망한다는 응답으로 18.8%로 나타났다. 세 번째 시간제 희망 사유는 가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남성의 경우에 가사나 육아 때문에 시간제를 희망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에 반하여 여성의 경우에는 육아 때문에 17.1%, 가사 때문에 19.5%가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는 다른 일과 같이 하려고 시간제를 희망한다는 비중이 전체의 48.2%로 여성에 비하여 20.2%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의 경우에 다른 일과 같이 하기 위해서 시간제를 희망한다는 비중이 66.7%를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 직장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시간제를 희망한다는 항목에 대해서 50~59세의 22.2%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하여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하여 보면, 무학의 경우에는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시간제를 희망한다는 비중이 100%를 차지하고 있다. 대졸 이상의 경우에 시간제를 희망하는 사유 중 육아가 35.7%로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하여 가장 높았다. 그리고, 대졸 미만의 경우에는 학업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27.3%로 나타났고, 대졸 이상

<표 9-40> 취업자의 시간제 희망 사유

(단위 : 명, %)

		전체	육아	가사	학업	전일제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	다른 일을 같이 하려고	건강 등 개인 사정	기타
전 체		138	10.1	11.6	8.0	8.0	36.2	18.8	7.2
성별	남 성	56	-	-	1.8	14.3	48.2	28.6	7.1
	여 성	82	17.1	19.5	12.2	3.7	28.0	12.2	7.3
연령	15~19세	7	-	-	14.3	14.3	28.6	14.3	28.6
	20~24세	21	4.8	-	28.6	-	47.6	14.3	4.8
	25~29세	28	14.3	3.6	10.7	7.1	39.3	10.7	14.3
	30~39세	47	19.1	12.8	2.1	8.5	31.9	19.1	6.4
	40~49세	23	-	30.4	-	8.7	30.4	30.4	-
	50~59세	9	-	22.2	-	22.2	33.3	22.2	-
	60세 이상	3	-	-	-	-	66.7	33.3	-
혼인 상태	미 혼	56	-	3.6	19.6	7.1	37.5	21.4	10.7
	기혼 유배우	77	18.2	18.2	-	7.8	33.8	16.9	5.2
	기혼 무배우	5	-	-	-	20.0	60.0	20.0	-
교육 수준	무 학	1	-	-	-	-	-	100.0	-
	고졸 미만	26	7.7	26.9	-	15.4	34.6	15.4	-
	고 졸	64	6.3	12.5	7.8	7.8	37.5	18.8	9.4
	대졸 미만 ¹⁾	11	9.1	-	27.3	-	27.3	27.3	9.1
	전문대졸	22	9.1	4.5	-	-	50.0	22.7	13.6
	대졸 이상	14	35.7	-	21.4	14.3	21.4	7.1	-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11	9.9	6.3	9.0	9.0	36.0	21.6	8.1
	고용주·자영업자	17	17.6	23.5	5.9	5.9	35.3	11.8	-
	가족종사자	10	-	50.0	-	-	40.0	-	10.0
근속 기간 ²⁾	1년 미만	53	7.5	11.3	7.5	32.1	13.2	11.3	17.1
	1~3년 미만	41	2.4	7.3	9.8	36.6	22.0	9.8	12.0
	3~5년 미만	15	6.7	-	13.3	40.0	20.0	-	20.0
	5~10년 미만	17	5.9	5.9	5.9	52.9	23.5	-	5.9
	10년 이상	9	44.4	-	-	22.2	22.2	-	11.2
월평균 소득 ³⁾	50만원미만	25	16.0	20.0	8.0	12.0	12.0	28.0	4.0
	50만~100만원 미만	68	8.8	7.4	10.3	8.8	41.2	11.8	11.8
	100만~150만원 미만	29	3.4	3.4	6.9	6.9	44.8	34.5	-
	150만~200만원 미만	3	33.3	-	-	-	33.3	33.3	-
	200만원 이상	2	50.0	-	-	-	50.0	-	-

주: 1) 앞의 <표 2-5> 참조.

2) 앞의 <표 5-5> 참조.

3) 근속기간에 응답하지 않은 3명은 분석에서 제외.

4) 현직장 소득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은 11명은 분석에서 제외.

의 경우에는 21.4%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 직장의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에 36.0%가 다른 일과 같이 하려고 시간제를 희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50.0%가 가사 때문에 시간제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현재까지의 근속기간별로 구분하여 보면, 3~5년 미만과 5~10년 미만의 경우에 40.0%와 52.9%가 전일제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 시간제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0년 이상 일을 한 경우에 육아 때문에 시간제를 희망한다는 비중이 4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일자리에서의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보면 50만원 미만의 소득집단에서 가사와 건강 등 개인사정 때문에 시간제를 희망하는 비중이 각각 20.0%와 28.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0만~100만원 미만과 100만~15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다른 일을 같이 하려고 시간제를 희망한다는 비중이 각각 41.2%와 44.8%, 2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50.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6. 희망 직업

현재 취업자 중 일을 추가하고 싶거나 다른 일자리로 바꾸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에 희망하는 직업을 알아보면, 우선 서비스직을 희망하는 비중이 20.2%로 분류 가능한 일자리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전문직을 희망하고 있으며, 기능직을 희망하는 비중도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직업을 분류할 수 없는 경우가 전체의 4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특정 직업을 희망하지 않고 막연하게 어떤 일이라도 생기면 일을 하겠다는 경향이 높아서 분류할 수 없는 경우이다.

우선,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분류 불가가 55.6%나 차지하고 있어서 특정 직업을 희망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기능직을 희망하는 비중은 12.3%로 여성에 비하여 8.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서비스직을 희망하는 비중이 25.7%로 남성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고, 사무직이나 전문직에도 남성에 비하여

높은 비중이 모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기능직을 희망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세와 25~29세에서 전문직을 희망하는 비중이 24.0%, 19.1%로 나타나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하여 보면, 고졸 미만과 고졸의 경우에 서비스직을 희망하는 비중이 각각 29.6%와 23.8%로 비교적 높았으며, 기능직은 무학에서 60.0%가, 고졸 미만에서 18.9%가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고용형태별로 비교하여 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농림어업직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군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용주나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서비스직을 희망하는 비중이 각각 30.7%와 30.2%로 나타나서 임금근로자와 대조를 이룬다. 현 일자리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5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기능직을 희망하는 비중이 12.2%로 비교적 높았으며, 50만~1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12.1%가 사무직원을 희망하여 다른 소득 집단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직업군을 중심으로 희망하는 직업을 살펴보면, 현재 전문직의 경우에는 다시 전문직이 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29.5%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군인의 경우에는 100%가 전문직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사무직이 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22.9%로 높게 나타났고, 서비스직의 경우에는 다시 서비스직을 희망하는 비중이 38.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농림어업직의 경우에는 다시 농림어업직을 하고 싶다는 비중이 단지 9.4%에 불과하며 그보다는 서비스직이나 기능직을 희망하는 비중이 각각 21.9%와 25.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기능직도 다시 기능직을 희망하는 비중은 16.4%에 불과하며 그보다는 서비스직을 희망하는 비중이 19.0%로 더 높았다.

7. 구직활동 여부 및 구직방법

다음으로는 일을 더 하거나 바꾸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구직활동을

<표 9-41> 취업자가 희망하는 직업

(단위 : 명, %)

희망 직업		전체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농림어업직	기능직	분류불가
전 체		823	10.6	8.0	20.2	2.2	9.4	49.7
성별	남 성	520	7.5	4.6	16.9	3.1	12.3	55.6
	여 성	303	15.8	13.9	25.7	0.7	4.3	39.6
연령	15~19세	20	5.0	25.0	20.0	-	-	50.0
	20~24세	100	24.0	24.0	11.0	-	3.0	38.0
	25~29세	141	19.1	7.8	18.4	-	5.0	49.6
	30~39세	290	10.0	5.2	22.8	2.1	7.6	52.4
	40~49세	189	2.1	5.3	25.4	3.2	12.2	51.9
	50~59세	69	1.4	-	14.5	8.7	23.2	52.2
	60세 이상	14	7.1	7.1	7.1	-	42.9	35.7
혼인 상태	미 혼	246	19.5	16.7	12.6	0.4	3.7	47.2
	기혼 유배우	540	7.0	4.4	22.6	3.1	11.1	51.7
	기혼 무배우	37	2.7	2.7	35.1	-	21.6	37.8
교육 수준	무 학	5	-	-	-	-	60.0	40.0
	고졸 미만	169	0.6	-	29.6	5.9	18.9	45.0
	고 졸	366	6.6	8.5	23.8	0.8	9.0	51.4
	대졸 미만 ¹⁾	37	18.9	13.5	8.1	5.4	5.4	48.6
	전문대졸	81	16.0	12.3	12.3	2.5	4.9	51.9
	대졸 이상	165	25.5	12.1	9.7	0.6	1.8	50.3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588	12.1	10.7	16.0	1.4	10.0	49.8
	고용주/자영업자	192	6.3	1.0	30.7	4.2	8.3	49.5
	가족종사자	43	9.3	2.3	30.2	4.7	4.7	48.8
근속 기간 ²⁾	1년 미만	289	11.8	8.7	18.3	1.0	10.0	50.2
	1~3년 미만	201	12.4	10.9	21.9	1.5	10.9	42.3
	3~5년 미만	88	12.5	5.7	18.2	3.4	4.5	55.7
	5~10년 미만	123	7.3	6.5	24.4	3.3	4.1	54.5
	10년 이상	77	9.1	2.6	22.1	3.9	16.9	45.5
월평균 소득 ³⁾	50만원미만	156	8.3	4.5	29.5	1.9	12.2	43.6
	50만~100만원 미만	314	12.1	12.1	16.2	1.9	10.2	47.5
	100만~150만원 미만	182	11.0	8.8	17.6	1.6	9.9	51.1
	150만~200만원 미만	68	8.8	1.5	16.2	4.4	8.8	60.3
	200만원 이상	58	8.6	5.2	22.4	1.7	5.2	56.9
직업 ⁴⁾	전문직	132	29.5	12.9	8.3	1.5	2.3	45.5
	사무직	109	18.3	22.9	6.4	0.9	0.9	50.5
	서비스직	194	5.2	4.6	38.1	3.1	6.2	42.8
	농림어업직	32	3.1	-	21.9	9.4	25.0	40.6
	기능직	342	4.1	4.1	19.0	1.5	16.4	55.0
	군인	1	100.0	-	-	-	-	-
	분류불가	13	15.4	7.7	15.4	7.7	-	53.8

주: 1) 앞의 <표 2-5> 참조.

2) 근속기간에 응답하지 않은 45명은 분석에서 제외.

3) 현직장 소득에 응답하지 않은 45명은 분석에서 제외.

4) 앞의 <표 5-5> 참조.

실제로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 경우는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경우(on the job search)이므로 미취업자에 비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비중이 낮아서 35.0%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나누어보면, 50~59세의 경우에 46.4%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수준별로 보면 무학의 경우에 60.0%, 대졸 미만의 경우에 45.9%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현 직장의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가 가족종사자에 비해 19.3% 높은 37.9%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까지의 근속기간별로 비교하면,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구직활동을 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자리에서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보면, 50만원 미만의 경우에 42.9%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소득 집단에 비하여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구직방법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방법을 응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전체가 100%를 넘는다. 취업자들은 평균 1.5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로 비교하여 보면 근속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에서 평균 1.8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장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무학의 경우에 1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장 적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미취업자와 마찬가지로 친구, 친지의 소개를 이용하는 것으로 전체의 46.5%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신문이나 TV등의 광고였으며, 세 번째 방법은 직접 찾아가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었다.

남성의 경우에는 친구나 친지의 소개를 이용하는 비중이 47.8%로 다른 방법에 비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49.0%가 신문이나 TV 등의 광고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15-19세의 경우에 여성과 마찬가지로 신문이나 TV등의 광고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비중이 100.0%였다. 20~24세의

〈표 9-42〉 취업자의 구직활동 여부

(단위 : 명, %)

		전 체	구하고 있다	구하고 있지 않다
전 체		823	35.0	65.0
성별	남 성	520	35.4	64.6
	여 성	303	34.3	65.7
연령	15~19세	20	20.0	80.0
	20~24세	100	35.0	65.0
	25~29세	141	32.6	67.4
	30~39세	290	34.5	65.5
	40~49세	189	34.9	65.1
	50~59세	69	46.4	53.6
	60세 이상	14	35.7	64.3
혼인 상태	미 혼	246	33.3	66.7
	기혼 유배우	540	34.1	65.9
	기혼 무배우	37	59.5	40.5
교육 수준	무 학	5	60.0	40.0
	고졸 미만	169	33.1	66.9
	고 졸	366	32.8	67.2
	대졸 미만 ¹⁾	37	45.9	54.1
	전문대졸	81	29.6	70.4
	대졸 이상	165	41.2	58.8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588	37.9	62.1
	고용주/자영업자	192	29.7	70.3
	가족종사자	43	18.6	81.4
근속 기간 ²⁾	1년 미만	289	41.9	58.1
	1~3년 미만	201	33.3	66.7
	3~5년 미만	88	30.7	69.3
	5~10년 미만	123	31.7	68.3
	10년 이상	77	24.7	75.3
월평균 소득 ³⁾	50만원 미만	156	42.9	57.1
	50만~100만원 미만	314	34.7	65.3
	100만~150만원 미만	182	32.4	67.6
	150만~200만원 미만	68	30.9	69.1
	200만원 이상	58	37.9	62.1

주: 1) 앞의 <표 2-5> 참조

2) 근속기간에 응답하지 않은 45명은 분석에서 제외.

3) 현직장 소득에 응답하지 않은 45명은 분석에서 제외.

<표 9-43> 취업자의 구직방법

(단위 : 명, %)

		전체	학교, 학원, 스승의 추천	친구, 친지의 소개	공공 직업 안내소	사실 직업 안내소	신문, TV 등의 광고	직접 찾아가서	가족을 통하여	인터넷, PC 통신 등	기타
전체		288	8.7	46.5	6.6	3.5	39.2	24.3	6.6	8.3	4.5
성별	남성	184	8.7	47.8	8.2	2.7	33.7	32.1	6.5	8.2	6.0
	여성	104	8.7	44.2	3.8	4.8	49.0	10.6	6.7	8.7	1.9
연령	15~19세	4	-	25.0	-	-	100.0	25.0	-	-	-
	20~24세	35	17.1	28.6	2.9	-	51.4	20.0	8.6	17.1	2.9
	25~29세	46	13.0	37.0	6.5	2.2	52.2	15.2	2.2	17.4	10.9
	30~39세	100	10.0	46.0	8.0	6.0	44.0	26.0	6.0	10.0	1.0
	40~49세	66	4.5	59.1	6.1	3.0	31.8	27.3	9.1	-	3.0
	50~59세	32	-	56.3	9.4	3.1	6.3	31.3	6.3	-	9.4
	60세 이상	5	-	60.0	-	-	-	20.0	20.0	-	20.0
혼인 상태	미혼	82	15.9	34.1	3.7	-	54.9	17.1	7.3	14.6	6.1
	기혼 유배우	184	6.5	49.5	8.2	4.9	33.2	28.3	7.1	6.5	3.3
	기혼 무배우	22	-	68.2	4.5	4.5	31.8	18.2	-	-	9.1
교육 수준	무학	3	-	33.3	-	-	-	33.3	-	-	33.3
	고졸 미만	56	-	58.9	5.4	7.1	30.4	28.6	7.1	1.8	3.6
	고졸	120	4.2	53.3	7.5	5.0	43.3	27.5	8.3	1.7	5.0
	대졸 미만 ¹⁾	17	17.6	35.3	5.9	-	23.5	29.4	11.8	5.9	-
	전문대졸	24	20.8	45.8	4.2	-	54.2	12.5	4.2	20.8	-
	대졸 이상	68	17.6	27.9	7.4	-	39.7	17.6	2.9	22.1	5.9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23	10.8	47.5	6.3	3.6	42.2	22.4	6.3	9.9	3.6
	고용주/자영업자	57	-	43.9	7.0	3.5	31.6	26.3	5.3	3.5	8.8
	가족종사자	8	12.5	37.5	12.5	-	12.5	62.5	25.0	-	-
근속 기간 ²⁾	1년 미만	121	7.4	45.5	6.6	5.8	49.6	24.0	5.0	5.0	4.1
	1~3년 미만	67	9.0	44.8	9.0	1.5	32.8	13.4	10.4	13.4	6.0
	3~5년 미만	27	14.8	63.0	7.4	3.7	40.7	33.3	3.7	7.4	3.7
	5~10년 미만	39	15.4	35.9	5.1	-	43.6	38.5	5.1	12.8	2.6
	10년 이상	19	-	63.2	-	-	10.5	26.3	10.5	5.3	-
월평균 소득 ³⁾	50만원 미만	67	4.5	43.3	6.0	6.0	5.7	16.4	4.5	3.0	4.5
	50만~100만원 미만	109	10.1	50.5	7.3	4.6	41.3	25.7	7.3	7.3	4.6
	100만~150만원 미만	59	11.9	45.8	6.8	1.7	33.9	27.1	8.5	15.3	5.1
	150만~200만원 미만	21	4.8	47.6	9.5	-	33.3	23.8	-	4.8	4.8
	200만원 이상	22	9.1	40.9	-	-	27.3	22.7	-	18.2	4.5

주: 1) 앞의 <표 2-5> 참조.

2) 근속기간에 응답하지 않은 15명은 분석에서 제외.

3) 이전직장 소득에 응답하지 않은 10명은 분석에서 제외.

경우와 25~29세의 경우에도 15~19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문이나 TV의 광고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대가 점차로 높아짐에 따라 친구나 친지의 소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중이 점차로 높아진다.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 60.0%가 친구나 친지의 소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하여 보면, 학교나 학원, 스승의 추천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대졸 미만의 경우에 17.6%, 전문대졸의 경우에 20.8%, 대졸 이상의 경우에 17.6%로 나타나서 다른 학력대에 비하여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졸 미만의 경우와 고졸의 경우에는 친구나 친지의 소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중이 58.9%와 53.3%로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졸이나 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20.8%와 22.1%로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하여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전직장에서의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신문이나 TV의 광고를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중이 42.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중이 62.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도 25.0%로 다른 고용형태에 비하여 매우 높았다. 현재까지의 근속기간별로 비교하여 보면, 10년 이상 근속을 한 경우에 친구나 친지의 소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중이 63.2%를 차지하여 매우 높았고, 신문이나 TV의 광고를 이용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10.5%에 불과하여 다른 근속기간 집단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났다. 현재 소득수준별로 비교하면, 100만~150만원 미만인 경우나 200만원 이상의 경우에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중이 15.3%와 18.2%로 다른 소득 집단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8. 구직시 어려움

취업자 중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직시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자리 부족의 항목에는 전체의 87.5%인 가장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두 번째로는 취업이나 창업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80.1%로 나타났으며, 세 번째로는 수입이 적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여성의 경우에 일자리 부족과 사업 자금이 부족하였다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보다 구직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근로환경·시간이 맞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성의 74.8%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보다 17.8%나 적은 65.4%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별로 비교하여 보면,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경험부족과 근로환경·시간이 맞지 않음, 그리고 사업자금 부족이라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80.0% 이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19세의 경우에도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특히 취업이나 창업정보가 부족하다는 항목과 수입이 적다는 항목에 대해서 100%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15~19세보다 20~24세와 25~29세에서 각각 14.3%와 15.2%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무학의 경우에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하여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미만의 경우에는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어려움에 대해서 64.7%만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른 교육수준대에 비해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이나 기능, 자격이 맞지 않는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어려움을 느끼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현 직장의 고용형태별로 구분하여 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89.7%가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취업이나 창업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100.0%로 매우 대조적이

〈표 9-44〉 취업자의 구직시 어려움

(단위 : %)

		일자리 부족	취업/ 창업 정보 부족	학력/ 기능 자격이 안맞음.	경험 부족	수입이 적다	근로환경 /시간이 맞지않음	나이가 너무 많다	사업 자금 부족	여성 이기 때문 에
전 체		87.5	80.1	53.3	51.2	68.8	48.3	42.9	67.3	27.9
성별	남 성	88.0	79.2	51.9	48.4	65.4	41.8	38.8	68.8	-
	여 성	86.5	81.7	55.8	56.3	74.8	59.6	50.0	64.7	52.9
연령	15~19세	75.0	100.0	75.0	75.0	100.0	75.0	25.0	75.0	33.3
	20~24세	94.3	85.7	54.3	68.6	68.6	48.6	14.3	51.5	38.2
	25~29세	93.5	84.8	43.5	46.7	77.3	44.4	15.2	52.3	16.7
	30~39세	83.0	77.0	47.0	46.5	69.0	54.0	41.0	76.8	20.8
	40~49세	86.4	78.8	63.6	56.1	66.7	42.4	65.2	77.8	37.5
	50~59세	87.1	74.2	58.1	45.2	54.8	48.4	71.0	58.1	30.8
	60세 이상	100.0	100.0	80.0	20.0	80.0	20.0	80.0	25.0	-
혼인 상태	미 혼	93.9	87.8	52.4	61.7	72.5	48.1	22.0	55.1	27.7
	기혼 유배우	84.2	76.6	52.7	47.0	67.4	47.8	51.1	71.3	25.2
	기혼 무배우	90.5	81.0	61.9	47.6	66.7	52.4	52.4	77.3	47.4
교육 수준	무 학	100.0	100.0	66.7	33.3	66.7	33.3	100.0	33.3	33.3
	고졸 미만	92.9	83.9	64.3	42.9	58.9	35.7	55.4	63.0	26.5
	고 졸	85.8	79.2	54.2	53.8	70.6	52.1	38.3	71.2	30.6
	대졸 미만 ¹⁾	64.7	82.4	47.1	58.8	70.6	47.1	29.4	64.7	35.7
	전문대졸 대졸 이상	87.5	87.5	45.8	50.0	66.7	50.0	54.2	66.7	22.2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89.7	79.4	52.9	51.6	71.5	50.0	40.8	63.6	29.8
	고용주·자영업자	82.1	80.4	53.6	51.8	58.9	41.1	48.2	77.2	16.7
	가족종사자	62.5	100.0	62.5	37.5	62.5	50.0	62.5	100.0	60.0
근속 기간 ²⁾	1년 미만	91.7	81.0	54.5	50.0	71.9	46.3	42.1	59.8	26.8
	1~3년 미만	87.9	80.3	56.1	56.9	70.3	52.3	40.9	66.7	37.3
	3~5년 미만	81.5	74.1	55.6	48.1	70.4	51.9	40.7	81.5	6.7
	5~10년 미만	82.1	87.2	43.6	51.3	66.7	46.2	48.7	78.9	18.5
	10년 이상	73.7	73.7	52.6	42.1	52.6	47.4	52.6	73.7	20.0
월평균 소득 ³⁾	50만원미만	91.0	82.1	65.7	53.7	68.7	53.7	50.7	66.7	42.9
	50만~100만원 미만	89.9	78.9	55.0	55.6	67.3	51.9	43.1	60.2	25.6
	100만~150만원 미만	88.1	74.6	39.0	42.4	67.8	39.0	30.5	63.8	20.5
	150만~200만원 미만	100.0	95.2	57.1	47.6	76.2	52.4	47.6	90.0	7.1
	200만원 이상	57.1	71.4	33.3	50.0	71.4	28.6	33.3	77.3	5.9

주: 1) 앞의 <표 2-5> 참조.

2) 근속기간에 응답하지 않은 45명은 분석에서 제외.

3) 현직장 소득에 응답하지 않은 45명은 분석에서 제외.

다. 가족종사자의 경우에 나이가 너무 많아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항목에도 62.5%가 응답하여 임금근로자나 고용주, 자영업자에 비하여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의 근속기간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보면,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5~10년 미만인 집단과 10년 이상인 집단에서 어려움을 겪는 비중이 각각 48.7%와 52.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현재 월평균 소득을 중심으로 구분할 때, 월평균 150만~200만원 미만의 소득 집단에서 100%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200만원 이상의 소득집단에서는 단지 57.1%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매우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0만원 미만의 소득집단에서도 비교적 많은 경우에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150만~200만원 미만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⁶⁾.

16) 취업자의 소득 집단별 인구학적 분포

		전체	50만원 미만	50만~100만원미만	100만~150만원미만	150만~200만원미만	200만원 이상
전체		100.0	20.1	40.4	23.4	8.7	7.5
성별	남자	100.0	15.8	33.3	29.0	12.0	9.9
	여자	100.0	28.0	53.5	12.9	2.6	3.0
연령	15~19세	100.0	40.0	55.0	5.0	-	-
	20~24세	100.0	15.3	70.4	12.2	1.0	1.0
	25~29세	100.0	10.0	47.9	32.9	4.3	5.0
	30~39세	100.0	18.7	26.5	31.3	11.9	11.6
	40~49세	100.0	26.3	36.0	15.4	13.7	8.6
	50~59세	100.0	25.4	42.9	19.0	6.3	6.3
60세 이상	100.0	50.0	42.9	-	7.1	-	
교육 수준	무학	100.0	40.0	40.0	20.0	-	-
	고졸미만	100.0	31.4	42.5	16.3	7.2	2.6
	고졸	100.0	20.3	43.8	24.1	6.4	5.5
	대졸미만	100.0	19.4	30.6	27.8	8.3	13.9
	전문대졸	100.0	11.8	53.9	21.1	9.2	3.9
대졸 이상	100.0	12.3	27.0	28.8	15.3	16.6	

9. 구직기간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구직기간을 알아보았다. 평균 9.3개월로 실업자에 비하여 약 1.2개월,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하여 약 1.8개월 가량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미 취업해 있는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미취업자에 비하여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고, 그보다는 오히려 더 나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오랜 기간을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9-45〉 취업자의 구직기간 분포

구직기간	명	비율(%)
전 체	288	100.0
1개월 미만	17	5.9
1개월~3개월 미만	73	25.3
3개월~6개월 미만	52	18.1
6개월~1년 미만	89	30.9
1~2년 미만	23	8.0
2년 이상	34	11.8

구직기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직기간은 6개월~1년 미만으로 30.9%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1개월~3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2년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한 비중도 11.8%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미취업자와 대조적이다.

우선 현재까지의 근속기간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보면, 10년 이상 근속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속기간이 늘어날수록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남성이 평균 10.6개월을 구직활동을 하고 여성이 7.0개월을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표 9-46〉 취업자의 평균 구직기간

구직 기간		개월
전 체		9.3
성별	남 성	10.6
	여 성	7.0
연령	15~19세	2.3
	20~24세	5.7
	25~29세	6.5
	30~39세	10.0
	40~49세	13.2
	50~59세	7.0
	60세 이상	19.0
혼인상태	미혼	6.2
	기혼 유배우	10.5
	기혼 무배우	11.5
교육수준	무학	1.4
	고졸 미만	10.0
	고졸	8.4
	대졸 미만 ¹⁾	10.8
	전문대졸	7.7
	대졸 이상	11.0
직장경험	임금근로자	8.6
	고용주/자영업자	12.4
	가족종사자	7.3
현재까지 근속 기간	1년 미만	6.2
	1~3년 미만	8.1
	3~5년 미만	12.5
	5~10년 미만	17.5
	10년 이상	15.1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7.9
	50만~100만원 미만	8.8
	100만~150만원 미만	10.3
	150만~200만원 미만	15.4
	200만원 이상	8.4

주: 1) 앞의 <표 2-5> 참조.

약 3.6개월의 차이가 있다. 연령대별로 비교하여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오직 50~59세의 경우에 오히려 30대보다 짧아서 예외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고졸 미만과 대졸 미만, 대졸 이상의 경우에 각각 10개월을 넘기는 긴 구직활동 기간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의 소득수준별로 비교하면 150만~200만원 미만 집단에서 평균 15.4개월을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른 소득 집단에 비하여 가장 길다.

第 10 章

職業訓練

第 1 節 職業訓練 經驗 與否 및 職業訓練 種類

이 절에서는 15세 이상 경제활동 가능인구가 직업훈련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취업자나 미취업자에 상관없이 모든 응답자가 대답을 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91.5%가 한 번도 직업훈련을 받아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8.5%만이 직업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 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비중이 약 1.9% 정도 높았다. 그리고, 연령집단별로 비교하여 보면, 25~29세의 경우에 직업훈련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받고 있는 비중도 1.9%로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하여 높았다. 직업훈련이 주로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5~19세를 제외하고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직업훈련을 받아 보지 못한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학력집단별로 비교하여 보면, 마찬가지로 고졸이나 전문대졸, 대졸 이상의 경우에 직업훈련을 받아 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학력 집단에서는 거의 직업훈련을 받아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무학의 경우에는 99.8%가 직업훈련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가 11.5%로 직업훈련을 받아 본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93.8%가 직업훈련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현재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취업자가 1.0%로 다른 고용형태에 비하여 약간 높게 나타났다.

직업훈련을 한 번이라도 받아 본 적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에 가장 최근에 받은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의 종류를 구분하여 보았다. 우선 가장 많이 받은 직업훈련은 업무능력 향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전체의 25.5%를 차지하고 있다. 업무능력 향상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각종 교육연수, 컴퓨터 실습,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 서비스, 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구직·창업 관련된 내용으로 전체의 25.3%를 차지하고 있다. 구직·창업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특정 직업을 구하기에 적합한 일로 건설에 관련된 도배나 목재관련 교육, 기술 기능에 관한 교육, 미용이나 요리 등에 관련된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격증과 관련된 직업훈련으로는 건축사 자격증이나 간호조무사, 디자인, 기능사, 토목 기사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양 직업훈련 내용에는 예체능 프로그램이나 인테리어, 어학, 일반컴퓨터 사용법, 수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타·분류 불가는 직업훈련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관계로 구직이나 창업관련, 업무능력 향상, 자격증 취득, 교양 등 모든 집단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류할 수 없을 때 기타·분류 불가 집단으로 묶었다. 무응답은 직업훈련을 받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응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여성의 경우에 구직, 창업과 관련된 직업훈련을 받은 비중이 32.1%로 남성에 비하여 약 12.6%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업무능력 향상과 관련된 내용이 31.6%로 여성에 비하여 13.2% 정도 높다. 교양부분의 내용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약 10.5% 높은 1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비교

<표 10-1> 직업훈련 경험 여부

(단위 : 명, %)

		전 체	받은 적이 있다	현재 받고 있다	받은 적이 없다
전 체		13,317	7.8	0.7	91.5
성별	남 성	6,468	8.9	0.6	90.5
	여 성	6,849	6.8	0.9	92.4
연령	15~19세	1,566	2.2	0.8	97.0
	20~24세	1,258	11.8	1.7	86.4
	25~29세	1,485	13.0	1.9	85.1
	30~39세	3,045	9.6	0.6	89.9
	40~49세	2,549	8.6	0.5	90.9
	50~59세	1,689	6.5	-	93.5
	60세 이상	1,725	2.5	0.1	97.4
혼인 상태	미 혼	3,856	8.4	1.4	90.2
	기혼 유배우	8,454	8.1	0.5	91.4
	기혼 무배우	1,007	3.0	0.3	96.7
교육 수준 ¹⁾	무 학	856	0.2	0.3	99.8
	고졸 미만	4,570	4.6	1.0	95.2
	고 졸	4,405	11.7	0.8	87.3
	대졸 미만 ²⁾	1,137	5.2	1.1	94.0
	전문대졸	711	11.7	1.3	87.2
	대졸 이상	1,637	10.7	-	88.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4,012	11.5	0.4	88.0
	고용주·자영업자	1,887	10.1	0.5	89.5
	가족종사자	528	5.5	0.4	94.1
	미취업자	6,890	5.2	1.0	93.8

주: 1) 교육수준이 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

2) 앞의 <표 2-5> 참조.

<표 10-2> 직업훈련 종류

(단위 : 명, %)

		전 체	구직· 창업관련	자격증	업무능력 향상관련	교양	기타· 분류불가	무응답
전 체		1,137	25.3	19.4	25.5	12.5	15.5	1.8
성별	남 성	614	19.5	19.2	31.6	7.7	19.4	2.6
	여 성	523	32.1	19.7	18.4	18.2	10.9	0.8
연령	15~19세	47	40.4	27.7	4.3	23.4	4.3	-
	20~24세	171	18.7	26.9	12.3	23.4	18.1	0.6
	25~29세	221	27.6	19.9	20.4	12.2	18.6	1.4
	30~39세	311	25.4	18.3	29.6	11.6	12.9	2.3
	40~49세	232	24.1	15.9	32.8	9.9	15.1	2.2
	50~59세	110	25.5	17.3	33.6	1.8	19.1	2.7
	60세 이상	45	28.9	11.1	37.8	6.7	13.3	2.2
혼인 상태	미 혼	376	23.9	24.5	13.6	18.4	18.4	1.3
	기혼 유배우	728	25.7	16.8	31.6	9.6	14.3	2.1
	기혼 무배우	33	33.3	21.2	27.3	9.1	9.1	-
교육 수준	무 학	2	100.0	-	-	-	-	-
	고졸 미만	220	42.3	15.0	23.2	6.8	10.5	2.3
	고 졸	559	26.5	22.4	26.1	8.8	14.5	1.8
	대졸 미만 ¹⁾	68	20.6	20.6	13.2	23.5	22.1	-
	전문대졸	91	13.2	20.9	24.2	23.1	16.5	2.2
	대졸 이상	197	9.6	15.2	31.5	20.8	21.3	1.5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480	14.0	16.5	34.8	13.8	18.5	2.5
	고용주·자영업자	199	41.7	15.1	28.1	3.0	12.1	-
	가족종사자	31	38.7	29.0	22.6	3.2	6.5	-
	미취업자	427	29.5	24.1	14.1	16.2	14.3	1.9

주 1) 앞의 <표 2-5> 참조.

하여 보면, 구직이나 창업 관련된 내용은 15~19세에서 가장 많이 들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비중이 전체의 40.4%를 차지하고 있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연령집단은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7.8%로 15~19세의 4.3%에 비하면 33.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하여 보면, 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업무능력 향상과 관련된 직업훈련을 받은 비중이 31.5%로 다른 학력집단에 비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직이나 창업 관련된 직업훈련을 받는 비중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점차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무학의 경우에는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9.6%로 가장 낮았다. 현재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른 직업훈련보다 업무능력 향상과 관련된 직업훈련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주나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구직·창업 관련 직업훈련을 받은 비중이 각각 41.7%와 38.7%로 가장 높았다. 미취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직과 창업 관련된 직업훈련을 받았다는 비중이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가족종사자와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직업훈련에도 29.0%와 24.1%가 훈련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第 2 節 職業訓練 場所 및 費用負擔

직업훈련을 받은 장소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31.2%의 응답자가 사설학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24.7%가 사업체 내의 직업훈련기관이나 부설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사설학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았다는 비중이 46.7%로 여성에 비하여 28.6%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

우에는 사업체 내의 직업훈련기관이나 부설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았다는 응답이 29.8%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두 번째로는 공공직업훈련을 받았다는 비중이 25.2%로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에 비하여 약 12% 정도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 비교하여 보면, 연령대가 높아감에 따라 사설학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았다는 비중이 점차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사업체 내 직업훈련 기관이나 부설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았다는 비중은 점차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15~19세의 경우에는 불과 2.1%에 불과한 것이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3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구분하여 보면, 대졸 미만의 경우에는 38.2%로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다른 교육 집단과 비교해도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비중이 19.3%로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사업체 내의 직업훈련기관이나 부설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은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이나 전문대의 부설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은 현재 대졸 미만의 경우에 11.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 이상의 경우도 11.7%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고용형태별로 구분하여 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체 내의 직업훈련기관이나 부설기관을 이용한다는 비중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사설학원으로 24.2%의 직업훈련을 받아 본 임금근로자가 이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고용주나 자영업자, 가족종사자와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모두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41.9%가 사설학원을 이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공공직업훈련원에 대해서는 현재 미취업자의 20.8%, 고용주나 자영업자의 22.1%가 이용하여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정직업훈련원의 경우에도 미취업자의 6.6%, 고용주나 자영업자의 9.0%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의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서 복수 응답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 가장 많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기업체로 나타났는데, 기업체가

<표 10-3> 직업훈련의 장소

(단위 : 명, %)

		전 체	사설 학원	인정 직업 훈련원	공공 직업 훈련원	사업체 내 직훈기 관/부설 기관	대학/ 전문대 부설기 관	기타	교육원 /교육 연수원	농촌 지도소/ 농민 교육원
전 체		1,137	31.2	6.6	19.7	24.7	4.8	10.7	1.1	1.1
성별	남 성	614	18.1	8.1	25.2	29.8	4.4	11.4	1.3	1.6
	여 성	523	46.7	4.8	13.2	18.7	5.4	9.9	0.8	0.6
연령	15~19세	47	76.6	2.1	10.6	2.1	2.1	6.4	-	-
	20~24세	171	48.5	9.9	17.0	13.5	4.7	5.8	0.6	-
	25~29세	221	39.4	9.0	14.0	23.1	6.8	7.2	0.5	-
	30~39세	311	28.0	6.8	19.0	30.2	4.2	10.6	1.0	0.3
	40~49세	232	19.0	4.7	25.9	28.0	6.0	14.2	1.3	0.9
	50~59세	110	13.6	3.6	26.4	29.1	3.6	15.5	2.7	5.5
	60세 이상	45	6.7	2.2	24.4	33.3	-	22.2	2.2	8.9
혼인 상태	미 혼	376	45.2	8.8	16.2	17.3	5.9	6.4	0.3	-
	기혼 유배우	728	23.9	5.6	21.2	28.7	4.3	13.2	1.4	1.8
	기혼 무배우	33	33.3	3.0	27.3	21.2	6.1	6.1	3.0	-
교육 수준	무 학	2	-	-	-	-	-	100.0	-	-
	고졸 미만	220	31.4	4.1	27.7	20.0	0.9	12.3	0.9	2.7
	고 졸	559	34.2	8.8	19.9	24.3	2.5	8.9	0.4	1.1
	대졸 미만 ¹⁾	68	38.2	5.9	14.7	14.7	11.8	14.7	-	-
	전문대졸	91	34.1	5.5	19.8	17.6	8.8	13.2	1.1	-
	대졸 이상	197	19.3	4.1	12.2	38.1	11.7	10.7	3.6	0.5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480	24.2	5.8	17.9	37.1	5.0	8.1	1.9	-
	고용주·자영업자	199	24.1	9.0	22.1	17.1	2.5	19.1	0.5	5.5
	가족종사자	31	38.7	3.2	16.1	16.1	6.5	16.1	-	3.2
	미취업자	427	41.9	6.6	20.8	15.0	5.6	9.4	0.5	0.2

주: 1) 앞의 <표 2-5> 참조.

직업훈련 비용을 부담하는 비중은 28.0%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전체의 25.2%를 차지하고 있다. 각각

<표 10-4> 직업훈련 비용 부담자

(단위 : 명, %)

		전체	스스로	부모님/ 친지/가족	기업체	정부	기타
전체		1,137	23.0	22.2	28.0	25.2	3.0
성별	남성	614	17.3	13.4	33.2	34.0	2.9
	여성	523	29.6	32.5	21.8	14.7	3.1
연령	15~19세	47	4.3	80.9	2.1	12.8	-
	20~24세	171	21.1	39.8	15.2	24.0	2.3
	25~29세	221	24.0	27.1	25.8	22.6	1.8
	30~39세	311	23.8	15.1	37.0	20.9	4.5
	40~49세	232	26.3	12.9	34.9	24.6	2.2
	50~59세	110	23.6	7.3	27.3	39.1	3.6
	60세 이상	45	20.0	2.2	17.8	53.3	6.7
혼인 상태	미혼	376	17.6	39.9	19.4	22.9	2.1
	기혼 유배우	728	25.1	13.5	32.7	26.1	3.6
	기혼 무배우	33	36.4	12.1	21.2	30.3	-
교육 수준	무학	2	-	-	50.0	50.0	-
	고졸 미만	220	23.2	24.1	17.7	33.2	3.2
	고졸	559	25.6	23.3	27.5	22.0	2.7
	대졸 미만 ¹⁾	68	19.1	39.7	11.8	25.0	5.9
	전문대졸	91	23.1	20.9	27.5	27.5	2.2
	대졸 이상	197	16.8	11.7	46.2	23.9	3.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480	18.5	16.0	40.8	22.9	2.5
	고용주·자영업자	199	33.2	13.6	19.6	30.2	5.5
	가족종사자	31	41.9	22.6	16.1	19.4	-
	미취업자	427	21.8	33.0	18.3	25.8	2.6

주: 1) 앞의 <표 2-5> 참조.

의 집단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부모님이나 가족, 친지가 부담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스스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남성과 매우 대조적인 경향을 보였다. 연령대별로 비교하여 보면,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부모님이나 가족, 친지가 부담하는 비중이 점차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30대 이상이 되면 정부에서 직업훈련 비용을 부담하는 경향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고용형태별로 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서 40.8%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주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부담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33.2%로 나타났으며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가족 친지와 정부에서 부담하는 비중이 각각 33.0%와 25.8%로 높게 나타났다.

第 3 節 職業訓練 期間 및 適當 教育時間

직업훈련을 받은 기간은 평균 177일 정도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비교하여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이 약 17일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비교하여 보면,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이 점차로 짧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혼인상태별로 비교하면, 미혼의 경우에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고 기혼 유배우자의 경우에 가장 짧았다. 교육수준별 차이를 보면, 대졸 미만의 경우에 가장 긴 196.9일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학의 경우에 가장 짧은 7.5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고용형태별로 보면, 미취업자의 직업훈련 기간이 202.2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종사자가 150.4일로 가장 짧았다.

주당 교육시간을 보면 1주일 평균 23.2시간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세부 항목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에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이 여성에 비하여

〈표 10-5〉 직업훈련 기간 및 주당 교육시간

		평균 기간(일)	주당 교육시간(시간)
전 체		176.9	23.2
성별	남 성	169.1	26.0
	여 성	186.0	20.0
연령	15~19세	229.1	14.7
	20~24세	241.2	21.4
	25~29세	218.8	23.5
	30~39세	165.1	23.4
	40~49세	140.4	25.4
	50~59세	94.2	23.0
	60세 이상	118.4	27.0
혼인 상태	미혼	233.1	23.0
	기혼유배우	146.0	23.5
	기혼 무배우	189.3	20.0
교육 수준	무학	7.5	5.0
	고졸 미만	150.1	22.5
	고졸	194.5	23.2
	대졸 미만 ¹⁾	196.9	21.2
	전문대졸	178.0	22.2
	대졸 이상	151.5	25.6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61.3	24.1
	고용주·자영업자	162.5	23.1
	가족종사자	150.4	25.6
	미취업자	202.2	22.1

주: 1) 앞의 <표 2-5> 참조.

짧게 나타난 것에 반하여 주당 교육시간은 더 긴 것으로 나타나서 남성의 경우에는 26시간, 여성의 경우에는 20시간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감에 따라서 주당 교육시간도 점차적으로 늘어나

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5~19세의 경우에는 주당 평균 14.7시간을 교육받는 데 반하여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주당 27.0시간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장 긴 기간을 교육받는 미취업자가 가장 짧은 주당 22.1시간을 교육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짧은 기간을 교육받는 가족종사자가 주당 교육시간은 25.6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第 4 節 職業訓練 希望 및 希望 職業訓練 種類

모든 응답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앞으로 받을 의사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15.8%만이 직업훈련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여 직업훈련에 대한 기대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하면, 남성의 경우에 여성보다 직업훈련을 받고자 희망하는 비중이 약 5.2%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 보면 20~24세와 25~29세, 30~39세에서 각각 20% 이상이 직업훈련을 받고자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전문대졸의 경우에 27.1%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학의 경우에는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현재의 경제활동상태로 보면 임금근로자와 미취업자의 경우에 각각 18.0%와 16.5%가 직업훈련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경험에 따라서는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33.8%,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40.6%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단 직업훈련을 받고 나면, 직업훈련을 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 비하여 직업훈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희망하는 직업훈련에 대해서 알아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어학이나 컴퓨터 등에 관한 교양관련 직업훈련으로 전체의 33.5%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구직이나 창업관련 직업훈련으로 29.6%의 응답자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교양

〈표 10-6〉 직업훈련 희망 비중

(단위 : 명, %)

		전 체	직업훈련 희망비중
전 체		13,317	15.8
성별	남 성	6,468	13.1
	여 성	6,849	18.3
연령	15~19세	1,566	14.0
	20~24세	1,258	23.4
	25~29세	1,485	27.4
	30~39세	3,045	23.4
	40~49세	2,549	13.5
	50~59세	1,689	5.9
	60세 이상	1,725	1.5
혼인상태	미 혼	3,856	19.3
	기혼 유배우	8,454	15.5
	기혼 무배우	1,007	5.0
교육수준	무 학	856	0.5
	고졸 미만	4,570	9.2
	고 졸	4,405	20.6
	대졸 미만 ¹⁾	1,137	19.3
	전문대졸	711	27.1
	대졸 이상	1,637	21.9
경제활동상태	임금근로자	4,012	18.0
	고용주·자영업자	1,887	10.4
	가족종사자	528	8.7
	미취업자	6,890	16.5
직업훈련 경험	있음	1,039	33.8
	현재 훈련중	93	40.6
	없음	12,185	14.1

주: 1) 앞의 <표 2-5> 참조.

<표 10-7> 직업훈련 희망 계열

(단위 : 명, %)

		전 체	희망직업훈련 종류					무응답
			구직/창업 관련	자격증	업무능력 향상관련	교양	기타/분류 불가	
전 체		2,103	29.6	15.2	5.7	33.5	15.1	1.8
성별	남 성	850	23.6	19.2	9.1	27.4	17.2	3.5
	여 성	1,253	33.6	12.5	3.4	37.7	9.2	3.7
연령	15~19세	220	26.4	15.0	3.2	40.0	13.6	1.8
	20~24세	294	25.2	11.6	4.8	41.2	15.6	1.7
	25~29세	407	26.0	13.8	5.9	38.1	12.5	3.7
	30~39세	714	31.5	15.8	4.9	33.6	9.8	4.3
	40~49세	343	36.4	19.0	7.9	20.7	12.2	3.8
	50~59세	99	31.3	15.2	9.1	23.2	14.1	7.1
	60세 이상	26	11.5	11.5	15.4	26.9	30.8	3.8
혼인 상태	미 혼	744	25.4	13.8	5.0	38.7	14.7	2.4
	기혼 유배우	1,309	31.6	15.9	6.1	31.2	11.2	4.0
	기혼 무배우	50	40.0	16.0	6.0	18.0	10.0	10.0
교육 수준	무 학	4	50.0	-	-	25.0	25.0	-
	고졸 미만	422	38.4	17.8	4.5	22.7	10.9	5.7
	고 졸	906	33.2	16.2	4.6	31.3	11.3	3.3
	대졸 미만 ¹⁾	220	20.5	10.9	6.8	45.5	12.3	4.1
	전문대졸	193	23.8	17.1	5.2	35.2	15.5	3.1
	대졸 이상	358	18.4	11.2	9.5	43.6	15.4	2.0
경제 활동 상태	임금근로자	723	25.0	15.9	8.3	32.9	14.9	2.9
	고용주·자영업자	197	32.5	14.7	7.1	28.9	13.2	3.6
	가족종사자	46	32.6	13.0	4.3	34.8	8.7	6.5
	미취업자	1,137	31.8	14.9	3.9	34.7	10.8	4.0
직업 훈련 경험	있음	352	27.0	11.1	8.5	36.1	15.8	2.0
	현재 훈련 중	39	33.3	15.4	5.1	33.3	12.8	-
	없음	1,712	30.0	16.0	5.1	33.0	11.8	4.0
직업 훈련 종류 ²⁾	구직/창업관련	101	46.5	6.9	4.0	25.7	14.9	2.0
	자격증	75	24.0	25.3	6.7	36.0	8.0	-
	업무능력향상	79	19.0	5.1	22.8	35.4	13.9	3.8
	교양	73	16.4	11.0	4.1	57.5	8.2	2.7
	기타/분류불가	54	28.6	-	-	28.6	37.0	-
	무응답	9	25.0	12.5	3.6	26.8	11.1	-

주: 1) 앞의 <표 2-5> 참조.

2) 직업훈련의 종류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받고 있거나 이미 받은 적이 있는 391명만을 대상으로 분석.

관련 직업훈련이 2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37.7%로 남성에 비하여 10.3%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직·창업관련 직업훈련도 여성의 33.6%가 희망하고 있어서 남성에 비하여 10.0%가 높다. 다시 말해서 여성은 이 두 가지 직업훈련 군에 집중하여 응답한 것에 반하여 남성은 자격증이나 업무 능력 향상 등에도 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15~19세, 20~24세의 경우에는 교양과 관련된 직업훈련에 40% 이상이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대와 40대, 50대의 경우에는 구직·창업관련 직업훈련에 각각 31.5%, 36.4%, 31.3%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하여 보면, 구직 및 창업관련 직업훈련에 무학이나 고졸 미만에서 각각 50.0%, 38.4%가 집중되어 있으나, 교양관련 직업훈련에는 대졸 미만의 경우에 45.5%, 전문대졸에서 35.2%, 대졸 이상이 43.6%가 응답하여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각각의 직업훈련별로 구분하여 보면 구직 및 창업관련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구직 및 창업관련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서 4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격증관련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증관련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비중이 25.3%, 교양관련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비중이 36.0%를 차지하였다. 업무능력 향상과 관련된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교양관련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비중이 35.4%, 교양관련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에 다시 교양관련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5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第 11 章

만족도와 最近의 經濟危機

第 1 節 生活만족도

생활만족도는 생활 전체·전반, 가족의 수입, 가족관계, 여가활동과 주거환경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매우 만족스럽다’를 5점, ‘매우 불만족스럽다’를 1점으로 하여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생활 전체·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9점으로 보통 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3.7점으로 응답자의 63.6%가 가족관계를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다.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다른 변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반면 가족의 수입에 대해서는 49.0%가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한 사람도 13.5%이다. 여가활동과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40% 이상이 만족도 불만도 아닌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지만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37.8%로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만족스럽게 여기는 경우보다 좀더 많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 전체·전반과 가족수입, 그리고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 20대의 생활 전체·전반에 대한 만

〈표 11-1〉 생활만족도

(단위 : 명, %)

	평균 점수 (점)	전체	매우 만족 스럽다	만족 스럽다	보통 이다	불만족 스럽다	매우 불만족 스럽다	모름/ 무응답
생활전체/전반	2.9	13,317 (100.0)	332 (2.5)	2,917 (21.9)	5,852 (43.9)	3,256 (24.4)	893 (6.7)	67 (0.5)
가족의 수입	2.5	13,317 (100.0)	162 (1.2)	1,731 (13.0)	4,822 (36.2)	4,731 (35.5)	1,798 (13.5)	73 (0.5)
가족관계	3.7	13,317 (100.0)	1,961 (14.7)	6,513 (48.9)	3,892 (29.2)	706 (5.3)	171 (1.3)	74 (0.6)
여가활동	2.8	13,317 (100.0)	315 (2.4)	2,389 (17.9)	5,512 (41.4)	3,899 (29.3)	1,132 (8.5)	70 (0.5)
주거환경	3.1	13,317 (100.0)	475 (3.6)	3,742 (28.1)	5,898 (44.3)	2,480 (18.6)	649 (4.9)	73 (0.5)

족도는 3.0점이나 60세 이상으로 가면 2.7점으로 낮아진다. 이는 가족의 수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여가활동과 주거환경 부문에서는 연령에 따른 큰 차이가 없다. 교육수준은 모든 영역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 역시 높아진다. 특히 생활전체·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큰 변화를 보여 대졸 이상의 경우 만족도는 3.2점이나 무학의 경우는 2.6점으로 나타난다. 혼인관계별로는 미혼과 기혼 유배우자의 생활만족도가 이혼 또는 별거의 경우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다. 기혼 유배우자의 생활전체·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2.9점인데 반하여 별거나 이혼한 경우의 만족도는 2.3점이다. 또한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기혼 유배우자가 3.8점인 데 비해 이혼의 경우는 3.1점에 그친다.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전반적으로 임금근로자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고 실업자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다. 실업자의 생활만족도는 가족관계를 제

<표 11-2> 인구학적 특성별 생활만족도

(단위 : 점)

		생활전체 /전반	가족의 수입	가족 관계	여가 활동	주거 환경
전 체		2.9	2.5	3.7	2.8	3.1
연 령	15~19세	3.1	2.8	3.7	2.8	3.1
	20~24세	3.0	2.7	3.7	2.9	3.1
	25~29세	3.0	2.6	3.8	2.8	3.1
	30~39세	2.9	2.5	3.8	2.7	3.0
	40~49세	2.8	2.4	3.8	2.7	3.1
	50~59세	2.7	2.3	3.6	2.7	3.1
	60세 이상	2.7	2.4	3.5	2.8	3.1
교육수준	무학	2.6	2.3	3.3	2.6	3.0
	고졸 미만	2.8	2.4	3.6	2.7	3.0
	고졸	2.9	2.5	3.8	2.7	3.0
	대졸 미만 ¹⁾	3.1	2.8	3.7	3.0	3.2
	전문대졸	3.0	2.7	3.8	2.9	3.1
	대졸 이상	3.2	2.9	3.9	3.0	3.3
혼인상태	미혼	3.0	2.7	3.6	2.8	3.1
	기혼 유배우	2.9	2.5	3.8	2.7	3.1
	별거	2.3	2.1	2.9	2.4	2.8
	이혼	2.3	2.0	3.1	2.5	2.6
	사별	2.6	2.4	3.4	2.7	3.0

주: 1) 앞의 <표 2-5> 참조.

외한 모든 영역에서 매우 낮는데 특히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2.0 점으로 불만족의 정도가 심하다. 취업자를 대상으로 월평균 소득·임금 정도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임금·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역시 높아지며,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거나 적자를 보고 있는 경우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다. 특히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소득·수입의 차이에 큰 영향을 받아,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거나 적자를 보는

경우의 만족도는 2.0점에 불과하지만 250만원 이상 소득자의 만족도는 3.1점으로 높다. 반면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소득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다.

〈표 11-3〉 경제활동상태와 개인소득수준별 생활만족도

(단위 : 점)

		생활전체 /전반	가족의 수입	가족 관계	여가 활동	주거 환경
전 체		2.9	2.5	3.7	2.8	3.1
취업자	전 체	2.9	2.5	3.8	2.7	3.1
	50만원 미만	2.6	2.1	3.6	2.6	3.0
	50만~99만원 미만	2.8	2.4	3.7	2.6	3.0
	100만~149만원 미만	3.0	2.7	3.8	2.8	3.1
	150만~199만원 미만	3.3	2.9	3.9	3.0	3.2
	250만원 이상	3.3	3.1	4.0	3.0	3.4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거나 적자를 보고 있는 경우	2.4	2.0	3.6	2.4	2.9
비임금근로자 중 가족종사자	2.8	2.3	3.8	2.6	3.1	
미취업자	실업자	2.4	2.0	3.6	2.5	2.8
	비경제활동인구	2.9	2.6	3.7	2.8	3.1

第 2 節 職業滿足度

직업만족도는 취업자들에 한하여 질문하였으며, 취업자 공통 영역과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각각에 대한 개별 질문으로 나뉜다. 취업자 공통영역은 소득·임금에 대한 만족도, 취업의 안정성, 하고 있는 일의 내

용, 개인의 발전 가능성과 근로환경 등 5개 영역이다. 임금근로자의 직업 만족도는 인사고과의 공정성,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그리고 복지후생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더하였으며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더해진다. 각각의 영역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다’를 5점으로, ‘매우 불만족스럽다’를 1점으로 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였으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전반적인 직업만족도는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보통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하고 있는 일의 내용에 대해서는 36.6%가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다. 소득과 임금에 대해서는 과반수인 56.2%의 취업자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하였다. 취업의 안정성 역시 37.0%가 불만스럽다고 답하였으며 개인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34.4%가 불만족하고 있었다. 근로환경은 40.7%가 만족도 불만도 아닌 보통이라고 답하였으나 불만족의 경우가 30.9%로 만족스럽게 여기는 경우보다 많다.

임금근로자에 한하여서는 사업체 내에서의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에 대해 48.7%가 만족스럽다고 답하여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다. 인사고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과반수인 52.4%가 만족도 불만도 아닌 보통 수준으로 답하였다. 그러나 복지후생제도에 대해서는 40.0%가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해 35.7%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직업만족도는 생활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직업만족도가 전영역에 걸쳐 가장 높으며, 특히 일에 대한 만족도는 3.3점으로 나타났다. 취업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20대의 경우 3.0점인 데 비해 50~60대의 경우 2.7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 지속에 대한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자의 만족도가 대부분 보통 이상으로 가장 높다. 특히 취업의 안정성과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3.3점과 3.5점으로 무학인 경우의 각각 2.5점, 2.7점보다 훨씬 높다. 소득과 임금에 대한 만족도 역시 다른 교육수준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종사상지위별로 볼 때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만족도가 비정규직 임금근

〈표 11-4〉 취업자의 직업만족도

(단위 : 명, %)

		평균 점수 (점)	전체	매우 만족 스럽다	만족 스럽다	보통 이다	불만족 스럽다	매우 불만족 스럽다	모름/ 무응답
취업자 공통	소득·임금	2.4	6,890 (100.0)	127 (2.0)	783 (12.2)	1,900 (29.6)	2,293 (35.7)	1,316 (20.5)	8 (0.1)
	취업의 안정성	2.8	6,890 (100.0)	369 (5.7)	1,408 (21.9)	2,258 (35.1)	1,640 (25.5)	737 (11.5)	15 (0.2)
	하고 있는 일의 내용	3.2	6,890 (100.0)	445 (6.9)	1,908 (29.7)	2,584 (40.2)	1,176 (18.3)	306 (4.8)	8 (0.1)
	개인의 발전가능성	2.8	6,890 (100.0)	273 (4.2)	1,222 (19.0)	2,676 (41.6)	1,606 (25.0)	597 (9.3)	53 (0.8)
	근로환경	2.9	6,890 (100.0)	301 (4.7)	1,507 (23.4)	2,618 (40.7)	1,473 (22.9)	512 (8.0)	16 (0.2)
임금 근로자	인사고과의 공정성	2.9	4,012 (100.0)	130 (3.2)	700 (17.4)	2,101 (52.4)	631 (15.7)	264 (6.6)	186 (4.6)
	의사소통/인간관계	3.4	4,012 (100.0)	391 (9.7)	1,564 (39.0)	1,606 (40.0)	313 (7.8)	123 (3.1)	15 (0.4)
	복지후생제도	2.7	4,012 (100.0)	122 (3.0)	718 (17.9)	1,491 (37.2)	995 (24.8)	609 (15.2)	77 (1.9)
비임금 근로자	근로시간	2.8	2,415 (100.0)	74 (3.1)	464 (19.2)	1010 (41.8)	638 (26.4)	224 (9.3)	5 (0.2)

로자나 비임금근로자의 만족도와 비교하여 대부분의 영역에서 높다. 특히 소득·임금 영역에서는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만족도가 2.6점으로 다른 종사상지위에 비해 높다. 취업의 안정성은 임금근로자 안에서 큰 차이를 보여 정규직의 경우 만족도는 3.2점인 데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2.3점이다.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만족도는 대체로 모든 영역에서 다른 종사상지위별 만족도보다 낮게 나타난다. 하고 있는 일의 내용에

<표 11-5>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만족도

(단위 : 점)

		소득·임금	취업의 안정성	일의 내용	개인의 발전가능성	근로 환경
전 체		2.4	2.8	3.2	2.8	2.9
연령	15~19세	2.6	2.9	3.1	2.7	3.1
	20~24세	2.7	3.1	3.3	3.0	3.2
	25~29세	2.6	3.0	3.3	3.1	3.1
	30~39세	2.4	2.9	3.2	2.9	3.0
	40~49세	2.3	2.8	3.1	2.8	2.9
	50~59세	2.3	2.7	3.0	2.7	2.9
	60세 이상	2.3	2.7	2.9	2.6	2.8
교육 수준	무학	2.1	2.5	2.7	2.5	2.6
	고졸 미만	2.2	2.6	2.9	2.6	2.8
	고졸	2.4	2.8	3.1	2.8	2.9
	대졸 미만 ¹⁾	2.6	3.2	3.4	3.0	3.2
	전문대졸	2.5	3.1	3.4	3.1	3.2
	대졸 이상	2.7	3.3	3.5	3.2	3.2
종사상 지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2.6	3.2	3.3	3.0	3.1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2.3	2.3	2.9	2.5	2.7
	고용주	2.2	2.8	3.3	3.1	3.1
	자영업자	2.1	2.6	3.0	2.7	2.7
	가족종사자	2.1	2.6	2.8	2.6	2.8
사업체 규모 ²⁾	1~4인	2.3	2.8	3.2	2.9	3.0
	5~9인	2.5	2.7	3.2	2.9	3.0
	10~49인	2.5	2.8	3.2	2.9	2.9
	50~99인	2.6	3.0	3.3	2.9	2.9
	100~499인	2.5	3.0	3.3	2.9	3.0
	500인 이상	2.8	3.2	3.4	3.2	3.4

주: 1) 앞의 <표 2-5> 참조.

2) 사업체 규모에서는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제외.

대해서는 정규직 임금근로자와 고용주가 모두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다. 개인의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만족도가 3.1점으로 가장 높고, 비임금근로자의 만족도가 2.5점으로 가장 낮다. 사업체의 규모도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전반적으로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즉 고용된 종업원의 수가 많을수록 만족도는 높아진다.

〈표 11-6〉 임금근로자의 직업만족도

(단위 : 점)

		인사고과의 공정성	의사소통/ 인간관계	복지후생제도
전 체		2.9	3.4	2.7
고용 형태	정규직	3.0	3.5	2.8
	비정규직	2.7	3.3	2.3
사업체 규모	1~4인	2.9	3.4	2.4
	5~9인	3.0	3.3	2.4
	10~49인	2.9	3.5	2.5
	50~99인	2.9	3.4	2.7
	100~499인	2.9	3.5	2.7
	500인 이상	3.1	3.6	3.2
노조 유무	있음	3.0	3.5	3.1
	없음	2.9	3.4	2.5

임금근로자의 경우 인사고과의 공정성,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그리고 복지후생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고용형태별로 차이가 있어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만족도가 비정규직보다 높다. 특히 복지후생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정규직의 만족도는 2.8점인 데 비해 비정규직의 만족도는 2.3점에 불과하다. 소속된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임금근로자의 만족도는 높아진다. 사업체의 규모와 노조의 유무는 특히 복지후생제도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노조가 있는 경우 만족도가 높아진다.

第 3 節 家計의 生活費 負擔

1. 취업자의 생활비 부담 정도¹⁷⁾

취업자에 한하여 가정의 생활비를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취업자의 61.9%가 생활비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으며, 가끔씩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까지 합하면 취업자의 84.4%가 어느 정도로든 가정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

가구주와의 관계별로는 가구주의 87.9%가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답하였다. 가구주 중에서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2.9%에 불과하다. 성별로는 남성의 78.5%가 생활비의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답하였다. 남성의 경우 어느 정도이든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93.2%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는 35.4%가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답하였으나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남성보다 훨씬 높은 29.7%이다. 그러나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에는 남성과 비슷한 비중인 85.2%가 생활비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생활비의 부담 정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여 50대의 경우 71.7%가 주된 생활비 부담자로 나타난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수입이 높아지고 가구주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월평균 임금·소득 정도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비 부담의 정도도 높아진다. 50만원 미만 소득자의 경우 생활비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경우는 55.0%인 데 비해 150만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는 86.7%이다. 그러나 가구주의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임금의 정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경우

17) 비임금근로자 중 가족종사자의 경우는 일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 없다고 가정되었기 때문에 생활비 부담 정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가족종사자 중 여성의 비중은 88.1%에 달해, 위의 과정에서 여성의 생활비 부담 정도는 여성 스스로 느끼는 부담 정도와 다르게 낮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표 11-7>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생활비 부담정도

(단위 : 명, %)

		전 체	대부분을 부담한다	일부를 정기적으로 부담한다	가끔씩 일부를 부담한다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전 체		6,427(100.0)	3,976(61.9)	898(14.0)	548(8.5)	1,005(15.6)	
가구주와의 관계	남성	전 체	3,942(100.0)	3,096(78.5)	339(8.6)	241(6.1)	266(6.7)
		가구주 배우자	3,305(100.0)	2,915(88.2)	204(6.2)	95(2.9)	91(2.8)
		자녀	29(100.0)	20(69.0)	4(13.8)	1(3.4)	4(13.8)
		기타	545(100.0)	147(27.0)	118(21.7)	128(23.5)	152(27.9)
	여성	전 체	63(100.0)	14(22.2)	13(20.6)	17(27.0)	19(30.2)
		가구주 배우자	2,485(100.0)	880(35.4)	559(22.5)	307(12.4)	739(29.7)
		자녀	364(100.0)	310(85.2)	23(6.3)	17(4.7)	14(3.8)
		기타	1,530(100.0)	476(31.1)	401(26.2)	144(9.4)	509(33.3)
연령	15~19세	508(100.0)	19(22.9)	15(18.1)	21(25.3)	28(33.7)	
	20~24세	1,750(100.0)	1,224(69.9)	232(13.3)	87(5.0)	207(11.8)	
	25~29세	789(100.0)	336(42.6)	155(19.6)	137(17.4)	161(20.4)	
	30~39세	1,970(100.0)	1,355(68.8)	265(13.5)	118(6.0)	232(11.8)	
	40~49세	1,750(100.0)	1,224(69.9)	232(13.3)	87(5.0)	207(11.8)	
	50~59세	941(100.0)	675(71.7)	95(10.1)	40(4.3)	131(13.9)	
	60세 이상	433(100.0)	288(66.5)	39(9.0)	23(5.3)	83(19.2)	
월평균 소득 수준	50만원 미만	638(100.0)	351(55.0)	121(19.0)	99(15.5)	67(10.5)	
	50만~100만원 미만	1,839(100.0)	986(53.6)	413(22.5)	240(13.1)	200(10.9)	
	100만~150만원 미만	1,450(100.0)	1,066(73.5)	188(13.0)	110(7.6)	86(5.9)	
	150만~200만원 미만	760(100.0)	640(84.2)	78(10.3)	30(3.9)	12(1.6)	
	200만원 이상	771(100.0)	688(89.2)	60(7.8)	15(1.9)	8(1.0)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거나 적자를 보는 경우	351(100.0)	228(65.0)	32(9.1)	46(13.1)	45(12.8)	

생활비의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답하였다. 가구주는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81.9% 이상이 생활비의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답하였으며, 현재 적자를 보고 있거나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에도 74.5%가 생활비의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답하여 가구주로서 생활비에 대한 책임이 높음을 나타내주었다.

2. 미취업자의 생계유지방법

미취업자의 경우 가구의 생계유지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답하게 하였다. 응답자의 48.6%가 함께 사는 가족, 친지의 소득이라고 답하였고 다음이 배우자의 소득이라고 답한 경우도 29.0%이다. 따로 사는 친척, 친지의 지원은 10.6%이다. 주된 생계유지방법은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별로 차이가 나는데 실업자의 경우 24.7%가 그동안의 저축으로, 그리고 13.9%는 빚을 얻어서 생활한다고 답하였다. 반면 비경제활

〈표 11-8〉 미취업자의 생계유지방법

(단위 : 명, %)

	전 체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배우자의 소득	1,997(29.0)	269(26.7)	1,728(29.4)
함께 사는 가족, 친지의 소득	3,345(48.5)	414(41.0)	2,931(49.8)
따로 사는 친척, 친지의 지원	733(10.6)	93(9.2)	640(10.9)
이자, 집세 등 재산소득	380(5.5)	37(3.7)	343(5.8)
그동안의 저축으로	931(13.5)	249(24.7)	682(11.6)
실업급여	39(0.6)	21(2.1)	18(0.3)
빚을 얻어서	448(6.5)	140(13.9)	308(5.2)
집, 토지 등 재산을 팔거나 줄여서	38(0.6)	10(1.0)	28(0.5)
영세민 보호 등 정부보조금으로	91(1.3)	2(0.2)	89(1.5)
퇴직금 또는 퇴직수당	112(1.6)	29(2.9)	83(1.4)
기타	123(1.8)	28(2.8)	95(1.6)

주: 미취업자 생계유지방법은 다중응답으로 %는 각각 미취업자 전체(6,890명), 실업자(1,009명), 비경제활동인구(5,881명)에 대한 비중임.

동인구는 과반수 정도인 49.8%가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족, 친지의 소득에 주로 답하였다.

第 4 節 1997年 末 經濟危機 以後의 變化

1.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임금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전체 응답자 중 59.2%가 임금이 줄어들었다고 답하였으며 변화 없다고 답한 경우는 37.2%이다. 임금의 감소폭은 평균 29.1%로 25~50% 사이인 경우가 가장 많다. 고용형태별로 임금 감소는 정규직보다

<표 11-9> 경제위기 이후 임금근로자의 임금 변화

(단위 : 명, %)

	전 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4,011(100.0)	3,054(100.0)	957(100.0)
임금이 늘어남	144(3.6)	94(3.1)	50(5.2)
변화 없음	1,493(37.2)	1,173(38.4)	320(33.4)
임금이 줄어들음	2,374(59.2)	1,787(58.5)	587(61.3)
15% 미만	583(24.6)	522(29.2)	61(10.4)
15~25% 미만	468(19.7)	378(21.2)	90(15.3)
25~50% 미만	626(26.4)	463(25.9)	163(27.8)
50% 이상	436(18.4)	210(11.8)	226(38.5)
모름/무응답	261(11.0)	214(12.0)	47(8.0)
평균 감소율(%)	29.1	25.3	40.1

주: 고용형태가 모름/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

〈표 11-10〉 경제위기 이후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변화

(단위 : 명, %)

	전 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4,011(100.0)	3,054(100.0)	957(100.0)
근로시간이 늘어남	435(10.8)	341(11.2)	94(9.8)
10% 미만	36(8.3)	30(8.8)	6(6.4)
10~15% 미만	154(35.4)	132(38.7)	22(23.4)
15~25% 미만	110(25.3)	80(23.5)	30(31.9)
25~50% 미만	38(8.7)	31(9.1)	7(7.4)
50% 이상	68(15.6)	42(12.3)	26(27.7)
모름/무응답	29(6.7)	26(7.6)	3(3.2)
평균 증가율(%)	27.3	24.2	38.2
변화 없음	3,056(76.2)	2,429(79.5)	627(65.5)
근로시간이 줄어듦	520(13.0)	284(9.3)	236(24.7)
15% 미만	68(13.1)	58(20.4)	10(4.2)
15~25% 미만	59(11.3)	37(13.0)	22(9.3)
25~50% 미만	89(17.1)	47(16.5)	42(17.8)
50~75% 미만	122(23.5)	30(10.6)	92(39.0)
75% 이상	35(6.7)	9(3.2)	26(11.0)
모름/무응답	147(28.3)	103(36.3)	44(18.6)
평균 감소율(%)	38.7	28.7	48.2

주: 고용형태가 모름/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

비정규직의 경우 더 많이 일어났고 감소폭도 심하다.

근로시간은 76.2%의 응답자가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없다고 답하였다. 근로시간이 늘어난 경우는 10.8%이며 증가율은 평균 27.3%이다. 감소한 경우는 13.0%이며 감소율은 평균 38.7%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24.7%가 근로시간이 감소하였다고 답하여 정규직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시간의 감소폭도 커서 평균 48.2%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과 임금의 변화를 같이 살펴보면 근로시간에는 변화가 없지만 소득이 줄어든 경우는 전체의 40.4%이다. 34.0%는 근로시간과 소득 모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답하였다. 정규직의 경우 34.7%가 임금과 근로시간 모두 변화가 없다고 답하였고, 43.2%는 근로시간은 변하지 않았지만 임금이 줄었다고 답하였다. 근로시간과 소득 모두 줄어든 경우는 전체 11.9%이었는데 비정규근로자의 경우 이 비중은 23.6%로 높아진다.

〈표 11-11〉 경제위기 이후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의 변화
(단위 : 명, %)

		근로시간 변화								
		임금근로자 전체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늘어남	변화없음	줄어듦	늘어남	변화없음	줄어듦	늘어남	변화없음	줄어듦
임금의 변화	늘어남	65 (1.6)	74 (1.8)	5 (0.1)	42 (1.4)	50 (1.6)	2 (0.1)	23 (2.4)	24 (2.5)	3 (0.3)
	변화 없음	93 (2.3)	1,364 (34.0)	37 (9.2)	82 (2.7)	1,061 (34.7)	30 (1.0)	11 (1.1)	302 (31.6)	7 (0.7)
	줄어듦	277 (6.9)	1,619 (40.4)	478 (11.9)	217 (7.1)	1,318 (43.2)	252 (8.3)	60 (6.3)	301 (31.5)	226 (23.6)

주: 고용형태가 모름/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
전체에서의 %는 전체 임금근로자 4,012명에 대한 비중이며,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는 전체 정규직 임금근로자 3,054명,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는 전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957명에 대한 비중임.

2. 비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체의 매출액 변화를 질문하였다¹⁸⁾. 응답자의 78.4%가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답하였다. IMF 이후 매출이 늘어났다고 답한 경우는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매출이 줄어든 경우 감소폭은 평균 48.9%으로 감소폭이 50~75% 사이인 경우가 가장 많다. 사업

18) 사업체의 매출 변화와 전업 고려 여부는 사업주(고용주와 자영업자)에 한하여 분석하였다.

체의 연평균 매출액별로는 매출액이 큰 사업체일수록 매출액이 감소되었다고 답한 비중이 증가한다. 그러나 감소의 정도는 1천만원 미만 사업체가 더 크다.

매출액의 감소로 인해 전업이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지 묻은 결과 82.9%는 현재의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다른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한 경우는 10.9%였는데 연평균 매출액이 낮을수록 그 비중은 커진다.

3.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점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정책에 대하여 묻은 결과 응답자의 34.5%가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취업알선을 도와줌, 기업이 해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의 순이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의 경우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함께 취업알선을 도와주는 것을 우선시하나 30대 이상으로 갈수록 기업이 해고되지 않는 것을 더욱 우선하고 있다. 이는 20대의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시기인 반면, 30대 이후에는 일자리의 안정성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연령이 낮을수록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지원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문제 해결 정책에 대해 실업자의 경우는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취업알선을 가장 많이 들었다. 취업자의 경우는 취업알선보다는 기업이 해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새로운 일자리창출 다음으로 중요하게 들었으며, 특히 임금근로자의 25.2%는 기업이 해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새로운 일자리창출 다음으로 중요하게 들었다. 직업훈련 또는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업자의 5.8%만이 우선적인 것으로 꼽았다.

〈표 11-12〉 경제위기 이후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매출액 변화

(단위 : 명, %)

	전 체	1천만원 미만	1천만~3천만원 미만	3천만~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전 체	1,800(100.0)	623(100.0)	654(100.0)	205(100.0)	318(100.0)
매출액이 늘어남	25(1.4)	8(1.3)	10(1.5)	3(1.5)	4(1.3)
별다른 변화 없음	363(20.2)	199(31.9)	101(15.4)	26(12.7)	37(11.6)
매출액이 줄어들음	1,412(78.4)	416(66.8)	543(83.0)	176(85.9)	277(87.1)
25% 미만	155(11.6)	37(8.9)	71(13.1)	18(10.2)	29(10.5)
25~50% 미만	427(30.2)	83(20.0)	186(34.3)	56(31.8)	102(36.8)
50~75% 미만	615(43.6)	201(48.3)	227(41.8)	80(45.5)	107(38.6)
75% 이상	205(14.5)	90(21.6)	57(10.5)	20(11.4)	38(13.7)
모름/무응답	10(0.7)	5(1.2)	2(0.4)	2(1.1)	1(0.4)
평균 감소율(%)	48.9	54.3	45.8	47.6	47.6
폐업 고려 여부					
폐업 안함	1,171(82.9)	332(79.8)	452(83.2)	148(84.1)	239(86.3)
다른 사업을 시작	154(10.9)	52(12.5)	58(10.7)	18(10.2)	26(9.4)
당분간 설 것임	87(6.2)	32(7.7)	33(6.1)	10(5.7)	12(4.3)

주 : 비임금근로자의 소득변화는 사업주인 경우(고용주, 자영업자)에만 한정하여 분석.
 연간 매출액이 모름/무응답인 44명은 분석에서 제외.

〈표 11-13〉 인구학적 특성별 실업문제 해결 정책

(단위 : 명, %)

		전 체	직업훈련/ 교육을 지원	취업알 선을 도와줌	실직자의 생계를 보호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기업이 해고되지 않도록 함	기타
전 체		13,227 (100.0)	1,074 (8.1)	2,743 (20.7)	1,814 (13.7)	4,568 (34.5)	2,582 (19.5)	446 (3.4)
연령	15~19세	1,558 (100.0)	236 (15.1)	420 (27.0)	209 (13.4)	480 (30.8)	198 (12.7)	15 (1.0)
	20~24세	1,251 (100.0)	127 (10.2)	347 (27.7)	119 (9.5)	446 (35.7)	185 (14.8)	27 (2.2)
	25~29세	1,474 (100.0)	149 (10.1)	299 (20.3)	186 (12.6)	509 (34.5)	287 (19.5)	44 (3.0)
	30~39세	3,027 (100.0)	270 (8.9)	563 (18.6)	369 (12.2)	981 (32.4)	748 (24.7)	96 (3.2)
	40~49세	2,535 (100.0)	154 (6.1)	495 (19.5)	322 (12.7)	935 (36.9)	536 (21.1)	93 (3.7)
	50~59세	1,682 (100.0)	74 (4.4)	319 (19.0)	235 (14.0)	654 (38.9)	336 (20.0)	64 (3.8)
	60세 이상	1,700 (100.0)	64 (3.8)	300 (17.6)	374 (22.0)	563 (33.1)	292 (17.2)	107 (6.3)
	경제 활동 상태	임금근로자	3,984 (100.0)	304 (7.6)	689 (17.3)	466 (11.7)	1,416 (35.5)	1,002 (25.2)
비임금근로자		2,404 (100.0)	189 (7.9)	429 (17.8)	325 (13.5)	865 (36.0)	458 (19.1)	138 (5.7)
실업자		1,008 (100.0)	58 (5.8)	282 (28.0)	132 (13.1)	387 (38.4)	124 (12.3)	25 (2.5)
비경제활동인구		5,831 (100.0)	523 (9.0)	1,343 (23.0)	891 (15.2)	1,900 (32.6)	998 (17.1)	176 (3.0)

주: 실업대책이 모름/무응답인 90명은 분석에서 제외.

附錄：說問紙의 構成 및 內容

1. 설문지 기본 목적

1998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첫째 조사는 개인의 배경 정보와 과거 경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주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제활동상태와 그에 관련된 배경에 대한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설문지의 구성은 가구용 설문지와 개인용 설문지로 나뉘어져 있고, 개인용 설문지는 다시 가구원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라서 임금근로자용 설문지, 비임금근로자용 설문지, 미취업자용 설문지로 나뉜다. 세 가지 개인용 설문지 중 어떤 설문지를 배부할지는 가구용 설문지에 포함되어 있는 몇 가지 선별기준 문항에 대한 응답에 따라 정해졌다. 임금근로자용 설문지는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응답하게 되어 있고, 비임금근로자용 설문지는 자기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임금을 받지 않는 고용주, 고용주가 가족이나 친지인 사업장에서 돈을 받지 않고 1주일에 18시간 이상 근로하는 가족종사자가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미취업자용 설문지는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일주일에 17시간 이하로 일을 하는 사람과 비경제활동인구, 그리고 실업자가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2. 설문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

가. 가구용 설문지

- 1) 가구주 : 가구원 중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
- 2) 가구원

- ①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 전원(과출부나 운전사 등 비인척은 제외)
- ② 부모와 비동거하고 있는 미혼 자녀 중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군복무를 하고 있는 경우
- ③ 부모와 비동거하고 있는 미혼 자녀 중 부모와 경제적 교류가 있는 경우

- (1) 무의탁 노인을 여러 명 모시고 사는 경우, 또는 길잃은 아이를 몇 년 동안 키워준 경우
 - ☞ 동거인은 일단 가구원으로 다 포함시킴. 그리고 가구주와의 관계는 '998'로 처리함. 그러나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가정부, 운전사 등)은 가구원에서 제외.
- (2) 재혼한 부부가 각각 2명씩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였고 재혼 후 둘 사이에 2명의 아이를 더 낳아서 자녀가 모두 6명임. 그러나 이 중 2명은 호적을 옮긴 상태임.
 - ☞ 현재 같이 살고 있는 4명의 아이만을 가구원으로 파악함.
- (3) 다른 가족들과 떨어져 가구주 혼자 거주하는 경우 : 가족구성원 모두를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나머지 가족을 모두 설문조사에 포함시킴.
- (4) 가구주나 가구원이 행방불명인 경우 : 가구는 대체하지 않고 행방불명인 가구원에 대해서 최소한 대리응답이라도 받음. 안 되는 경우에는 가구원 명단에라도 기록하도록 함.
- (5) 이혼 가구의 가구원 범위 : 이혼한 가구의 남편이 표집됨. 아이들은 이혼한 아내와 함께 살고 있고, 남편은 양육비를 제공하고 있음. 이때 아이들을 남편의 가구원으로 포함시키는지의 여부
 - ☞ 자녀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기준으로 함. 양육권이 부인에게 있으면 자녀는 남편의 가구원에서 제외되며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이때 남편이 지속적으로 주는 양육비는 남편의 생활비에 포함시켜야 함.

(6) 별거 가구의 가구원 범위 : 부인의 이름으로 표집이 되었고 현재 그 가구에는 부인과 자녀만 살고 있음. 남편은 지방에서 거주하며 1년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할 뿐이고 경제적인 교류도 전혀 없음. 부인은 남편이 가구원이 아니라고 주장.

☞ 남편을 가구원에서 제외시킴

(7) 같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기준 : 할머니가 자녀들의 집에서 번갈아 거주하는 경우

☞ 먼저 주로 거주하는 곳을 묻고 동등한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할머니가 소속된 가구로 함.

3) 비가구원

① 가구주의 미혼 자녀 중 재학이나 군복무가 아니면서 경제적 교류가 없는 경우

② 가구주의 기혼 자녀 중 따로 사는 경우

4) 평소 : 현재(조사 시점)로부터 지난 6개월간

5) 교육수준: 미취학,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로 구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동일 명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학력인 경우 그 학력을 인정

(1) 학교의 구분

☞ 외국어 고등학교, 과학고, 예술고 등은 '(5)기타 특수목적고'로 구분함.

☞ 5년제 농업학교 졸업은 전문대 졸업으로 분류

☞ 과거 2년제 교육대학교는 현재로 소급하여 '4년제 대학'으로 분류

☞ 중학교에는 고등공민학교가 포함됨.

☞ 전문대학에는 기능대학, 구 사범학교가 포함됨.

6) 일시휴직 : 직장이나 일거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잠시 일을 중단하거나 쉬고 있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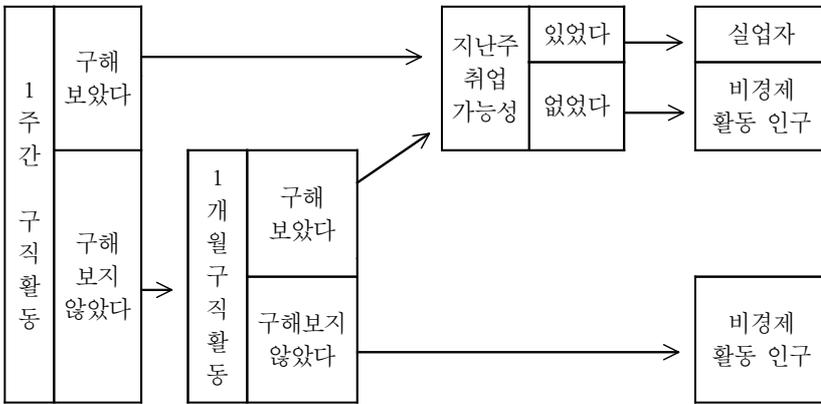
- (1)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체의 사정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회사에 계속 적을 두고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하는 경우를 의미
- (2) 자영업자의 경우: 자영업자가 '일시휴직'이라고 하면서 일감이 오기를 계속 기다리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하였음'에 해당되는 것임. 예를 들어 트럭을 가지고 혼자 운수업을 하는 경우, 일이 없어 하루 종일 일거리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냈다면 그 기간은 '일을 한' 기간에 포함됨. 그러나 자영업자가 아예 일하는 것을 포기하고 일과 상관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집에서 쉬었다면, 혹은 사업체의 문을 닫고 있었다면 '일시휴직'이라고 할 수 있음.
- (3)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속된 사업체가 없으므로 '일시휴직'이란 있을 수 없음. 일용근로자가 일거리를 찾기 위해 새벽시장 등에 나가서 시간을 보낸 경우는 (3)'구직활동'에 포함되며, 일이 없을 것을 미리 예측하고 일을 만들 만한 시기를 기다린다면 이는 (8)'기타 - 실망실업'에 포함됨.

- 7)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 :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것은 물론, 학생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식당과 가게를 운영하는 것 등을 포함.
- 8) 임금근로자 :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돈)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직장, 아르바이트, 부업 등 포함)
- 9) 비임금근로자 :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 사업, 프리랜서, 가게, 식당 등의 주인 혹은 농림수산업자.
- 10) 가족종사자 : 비임금근로자이면서 가족이 사업주인 사업체에서 평소 일주일에 18시간 이상씩 일을 하는 경우.
- 11) 미취업자 :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일거리나 직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경우. 또는 가족이나 친지가

사업주인 사업체에서 평소 일주일에 18시간 미만으로 일을 도운 경우.

- 12) 실업자 : 미취업자이면서, 지난 1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였고 지난 주에 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던 경우. 또는 지난 1주 동안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1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고, 지난 1주 동안 적당한 일자리가 있었다면 일을 할 의사가 있는 경우.
- 13) 비경제활동인구 : 미취업자이면서, 지난 1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적당한 일자리가 있어도 일을 할 수 없었던 경우. 또는 지난 1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고 지난 1개월 내에도 구직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경우. 그리고 지난 1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1개월 내에는 구직활동을 해본 적이 있고 지난주에는 적당한 일자리가 있더라도 일을 할 수 없었던 경우.

〈표 1〉 미취업자 분류



- 14) 보육시설 : 아이의 탁아와 보육을 목적으로 특정 시간 동안 아이를 맡아주는 곳.
- 15) 교육기관 : 아이의 학과교육이나 예체능 학습, 재능개발 등을 위하여 교육을 담당하는 곳.

(1) 보육시설·교육기관의 종류

(ㄱ) 가정교사가 집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하는 경우, 장애학 교 등의 특수학교

☞ ‘방문교육, 특수학교’ 문항으로 코딩.

(ㄴ) 유치원에서 오후에(정규교육시간 후) 추가로 돈을 내고 예 체능 교육을 받을 경우

☞ ‘보육’인지 ‘교육’인지의 구분이 모호하면 (6)‘보육’으 로 보고, 순수히 교육 목적으로만 오후에 맡기면 (8) ‘교육’으로 분류

16) 엄마 외에 돌봐주는 사람의 여부 : ‘엄마’란 말 그대로 생물학적 인 의미와 법적인 의미에서의 ‘어머니’를 의미한다

(1) 할아버지와 손주만 같이 사는 경우

☞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고 보고, 돌봐주는 사람은 (1)‘동거하 는 가족/친지’

17) 아이를 돌봐주는 비용 : 아이를 보살펴주는 것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대가. 명절이나 행사 때 이따금씩 주는 금액은 제외.

* 양육비 지불여부

아이가 소속되어 살고 있는 가구에서 양육비를 지불하는지의 여부가 기준이 됨. 만일 아이가 부모와 따로 떨어져 조부모에 게 맡겨진 경우 아이는 조부모의 가구에 소속된 것이 됨. 부모 가 아이 양육의 대가로 조부모에게 양육비를 지불하는 경우, 조부모는 양육비를 받는 입장으로 그 아이의 양육비를 다른 사람에게 지불하는 것이 아님. 이 경우 아이는 ‘동거하고 있는 가족·친지’가 돌보는 것이 되고 양육비는 ‘비지불’이 됨. 그러 나 아이가 소속되어 있는 가구에서 아이의 양육비를 누군가에 게(다른 가구원에게라도) 양육비를 지불하는 경우 양육비는 지 불되는 것임.

- (1) 조부모와 외손자로 구성된 가구. 아이를 돌봐주는 대가로 따로 사는 아이의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음.
 - ☞ 이 경우 엄마 이외에 돌봐주는 사람은 ‘동거하는 친척·친지’가 됨(1차적 책임자는 따로 사는 아이의 부모이므로). 조부모에게 주는 양육비는 조부모의 생활비(이전소득)로 처리되며, 아이 양육에 대한 비용지불 여부는 ‘비지불’이 됨
- (2) 아이와 부모, 조부모로 구성된 가구. 조부모가 아이를 돌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경우
 - ☞ 이 경우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은 ‘동거하는 친척·친지’. 또한 양육에 대한 비용지불 여부는 ‘지불’.

- 18) 주거상태 : 자가인지, 월세인지, 전세인지, 기타인지 구분.
- 19)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아파트(상가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용 건물 내의 주택, 오피스텔, 임시막사, 기타로 구분.

- (1) 상가아파트 - 주상복합건물로 1층은 상가이고 위층은 모두 아파트의 형태를 띠는 경우 아파트와 삶의 방식이 비슷하다고 보고 ‘(2)아파트’로 구분함.
- (2) 상가주택: 아래층이 모두 상가나 사무실이고 단독가구만 위층에 있는 경우. 이는 ‘(8)기타’에 포함시킴.
- (3) 비주거용 건물 내의 주택: 일반적으로 주거를 위한 공간이 아닌 곳, 예를 들어 미용실이나 세탁소 등의 한구석에서 주거를 겸하는 경우.

- 20) 주거비용 : 자가의 경우는 시가, 전세인 경우는 보증금, 월세와 기타인 경우는 보증금과 월세를 얼마나 내는지 알아봄.
- 21) 사회보험의 종류

- 국민연금
 - (1) 장애연금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지급
 - (2) 유족연금 : 연금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 (3)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유족이 없는 경우에 지급
 - (4) 반환일시금 : 연금을 받을 자격연수가 충족되지 않은 채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 일시금 지급.
- 사학·공무원·군인연금
 - (5) 사학연금 : 사립학교 교원이 퇴직한 경우에 지급
 - (6) 공무원연금 :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에 지급
 - (7) 군인연금 : 군인이 퇴직한 경우에 지급
 - (8) 반환일시금 : 연금받을 자격연수가 충족되지 않은 채 퇴직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
- 산재보험
 - (9) 휴업급여 :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 지급
 - (10) 장애급여 :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지급
- 보훈연금 및 실업급여·기타
 - (13) 보훈연금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
 - (14) 실업급여 : 직장에서 실직당할 경우에 지급
 - (15) 기타

22) 사회보험의 수급 : 받고 있는 해당 사회보험의 명칭을 적고, 그 사회보험을 받는 사람의 이름을 적도록 함.

- (1) 사회보험의 수혜자 : 공무원이었던 남편이 1995년 사망해서 공무원연금이 부인 앞으로 계속 나오고 있음. 사회보험의 수혜자를 남편 이름으로 적어놓았는데 남편이 사망하여 가구원이 아닌 경우
 ☞ 수혜자는 부인으로 응답.

- 23) 근로소득 : 근로(일)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을 말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봉급, 자영업 소득 등이 포함.

(1) 월평균 근로소득의 계산 : 설문지의 본래 의도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의 총소득의 합을 12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다시 한번 확인 질문을 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응답 거부 등의 문제로 인해 후에는 응답자의 응답을 그대로 존중하기로 함. 그 구분을 위하여 새로운 문항을 만들어 응답자의 원응답은 1, 조사원이 응답자의 확인없이 계산하여 낸 답(계산치)에 대해서는 2, 응답자의 확인하에 원래의 의도대로 지난 1년간의 평균을 낸 응답(검증치)에 대해서는 0으로 함.

- 24) 금융소득 :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
- 25) 부동산소득 :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이 포함.

(1) 집을 전세주어서 1천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함. 그러나 부동산 소득은 없다고 응답
 ☞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득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음. 월세나 매매차익 등이 부동산 소득에 포함됨. 이 경우 부동산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기로 함.

- 26) 이전소득 :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친척·친지로부터 받는 지원금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없이 받는 보조금(단, 연금 등 사회보험에서 받은 소득은 제외).
- 27) 기타소득 : 보험금 지급이나 복권 탄 돈과 같이 앞의 다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의미.

- (1) 장례나 혼례의 부조금, 퇴직금 ☞ 기타소득
- (2) 생활보호대상연금, 경로우대교통비, 빈민생활보호조금 ☞ 공적 부조이므로 이전소득
- (3) 보험금, 보험만기금 ☞ 기타소득

28) 부채 : 부채에는 은행, 회사,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개인에게 빌린 돈, 그리고 갯돈을 미리 타고 계에 대한 잔금을 계속 지불하는 것도 포함.

나. 임금근로자용 및 비임금근로자용 설문지

1) 직장의 소속형태 : 민간회사나 개인사업체, 외국인 회사,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 (재단·사단)법인단체, 정부기관(공무원·군인), 특정한 곳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기타로 구분.

- (1) 회사의 소유주가 외국인이고, 우리 나라에 지부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소유지분을 외국인이 더 많이 가진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윤이 모두 외국인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 ☞ 외국인 회사
- (2) 외국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소유주가 우리 나라 사람이며 경영상 생기는 이윤이 대부분 우리 나라에 귀속되는 경우. 단지 브랜드만 우리 나라에서 로열티를 제공하여 사용하는 경우 ☞ 민간 회사
- (3) 아파트 경비
 - ☞ 아파트 관리실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7) 기타’,
 - ☞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1)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2) 비정규직 근로자 : 단기간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등 한 직장에서 일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

(1) 파출부, 건설일용 ☞ 비정규직으로 분류해야 함.

3) 약속(계약)한 근로계약 기간 : 사용주와의 근로기간 약속(또는 계약)이 반복적으로 계속될 경우에도 한 번에 약속(또는 계약)하는 근로기간만을 응답.

4) 근로시간

(1) 시간제 근로 :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과 같이 일이 시작할 때 몇 시간이나 일(근로)할 것인지 미리 정한 경우.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일하는 경우도 포함.

(2) 전일제 근로 : 몇 시간 동안 일할 것인지 정하지 않고 하루 종일 근로하는 일반적인 경우.

5) 근로 형태

(1) 상용근로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2) 임시근로 :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인 근로자.

(3) 일용근로 :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많은 경우 하루 단위로 계약을 맺음)

(4) 동일 직장에서 계속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임시이면 '임시근로자'에, 일용이면 '일용근로자'에 표시.

6) 일의 규칙성 : 일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직장(일거리)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것은 규칙적인 것. 직장 또는 일거리 자체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경우는 불규칙적인 것임. 일의 규칙성은 '규칙적이다', '불규칙적이지만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불규칙적이고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로 구분.

(1) 농업의 경우 : '규칙적'인 것으로 보도록 함.

7) 임금 : 임금의 기본급, 상여금이 나누어지는지, 월평균 임금의 총계는 현재 체불되어 있는 임금(즉 지금은 못 받고 있지만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포함하여 평소 임금을 기입하여야 함.

(1) 기본급과 상여금의 합과 세금 후의 월평균 임금이 맞지 않는 경

우

☞ 임금 내역과 월평균 임금의 차이가 월평균 기준 20% 이하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 20% 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함. 이는 임금결정방식이 연봉계약제인 경우에도 적용됨. 세금 후의 월평균 임금의 1년 합과 연봉의 차이가 연봉 기준 20%가 넘는 경우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함.

(2) IMF 이후 임금을 못 받고 있거나 임금이 감소하여서 세금 후의 월평균 소득에 현재 받고 있는 액수만을 쓴다든지 ‘(2)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

☞ 원칙은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을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로 예정된 금액을 기입하는 것임. 따라서 체불된 경우 체불된 임금까지 적어야 함. 따라서 상여금의 경우도 실제로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도상으로는 남아 있고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제도상의 액수를 써야 함. 하지만 현재 상여금 제도가 아예 없어졌다고 하면 상여금은 0%가 되어야 함. 제도는 그대로 있는데 현재 상여금을 반납하는 형식으로 전혀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언제부터 다시 받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는 상여금 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상여금은 0%가 되어야 함.

(1) 5~6인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데 현재는 조업중단으로 임금이 나오지 않고 있음. 이 경우 월평균 근로소득의 계산은?
☞ 임금이 체불된 경우,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체불된 임금을 포함하여 원래 받기로 되어 있는 평소 임금을 응답하여야 함.

8) 비임금근로자의 매출액과 월평균 소득 : 매출액은 1년 동안 판매를 하거나 생산을 하여 얻은 총액을 의미. 농림수산업은 판매하여 얻은 수입을 기록하고, 생산에 투자한 비용도 포함.

다. 미취업자용 설문지

1) 퇴직금

- (1) 조사한 시점에서 퇴직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전혀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받을 예정인 경우
 ☞ 근시일 내에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퇴직금과 퇴직수당을 ‘받았다(예정이다)’라고 봄.
- (2) 퇴직금을 나눠서 앞으로 5년 정도 계속 받을 예정인 경우
 ☞ ‘일부만 받았다’고 함.
- (3) 공무원의 경우 퇴직금과 연금의 구분
 ☞ 공무원의 경우 연금은 사회보험에 포함되며 퇴직금에 해당되지 않음.
- (4)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하여 오랜 기간 동안 받아 온 경우. 이 경우 퇴직금의 액수
 ☞ 마지막 해에 받은 금액만 기입함.

라. 공통 문항

1) 이전직장의 인정

- (1) 명예직의 경우
 ☞ 부업에 대한 정의에서 “수입이 있는 일들만 포함되며, 돈을 받지 않는 사회봉사활동 등은 제외됩니다”라고 되어있음. 이 기준은 이전직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명예직의 경우 월급을 받지 않았다면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전직장의 경력으로 볼 수 없음.
- (2) 실습생의 경우
 ☞ 실습생 제도에서는 원래 고등학교 3학년 1년간만 실습을 하기로 되어 있음. 다시 한번 응답자에게 확인하도록 함.

그러나 3년 동안 실제로 학교 안에서건 밖에서건 실습을 한 경우에는 이전직장으로 인정함.

2) 직장 경력 : 15세 이후 한 일 중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씩 2개월 이상 일(사업, 근로)을 한 경우만을 직장 경력으로 인정.

- (1) 일반적으로 군대복무 경험을 기준으로 직업경력을 둘로 분리함.
 - (ㄱ) 농업이나 건설일용의 경우 군대복무를 기준으로 직업 경력을 분리함.
 - (ㄴ) 그러나 동일한 회사에 적을 두고 군대를 다녀와 다시 복귀한 경우는 동일한 직업경력으로 인정함.
- (2) 종사상지위가 바뀐 경우 직업경력 분리
 - (ㄱ) 음식점에서 1996년부터 월급을 받으며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1998년부터 투자금을 내고 주주로 인정을 받아 동일한 음식점의 경영자가 됨.
 - ☞ 직업경력을 분리함
 - ☞ 그러나 부부가 같이 벼농사를 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종사상지위가 가족종사자에서 자영업자로 바뀐 경우는 분리하지 않음.
- (3) 교사·공무원의 경우 : 교사, 공무원이 전출이동을 한 경우는 한 직장에서 근로한 것으로 간주함. 교사의 경우 공립학교 내에서 4년에 한 번씩 옮긴 것은 분리하지 않음. 그러나 교사가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옮긴 경우나 초등학교 교사가 임용고사를 보고 중고등학교로 옮긴 경우에는 직업경력을 분리함.

3) 군대복무 경험 : 군복무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을 의미.

- (1) 사관학교를 다녀서 곧바로 직업군인이 된 경우
 - ☞ 사관학교를 다닌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넣고 나머지 장교로 근로한 기간은 직업경력으로 분리함
- (2) 병역특례의 경우
 - ☞ 방위산업체에서 일한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도 넣고 직업 경력으로도 넣음
- (3) 일반병으로 복무를 하다가 직업군인이 된 경우
 - ☞ 병장까지만 의무복무기간으로 보고 나머지는 직업 경력으로 분류함
- (4) 하사관으로 군대에 입대한 경우
 - ☞ 곧바로 하사관으로 들어간 경우, 나이를 감안하여 당시의 의무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기입해 주고, 이전직장 경력으로도 인정함
- (5)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장교로 입대한 경우
 - ☞ 당시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 정도로 보아 기입해주고 이전 직장 경력으로도 인정함
- (6) 학사장교의 경우
 - ☞ 학사장교 3년2개월을 경력으로 넣은 경우, 학사장교는 비록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의무복무를 것이므로 의무복무기간에만 포함시키고 이전직장 경력에서는 제외함

